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정책학박사 학위논문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 간 메커니즘 연구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전공

유 재 은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 간 메커니즘 연구

지도교수 이 석 원

이 논문을 정책학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 년 4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유 재 은

유재은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 년 6 월

위 원 장 박 정 훈 (인)
부위원장 이 석 원 (인)
위 원 정 광 호 (인)
위 원 김 종 성 (인)
위 원 손 호 성 (인)

국문 초록

청년실업률은 2023년 1분기 기준 6.7%로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실업률 2.6%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청년 중 '구직단념청년(일명 니트족)'의 수가 역대 최대치로 나타나면서, 청년층의 고용시장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실정이다(통계청, 2023a). 이에 정부에서도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창업 정책의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 상승 폭은 크게 변하지 않으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창업 지원 정책 대부분이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지원 및 부처 중복 지원으로 무분별한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창업자금 또한 단기실적 위주의 정책에 국한되어 효과가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단기적으로 창업률 증가를 보일지 모르겠으나, 무분별하고 중복적인 창업 지원 정책으로 창업기업 수가 늘어난 만큼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장된 고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업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창업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가정신 교육이 선행된 창업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창업가가 지원 혜택을 효과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면적이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의되고 확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단순하게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의 창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회 추구 과정, 무엇인가 새롭게 창출해내는 성과, 기회 포착 및 기업가적 능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정의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진취성, 혁신성, 자율성, 위험감수성의 개념은 기업가적 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으로 보고, 이를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으로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기업가적 지향성 이외에 다른 내부적 요인으로는 기업가적 역량(지식 및 기술, 경험 등),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로 봄으로써, 기업가정신이 기업가적 의도 및 기업가적 행동이라는 기업가적 이행으로 연결될 때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정신의 내부적 요인을 고취시키고 외부적 장애요인을 제거함에 따라 기업가적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을 수행하고, 기업가정신이 고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적 이행으로 연결되는데 작용하는 여러 가지 외부적 장애요인을 고려하였다. 네트워크(인맥), 재정적 지원, 주관적 규범, 사회문화적 인식 등의 여러 가지 외부적 장애요인이 작용한다면, 기업가적 이행이 원활하게 이어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고려하여 외부적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과 실질적으로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의 교육정책에 대한 역할을 정의하고,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의 변화양상을 살펴본다. 또한, 기업가정신 역량 및 지향성이 고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기업가적 이행으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을 수행하고 수립하는데 외부적 요인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여 고려함으로써, 기업가정신 정책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메커니즘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고취되고 기업가적 이행으로 연결된다는 과정을 선행연구 및 기존 이론 연구를 통해 ToC(Theory of Change) 이론적 분석 틀을 설정한다. 그 다음 기업가적 이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기업가적 행동 및 창업 등으로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적 참여 교육들(네트워킹, 멘토링, 인턴십, 실제 창업가의 강연 등)을 통해 기업가적 의도 및 행동으로 이행되는데 작용하는 외부적 장애 요인들을 연구한다. 특히, 기업가정신 실천적 교육을 통해 기업가적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메커니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수행되고 기업가정신이 고취되는 과정과 외부적 요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가적 이행으로 원활하게 연결되기까지 미치는 다양하게 얽혀있는 복잡한 영향요인 및 관계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2장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이론적 분석 틀을 제시하는데 ToC(Theory of Change) 이론을 차용하고자 한다.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기업가적 행동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이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그 다음, 3장에서는 ToC를 활용하여 제시한 분석 틀을 토대로 메커니즘의 연결 고리가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방법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이후 4장과 5장에서는 분석 틀을 토대로 기

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기업가적 이행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의 효과를 질적연구방법인 주제분석과 양적연구 방법인 경로분석 및 조절효과 분석을 통하여 메커니즘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업가적 이행을 높일 수 있는 기업가정신 실천적 교육정책의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의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분석을 통해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경로분석과 조절효과 분석을 통하여 양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다른 기업가정신 정책보다는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더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더 나아가, 외부적 요인을 통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조가 기업가정신 실천교육과 외부적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기업가정신 교육정책, 기업가 실천적 교육, 기업가정신, 기업가적 지향성, 기업가적 역량, 외부적 장애요인, 기업가적 이행, 메커니즘

학 번 : 2018-30742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의 구성 ····· 12

제 3 절 연구의 의의 ····· 15

제 2 장 이론적 논의 ····· 18

제 1 절 이론적 배경 ····· 18

1.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 18

2. 기업가적 이행에 관한 연구 ····· 42

3. 기업가정신 정책에 대한 논의 ····· 54

4.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논의 ····· 74

5. 기업가정신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 81

제 2 절 이론적 분석 틀 ····· 98

1.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 간 영향요인 관계 ····· 98

2. 연구 전체 분석 틀 ····· 103

제 3 장 연구 설계 ····· 107

제 1 절 연구 방법 ····· 107

1. 분석 방법 ····· 107

제 2 절 분석의 타당성 논의 ····· 112

제 4 장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 메커니즘 분석 ····· 117

제 1 절 주제분석 개념 ····· 117

제 2 절 주제분석 방법 ····· 119

1.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 120
2. 주제분석 결과 ····· 125

제 5 장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에 대한 실증분석 ····· 160

제 1 절 기초 통계량 ····· 160

1. 데이터와 변수정의 ····· 160
2. 기초 통계 ····· 163

제 2 절 기업가적 이행으로의 메커니즘 분석 ····· 165

1. 기업가적 지향성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68
2. 기업가적 역량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79
3.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가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86

제 3 절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94

1. 주요 영향요인 분석 ····· 194
2. 전체 영향요인 종합 분석 ····· 198

제 6 장 결론 ····· 204
제 1 절 종합 결론 ····· 204
1. 결론 및 요약 ····· 204
2. 분석 방법에 따른 종합 결론 ····· 209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 219

참고문헌 ····· 227

[부록1]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286
[부록2] 경로분석 결과 ····· 294
[부록3] 구성타당성 분석 결과 ····· 308

Abstract ····· 310

표 목 차

[표 1] 기업가정신의 정의 및 개념 정리표 ····· 21
[표 2] 기업가적 지향성을 나타내는 구성 요인 ····· 23
[표 3]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의 영향요인 관계 ····· 34
[표 4] 외부적 요인의 영향요인 관계 ····· 41
[표 5] 기업가적 이행과 관련한 영향요인 관계 ····· 50
[표 6] 창업진흥원 운영 창업 지원 정책사업(2023년 기준) ····· 62
[표 7]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의 영향요인 관계 ····· 80
[표 8] 기업가정신 실천의 용어 정의 ····· 91
[표 9]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을 구성하는 활동 요소 ····· 94
[표 10]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미치는 요인 변수 ····· 97
[표 11]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 간 영향요인 관계 ····· 99
[표 12] 심층 면접 참여자 특성 ····· 119
[표 13] 실무적 교육(T1)에 대한 주제 영역 분석 결과 ····· 129
[표 14] 역량(T2)에 대한 주제 영역 분석 결과 ····· 138
[표 15] 경험(T3)에 대한 주제 영역 분석 결과 ····· 141
[표 16] 네트워크(T4)에 대한 주제 영역 분석 결과 ····· 144
[표 17] 재정적 지원(T5)에 대한 주제 영역 분석 결과 ····· 147
[표 18] 주관적 규범(T6)에 대한 주제 영역 분석 결과 ····· 150
[표 19] 사회적 인식(T7)에 대한 주제 영역 분석 결과 ····· 151
[표 20] 기업가정신(기업가적 지향성)(T8)에 대한 주제 영역 분석 결과 ····· 154
[표 21] 주제분석에 따른 대표 주제 설정표 ····· 158
[표 22]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변수 정의 ····· 161
[표 23] 기초통계량 분석 결과 ····· 164
[표 24] 경로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 166
[표 25] 기업가적 지향성 경로분석 결과 (모델 III) ····· 170

[표 26] 기업가적 지향성이 의도에 미치는 외부요인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 175
[표 27] 기업가적 지향성이 행동에 미치는 외부요인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 177
[표 28] 기업가적 역량 경로분석 결과 (모델 III) …… 180
[표 29] 기업가적 역량이 의도에 미치는 외부요인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 183
[표 30] 기업가적 역량이 행동에 미치는 외부요인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 184
[표 31]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경로분석 결과 (모델 III) … 187
[표 32]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가 의도에 미치는 외부요인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 192
[표 33]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가 행동에 미치는 외부요인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 193
[표 34]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 간 영향요인 분석 결과표 …… 218
[표 35] 기업가정신 정책이 기업가적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 286
[표 36] 기업가정신 정책이 기업가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 287
[표 37] 기업가정신 정책이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 288
[표 38] 기업가정신 정책이 외부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 290
[표 39] 기업가정신이 기업가적 의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 292
[표 40] 모델 I 경로분석 결과 …… 294
[표 41] 모델 II 경로분석 결과 …… 299
[표 42] 모델 III 경로분석 결과 …… 302
[표 43] 모델 III 분석 결과 분해 …… 305
[표 44]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 308
[표 45]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 308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 전체 구조도 ····· 14
[그림 2] 창업의도 모델 ····· 43
[그림 3] 계획된 행동이론 모델 ····· 44
[그림 4] 기업가 사건이론 모델 ····· 48
[그림 5] 기업가정신 정책사업 예산 규모 및 사업 수 추이 ····· 64
[그림 6] 기업가정신 정책지원금 및 기업가정신 교육정책 참여율 추이 ····· 64
[그림 7]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 내에서 미치는 영향 ····· 100
[그림 8]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간 미치는 영향 ····· 100
[그림 9]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 ····· 101
[그림 10]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 102
[그림 11] 기업가정신 실천교육과 기업가적 이행 간 미치는 영향 ····· 102
[그림 12]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체 이론적 분석 틀 ····· 106
[그림 13] 워드 클라우드 결과 ····· 123
[그림 14] 키워드 중심도 분석 결과(20개 단어) ····· 124
[그림 15] 키워드 중심도 분석 결과(50개 단어) ····· 124
[그림 16] 주제분석 결과에 따른 메커니즘 영향도 ····· 159
[그림 17] 기업가적 지향성의 경로분석 결과 ····· 171
[그림 18] 기업가적 지향성이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의 조절효과 메커니즘 ····· 173
[그림 19] 기업가적 지향성이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의 조절효과 메커니즘 ····· 174
[그림 20] 기업가적 역량 경로분석 결과 ····· 182
[그림 21] 기업가적 역량이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의 조절효과 메커니즘 ····· 185

[그림 22] 기업가적 역량이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의 조절효과 메커니즘 ····· 185
[그림 23]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경로분석 결과 ····· 189
[그림 24]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가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의 조절효과 메커니즘 ····· 190
[그림 25]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가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의 조절효과 메커니즘 ····· 191
[그림 26] 주제분석으로 도출한 주요 영향요인 관계 ····· 195
[그림 27] 주요 영향요인 분석 결과 ····· 197
[그림 28] 기업가정신 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전체 결과 ····· 200
[그림 29]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에 대한 경로분석 및
조절효과 분석 전체 결과 ····· 201
[그림 30]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에 대한 주제분석 및
경로분석 전체 결과 ····· 202
[그림 31]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 간 전체 메커니즘 ····· 203
[그림 32] 기업가정신 정책과 기업가적 지향성 간 메커니즘 ····· 287
[그림 33] 기업가정신 정책과 기업가적 역량 간 메커니즘 ····· 288
[그림 34] 기업가정신 정책과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간
메커니즘 ····· 289
[그림 35] 기업가정신 정책과 외부적 요인 간 메커니즘 ····· 291
[그림 36]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적 이행 간 메커니즘 ····· 293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① 창업 확대의 필요성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0.7%를 기록했고, 이후 회복하여 성장하고 있으나 2022년 경제성장률은 2.6%로 지속적인 저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KOSIS, 2022). 이러한 저성장 기조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기술 발전이 더해지면서 기존 고용시장에서는 구조조정 등의 압박으로 위협받고 있고,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행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 고용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청년실업률은 2023년 1분기 기준, 6.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전체 실업률 2.6%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통계청, 2023a). 또한 2023년 2월 고용동향에서도 일하지 않고 쉬었다는 일명 '쉬는 청년', '구직단념청년' 및 '니트족(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의 수는 약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2023a) 청년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난제인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청년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뿐이었다.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청년층의 상용 근로자[1] 수는 전년 대비 4만 5천 명 감소한 반면 임시직 및 일용직[2] 수는 늘어난 추이를 보였다(통계청, 2023b)..

---

1)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중 안정적으로 고용된 자를 말하며, 임금을 받기로 한 상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상임.

2) 임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1개월 미만임.

업종과 안정성 측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년실업률은 감소하였지만 일자리의 질은 악화되었고 청년층의 불안감은 여전히 큰 상황인 것으로 진단해볼 수 있다.

이에, 일명 '고용 없는 성장'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 시대 속에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고용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윤지수 & 현병환, 2017; 이원준, 2016). KDI(2017) 연구에 의하면, 창업 이후 기업이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3]'으로 성장했을 때 평균적으로 약 2,000명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국가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 효과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이라는 행동은 혁신 지식의 파급 효과로 인하여 산업구조를 변혁해 가며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재, 2009). 더 나아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취업자 수 증가의 약 90%가 창업기업의 고용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벤처기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76만 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삼성, SK, 현대, LG, 롯데의 국내 5대 대기업이 고용한 75만 명을 넘어서는 수치였다(서성열 외, 2019).

이러한 결과는 창업의 확대가 고용 창출 및 청년실업률 해소, 경제성장의 대안으로서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다른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많은 연구에서 창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존 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 높다고 증명한다(Acts & Armington, 2004; Andersson & Noseleit, 2011; van Stel & Suddle, 2008). 유럽의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고 분석한다(van Stel & Storey, 2004).

②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업 정책 방향

이처럼 창업기업 활성화 필요성에 의하여 정부는 창업 확대라는 기조

3)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서 10년 이하 회사를 의미함.

아래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전부 개정하였다(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는 추이도 확인할 수 있다. 창업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 6,158억 원부터 2021년 기준 1조 5,179억 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2). 또한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이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청년정책 분야별 과제 수를 살펴보면 전체 5개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390개 정책 중 일자리 분야에 해당하는 과제 수는 146개로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과제 수는 약 42%로 일자리 분야에서 청년 창업 정책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그러나 정부의 창업 정책 예산 및 지원사업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 수의 상승 폭은 크게 변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창업 지원 정책 대부분이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지원이거나, 부처 간 중복 지원, 단기실적 위주의 창업자금지원 정책에 국한되는 등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다(박일주 & 최종민, 2019; 전인오, 2012). 이처럼 우리나라 창업 지원정책은 단기적으로 창업률 증가 양상을 보일 수 있겠지만, 무분별하고 중복적인 창업 지원정책으로 창업기업 수가 늘어나더라고 그만큼의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장된 고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업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창업 지원정책 및 무분별한 정책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양질의 창업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가적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 확산 및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준비가 필요하다. 단편적인 지원으로 창업기업 수만을 늘리는 것이 아닌, 기업가로의 이행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을 고취하여 잠재적인 예비 창업자들의 창

업 의도를 높이고, 창업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가정신을 통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문화 등이 확산됨으로써 창업기업 운영 및 기업 유지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국가 간 비교했을 때 전 세계 50개국 중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만큼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고 창업이 활성화 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항목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학 이상 기업가정신 교육 수준은 19개국 중 14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고, 정부 규제 적절성(7위), 정부 기업지원 프로그램 효과성(8위), 시장 진입의 용이성(13위),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정도(15위)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진입의 용이성이나 기술이전 등 원활한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창업 정책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창업 정책 방향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③ 기업가정신 고취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일명 '파괴적 혁신' 기업으로 창업 시장에서 논란이 되었던 택시 플랫폼 '타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로앤굿'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굿닥' 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 규제와 기존 그룹과의 갈등으로 시장 진입 장벽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해 창업생태계에서 기업가정신과 혁신성을 내세우며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Schumpeter(1934)에 따르면, '창조적 파괴'를 기업가의 역할로 강조하며, 경제활동을 통해 혁신을 추구하는 5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제품, 새로운 공급처, 새로운 생산 방법, 새로운 시작, 새로운 조직 구조 등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활동을 혁신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창의와 혁신을 추구하는 의지와 열정을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라고 정의

했다. 즉, 경제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혁신성을 기업가정신의 중요한 요소로 본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디지털 시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을 전제하는 다양한 창업기업의 출현과 역할이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다큐멘터리 영화 '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전제된 '타다'의 팀원들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달리고 있는 스타트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권명국, 2021).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고 디자인에 집중하는 등 '빠르게 실행하고 빠르게 개선'한다는 표어를 실천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스타트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가정신, 즉 '스타트업 정신'이다.

비록 타다, 로톡 등 새로운 플랫폼 시장의 혁신이 기존 그룹과의 갈등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대 발전에 따라 점차 변화하고 있는 창업생태계의 문화와 (예비) 창업자가 지녀야 하는 기업가정신 개발을 통해 더 많은 혁신을 제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많은 창업기업의 출현과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된다. 즉,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선행된 창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창업가가 지원 혜택을 효과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창업 이행단계에 있는 (예비)창업가뿐 아니라, 잠재적 기업가들도 창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한 창업문화 확산도 필요하다(Liñán et al., 2011). 유럽연합은 기업가정신을 평생 기술로 정의했고 기업가적 태도를 전체 교육 범위에 걸쳐서 육성하고 개발할 것을 회원국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6).

최근 기업가정신은 정부 의제와 학계 전반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기업가정신 교육은 전 세계 국가의 중요한 과제

로서 여겨지고 있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Kuratko, 2005; Mitra & Matlay, 2004). 기업가정신은 기업 창출 활동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데 교육 역할의 중요성도 함께 주목되고 있다(Liñán et al., 2011). 무엇보다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업가정신이 궁극적으로 고용과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Audretsch et al., 2011). 따라서 기업가정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잠재적 기업가들이 창업 행동으로 연결되고 많은 기업가가 양산되어 고용 창출 및 국가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 있어야 한다(Rauch & Hulsink, 2015).

정리해보면 결국 창업 행동은 고용증대와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행,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기업가로 이행하는데 기업가정신을 고취하여야 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편적이고 중첩되는 단기 성과 집중의 지원정책이 아닌, 기업가적 이행과 향후 기업 운영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정책 및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 기업가적 이행으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전체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이행에 대한 메커니즘을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연구 필요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적 이행(창업 의도 및 행동)을 도모하는데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 중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결국 기업가정신이 요구된다. 특히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창업 지원정책 중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가적 이행을 위해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에 대한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고취되어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기업가정신이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Audretsch et al., 2007; Henrekson & Stenkula, 2010; Hoffman, 2010; Shahrzad et al., 2010)를 비롯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의 다양한 요인들(기업가적 지향성, 기업가적 역량, 자기효능감, 기회 식별, 긍정적 태도 등)을 고취할 수 있다는 연구(Hannon, 2006; Liñán 2004; OECD, 2022; Potter, 2008)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이 기업가정신 교육에 의해 고취되기 쉽다는 주장이 다수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명확하게 확립한 연구 결과는 찾기 어렵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Marques et al., 2012).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창업과 같은 특정 행동 유형을 예측하는데, 그 행동을 관찰하기 어렵거나 행동으로 연결되는 데 여러 영향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고취되었다고 하더라도, 창업이라는 직접적인 행동이 발생하는 데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인 외부적 영향요인과 변수가 무수히 발생하게 된다. 이에 기업가정신 고취가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 또는 기업가정신 교육효과를 파악하는 데 창업이라는 직접적인 행동 대신 '의도'로 파악하는 연구가 기존에 많이 이루어져 왔다(Krueger & Brazeal, 1994).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의도에 간접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Krueger & Brazeal, 1994; Krueger & Carsrud, 1993; Liñán & Chen, 2009)와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이행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Liñán 2004; Fayolle et al., 2006a)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정신을 고취함으로써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정신의 고취, 기업가적 이행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확인하고자,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공했을 때 기업가정신이 고취되었는지 혹은 기업가적 이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로써 기업가정신 고취나 기업가적 이행 등으로 여겨지는 성과를 파악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성을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기업가적 이행에서 창업이라는 특정 행동이 발생하는 데는 여러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행동보다는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이행에 기업가정신 교육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행 관계 간 존재할 수 있는 여러 내부적·외부적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실질적으로 기업가적 의도나 행동으로 이행되는데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장벽 요인까지 고려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Rauch & Hulsink, 2015). 즉 단편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의 교육성과나 효과성 파악 여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정신 고취가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파악하는데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적 요인(기업가적 지향성, 역량,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태도 등)을 살펴보고, 기업가정신이 고취되었더라도 기업가적 이행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외부적 장애요인(네트워크, 재정적 지원, 주관적 규범, 인식)의 영향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기업가적 이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외부적 장애요인들을 줄여서 기업가로서의 이행을 더 원활하게 도모할 수 있는데(Rauch & Hulsink, 2015), 이러한 장애요인을 줄이고 기업가적 이행으로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한 교육의 실천적 측면과 실무 경험적 행동에도 주목해보고자 한다(Drucker, 2007; Timmons, 1994). 이론 중심의 기업가정신 교육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경험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업가정신 실천교육(EPr, Entrepreneurship Practice)을 통해 기업가정신의 내부

적 요인을 더 고취하고 외부적 장애요인을 극복함으로써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도 확인하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리하자면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을 도모하는데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고취되었더라도 여러 가지 외부적 장애요인이 작용한다면 기업가적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외부적 장애요인을 줄임으로써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기업가적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의 이론적 중심 형태의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기업가적 지향성, 역량, 기회 식별 등의 내부적 요인을 고취함으로써 창업 주제에 대하여 익숙한 관점을 취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기업가적 이행에 있어서 필요한 네트워크 요인, 주관적 규범, 사회문화적 인식 요인 등은 실질적인 기업가적 행동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기업가적 이행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의 교육정책과 기업가정신의 내부적·외부적 요인의 메커니즘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을 받아 기업가정신 역량 및 지향성이 고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적 요인의 영향으로 기업가적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또한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의 효과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할 것이다. 네트워크, 주관적 규범, 사회문화적 인식 등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장애요인(Rauch & Hulsink, 2015)을 극복했을 때, 기업가정신이 더 고취될 수 있도록 기업가적 실천 및 행동을 강조하는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정책과 관련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연구 목적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가정신을 고취하여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 데 있다. 즉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 간의 내부적·외부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파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밝힐 수 있다.

특히,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을 지원받아 기업가정신이 고취되었음에도 다양한 외부적 영향요인으로 인해 기업가적 이행으로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더욱 촉진하고 외부적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기업가적 이행으로 더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함이다.

이에 정부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을 수행하고 수립하는데 외부적 요인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여 고려함으로써, 기업가정신 정책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기존의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은 단순 기업가정신 고취라는 성과에만 목적성을 두고 이루어지거나, 기업가정신 고취가 되었더라도 기업가로의 이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트워크, 주관적 규범, 사회문화적 인식 등의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기업가로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결국 정책의 궁극적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외부적인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기업가적 이행을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구성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외부적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이라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고, 이러한 교육정책 개입의 형

태가 실천과 행동이 강조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또 그 효과의 방향성을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개선되고 기업가적 이행으로 더욱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 2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기업가정신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인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행동으로의 실질적인 이행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것이다. 즉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데까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기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기존 연구 및 이론들을 정리하여 기업가정신에 대해 정의하고 기업가정신 고취의 중요성을 파악할 것이다. 이후 기업가적 이행(기업가적 의도 및 행동)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가적 이행으로 연결되는 데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검토한다. 이후 기업가정신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국·내외 기업가정신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지원정책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무엇보다 기업가정신 정책 중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의 역할을 살펴보고, 기업가정신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 및 이론들을 바탕으로 변화이론(ToC: Theory of Change)을 차용하여 이론적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후 이론적 분석 틀을 기반으로 영향요인에 대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주제분석, 경로분석,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하는데, 3장에서는 세 가지 분석 방법을 설명하고, 각 분석 방법의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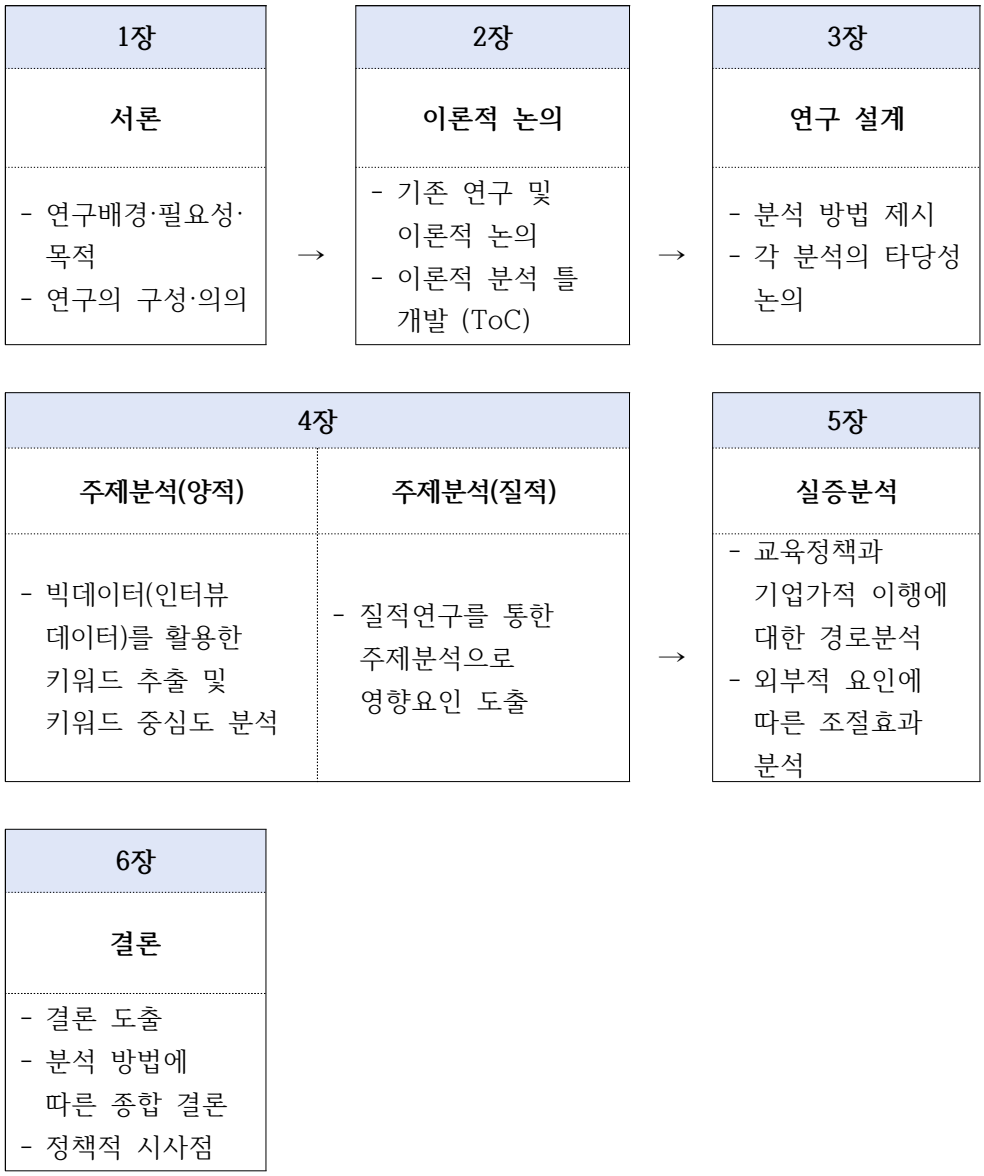
4장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예비 창업가 및 창업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고, 인터뷰 내용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장 빈도수가 높고, 키워드 간 연관성

이 높은 단어를 추출하여 주제들을 선정하였다. 그 후 질적 방법을 활용한 주제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고, ToC 분석 틀을 바탕으로 주제분석의 내용을 검증하고 요인 간 연결 고리를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업가적 이행으로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ToC 분석 틀을 활용하여 기업가정신의 내부적 요인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조절효과 분석을 활용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정책 중 실천적 교육의 경우,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데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종합 결론을 도출하고, 각 분석 방법에 따른 종합 결론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연구의 개괄적인 구조는 [그림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 전체 구조도


1장
서론
- 연구배경·필요성·목적
- 연구의 구성·의의
→
2장
이론적 논의
- 기존 연구 및 이론적 논의
- 이론적 분석 틀 개발 (ToC)
→
3장
연구 설계
- 분석 방법 제시
- 각 분석의 타당성 논의
4장
주제분석(양적)
- 빅데이터(인터뷰 데이터)를 활용한 키워드 추출 및 키워드 중심도 분석
주제분석(질적)
- 질적연구를 통한 주제분석으로 영향요인 도출
→
5장
실증분석
-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에 대한 경로분석
- 외부적 요인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6장
결론
- 결론 도출
- 분석 방법에 따른 종합 결론
- 정책적 시사점

제 3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보기 위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 간 메커니즘을 살펴보는데 연구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이론적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그간 기존 선행연구는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정신 고취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 고취가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것으로 볼 때, 전체적인 기업가적 이행 메커니즘을 살펴보기보다는 분절된 효과성 위주로 파악하여 부분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의도 및 의지,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기업가적 이행이 이루어지는데 다양한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업가적 이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가정신의 다양한 내부적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즉, 단순한 연결 관계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아닌, 기업가정신의 다양한 내부적 영향요인을 고려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밝힌다.

둘째, '내용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이행에 잠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인식, 주관적 규범, 재정적 지원, 네트워크 등 외부적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이 이루어지는 데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한다. 잠재적인 외부적 장애요인을 극복함으로써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의 효과적인 형태와 구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의 형태와 구성에 대해서도 기존의 일반적인 이론적 교육과 실무중심의 실천적 교육의 차이를 통해 외부적 장애요인을 줄임으로써 효과적인 기업가적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파악했다는 점을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문의 차별성을 가진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방법론적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 간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하여 방법론 측면에서 주제분석, 경로분석, 조절효과 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ToC(Theory of Change) 이론을 차용하여 각 변수 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할 수 있다. 이후, 이론적인 분석 틀을 기반으로 영향요인에 대한 관계를 주제분석을 통해 질적으로 검증하고, 각 연결 고리마다 영향요인 관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정책적인 시사점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방법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질적 분석뿐만 아니라 양적 분석을 통해서도 각 영향요인 관계에 대해 검증함으로써, 전체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재차 확인하는데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경로분석을 활용함으로써 영향요인 관계를 파악하는데 통계적으로 영향의 크기를 추정하고, ToC의 연결 고리를 검증하는데 주제분석의 결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재검증하여 볼 수 있다.

또한 주제분석 및 경로분석을 통해 기업가적 이행에 외부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으나, 기업가적 이행 간의 메커니즘에서 잠재적인 외부적 요인의 영향에 더 구체적으로 주목하고자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 요인에 외부적 요인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정리해보자면,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분절적인 효과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고,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부적·외부적 영향요인을 밝힘으로써 잠재적인 외부적 장애요인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의 형태 및 구성을 살펴보는 데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방법론 측면에서도 제시한 ToC 분

석 틀을 검증하는데 질적, 양적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재차 검증하여 메커니즘의 작동을 확인함으로써, 정책 디자인에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밝히는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제 2장 이론적 논의

제 1절 이론적 배경

1.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1)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정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분야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분야로서 짧은 기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Shane, 2003), 전공을 넘나들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에 기업가정신 분야는 다면적이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로 연구되고 있어서 기업가정신의 정의, 개념 등이 분야에 따라 상충 되기도 하고 중복되기도 한다(Kaufmann & Dant, 1999).

이에 기업가정신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확산되었다(Gartner, 1990; Landstrom, 2007; Stevenson, 1983). 기업가정신 개념을 처음 정의한 Schumpeter(1934)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을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고 함축하여 제시하였다. 자본주의 경제는 끊임없는 혁신(innovation) 과정을 통해 창조적 파괴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원동력이 기업가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많은 학자는 자신의 연구 분야와 목적에 따라 기업가정신을 다양하게 정의하였다.

기업가정신에 대하여 Drucker(1985)는 문제해결과 위험 감수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고 만드는 것으로 정의했고, 이후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기회의 극대화'라고 강조하며 '실천' 행위를 강조하였다(Drucker, 2007). Timmons(1994)는 기회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방식을 강조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자원에 대한 부족은 고려하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거나 사업 아이디어를 기회로 바꾸는 것

(Timmons, 1999)으로 정의했다. 이외에도 기업가정신을 현재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 없이 기회를 추구하는 것(Stevenson et al., 1989; Stevenson, et al., 1994), 시장기회를 발견하여 활용하는 것(Shane & Venkataraman, 2000) 등으로 정의하는 등 기회 추구 및 기회를 발견하는 행위 과정에 초점을 맞춰 기업가정신을 정의한 연구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가정신을 지식을 얻는 행위의 관점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기업가적 행동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에서는 지식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적 행동으로의 태도와 인식이 개선되고, 직접적으로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Timmons, 1999). 따라서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가적 관련 지식[4] 습득 과정을 기업가정신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기업가정신의 개념을 파악하기도 한다.

결과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새롭게 사업을 창출하는 행동 성과로서 기업가정신을 해석할 수도 있다. 새로운 조직을 창출하고(Gartner, 1985; Lumpkin & Dess, 1996) 사업을 창출하는 것(New Business Creation)(Aldrich, 1992; Low & Macmillan, 1988; Venkataraman, 1997), 기업이 새로운 무엇을 창출하고자 탐색하고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Baron & Shane, 2005), 위험의 불확실성 하에서도 수익과 성장을 목적을 두는 혁신적 경제조직의 창출(Dollinger, 1995), 이익을 지향하는 기업을 창시하고 유지·확대하는 것(Cole, 1965)처럼 새로운 사업의 창출로 기업가정신을 해석하고 정의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있다.

더 나아가 사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 및 부를 창출하는 것으로 기업가정신을 정의하기도 한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자원의 결합을 통해 가치 또는 부 등을 새롭게 창출하는 것을 기업가정신으로 정의하는 연구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사업 기회 인지와 위험부담 관리, 적절한

4) 기업가적 행동 또는 창업의 시작 및 성장 과정, 자원 및 팀 관리, 사업계획 및 사업제안 작성, 홍보 및 마케팅 등 기업을 경영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영 실무적인 지식임(Morris, 1998).

자원 동원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Kao, 1995; Kuratko & Hodgetts, 2007), 위험부담과 보상을 기반으로 가치 있는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Hisrich & Brush, 1986), 부의 창출을 만드는 것(Ronstadt, 1985), 불확실한 환경에서 자원 등의 가치 있는 결합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Amit et al., 1993), 혁신을 촉진하고 고용 기회를 창출해 부를 산출하는 요소(Wong et al., 2005), 부의 창출, 모험적 사업의 창출, 혁신의 창출, 변화 창출, 고용 창출, 가치 창출, 성장 창출을 포괄하는 7가지 분류를 통해 여러 가지 새로운 창출의 의미로 정의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기업가정신을 기업가의 자질, 성향 및 행동 특성 측면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다. 심리적 요소에 중점을 둔다면 기업가를 위험 감수자로 보는 관점에서는 위험 감수 성향이 기업가정신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Cantillon, 1755; McClelland, 1965), 혁신성과 진취성 요소로 볼 수 있으며(Schumpeter, 1934), 창의성(Timmons, 1999), 기회 포착 능력(Hayek, 1937)이나 정보 보유 능력(Casson, 1982)을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자질로 보기도 한다. 이로써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의 기회 추구 과정부터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더 나아가 기업가가 지닌 자질 및 다양한 관련 심리적 요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다양한 내적 요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업가정신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을 정리해보면 기업가정신을 과정으로의 관점, 활동으로의 관점, 개인 내적 요인으로의 관점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Kauffmann & Dant, 1999), 주로 기업가정신 연구는 개인의 특성이나 내적 요인에 국한되어 있고, 기업가적 활동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영향요인에 대한 부분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기업가적 이행이 이루어지는 과정론 및 행태론이 강조되는 바이다(Gartner, 1985).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기업가정신을 정의할 때 기업가정신

을 다양한 관점과 과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는 만큼, 기업가적 행동 또는 창업을 단순하게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의 창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회 추구 과정, 무엇인가 새롭게 창출해 내는 성과, 기회 포착 및 기업가적 능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업가적 행동 또는 창업은 준비된 자질과 능력에 따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발생하고, 일련의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이 일어나는 과정(Bird, 1988)이자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결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은 기업가가 기회를 식별하고 새로운 기업가적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간주 되는 것으로 종합해 볼 수 있다(Liñán et al., 2011).

[표 1] 기업가정신의 정의 및 개념 정리표

측면	기업가정신의 정의 및 개념	출처
기회 추구 및 발견 등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적 측면	문제해결과 위험 감수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고 만드는 행위	Drucker(1985)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고려보다는, 기회를 추구하거나 사업 아이디어를 기회로 바꾸는 행동	Timmons(1999)
	현재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 없이 기회를 추구하는 것	Stevenson et al.(1989), Stevenson et al.(1994)
	시장기회를 발견하여 활용하는 것	Shane&Venkataraman (2000)
지식을 얻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적 측면	기업가적 관련 지식을 통해 기업가적 행동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기업을 경영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인	Timmons(1999)
사업을 창출하는	이익을 지향하는 기업을 창시하고 유지・확대하는 것	Cole(1965)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결과적 측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조직의 창출	Gatner(1985), Lumpkin&Dess(1996)
	위험의 불확실성 하에서도 수익과 성장을 목적을 두는 혁신적 경제조직의 창출	Dollinger(1995)
	새로운 사업의 창출	Aldrich(1992), Low&Macmillan(1988), Venkataraman(1997)
	기업이 새로운 무엇을 창출하고자 탐색하고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	Baron&Shane(2005)
사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 및 부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결과적 측면	사업 기회 인지와 위험부담 관리, 적절한 자원 동원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Kao(1995), Kuratko& Hodgetts(2007)
	위험부담과 보상을 기반으로 가치 있는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	Hisrich&Brush(1990)
	부의 창출을 만드는 것	Ronstadt(1985)
	불확실한 환경에서 자원 등의 가치 있는 결합으로 수익 창출	Amit et al.(1993)
	혁신을 촉진하고 고용 기회를 창출해 부를 산출하는 요소	Wong et al.(2005)

(2) 기업가정신 구성 요소: 기업가적 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 EO)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 및 개념뿐 아니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구성하는 특성 요인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 수준에서의 기업가정신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를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 기업가적 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 EO)이다(Lumpkin & Dess, 1996; Miller, 2011; Morris et al., 2008). 기업가적 지향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고(Wang, 2008),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많이 연구된 주제이기도 하다(Rauch et al., 2009).

기업가적 지향성을 나타내는 요인들을 초기에는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접근했다. Schumpeter(1934)는 혁신성으로, Cantillon(1755)은 위험감수성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Miller(2011)는 '기업가적 지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가정신을 혁신성(innovativeness), 진취성(proactiveness), 위험감수성(risk-taking propensity)으로 분류하여 자원을 재분배하고 재결합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경쟁적 적극성(competitive aggressiveness), 자율성(autonomy) 등의 요소를 추가하며 설명하기도 하였다(Lumpkin & Dess 1996). 대부분 연구자들은 기업가정신의 기본 특성 요인으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을 활용하고 있다(Das & Joshi, 2007; Kreiser & Davis, 2010; Morris & Lewis, 1995; Wiklund, 1999).

[표 2] 기업가적 지향성을 나타내는 구성 요인

구성 요인	출처
혁신성	Schumpeter(1934)
위험감수성	Cantillon(1755)
혁신성(innovativeness), 진취성(proactiveness), 위험감수성(risk-taking propensity)	Miller(2011)
경쟁적 적극성(competitive aggressiveness), 자율성(autonomy)	Lumpkin&Dess(1996)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Das&Joshi(2007), Kreiser&Davis(2010), Morris&Lewis(1995), Wiklund(1999)

추가적으로 기업가적 지향성과 유사하게 기업가적 행동으로 연결되는데 중요한 선행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 '계획된 우연이론(Planned Happenstances)'에 따르면 호기심(Curiosity), 인내심(Persistence), 융통성(Flexibility), 낙관적 태도(Optimism), 위험 감수(Risk Taking) 등의 요인들도 직업으로 이행시 탐색 행동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Krumboltz, 2009).

이렇게 앞서 살펴본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업가적 지향성 요인들은 궁극적으로 기업가적 행동과 기업가적 행동을 유발하는 자기효능감 등의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itchell et al., 1999). 따라서 기업가적 행동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선행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활용되는 의미와 해석에 따라 기업가정신에 대해 혼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넓은 의미로 살펴보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 또는 '사고방식' 등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22)에서는 기업가정신에 대해 미래가 불확실하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성을 가지고 기회를 포착하면서, 혁신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인적 및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가는 '실천적 역량'이라고 광의의 의미로 정의한다. 반면에, 기업가적 지향성을 나타내는 요인들인 혁신과 창의,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창업을 하는 자의 '행동'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업가정신을 더 국한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진취성, 혁신성, 자율성, 위험감수성과 같이 기업가적 지향성을 나타내는 특성 요인들을 기업가정신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Entrepreneurship'이라는 단어를 국내에서 번역할 때 '기업가정신'이라고 사용하면서 기업가 및 창업가에게 필요한 '정신'이라는 단어로 제한하

여 사용하다 보니,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업가적 지향성 요소들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다(장영화, 2014). 국내연구에서는 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기업가적 지향성을 지표화하여 설명할 수 있는 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에 진취성, 혁신성, 자율성, 위험감수성 등의 개념으로 기업가정신의 의미를 협소하게 활용하고 있다(박남규 외, 2015).

이에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적 지향성 등을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하여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성창수, 2009), 이러한 기업가적 지향성이 있을 때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나 창업 의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기업가적 지향성의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는 진취성, 혁신성, 자율성, 위험감수성 등이 있을 때 창업 의도 및 의지가 고취되는지에 관한 연구나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기업가적 지향성을 고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기업가정신이 기업가적 지향성 또는 창업 의도 및 의지 변수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업가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내부적·외부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요인이 다수 존재할 수 있는데, 기업가정신을 정의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기업가적 지향성 요인 변수에만 한정된 연구가 될 수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23)에서도 기업가정신을 분류할 때, 창업 태도(attitude), 활동(activity), 열망(aspiration)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가적 지향성 요인을 기업가정신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기업가로서의 갖춰야 할 여러 가지 태도 및 행동, 역량 등을 포괄적인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9)에서 실시하는 '기업가정신 실태조사'에서도 기업가정신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가적 지향성,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로 나누어 질문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기업가적 지향성에 대하여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향후 국내연구에서도 기업가정신에 대하여 정신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만 국한하여, 기업가정신을 기업가적 지향성이라는 특성으로 한정하고 정의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발현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의 의미를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기반하여 기업가정신의 내부적 요인으로서 기업가적 지향성을 정의하고, 기업가적 지향성의 구성 요소를 진취성, 혁신성, 자율성, 위험감수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기업가적 역량(Entrepreneurial Competence, EC)

'역량(Competency)'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초기 연구에서는 인간 내적 특성을 정의하는 용어 또는 직업에서의 능력으로 정의하는 용어에 주로 적용되었으나, 직업 트렌드도 변화하는 등 점차 환경들이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이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송주현, 2014).

개인 특성으로 파악되는 개인의 역량은 행동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Zemke & Kramlinger, 1982), Corbin(1993)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으로서 성과 달성이라는 행위에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Dubois & Schmitz(2013)에 따르면 개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활용되는 내적인 특성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Spencer & Spencer(1993)는 개인이 지닌 지식과 기술, 가치 등의 내적인 특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이후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Eurydice(2002)는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등으로 설명하였다. 종합해보면 개인 역할 수행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 자질, 능력 등 다양한 요소 등의 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6; 소경희, 2007).

다만 역량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Competency와 Competence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단어를 번역할 때 두 단어의 의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Competency는 행동적 측면의 개념을 지닌다면, Competence는 기술, 지식 등과 같이 좀 더 협소한 개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역량의 의미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Rowe, 1995).

이러한 맥락에서 '역량'에 대한 정의와 '기업가적 역량'에 대한 정의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가적 역량에서는 기업가적 행동으로 연결되는데 개인이 지녀야 하는 기술이나 지식, 경험 등을 역량으로 보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역량을 Competence의 개념으로 기술이나 지식 등을 포함하는 협소한 개념의 의미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기업가정신'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있듯이, '기업가적 역량'에 대한 정의도 여러 범주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내부적 요인에 기업가적 역량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도 역량의 개념으로 정의되어 활용되기도 하지만 Skill, Acknowledge, Capacity 등의 용어를 역량으로 협소하게 제한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기업가적 행동으로 연결되는데 잠재적인 기업가가 가지는 개인 특성이나 기업가정신이 모두 상이한데, 기업가적 역량을 바라보는 관점(Lans et al., 2008; Sandberg, 2000)이나 언어적 관습(Lans et al., 2008) 등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기업가적 역량이라는 개념과 기업가적 역량을 나타내는 요소를 정의하기에는 모호하다.

기업가적 역량은 기업가적 이행에서 창업가 개인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성으로, 기업가로서의 행동은 기업가 및 창업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가적 역량에 따라서 다르게 이루어진다(Román et al., 2013). 잠재적인 기업가 및 창업가 개개인의 성향과 지향성만 다른 것이 아니라, 기업가적 이행으로의 동기(Motivation), 능

력(Capabilities), 혁신 정도(Aptitude for Innovation)등에 대한 요인들도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Constant & Zimmermann, 2004; Earle & Sakova, 2000; Kuhn, 2000; Meager, 1992; Santarelli & Vivarelli 2007), 상이한 요인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업가적 역량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이 지닌 능력과 역량은 기업가적 행동으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Ghasemi & Rowshan, 2016). 즉 잠재적인 기업가로 볼 수 있는 개인이 기업가적 역량과 능력,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가적 행동으로의 이행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논의된 '주관주의적 기업가정신(the Entrepreneur's Subjective Thought, Personality, Character, etc.) 이론'을 고려해보면(Kor et al., 2007), 기업가정신의 핵심 요인은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기회 포착(Opportunities), 지식(Knowledge), 기술(Skill), 경험(Experience) 등에 중점을 둔다. 이에 기업가적 역량(Entrepreneurial Competence)은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하는 능력 등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개인의 핵심 역량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가적 역량 중 지식에 해당하는 요인은 기업가적 행동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Luthje & Franke, 2003; Unger et al., 2011), 선행조건으로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Luthje & Franke, 2003; Kor et al. 2007). 그렇지만 기업가적 이행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할 때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행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nyawali & Fogel, 1994; Shane, 2003). 이에 기업가정신에서 기업가적 기술 부족이 기업가적 이행에 작용하는 장애요인으로도 꼽히기 때문에 기술 및 지식 측면에서의 역량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OECD/European Union, 2017).

기업가적 역량을 지식(Knowledge)과 기술(Skills)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가적 이행과 관련한 경험들도 기업가적 역량의 중요한 구성 요인으로

사료된다(Lackéus, 2014). 기업가적 역량에서 경영이나 창업과 관련된 경험 역시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업가정신 예측 변수로 볼 수 있는 것이다(Clarysse et al., 2011; Remeikiene et al., 2015). 경험이 풍부한 기업가가 초보 기업가보다 비즈니스 기회와 혁신적인 기회를 인식하는데 더 적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Goethner et al., 2012; Ruiz-Arroyo et al., 2015; Ucbasaran et al., 2009). 경험이 부족한 기업가는 기회 포착이 어렵고,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에도 직면할 수 있어(Mosey & Wright, 2007), 본인이 사업 경험이 있거나 가족 등 가까운 지인이 사업 경험이 있는 개인은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질 때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나타낸다(Carr & Sequeira, 2007). 자원의 가용성에 대한 부분 역시 경험 기반의 인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Rauch & Hulsink, 2015), 기업 관련 경험이 있으면 재정적 불안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역량 요소가 될 수 있다(van Gelderen et al., 2008).

정리해보면 기업가적 역량은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이지만 기업가적 역량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범위 측면에서도 혼용되어 활용된 논의가 많다. 기업가적 역량 부분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주로 지식과 기술, 경험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Peltonen(2015)는 기업가적 역량을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행되는데 필요한 능력(기회 추구, 지식, 기술, 경험 등)과 태도, 의지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역량에 대한 개념을 기업가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경험을 기업가적 역량(Entrepreneurial Competence)으로 보고 기업가정신의 내부적 요인으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행되는 필요한 태도 및 의지 등에 대한 개념은 다음 파트에서 '그 외 기업가정신의 내부적 요인'으로서 다루고자 한다.

(4) 그 외 기업가정신의 내부적 요인: 기회 식별(Opportunities), 자기효능감(Perceived Behavioral Control), 긍정적 태도(Personal Attitude)

앞서 논의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개념 및 구성 요인 이외에도, 기업가적 이행을 새로운 기회 추구의 관점으로 본다면 '기회 식별(Opportunities)' 및 '기회 포착'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기업가적 행동에 필요한 중요한 기업가정신의 내부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DeTienne & Chandler 2004; Epstein 1996).

또한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하는 능력은 기업가 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Personal Attitude)'로 이어질 수 있고(Miranda et al., 2017), 기업가 활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업가적 특정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 포착 기회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Liñán et al., 2011). 따라서 기회 포착을 통해 기업가적 이행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되고, 관련 지식 습득도 이루어진다면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Peterman & Kennedy, 2003).

다음으로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과 관련하여 자기효능감 및 긍정적 태도는 기업가적 의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하여 이론적 모델과 접목하여 논의해볼 수 있다. 먼저 '전통적인 의도 모델'[5]에 기업가

---

5) 기업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기업가적 이행(Entrepreneurial Activities) 변수인 기업가적 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와 기업가적 행동(Entrepreneurial Behavior)으로의 인과적인 설명 기제로 활용되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음. 이러한 기업가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개인행동이 이행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의도에 기반한 '합리적 행동이론(Fishbein & Ajzen, 1975),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91)' 등 전통적인 의도 모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러한 의도모델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자기효능감 개념과 유사한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등으로 설명함. 기업가적 의도와 행동으로 이행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업가정신에서 태도 및 자기효능감 개념을 기업가정신의 내부적 요인으로서 살펴보고자 함. 주관적 규범의 경우 외부적 요인으로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함. 또한 의도모델과 관련하여 기업가적 이행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 모델에 대해서도 다음 절에서 후술할 것임.

정신 요인을 접목해보면,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자기효능감(실현 가능성 등의 인지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과 바람직한 인식 등 행동에 대한 태도(Personal Attitude, PA)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Liñán et al., 2011; Marques et al., 2012). 특히 기업가정신에서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적 태도의 주요 선행요인 중 하나로도 식별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Do Paço et al., 2015; Ferreira et al., 2012).

무엇보다 기업가적 의도와 기업가적 행동을 기업가적 이행으로 볼 수 있는데, 기업가적 이행에서 기업가 의도를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장애 요인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장애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기업가적 의도에서 행동으로 원활하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자기효능감(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에서 발현되는 자신감은 개인의 동기를 향상시킴으로써 기업가적 행동이라는 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이라는 기업가정신 요소가 주목된다(Bénabou & Tirole, 2002; Miranda et al., 2017).

또한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에서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 행동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시되는데, 이 이론에서도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실현 가능성 등의 자기효능감이 진로 선택 시 기업가적 행동과 같은 특정 진로를 준비하는데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중요 요인임을 설명한다(Bandura, 1986; 1997). '사회인지 진로이론 흥미모형(Social Cognitiv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에서도 학습 경험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형성한 흥미를 바탕으로 기업가적 행동과 같은 특정 행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의 중요한 역할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Lent et al., 1994).

기업가적 행동으로 연결되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사업 실패에 대한 인식 가능성보다는 수익성, 사회적 위치, 개인 성취 등을 먼저 인식하게

되고(Brockhaus, 1980; Hisrich & Brush, 1986),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적 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한 선행조건인 기회 포착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에(Chen et al., 1998)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정신의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Boyd & Vozikis, 1994; Ghasemi & Rowshan, 2016; Indrawati et al., 2015).

마지막으로 기업가적 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Personal Attitude)' 역시 실질적으로 기업가적 이행으로 연결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정신의 요인으로 나타났다(Schwarz et al., 2009). 긍정적인 태도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모험을 추구하고, 실패의 단점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경시함으로써 강화할 수 있다. 결국 기업가적 이행을 위해 개인 비용과 기대를 줄이게 함으로써 실망과 후회에 대한 기대를 감소시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요소를 줄일 수 있게 된다(Markman et al., 2002; Markman et al., 2005). 특히 긍정적 태도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어 기업가적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의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배미아 · 김종성, 2022; 장현철 · 김종성, 2021; 최진숙 · 황금주, 2018). 결국 기업가로서의 이행에 대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는 기업가적 의도와 기업가적 행동으로 원활하게 연결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의 요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해보면 개인 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포함하여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요소인 기업가적 지향성(진취성, 혁신성, 자율성, 위험감수성 등의 심리적 특성 요인 등)뿐 아니라 기술과 지식, 경험으로 고취된 기업가적 역량, 기회 포착 능력, 행동적 접근 요인으로 여겨지는 자기효능감 및 긍정적인 태도 등까지 모두 고려되는 여러 가지 접근으로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Liñán et al., 2011; Marques et al., 2012; Miranda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개인의 한 심리적 특성, 개인이 보유하는 자원이

나 경험, 역량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개인 내부적 요인으로 보고,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다양한 내부적 요인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의 영향요인 관계

기업가정신 요인	영향요인 관계		출처	관련 이론
기업가적 지향성			Kao(1995), Kirzner(1973), Kuratko&Hodgetts(2007), Schumpeter(1934), Scott&Bruce(1994), Stevenson(1983), Timmons(1999)	
	기업가 정신	위험 감수 → 기회 식별	Timmons(1999)	
		기업가적 지향성 → 자기효능감	Mitchell et al.(1999)	
	이행	위험 감수 → 기업가적 이행	Krumboltz(2009)	*계획된 우연이론
기업가적 역량			Ghasemi&Rowshan(2016), Kor et al.(2007)	*주관주의적 기업가정신
	기업가 정신	지식 → 긍정적 태도	Timmons(1999)	
		지식・기술 → 자기효능감	Liñán et al.(2011), van Gelderen et al.(2008)	
		기술・경험 → 자기효능감	Kuehn(2008)	
		경험 → 기회 식별	Goethner et al.(2012), Ruiz-Arroyo et al.(2015), Ucbasaran et al.(2009)	
		경험 → 자기효능감	Lent et al.(1994)	
		경험 → 긍정적 태도	Carr&Sequeira(2007)	
	외부적 요인[6]	지식 → 인식개선	Timmons(1999)	
		경험 → 네트워크	Mosey&Wright(2007)	
		경험 → 주관적 규범	Carr&Sequeira(2007)	
		경험 → 재정적 불안	Rauch&Hulsink(2015), van Gelderen et al.(2008)	
	이행	지식 → 기업가적 이행	Luthje&Franke(2003), Peterman&Kennedy(2003), Unger et al.(2011)	
		지식・기술 →	Gnyawali&Fogel(1994), OECD/European	

		기업가적 이행	Union(2017), Shane(2003)	
		경험 → 기업가적 이행	Clarysse et al.(2011), Remeikiene et al.(2015)	
		지식・기술・경험 → 기업가적 이행	European Commission(2006), Lackéus(2014)	
기회 식별			Shane&Venkataraman(2000), Stevenson et al.(1989), Stevenson, et al.(1994),	
	기업가 정신	기회 식별 → 긍정적 태도	Miranda et al.(2017)	
		기회 식별 → 자기효능감	Liñán et al.(2011)	
	이행	기회 식별 → 기업가적 이행	Epstein(1996), DeTienne&Chandler(2004)	
자기효능감			Bandura(1997), Rauch&Hulsink(2015), Shapero&Sokol(1982)	
	기업가 정신	자기효능감 → 기회 식별	Chen et al.(1998)	
	이행	자기효능감 → 긍정적 태도	Do Paço et al.(2015), Ferreira et al.(2012)	
		자기효능감 → 기업가적 이행	Bénabou&Tirole(2002), Liñán et al.(2011), Marques et al.(2012), Miranda et al.(2017)	*사회인지 진로이론
긍정적 태도			Krueger et al.(2000), Liñán et al.(2011), Robinson et al.(1991)	
	기업가 정신	긍정적 태도 → 자기효능감	Rauch&Hulsink(2015)	
	이행	긍정적 태도 → 기업가적 이행	Krumboltz(2009), Peterman&Kennedy(2003)	*계획된 우연이론

6)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가정신이 미치는 영향요인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업가정신 중 기업가적 역량은 외부적 요인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주관적 규범,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5)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

기업가적 이행으로 결정되는데 네트워크 및 주변의 인식으로 인한 진입 장벽, 재정적 지원 부족 등이 기업가정신 이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기업가정신의 내부적 요인 측면(기업가적 지향성, 역량, 기회 식별 능력, 자기효능감, 태도 등)이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이러한 내부적 요인 이외에 기업가로서의 이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기업가적 이행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네트워크 요인(Román et al., 2013), 기업가적 이행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에 대한 요인(Miranda et al., 2017) 등이 기업가적 이행을 주저하는 외부적 요인인 것으로 보고, 이러한 외부적 장애요인으로 여겨지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업가적 이행 측면에서 기업가적 의도가 있더라도 기업가적 행동으로의 이행에서는 재정자원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요인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Rauch & Hulsink, 2015). 따라서 기업가정신이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행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는 외부적 요인, 즉 장애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들을 살펴볼 것이다.

① 네트워크(Network)

네트워크(Network) 변수는 기업가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매우 강력하고 일관된 예측 변수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여러 가지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역량, 기회 인식 측면 등이 기업가적 이행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있을 때 기회 인식, 능력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회 포착의 능력, 다양한 역량에 대한 측면을 사회적 자본 및 네트워크에 귀속시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되기도 한다(Román et al., 2013). 창업진흥원에서는 창업가로서의 준비현황을 살펴보고자 여러 가

지를 점검하는데, 기업가정신 및 의지, 경험 등을 기초역량으로 보고, 이와 더불어 네트워크 보유 현황 등도 확인한다.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접근했을 때도 기업가라는 개념이 출현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간과할 수 없다. '신제도주의(Neo-institutionalism theory) 이론'(Baron & Kreps, 1999; Eggertsson, 1990; Hall & Taylor, 1996; March & Olsen, 1989; North, 1990; Ostrom, 2007; Thelen, 1999)에 따르면 한 국가의 환경과 제도적 맥락의 역할(the role of the environmental/institutional context of a country) 및 기업가 출현에 대한 미시적 관점에서 비공식 규범(Informal Norms),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s)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Davidsson et al., 2006; Rutherford, 1995; Veciana & Urbano, 2008).

'사회적 자본 이론(Social Capital Theory)'에 따르면, 가족 또는 커뮤니티 관계(Community-based Relationship)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인적 및 재정적 자본(Human and Financial Capital)에 수익을 증폭시킬 수 있고,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행되는데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기 용이하기 때문에(Shane, 2003),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urdieu, 1983; Coleman, 1988, 1990; Loury, 1987). 예를 들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Information), 추천(Referrals), 자원(Resources), 지지(Support) 등과 같은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Ibarra, 1997). 사회적 자본은 기업가를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에 노출시키고, 기회와 잠재적 벤처의 발견을 촉진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때문에(Aldrich et al., 1998; Aldrich & Zimmer, 1986; Smeltzer et al., 1991), 기업가적 이행에서는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적 자본은 결속적 자본(Bonding Capital)과 교량적 자본(Bridging Capital)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결속적 자본은 동질적 사람들의 그룹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에 부여된 가치이고, 교량적 자본은 사회적으로 이질적 집단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이다(Putnam, 2000). 이러한 동질적, 이질적 그룹의 사회적 자본은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동질

적 그룹인 예비 기업가 간 사이 측면에서, 또 기업가적 이행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 측면에서 기회 포착 및 다양한 기업가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②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

부모, 동료, 친구 및 기타 관련 인물의 의견이 기업가적 이행 등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van Gelderen et al., 2008), 기업가적 행동으로의 선택에 사회적 자본 중 주관적 규범 대상에 해당하는 부모, 친구 등 가까운 지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대의 강도 또는 응집성 수준 등으로 정의되는 네트워크 관계 식별을 통해 주관적 규범 대상에 대한 분류를 하고, 각 대상이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Davidsson & Honig, 2003; Honig, 1998).

먼저 강한 유대감(Strong Ties)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족 내 역할 모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Matthews & Moser, 1996). 기업가의 부모나 친척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다면 기업가적 행동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높아진다(Davidsson & Honig, 2003; Djankov et al., 2006; Fairlie & Robb, 2007; Henley, 2007; Holtz-Eakin, 2000; Hout & Rosen, 2000; Matthews & Moser, 1995; Mueller, 2006; Niittykangas & Tervo, 2005; Román et al., 2011; Taylor, 1996). 결국 부모나 친척은 기업가적 역할 모델(Entrepreneurial Role Models)이 될 수 있고, 정서적 지원(Emotional Support), 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비공식적인 소개(Informal Introduction to Business Methods), 가치 있는 업무 경험 이전(Transfer Valuable Work Experience), 자본 및 장비(Capital and Equipment), 비즈니스 네트워크(Business Networks), 컨설팅 및 평판(Consultancy and Reputation)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Aldrich et al., 1998; Blanchflower & Oswald, 1998; Dunn & Holtz-Eakin, 2000; Fairlie & Robb, 2007; Parker, 2009, p. 134-138).

배우자에 대한 영향요인도 확인할 수 있다.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해 창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배우자와 사업 관련 정보와 지식을 쉽고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 제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Parker, 2009, p. 132), 배우자는 창업자본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다른 신용 자원을 얻기 위해 재정적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세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이 자신의 위험한 소득에 대한 위험성에 보험이 될 수 있어서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Blanchflower & Oswald, 1998; Parker, 2009; Shane, 2003).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Bosma et al., 2004; Brüderl & Preisendörfer, 1998). 사업을 시작하면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 될 수 있고(Borjas, 1985), 자녀 수의 영향은 성공적 노동 선택에 대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녀 연령에 따라 노동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Williams, 2004).

약한 유대감(Weak Ties)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한 조직 안에서의 관계를 지닌 지인이나 주변 친구들로 고려할 수 있다. 이들은 아이디어나 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확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가적 행동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Davidsson & Honig, 2003; Ozgen & Baron, 2007). 즉, 유대감을 바탕으로 기존 사회적 관계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관계가 구축되면서 기업가적 행동으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üderl & Preisendörfer, 1998).

③ 사회적 문화(Social Culture)

개인이 실제로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행할 때 외부적인 사회문화에 대한 인식이 작용한다(Fini et al., 2012). 특히 국가적 특성마다 상이하겠지만 기업가적 문화 부족이 개인의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Miranda et al., 2017). 문화적인 조건이 기업가적 행동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한다(Remeikiene et al., 2015).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7)에 따르면 창업가들에 대한 사회 인식 수준을 바람직한 경력 선택으로서의 창업, 창업자의 사회적 지위 등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개인의 창업 결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가가 바람직한 경력 선택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2015년 38%에서 2019년 기준 54.3%로 증가 추이를 보이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문화적 인식이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창업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요인(Fear of Failure)은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인데, 특히나 한국 사회는 사업 실패를 인생 실패로 인식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편이어서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향후 기업가적 이행을 원활히 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문화 등을 포함한 앞서 제시된 여러 장애요인 측면은 줄여나가고, 기업가정신을 배양해나가는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요구되는 기업가 역할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도 제안된다(Liñán et al., 2011).

[표 4] 외부적 요인의 영향요인 관계

외부적 요인	영향요인 관계		출처	관련 이론
네트워크	기업가 정신	네트워크 → 기회 식별	Aldrich et al.(1998), Aldrich&Zimmer(1986), Román et al.(2013), Smeltzer et al.(1991)	
		네트워크 → 역량	Shane(2003)	*사회적 자본 이론
	외부적 요인	네트워크 → 재정자원		
	이행	네트워크 → 기업가적 이행	Bourdieu(1983), Coleman(1988; 1990), Loury(1987), Román et al.(2013)	*신제도주의 이론/사회적 자본 이론
주관적 규범	기업가 정신	주관적 규범 → 역량	Aldrich et al.(1998), Blanchflower&Oswald(1998), Dunn&Holtz-Eakin(2000), Fairlie&Robb(2007), Parker(2009)	
	외부적 요인[7]	주관적 규범 → 네트워크	Aldrich et al.(1998), Aldrich&Zimmer(1986), Smeltzer et al.(1991)	
		주관적 규범 → 재정자원	Parker(2009)	
		주관적 규범 → 인식개선	Davidsson&Honig(2003), Ozgen&Baron(2007)	
	이행	주관적 규범 → 기업가적 이행	van Gelderen et al.(2008)	
사회 문화적 인식	이행	인식 → 기업가적 이행	Fini et al.(2012), Miranda et al.(2017)	
재정 자원	이행	재정자원 → 기업가적 이행	Rauch&Hulsink(2015)	

7) 외부적 요인 중 주관적 규범의 경우,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보다 외부적 요인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주관적 규범의 특성처럼 주변 지인이나 친구, 가족이 네트워크 확보, 재정자원 확보, 인식개선 고취, 기업가적 이행 등의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2. 기업가적 이행(Entrepreneurial Activities)에 관한 연구

(1) 기업가적 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 EI) 및 기업가적 행동(Entrepreneurial Behavior, EB) 관련 논의

기업가적 이행에 있어서 기업가로서의 진로를 선택하고 기업가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게 된다. 기업가로의 진로는 개인 목표와 금전적 보상을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고(Barringer & Ireland, 2010), 자기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 대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Beeka & Rimmington, 2011; Fatoki, 2014). 즉 기업가도 진로 대안 중 하나로 선택한다면 창업 및 기업가, 경영가로서의 경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Liñán & Chen, 2009).

기업가로서의 진로는 새로운 사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희망할 때 선택할 수 있다(Bird, 1988). 따라서 진로 선택의 한 유형으로서 기업가적 행동은 기회 발견, 평가,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Shane & Venkataraman, 2000), 새로운 사업을 설립하고, 창업할 계획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인정하는 확신으로 볼 수 있다(Thompson,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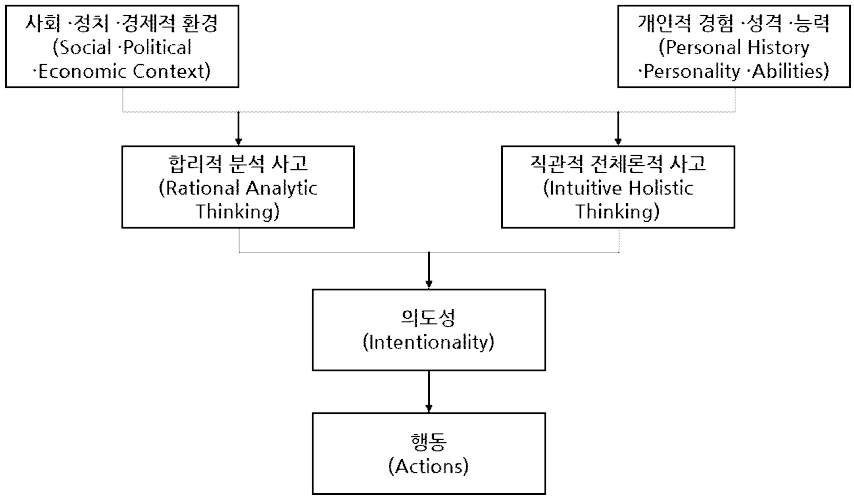
이로써 개인이 가진 각자의 요인과 역량에 의해 기업가가 되기로 결정을 내리는데 이때 인적, 사회적, 재정적 자본 등의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Jocanovic, 1994). 따라서 앞서 기업가정신 부분에서 논의한 것처럼 기업가로서 다양한 역량과 기회 포착 능력, 긍정적 태도 등의 요인이 진로 선택으로서의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가정신의 다양한 요인이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가적 이행에서도 기업가적 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와 기업가적 행동(Entrepreneurial Behavior) 측면을 나누어 의도와 행동에 관한 논의 및 기업가정신이 미치는 영향요인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기업가적 의도는 개인행동이 이행되는데 인과적인 설명 기제로서, 기업가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이전의 결정적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Fayolle & DeGeorge, 2006; Kolvereid, 1996b). 기존에 의도와 관련한 다양한 모델을 살펴보면, 기업가 경력을 시작하기로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 이론이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91; Ajzen, 2001), '기업가적 사건 모델'(Shapero, 1982), '기업가 태도 지향'(Robinson et al., 1991), 그리고 '잠재적 기업가 모델'(Krueger & Brazeal, 1994) 등이 있다. 이러한 모델 이론을 통해 의도와 행동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창업의도 모델(Entrepreneurial Intention Model, EIM)'(Bird, 1988)을 살펴보면, 기업가로서의 경험이나 성격, 능력 등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 정치, 경제 등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창업 의도가 고취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보고, 창업 의도를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간주하는 의도 기반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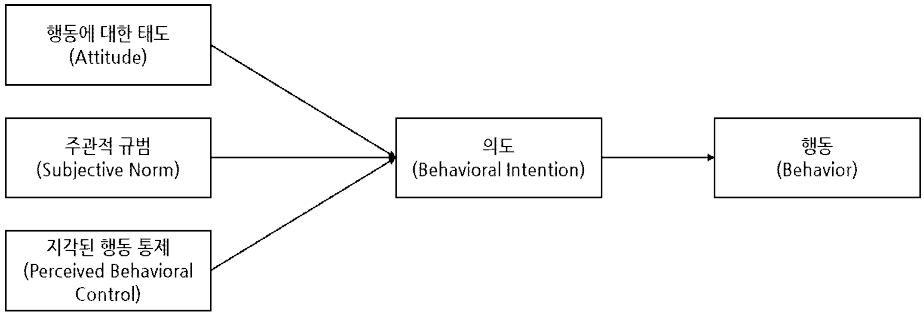
[그림 2] 창업의도 모델(Bird, 1988)



개인행동이 이행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의도에 기반한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Fishbein & Ajzen, 1975)과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Ajzen, 1991)을 통해서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기업가적 의도는 기업가정신의 과정과 길고 복잡한 기업가정신 과정의 첫 번째 단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Kolvereid, 2016; Krueger & Carsrud, 1993; Krueger et al., 2000).

합리적 행동이론은 행동 의도(Behavior Inten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Behavior)'와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으로 보았고, 의도가 행동으로 이어지고 개인의 행동은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으므로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행동 의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Fishbein & Ajzen, 1975). 계획된 행동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 개념에 '지각된 통제감(Perceived Behavioral Control)' 개념을 추가하여 확장하였다. 현실적으로 개인의 행동은 완전한 의지적 통제하에 있을 수 없고 모든 행동의 선택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Ajzen, 1991).

[그림 3]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91)



의도는 결국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감에 의해 형성되고 태도는 어떤 행동이 호의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태도는 개인이 어떤 행동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요인이다(Liñán, 2004). 주어진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는 그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달려있다(Ajzen, 1991).

행동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기업가가 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Liñán et al., 2011). 호의적인 태도는 수행하려는 의도를 더 실현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태도에 대한 접근은 기업가를 분석하는데 선호되는 요소일 것이다(Krueger et al., 2000; Robinson et al., 1991). von Graevenitz et al.,(2010)에 따르면 특정 태도는 의도를 예측한다. Ajzen(1987, 1991)과 Krueger et al.,(2000)에 따르면, 의도는 태도에 의해 결정되며 태도는 상황 및 변수와 같은 외생적 변수에 의해 형성된다고 강조한다.

주관적 규범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인지된 사회적 압력이다(Ajzen, 1991; Liñán et al., 2011). 기업가가 되기로 한 결정을 승인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결정할 때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측정하는 역할을 한다. 기대와 사회적 압력이 호의적일수록 그 행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jzen, 2001). 즉, 특정 행동에 대해 주변에 친구나 가족 등 중요한 사람들의 믿음과 이러한 믿음을 따르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주관적 규범이 기업가적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상반된 논의도 있다. Ajzen(1991) 은 주관적 규범이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약한 요소라고 설명했으며, 주관적 규범이 기업가적 의도 설명하는 데 항상 중요한 것이 아님을 밝힌 연구(Autio et al., 2001), 기업가적 의도와 주관적 규범 간의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를 밝힌 연구(Wu et al., 2008), 주관적 규범이 기업가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Liñán & Chen, 2006)는 논의도 있다.

지각된 통제감은 자원과 기회의 유무, 과거 경험 등을 반영함으로써 많은 행동이 완전히 자발적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Rauch & Hulsink, 2015). 특정 관심 있는 행동(본 연구에서는 특정 행동을 기업가적 행동으로 볼 수 있겠다)을 수행하는 어려움이나 용이성에

대한 인식 및 지각으로 정의하고, 개인이 특정 행동에 대해 내리는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평가로 설명할 수 있다(Ajzen, 1991). 지각된 통제감은 Shapero & Sokol(1982)의 비전과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요인과도 매우 유사하다. 행동 통제의 감각이 클수록 행동을 실제로 수행하게 되는 의도가 커질 것이고(Kolvereid, 1996b; Krueger & Carsrud, 1993; Krueger et al., 2000; Souitaris et al., 2007), 지각된 통제감과 기업가적 의도 사이에 긍정 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Kolvereid, 1996b; Krueger et al., 2000; Souitaris et al., 2007). 자기효능감의 경우, 기업가적 의도(Wilson et al., 2007; Zhao et al., 2005) 및 기업가적 행동 결정(Chen et al., 1998; Rauch & Frese, 2007)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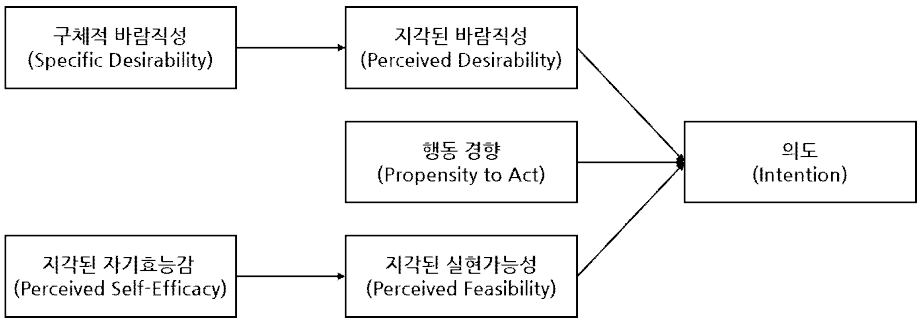
즉 '계획된 행동이론'은 어느 정도 자발적 통제하에 있는 행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모델로서, 행동(Behavior)은 이를 수행하려는 의도로 가장 잘 설명된다고 가정한다(Ajzen, 1988: 132). 의도가 주어지면 실제 행동의 즉각적인 선행조건으로 인식되는 것이다(Ajzen, 1991). 의도는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의지 또는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 적용할 준비가 된 노력의 지표로 정의될 수 있다(Ajzen, 1991). 따라서 의도는 특정 행동을 표시하려는 사람의 의지에 대한 인지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Fayolle et al., 2006b).

특히 의도는 행동이 드물거나 관찰하기 어렵거나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지연이 포함될 때 개인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Krueger & Brazeal, 1994), 의도 기반 모델은 기업 활동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확인되면서 기업가적 이행 관련 연구 시 대부분 활용되고 있다(Krueger & Carsrud, 1993). 그중에서도 '계획된 행동이론'은 기업가적 의도에 접근하는 연구에 많이 채택되어 연구되고 있다(Fayolle et al., 2006a; 2006b; Kolvereid, 1996b; Krueger et al., 2000; Liñán, 2004; Liñán, 2008; Souitaris et al., 2007).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업가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감은 의도 변동의 30~45%를 설명한다고 제안하기도 한다(Saeed et al., 2015). 따라서 의도 기반 모델은 기업

가적 행동에 이르는 정신적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설명한다(Ajzen 1987, 1991).

기업가적 의도를 설명하는 다른 이론으로 Shapero의 '기업가적 사건 모델(Shapero's Entrepreneurial Event Model, SEE)'도 있다. Shapero에 따르면 기업가적 행동이라는 사건의 발생은 여러 복합적인 힘이 함께 작용한다며, 주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개인의 독창성, 능력, 자율성, 위험 감수 등의 상호 작용적인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Shapero, 1982). Shapero의 이론을 발전시켜서 만든 Krueger(1993)의 '기업가 사건이론(Theory of Entrepreneurial Event)'에 따르면, 상호작용의 결과로 기업이 생성되고 기업가적 선택에 대한 고려는 일부 외부 변화의 결과로 발생하게 된다(Peterman & Kennedy, 2003).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특정 행동에 대한 지각된 구체적 바람직성이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바람직성,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친 지각된 실현 가능성, 행동 경향이다. 지각된 바람직함은 기업가가 되기 위해 주어진 행동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고, 인지된 실현 가능성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이며, 역할 모델, 멘토, 파트너의 존재는 개인의 창업 가능성 수준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성취욕구와 개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설명되는 자기효능감 요인에 대하여(Bandura, 1997) 기업가 사건이론에서는 기업가적 의도를 예측하는 선행요인으로 보고 중요 변수로 설명한다(Krueger et al., 2000).

[그림 4] 기업가 사건이론 모델(Krueger, 1993)



또한 기업가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기업가 체계이론'도 볼 수 있다(Bird, 1988). 궁극적으로 기업가적 행동으로의 이행을 설명하는데 개인적 배경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맥락이 작용한다고 보고, 사회자본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가적 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회적 맥락이 기업가적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Barnir et al., 2011; Gurel et al., 2010; Kristiansen & Indarti, 2004; Prodan & Drnovsek, 2010).

기업가적 이행을 설명하는데 바탕이 되는 의도 모델 논의를 종합해보면, 기업가적 의도는 행동을 설명하는 기본 요소(Liñán, 2004)이며, 기업가적 의도와 기업가 행동 사이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많은 기존의 연구들이 기업가적 의도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통해 실제 기업가적 행동을 분석하려고 한다(Miranda et al., 2017).

이렇게 기업가정신 의도 모델이 최근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우세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자들은 많은 추가 변수의 관련성을 지적하는 견해도 제기된다(Liñán et al., 2011).

창업 및 기업가적 행동은 개인이 통제하에 있지 않은 복잡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Brännback et al., 2007). 즉 기업가적 행동을 결정

하는 것은 복잡한 정신적 과정의 결과고 이 과정에는 여러 요소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Liñán et al., 2011).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는 기업가 행동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지만, 기업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기업가정신이 높아진다고 할지라도 기업가적 의도가 항상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Blanchflower et al., 2001; Grilo & Irigoyen, 2006; Rauch & Hulsink, 2015).

또한 기업가정신의 영역에서 의도와 행동 사이에 약한 관계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고(Katz, 1990), 여러 변수의 영향력이 개입되기 때문에 의도로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워 기업가적 실행 의도(Implementation Intentions)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Gollwitzer, 1999).

기업가적 의도와 행동으로서 이행을 실현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인식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의 측면에서 기업가적 행동으로 원활하게 이행되는데 예상치 못한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Miranda et al., 2017).

뿐만 아니라 의도를 살펴본 모델은 국가별 다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가 및 창업가의 개인 특성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국가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동일한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Liñán & Chen, 2009). 그러나 기업가적 행동은 지역별, 국가별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Reynolds et al., 2005). 그러므로 의도와 행동 사이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 특성이나 기업가정신 등의 개인 수준의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국가적 맥락의 특성이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가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지 파악한 연구가 소수에 불과해 명확하지 않다고도 지적한다(Kautonen et al., 2013; Souitaris et al., 2007).

따라서 기업가적 이행 관계에서 기업가적 의도와 행동으로 연결되는 관계에서의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다양한

기업가정신 의도 모델이 기업가적 이행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특히 창업은 앞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외부 장애요인이 작용하므로 기업가적 의도가 있다고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이에 기업가적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가적 의도와 행동을 높일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다양한 내부적 요인을 고취하고, 기업가적 이행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외부적 요인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개인 수준과 사회 수준에서의 맥락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5] 기업가적 이행과 관련한 영향요인 관계

영향요인 관계	출처	관련 이론
긍정적 태도 → 기업가적 의도	Ajzen(1991), Fishbein&Ajzen(1975), Krueger(1993), Krueger et al.(2000), Liñán et al.(2011), Robinson et al.(1991)	*합리적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기업가 사건이론 모델
주관적 규범 → 기업가적 의도	Ajzen(1991), Fishbein&Ajzen(1975), Liñán et al.(2011)	*합리적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자기효능감 → 기업가적 의도	Ajzen(1991), Bandura(1997), Kolvereid(1996b), Krueger(1993), Krueger&Carsrud(1993), Krueger et al.(2000), Rauch&Hulsink(2015), Shapero&Sokol(1982), Souitaris et al.(2007)	*기업가 사건이론 모델
자기효능감 → 기업가적 행동	Chen et al.(1998), Rauch&Frese(2007)	

다양한 논의와 이론을 종합해보면, 기업가적 의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행동으로의 관계 및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과 관련된 메커니즘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업가정신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기업가적 이행으로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에 내부적·외부적 요인들이 다양

하게 얽혀있어 그 관계를 복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기존 연구는 대부분 기업가정신의 단편적인 부분, 즉 기업가정신을 협의의 의미로 정의하고 특정 개념으로만 인식하여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거나, 기업가정신의 의도와 행동 측면에서의 관계를 성과 변수의 의미로만 국한하여 활용함에 따라 의도 및 행동 간 관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적 이행 간의 복잡한 관계를 분절적으로 혹은 단순화하여 기업가적 이행 성과를 이해하는 연구가 많다. 특히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 및 범주가 사고방식 및 행동적 측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가 연구마다 상이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볼 때,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명확한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을 앞서 논의한 대로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어떤 요인들이 기업가적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지, 어떤 요인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가정신의 내부적 요소가 기업가적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외부적 영향요인들을 파악하여 기업가적 이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적 이행의 관계

기업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미국에서도 호의적이지 않았고(Kent, 1990)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European Commission, 2003). 그러나 경제성장과 발전에서 기업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업가정신이 더욱 주목받기 시작하였다(Liñán et al., 2011).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창업 활동 수준을 조사하고 있는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8]은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연구한 결과를 보면 주로 기업가정신이 높게 나타나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제성장 추이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창업률이나 자영업자 비율이 증가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Kantis et al., 2002; Carree et al., 2007; Liñán et al., 2011), 창업 이니셔티브 지수가(Entrepreneurial Initiative Index) 더 많이 증가한 지역은 실업률이 더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Audretsch, 2002). 창업 활동이 많은 국가는 대부분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Reynolds et al., 2002), 창업과 경제성장 간에 U자형 관계가 형성되는 연구 결과를 통해 창업률이나 자영업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논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Wennekers et al., 2005; Kelley et al., 2011).

그러나 대기업이 국가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더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기업가정신이 근본적 원천이 되어 기업가적 이행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보여준 연구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Stel et al., 2005).

---

8) 영국 런던 비즈니스 스쿨과 미국의 뱁슨 칼리지가 창업과 관련한 각국 국민들의 의견과 태도를 조사하여, 1997년에 GEM이 구성되어 1999년 첫 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매년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창업 목적이 생계형 창업(Necessity-driven activity)[9]이 아닌 기회형 창업(Opportunity-driven)[10]일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cs, 2006; Kelley et al., 2011). 무엇보다 기회형 창업을 하는 창업가의 대부분은 창업 활동을 하는 목적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을 지닌 기업가가 상대적으로 기회형 창업 행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여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형 창업으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이 강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가정신을 촉진하여 기업가적 이행을 활발하게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많이 있다(Mitra 2008). 기업가정신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업가를 많이 양산하게 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Rauch & Hulsink, 2015). 이에 따라 기업가정신은 기업 창출 활동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기업가적 이행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을 고취 시키는데 필요한 교육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다(Liñán et al., 2011).

9) 초기창업 활동에 속하는 사람 중 직업 선택의 여지가 없어 창업을 선택한 사람임(GEM).

10) 초기창업 활동에 속하는 사람 중 직업 선택의 여지가 없어 창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추구하고자 창업을 선택한 사람임(GEM).

3. 기업가정신 정책에 대한 논의

(1) 기업가정신 정책(Entrepreneurship Policy, EPo)의 정의

기업가정신 정책은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자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다양한 정의가 있다. 중소기업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Collins, 2003), 지속 가능한 경제과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가정신을 도모하는 정부 지원 정책(Hannon, 2006) 등으로 정의하는데,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기업가정신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정의는 없다(Zhao & Li, 2011).

이에 기업가정신 정책도 개념과 범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기업가정신 정책의 경우 창업 정책의 범위와 혼동될 수 있다. 서로를 포함 하기도하고 다르게 구분 짓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중요하다. 앞서 논의를 통해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을 기업가적 지향성에 초점을 맞춘 정신이라는 관점에 국한하여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GEM에서 제시한 대로 기업가적 지향성, 기업가적 역량,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와 같은 내부적인 요인들을 포함하는 것을 기업가정신으로 정의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정책을 기업가정신 정책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창업이라는 행동을 기업가적 이행의 성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행의 성과는 결국 기업가정신이 갖춰졌을 때 더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행 이후에 성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을 창업이라는 행동을 지원하는 협의적 개념의 창업 정책으로 이해하지 않고, 기업가적 이행을 원활하게 도모하는데 필요한 기업가정신 정책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기업가정신 정책과 창업 정책의 개념과 범위가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혼용될 수는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정책으로

기업가정신 정책의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가정신 정책(Entrepreneurship Policy)의 개념을 살펴보면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업가적 여정(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활동으로 기업가정신을 지닌(기업가적 자질을 갖춘) 개인들의 기업가적 이행 및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개인이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성태경, 2015).

기업가정신 정책은 기업가적 행동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강조되는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의 역할부터 살펴볼 수 있다(Baumol, 1990; North, 1990). 기업가정신 분야에 적용되는 제도는 개인과 사회 집단 간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호 작용을 명확하게 만들고 조직하는 일련의 규칙을 나타내며, 비즈니스 활동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Veciana & Urbano, 2008). 따라서 제도나 제도를 형성하는 정책, 기업가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정책은 기업가적 행동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Gnyawali & Fogel, 1994; Minniti, 2008; Reynolds et al., 2004).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기업가적 행동 및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정책은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컨설팅, 훈련 등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통합적인 부분의 정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Johnson, 1990).

OECD에서는 기업가정신을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하고자 정책 개입(Policy Intervention)을 하는데,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제도적 지원 정책(기업가적 문화, 세제 혜택, 규제정책 등), 기업가 대상 직접 지원 정책(교육 및 훈련, 정보·코칭·멘토링, 자금 조달, 정책자금 지원, 벤처캐피털, 공동 투자 펀드, 엔젤 투자, 수출 등), 기업가적 생태계 지원 정책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GEM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 세제 혜택,

교육, 인프라, 사회문화 등으로 정책 지원을 분류하여 연구하고 있다.

교육 지원, 자금 지원, 인프라 지원 등을 포함하는 정부 정책 지원들은 기업가적 행동 및 창업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ini et al., 2010; Foo et al., 2016; Goel et al., 2015; Moog et al., 2015). 특히 창업가를 육성하고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교육 지원은 진로 선택 및 직업 교육의 방법으로서 간주 되고 있고, 교육 지원 수혜자는 잠재적 기업가로 인식하게 된다(Ronstadt, 1985). 이에 교육지원을 통해 사업 인지 능력을 고취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발굴하고자 한다(Wei et al., 2019).

그러나 자금 지원 측면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는 논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Román et al.,(2013)에 따르면,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행되는데 경제 상황과 자금 지원, 고용 보장 정도 등의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경제가 불황일 때 창업이 직업 선택의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경우거나, 교육이 전제되지 않고 무분별한 자금 지원만 이루어졌을 경우 지원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해서 기업을 창출하는 목적의 실질적인 기업가를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업자를 다시 고용 상태로 만들기 위한 목적의 자금 지원으로 전락한다면 오히려 비정형 고용 형태로 이어져 기업가적 이행 이후 성공적인 기업가가 될 수 없다. 이에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거시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요인의 상황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분별한 자금 지원정책 보다 실질적인 기업가적 이행이 이루어질 때 필요한 지원정책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실제 창업의 시작과 운영, 창업 유지에 기업가정신이 전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일치된 의견을 확인하였다. 즉 기업가정신이 기업가적 이행(의도 및 행동)에서 핵심 요소로 인식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Acs, 2008; Carree & Thurik, 2008; Parker, 2009; Thurik et al., 2008). 기업가정신을 우선시하는 유럽에서는 기업가정신

정책 지원 시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자금 지원 형태의 정책은 오히려 기업가적 행동에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도록 한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논의되고 있다(Santarelli & Vivarelli. 2007).

또한 자금 지원정책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효과성 부분에 대한 논의도 살펴볼 수 있다. 자금 지원의 효과는 기업가정신 정책이 아닌 고용정책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임을 지적하는 견해도 확인할 수 있다. 자금 지원의 경우 실효성 측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생존율, 신규사업에 따른 고용률, 창업률 및 소득 지표 등을 주로 활용하는데(Andersson & Wadensjö, 2007; Baumgartner & Caliendo, 2008; Caliendo & Kritikos, 2010; Cueto & Mato, 2006; Del Monte & Scalera, 2001; Ejrnæs & Hochguertel, 2008; Meager et al., 2003; Pfeiffer & Reize, 2000), 혁신이나 경제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고취라는 정책 목표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자금 지원으로 인한 창업으로의 이행 측면에서 단기적인 성과 효과에 관한 연구는 다수 확인할 수 있고, 자금 지원정책의 경우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논의는 드물다. 그러나 기업가적 행동으로의 이행에서는 창업 이후 기업 경영 및 유지 측면도 고려해야 하므로 기업가정신 고취가 중요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가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 지원정책으로 기업가적 행동 이행을 자극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오히려 개인의 직업 선택을 왜곡하게 되고 결국 기업가적 이행에 해가 될 수 있다(Román et al., 2013). 이에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을 위해 대부분의 기업가정신 정책이 자금 지원 측면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금 지원 관련한 연구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대부분 창업으로 이행될 때 기업가정신 정책 중 자금 지원만이 아닌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의 필요성도 시사된다.

(2) 국내·외 기업가정신 정책

① 국내 기업가정신 정책

우리나라에서도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창업 지원 정책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 지원 예산은 1998년도 최초로 82억 원을 편성하였고,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최근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1-23)」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창업 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바 있다. 창업지원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에는 ①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②민간 협력과 상생 기반의 혁신 스타트업 육성(TIPS 확대, 사내벤처 프로그램 내실화, 글로벌 기업 및 대기업과의 협업 확대 등) ③지역 기반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업중심대학 강화 등) ④균형감 있는 창업 저변 확대(시니어, 여성, 장애인 창업 지원 등) ⑤창업정책 총괄 및 효율화(창업정책 거버넌스 확립, '도전! K-스타트업' 확대 지원 등) ⑥창업 친화적 제도 마련 등의 전략으로 창업 정책 지원을 추진하였다.

역대 정부별 창업 정책부터 살펴보면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추진해온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본 논문에서 살펴보는 기업가정신 정책의 범주화는 아니지만, 창업 정책[11]으로서 그간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 즉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제5·6공화국(1981-1992년)에 「중소기업창업법」이 제정되면서 창업 교육, 금융 및 조세 지원, 제도 개선 등의 창업 정책이 지원되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설립되었다. 김영삼 정부(1993-1997년)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11)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가적 이행, 즉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창업 정책'이라는 용어로 이전부터 사용해 왔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가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책을 기업가적 이행 이전 단계부터 주력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책보다는 기업가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 지원에 주력하여 정책사업이 수행됐음을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창업 관련 정책 및 사례를 살펴보는 부분에서는 '창업 정책'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살펴보았음. 따라서 창업 정책에 금융지원, 창업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율적 운영과 경쟁’으로 내세우면서 직접적 지원보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등을 강화하였고(박상원, 2012), 중소기업청이 출범하였다. 1997년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김대중 정부(1998-2002년)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책 방향이 컨설팅 및 창업 교육보다는 자금과 조세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창업자금지원제도」가 추진되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2003-2007년)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중소기업청, 2003),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활성화와 기술창업에 주목한 바 있다. 법률적으로는 「중소기업창업법」에서 투자 관련 조항을 없앴고 투자 관련은 「벤처기업법」으로 추진하면서 창업 지원과 투자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였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에서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창업 교육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과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신설 및 추진하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를 내세우며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년 창업 지원을 고용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추진하였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실패 시 재도전 지원에 주력하였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창업 지원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판교 창조경제 밸리, 청년창업사관학교, TIPS 프로그램, K-Start up 등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문재인 정부[12]에서도 적극적인 창업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창업 지원 예산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 국정과제로 ‘혁신 창업국가 건설’을 설정하였고, 「중소기업창업법」을 전면 개정하여 창업 개념 및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단계별, 대상별 특성에 맞

12) 문재인 정부의 주요 창업 대책은 다음과 같음.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K-유니콘 프로젝트,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등임.

추는 정책 추진 기조를 보였다. 또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투자 관련 내용을 강화하였으며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창업 정책사업을 운영하는 '창업진흥원'을 출범하였다. 정책적으로는 창업 친화적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해 제조 창업기업에 부담금 면제 종류를 확대하고, 세제 부담 완화, 연대보증 폐지, 창업비자제도 확대, 공공 구매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조력하는 방식의 정책 기조를 강조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이 경제 중심으로 자리 잡는 국가를 만들고자 예비 창업부터 스케일업 지원까지 완전한 창업생태계 구현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창업부터 사업화 성숙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 구축, 모태펀드 규모 확충으로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 강화, 전방위적 스타트업 성장을 가속화 하는 프로그램 도입, 사업전환과 재도전 규제개선 등을 국정과제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창업 중심 대학 확대 ②신사업분야 창업 지원 ③벤처투자 활성화 ④스케일업 지원 ⑤규제자유특구 고도화 ⑥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⑦재도전 환경 조성 등을 담고 있다(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역대 정부별로 창업 정책을 살펴보았는데,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을 위하여 창업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예산편성 및 투자 활성화, 관련 조직 출범 및 교육·보육 등을 담당하는 관련 기관을 설립하는 등 창업생태계 구현을 체계적으로 개선해왔다. 이에 기업가적 이행으로서 창업을 실현하고, 창업기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활발하게 해왔으나, 대부분 직접적인 자금 지원, 조세 지원, 투자 등의 지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지원(창업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자금 지원(창업 사업화,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시설, 공간) 등의 기업가정신 정책이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0). 이중 자금 지원에 85.7%를 투자하며 새로운 사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직접적 지원을 하면서 창업률을 높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교육지원에는 12.4%, 인프라 지원에는 8.7%로 그쳤다.

창업 정책을 위한 지원예산 규모와 사업 수는 다소 큰 폭을 보이며 2017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정책자금 지원금 역시 2019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정부의 기업가정신 정책(자금 지원 포함)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기업가정신 고취 및 기업가적 역량(창업 교육 등) 고취를 위한 정책 참여 경험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 표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창업 관련 정책사업이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을 도모하고,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 창업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포함된 사업은 많지 않다. 사업화에 대한 정책 지원이나 패키지 형식의 전반적인 지원 형태의 사업에 일부 기업가정신 교육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34개 창업 지원 정책 중 단 2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비즈쿨이나 대학 교육 기반의 창업 지원 사업)만 기업가정신에 주력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6] 창업진흥원 운영 창업 지원 정책사업(2023년 기준)

사업 분류	사업명	사업 내용	기업가정신 교육정책 내용 유무	지원예산
사업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화자금, 실무교육, 네트워킹, 멘토링, 컨설팅	△	650.55억원
	초기창업패키지	네트워킹, 투자교육, 멘토링	△	553.05억원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자금, 기업 창업 프로그램 지원	×	59,200백만원
	TIPS(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사업화자금	×	-
	창업중심대학	사업화자금, 기업가정신 촉진, 기업역량 강화	○	674억원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사업화자금, BM 고도화,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	19.65억원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업화자금, 교육, 멘토링	△	78.6억원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자금, 재창업교육, 멘토링	△	16,846백만원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사업화자금, 멘토링, 네트워킹, R&D	△	9,643백만원
	사내벤처육성프로그램	사업화자금, 기술/생산시설/유통망 지원, 멘토링	△	5,000백만원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BM 구체화,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	54.44억원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100)	사업화자금, 네트워킹, 멘토링, 교육	△	90.85억원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사업화자금, 기술고도화, 투자유치, 글로벌협업	×	500.35억원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비대면 사업화지원	×	410.75억원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사업화자금, 컨설팅, 마케팅	×	40,500백만원
창업 교육	청소년비즈쿨	기업가정신 교육, 체험형 프로그램	○	63.95억원
	창업에듀	온라인강좌, 창업교육	×	-

	혁신창업스쿨	창업교육, 멘토링, 실무교육	△	29.47억
행사 네트워크	글로벌스타트업페스티벌(COME UP)	컨퍼런스, 네트워킹, 멘토링	△	29.18억원
	도전! K-스타트업	경진대회	×	21.15억원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	컨퍼런스, 경진대회	×	4억원
	해외전시회	교육, 컨설팅, 마케팅	△	12억원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사업화자금, 멘토링, 네트워킹, R&D	△	7,556백만원
해외 진출	K-스타트업 센터	마케팅	×	9,720백만원
	글로벌액셀러레이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현지화지원	×	9,915백만원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교육, 액셀러레이터 보육, 네트워킹	△	-
인프라	창조경제혁신센터	네트워킹, 마케팅, 멘토링, 교육, 경진대회, 세미나	△	36,368백만원
	메이커스페이스	시설/장비 지원	×	28,300백만원
	스타트업파크	건축비 지원	×	126억원
	창업존 운영	공간제공,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 인프라	△	49.31억원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간지원, 경영지원, 사업화자금	×	51.08억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예비 창업자 발굴, 네트워킹, 멘토링	△	3,686백만원
	그린 스타트업 타운	건축비	×	145억원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공간지원	×	15,000백만원

자료: 창업진흥원(2023) 정책사업, 저자 재작성

[그림 5] 기업가정신 정책사업 예산 규모 및 사업 수 추이

자료: 정부창업지원 예산 자료(창업진흥원, 2023) 참조하여 재작성

[그림 6] 기업가정신 정책지원금 및 기업가정신 교육정책 참여율 추이

자료: 혁신창업생태계 대시보드 자료(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2) 참조하여 재작성

② 기업가정신 정책의 해외 국가 사례(미국, 이스라엘, 중국)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를 살펴보면 미국 실리콘밸리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뉴욕이 2위, 런던과 베이징은 공동 3위, 보스턴 5위, 로스앤젤레스와 텔아비브가 공동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 지역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미국과 중국, 영국, 이스라엘 국가에서 기업가적 이행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임을 알 수 있다(김규판 외, 2019).

먼저 미국의 창업생태계를 보면, 특히 벤처캐피털이 기업가적 생태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창업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인수합병 또는 IPO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벤처캐피털의 투자 금액과 투자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 스타트업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 비중(2,500만 달러 이상)이 약 30%였다면 2018년에는 약 60%로 증가하였고, 스타트업 성숙단계에서도 투자 비중(5,000만 달러 이상)이 2013년 약 50%에 못 미쳤지만 2018년 기준 약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itchBook, 2019).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투자 비중도 확대되면서 일반 기업이 벤처캐피털 생태계의 혁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혁신을 위한 스타트업 투자가 활성화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미국은 고성장 기업을 찾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조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가정신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더 많은 미국 국민들이 혁신적인 국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정신을 미국 핵심 가치로 강조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Choi & Markham, 2019; Hameed & Irfan, 2019; Schwartz & Malach-Pines, 2009). 주요 정책으로 기업가들의 자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기업의 자본소득세 감면, 저소득 지역의 소기업에는 5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공제 혜택 제공, 기업가와 멘토를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Choi & Markham, 2019; Lee & Wong, 2006), 기업과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대학, 재단

들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Wadhwani & Viebig, 2021; Yu, 2018). 이렇듯 미국은 클러스터[13] 개발, 산학협력, 혁신문화가 함께 이루어져 생태계가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창업을 위한 실무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등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창업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개설할 만큼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Fayolle, 2007; Valerio et al., 2014), 창업 교육을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실무 지향적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는데 주력한다(Solomon, 2007). 실무교육을 위해 인턴십을 활성화하는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결합하는데, 창업을 학교 교육의 일부로 보고 직업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론 교육이 아닌 현장 경험 강화를 통해 지식을 현실과 지역사회에 연결하는 것이 창업 교육의 핵심 가치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실무교육의 특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창업 보육 센터 및 벤처 클러스터 주변의 대학에서는 워크숍, 특강 등을 통해 기업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창업 교육을 구체화하는 개별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Din et al., 2016; Gouws, 2002). 스탠퍼드 대학교나 뱁슨 칼리지 등 약 150여 개 대학에서 기업가정신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가적 태도 및 인식 변화를 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Liquori et al., 2019). 스탠퍼드 대학교의 경우, 주로 세미나와 팀 활동을 통해 실전 지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자본 조달이나 지식재산권 관리, 협상 전략 등의 실무 강좌뿐 아니라 기업가정신, 리더십, 창의성 개발 등에 관련한 훈련을 중요시한다(Din et al., 2016; Lee & Wong, 2006).

즉 창업 교육에서는 실전 중심성이 특징인 것으로 보고, 창업 관련 과목을 최대한 실무 위주로 구성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론적 교육뿐 아니라 실제 창업자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최근에는 소액 자금을 제공하여 실제 사업을 실행해보도록 하는 교수 방법 등이 도입되고 있다(Khoury et al., 2012; Wadhwani & Viebig, 2021).

13) 특정 산업에서 서로 관련된 기업과 공급자, 기관 등이 지리적으로 연결된 것을 의미함.

이스라엘의 경우 R&D 정책이 고부가가치 창업과 연계되도록 주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데 목표를 둔다(Gimmon et al., 2019; 2021). 신기술 분야에서 R&D 촉진과 산학협력 강화, 벤처기업 육성, 기술 인큐베이터 활성화 등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각 지역마다 다수의 기술 인큐베이터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기술 인큐베이터의 성공률이 약 40%로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Gimmon et al., 2021; Shani & Yemini, 2022). 이스라엘 산업통상노동부(Office of Chief Scientists)가 주도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기술 기반 청년 창업자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정부가 개발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형태로 기술 창업 보육 사업을 지원한다. 사업 개발 실패 시 정부가 책임지지 않지만, 성공한 벤처기업에는 로열티 지급을 통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2년의 보육기간을 제한으로 두고 있고, 선정된 예비 창업자는 프로젝트 비용의 8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Shani & Yemini, 2022).

이러한 창업생태계 흐름에서 이스라엘은 청년 창업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학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술창업 보육을 위한 통합 정책 지원, 개인의 위험감수성을 고취하는 사회적 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The Zell Entrepreneurship Program은 대학교 학부 마지막에 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적극적인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 실무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에 관한 교육을 강조한다(Fayolle et al., 2019; Gimmon et al., 2021; Shani & Yemini, 2022).

중국의 창업 정책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서 '시범 후 확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Weiming et al., 2016; Zhou & Xu, 2012). 정부 주도하에 시범 후 확산과 대외 개방을 통해 혁신성과를 극대화한다. 선진 기술 확보를 위해 유학 후 귀국한 인력, 화교, 글로벌 유수 인재를 유치하고 창업자 유치를 강조한다. 또한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인도기금'을 조성하고, 장외 거래 시장 '신삼판(新三板·NEEQ)[14]'을 확대해 대규모 자

금 지원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창업생태계 기조를 갖는다(Lin & Xu, 2017; Yu, 2018, Zhu et al., 2017).

리커창(Li Keqiang) 총리는 지난 2014년 다보스 포럼에서 '대중 기업가정신과 혁신(Mas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하였고, 그 후 2015년부터 중국은 전국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혁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 정책을 공식 선언하였다(Mei & Symaco, 2022).

경제혁신을 위해 다수의 민간 창업에 주력하면서, '다증합일(多證合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통합하는 등 스타트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Weiming et al., 2016; Zhu et al., 2017), 규제 개선, 규제개선을 비롯하여 자금 조달 시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과 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 기업 및 금융권의 벤처 투자 등을 통해 창업 중개 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Mei & Sumaco, 2022; Yu, 2018).

무엇보다 창업 교육을 강화하는 생태계도 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등 교육 기관과 과학 연구소의 시범 기지를 중심으로 창업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Li et al., 2003; Weiming et al., 2016). 칭화대학교, 상해교통대학교, 남경대학교, 사천대학교 등을 거점으로 설정하여 창업 교육을 실시한다(Mei & Sumaco, 2022; Yu, 2018). 또한 사무 공간, 교육 및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는 창업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Weiming et al., 2016; Zhu et al., 2017).

중국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기업가정신 정책 및 교육정책 개입이 늦었지만, 최근 혁신을 위한 기업가정신을 개발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실무경험 위주의 교육정책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Hong, 2018).

14) 중국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유망 스타트업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 주식 시장으로 중국 정부가 2013년부터 베이징에서 운영됨. 신삼판에 상장한 기업은 약 8,100여 곳임.

이에 중국은 기업가정신 교육을 직접 기업가정신을 실천할 수 있고 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정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을 실천할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창업경진대회, 멘토링 등 실질적인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Huang et al., 2021).

중국에는 창업 롤모델인 알리바바, 텐센트, 리엔홍, 샤오미 등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젊고 기득권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 청년들의 창업 모델로 손꼽히는 사례를 통해 창업 교육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Lin & Xu, 2017; Yu, 2018; Zhu et al., 2017).

③ 기업가정신 정책에 대한 비교 논의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역대 정부마다 지원해왔다. 창업 지원을 위한 법 제정, 유관 지원기관 설립 등을 통해 창업생태계 및 문화를 조성하는데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했다. 이명박 정부부터 창업 교육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까지 다양한 창업 교육정책을 지원뿐 아니라 공간, 멘토링, 정책지원금, 투자유치 등 다양한 정책이 제공되고 있다.

다만 해외 정책과 비교하였을 때, 궁극적으로 기업가적 활동에 강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 함양을 통하여 더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 및 유지가 되도록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기업가적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직접 실무에 참여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업가정신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업가적 이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잠재적인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으로서, 또 기업가정신을 갖출 수있는 전인격적 교육으로서(Liñán et al., 2011)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O′Connor,

2012). 이러한 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2021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15] 결과를 보면, 이미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국가 간 비교 순위로 살펴보았을 때 50개국 중 6위(5.7점)[16]에 올랐고, 구체적인 항목별 조사에서도 정부 프로그램 효과성 부분 및 정부 창업 지원정책 적절성, 정부 규제 적절성 모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협회, 2022[17]). 무엇보다 2019년과 2020년은 참여국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비교하여 50여 개의 전체 국가에서 비교하였으나, 2021년은 GDP 수준별 모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 집단 19개국으로 분류되어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집단 내에서도, 정부 창업 지원정책의 적절성은 3위를 차지하였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 집단 내에서 대학 이상 기업가정신 교육 수준은 19개국 중 14위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정도 및 외부 전문가 확보 용이성, 시장 진입의 용이성이 각각 15위, 18위, 13위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47개국 중 46위로 나타나,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

15) 2021년 글로벌기업가정신 모니터 조사에서는 전 세계 50개국 참여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가 68명(재정, 정부 정책, 정부 프로그램, 교육 훈련, R&D, 대외협력, 시장개방, 물리구조, 문화사회 등 9개 항목에서의 전문가)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관련 국가적 제반 여건 70개 문항을 설문조사 하였고, 일반성인 2,000명(만 18세~64세 미만)을 대상으로 창업 태도, 창업 효과, 창업 활동 등 113개 문항을 설문조사 실시함.

16)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연도별 지수는 지수를 최초 발표한 2019년에는 5.13점(15위), 2020년 5.49점(9위), 2021년 5.7점(6위)을 기록함.

17)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협회(GERA,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는 매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 조사 결과를 발간하는 영국 런던 소재 연구단체임.

또한 2019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를 살펴보았을 때, 전문가 대상 조사로 이루어지는 초중고 기업가정신 교육 수준은 전체 평균 3.43점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전문가로 포함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로 포함된 대상자는 정책입안자, 투자자, 창업가, 컨설턴트, 교육자 등인데, 정책입안자가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교육 수준에 대해 측정한 점수는 평균을 훨씬 웃도는 5.26점인 반면, 창업자가 매긴 점수는 2.49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입안자와 창업자가 느끼는 기업가정신 교육 수준이 상당히 상이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창업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성화 기조에 따라 일명 'K-기업가정신' 지수가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높은 기업가정신 지수 이면에는 실질적으로 예비 기업가에게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다른 선진 창업생태계 국가의 기업가정신 정책과 비교했을 때,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기업가적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이행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업가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 체험이 가능한 실무경험 위주의 실질적인 정책 프로그램 방향 설정이 필요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창업에 대한 인식도 더 긍정적으로 확산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향후 실질적인 기업가정신 정책 및 교육정책, 창업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데 의의가 있다.

(3)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의 역할

기업가정신 교육은 정부 및 학계, 대학 등에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Kuratko, 2005). Parry(1996)는 지식과 기술의 집합으로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고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가정신을 지닌 실질적인 기업가로의 행동 이행이 많은 기업가 및 창업가를 창출하고, 고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Audretsch et al., 2011; Rauch & Hulsink, 2015). 따라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부 정책이 지원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기업가적 역량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측면의 정책 개입(Policy Intervention)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정책 적절성은 조사 대상 19개국 중 3위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로 정책 개입이 이루어져 창업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교육시스템이 수행하는 역할은 광범위한 합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의 역할을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Lundström & Stevenson, 2002).

먼저,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은 사람들이 기업가적 태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도구 중 하나로 볼 수 있다(Kolvereid, 1999; Kolvereid & Moen, 1997; Liñan et al., 2011; Tkachev & Potter 2008).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은 기업가적 이행의 선행요인인 긍정적 태도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궁극적으로 기업가적 의도와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Fayolle et al., 2006a; Liñan et al., 2011). 특히 기업가적 이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질 때 역량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고취시킬 수 있다(Rauch & Hulsink, 2015). 즉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인지된 행동 통제가 기업가적 의도를 설명하는 가장 관련 높은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기업가적 의도를 높이고 원활한 기업 운영을 도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교육정책 역할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다(Liñán et al., 2011).

기업가정신 중 긍정적 태도 및 자기효능감 측면 이외에도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은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행되는데 필요한 기업가적 역량(지식 및 기술)과 기회 포착 능력 등을 고취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Rauch & Hulsink, 2015).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련 기본 지식 습득이 이루어지면 기업가적 인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창업이 직업 선택이 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6). 창업가 대부분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관련 기술 능력 및 지식 등 기업가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데, 이러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교육으로는 부족하고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교육을 배워야 한다(Lockett et al., 2003). 즉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회를 포착하고 역량을 고취시켜 새로운 모험적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Kourilsky, 1995). 기회 인식(포착)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은 더 많은 기회와 더 혁신적인 기회를 식별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Tienne & Chandler, 2004; Epstein, 1996).

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기업가적 지향성 및 기업가의 역할 등 기업가적 행동 이후의 발전을 고려하는 능력도 고취할 수 있게 된다(Liñán et al., 2011). 즉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업가적 행동 실행을 위한 지식과 역량 고취뿐만 아니라 기업가적 인지, 기업가적 지향성 형성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Malach & Kristová, 2017),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기회를 포착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다(Lackeus, 2014; Santoso et al., 2021).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은 직업 교육의 맥락에서도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데, 교육을 통해 잠재적 기업가들이 창업이라는 직업 옵션에 대해 인식하고 관심 갖도록 할 수 있고, 더 많은 잠재적 기업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도하게 함으로써 초기 기업가의 공급을 늘리는 중요한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Liñán et al., 2011).

4.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논의

(1) 기업가정신 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의 정의 및 범위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정신 정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기업가정신 교육의 범위도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고, 다양한 정의에 따라 교육성과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Rauch & Hulsink, 2015). 기업가정신을 기회의 인식과 활용, 기회 추구의 요인을 강조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업가정신(예: 기업 기업가정신, 사회적 기업가정신, 초기 기업가정신 등)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기업가정신 교육은 새로운 기업 창출과 가치 있는 태도, 행동 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Gibb, 2002).

기업가정신을 새로운 조직의 창출을 위한 전제 요소로만 보는 관점이라면(Gartner, 1988), 기업가정신 교육의 결과로서 창업이라는 기업가적 행동 자체를 교육의 성과(Outcome)로 볼 수 있다. 물론 창업이라는 기업가적 행동이 적절한 성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Fayolle et al., 2006b). 대부분 기업가정신 교육 과정은 교육 참여자가 바로 기업가적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져 있지만,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았을 경우 기업가적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드물다(Gibb, 2002). 앞서 기업가적 이행에 관한 연구 부분에서 기존 연구를 통해 고찰한 것처럼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의도나 의지를 가질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도 창업을 한다는 것은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인해 창업 행동으로 직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교육효과 측면보다는 독립적인 기업가 행동을 교육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18](Bird et al., 2012; Pittaway & Cope, 2007).

---

18)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성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간단하게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교육효과와 관련한 고찰은 '(2)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 부분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임.

기업가정신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범위를 살펴보았다면, 구체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의미와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을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Entrepreneurship)'으로 바라보느냐, '기업가정신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Entrepreneurship)'으로 접근하느냐를 고민해볼 수 있는데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Jamieson, 1984).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은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면서,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e.g., Oosterbeek et al., 2010; von Graevenitz et al., 2010).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창업 교육[19]의 일부로 커리큘럼에 일부 포함하고 있다. 창업 교육이 주로 기업가적 이행 및 창업가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내연구에서도 기업가정신을 창업 교육의 일부로 보고, 교육을 받았을 때 기업가적 이행 및 창업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산출물을 목표로 수행하는 연구가 많다(김영수 · 성상기, 2015; 이채원 · 강경균, 2016).

반면 '기업가정신을 위한 교육'은 잠재적 기업가들을 위한 창업 준비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특히 이론 및 정보 전달의 교육 내용보다는 일반적으로 실천과 행동 중심의 학습을 강조한다. 이에 창업가와 기업가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기업가적 역량, 지식, 기술을 제공하고(Boyles, 2012), 기업가적 태도 및 지향성 등을 자극하며(Gibb, 2008; Glaub et al., 2014), 사업 제안 준비와 코칭, 새로운 벤처 창설을 개발하고 촉진하고자 지원한다(Rasmussen & Sørheim, 2006).

따라서 기업가정신을 위한 교육은 기업가적 역량을 구축하는 데 중요

19)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가적 이행, 즉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창업 정책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창업 지원 정책 중 교육지원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창업 교육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 논의에 따라 창업 교육을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명명하였고, 기업가정신 교육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고 논의하고자 하였음. 유사하게 창업 정책에 대한 부분도 기업가정신 정책으로 명명하였고, 기업가정신 정책은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기업가적 이행으로 연결되는데 필요한 관련 정책을 모두 포함하였음. 앞서 논의한 대로 기업가정신 정책에는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정책뿐 아니라 교육정책, 인프라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음.

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Hannon, 2006). 특히 기업가적 행동이 직업 선택의 대안으로서 대두되면서 기업가정신 교육은 더욱 주목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업가적 태도 및 인식, 기회 포착 및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지향성 등을 고취시키는 주요 역할로 여겨지고 있다(Galloway & Brown, 2002; Shane et al., 2003).

OECD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자 기업가적 역량을 높이고 기업가적 마인드셋(기업가적 지향성, 자기효능감, 태도 등)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Heinonen & Poikkijoki(2006)는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해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지식을 배양함으로써 기업가로서의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유럽연합에서는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기업가적 역량과 기업가로서의 능력을 키워 기업가로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에 가치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한다.

(2)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

기업가정신 교육은 태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 기업가적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업가적 의도는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파악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이러한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정신, 기업가적 의도, 기업가적 행동까지의 각 연결 관계들을 통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행 관계를 설명한다(Gartner & Carter, 2003; Rauch & Hulsink, 2015; Souitaris et al., 2007).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회 인식(DeTienne & Chandler, 2004) 또는 창업(Souitaris et al., 2007) 등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Rauch & Hulsink, 2015). 즉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고취됨으로써 기업가적 이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다수 존재하지만, 여전히 기업가적 의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명확하게 확립한 연구는 미비하다(Marques et al, 2012).

앞서 기업가적 이행에 관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Athayde, 2009; Ferreira, et al., 2012; Liñan et al., 2011; Mwasalwiba, 2010; Peterman & Kennedy, 2003), 그간 연구는 의도 모델에 기반한 계획된 행동이론을 주로 활용하였다(Athayde, 2009; Fayolle et al., 2006b; Ferreira et al., 2012; Peterman & Kennedy, 2003; Rauch & Hulsink, 2015).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Krueger et al., 2000; Liñan & Chen, 2009), 의도가 기업가적 행동(Kautonen et al., 2013)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를 살펴보면,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의도에 간접적 효과를 생성한다는 연구(Krueger & Brazeal, 1994; Krueger & Carsrud, 1993; Liñán & Chen, 2009)와 직접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Fayolle et al. 2006a; Liñán

2004)를 통해 교육이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해왔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적 이행 간의 관계를 볼 때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적 행동 간의 영향은 약한 고리로 파악되는 연구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적 행동의 선행 요건으로 의도를 가정해왔는데, 기업가적 행동과 의도의 연결을 저해하는 상황적 제약이 많으므로, 기업가적 이행에서 의도와 행동 사이의 연결 고리가 매우 약하게 나타나는 것이다(Katz, 1990). 이에 행동을 관찰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위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Krueger & Brazeal, 1994) 특정 행동 유형을 예측하기 위해 주로 의도를 연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의도, 태도, 자기효능감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간의 성과로 나타나더라도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는 늦게 나타날 수도 있다(Kolvereid, 1996a).

즉 행동 결과(Behavioral Outcomes)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데까지 다양한 영향요인이 많고 시간에 대한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기업가적 태도 및 기업가적 의도에 미치는 효과의 영향 크기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Martin et al., 2013). 이에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를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태도와 자기효능감 등 기업가정신이 고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업가적 의도와 행동으로 반드시 변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기업가적 이행을 원활하게 도모하기 위한 영향요인을 파악할 필요성은 제기된다. 예를 들어, 높은 기회비용 및 재정 부족 등의 요인은 인지된

행동 통제(자기효능감 등)가 높게 나타난 사람일지라도 기업가 행동으로 이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고, 자원과 인식, 제도적 요인들이 기업가적 의도와 기업가적 행동 사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Rauch & Hulsink, 2015).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실제 행동에 미치는 여러 변수의 영향을 간과된 채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기업가정신 교육효과가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교육(훈련)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창업 활동 및 창업기업의 수(Souitaris et al., 2007)만을 결과 변수로 활용함으로써 성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과정이 무시된 채 이론적 자의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효과에 대한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의 목표가 기업가정신 인식 고취(von Graevenitz et al., 2010)거나 기업가적 이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 경우에는 창업 행동을 교육의 성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Oosterbeek et al., 2010).

따라서 기업가적 행동으로 간주 되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황별 문제(Contextual Issues)가 있기 때문에(Ettl & Welter, 2010) 결과적으로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자 요소(Moderator Factors)를 파악해내는 것이 필요하고(Rauch & Hulsink, 2015), 기업가적 행동으로의 결정을 촉발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Shapero, 1982). 이에 기업가적 행동에서 교육의 영향을 전달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중재 과정(Mediating Process)을 강조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Rauch & Hulsink, 2015).

[표 7]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의 영향요인 관계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미치는 영향요인		출처
기업가정신	교육 → 기업가적 지향성	Liñán et al.(2011), Malach&Kristová(2017), OECD(2023), von Graevenitz et al.(2010)
	교육 → 기업가적 태도	Fayolle et al.(2006a), Kolvereid&Moen(1997), Liñan et al.(2011), Potter(2008), Tkachev&Kolvereid(1999)
	교육 → 자기효능감	Fayolle et al.(2006b), Liñan et al.(2011)
	교육 → 기업가적 역량	Hannon(2006), Heinonen&Poikkijoki(2006), Rauch&Hulsink(2015), Lockett et al.(2003), Oosterbeek et al.(2010), Parry(1996)
	교육 → 기회 식별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6), DeTienne&Chandler(2004), Epstein(1996), Rauch&Hulsink(2015), Kourilsky(1995)
기업가적 이행	교육 → 기업가적 의도	Krueger et al.(2000), Liñan&Chen(2009)
	교육 → 기업가적 행동	김영수・성상기(2015), 이채원・강경균(2016)
	교육 → 새로운 가치 창출	Gibb(2002), Lackeus(2014), Liñán et al.(2011), Santoso et al.(2021)
	교육 → 기업가정신 → 기업가적 이행	Gartner&Carter(2003), Rauch&Hulsink(2015), Souitaris et al.(2007)
		※[20] 시간에 대한 외부 효과로 인해 의도와 행동 간의 약한 영향 고리를 보이는 연구가 다수 있음 (Katz(1990), Kolvereid(1996a), Krueger&Brazeal(1994))
	교육 → 기업가정신 → (외부적 요인) → 기업가적 이행	Rauch&Hulsink(2015)

20)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묾.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정신 고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가적 이행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다수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기업가적 이행에서 기업가적 의도와 기업가적 행동 간 관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시간이 지나면서 변위 되기 쉽고, 기업가적 교육이 의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기업가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효과는 늦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임. 특히 기업가적 이행에서 기업가적 의도와 기업가적 행동 간 관계에서도 다양한 영향요인이 개입할 수도 있고, 시간에 대한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가 기업가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보다 기업가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Martin

5. 기업가정신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기업가적 이행 과정에서 창업으로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행동으로 실행되는 것은 복잡한 정신적인 과정의 결과이다. 특히 이 과정에는 여러 영향요인이 얽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을 설계할 경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영향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채 시행되어왔다(Liñan et al., 2011).

기업가적 이행에는 얽혀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가적 행동을 자극하는데 어떤 유형의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적합한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Rauch & Hulsink, 2015).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은 대부분 기업가적 지향성 및 긍정적 태도, 자기효능감을 고취하는 심리적 측면의 교육과 기회 식별이나 기업가적 역량을 배양하는 실무적 측면의 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의 태도 및 지향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개입(Verduyn & Jansen, 2005), 기회 식별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개입(DeTienne & Chandler, 2004), 기업가적 행동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개입(Neck & Greene, 2011) 등이 있지만, 영향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어떤 정책 개입의 방식이 효과적이고 어떤 영향요인이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고(Rauch & Hulsink, 2015), 기업가적 행동을 자극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업가정신 교육계획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Liñán et al., 2011).

(1)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업가적 이행 과정을 설명하는데 보았던 다양한 의도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의도 모델에서는 행동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요인으로 태도(바람직함), 자기효

et al., 2013).

능감(실현 가능성), 주관적 규범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업가적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가적 이행에 전제되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도 이 모델에 기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기업가정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잠재적인 기업가가 기업가적 행동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기업가적 이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업가적 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정부 정책이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기업가적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Miranda et al., 2017).

이에 기업가정신 교육은 참여자가 기업가정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교육을 통해 기회 인식에 관한 경험을 수행하여 실제 기업가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장현철 · 김종성, 2021). 참여자 스스로 창업에 도전하고 싶은 욕구를 깨우치는 방식으로 기업가정신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Rauch & Hulsink, 2015).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감정과 열정을 강조함으로써 기업가적 태도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Souitaris et al., 2007). 기업가적 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사업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에서 잘못된 측면들을 제거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므로, 위험감수성 및 위험 저감 전략을 교육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van Gelderen et al., 2008).

또한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려될 수 있는 비용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rkman et al., 2002; 2005).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자기 위협적인 요소를 줄이고 기업가적 행동의 보상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기업가적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Souitaris et al., 2007).

태도 측면뿐 아니라 자기효능감으로 볼 수 있는 인지된 실현 가능성을 고취시키는 교육도 필요하다. 기업가적 행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기업가적 행동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van Gelderen et al., 2008). 따라

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기업가적 행동에 필요한 역량과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자기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기업가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업무에서 숙련된 경험 및 기술 능력이 있다면 자기효능감은 증가할 수 있다(Kuehn, 2008).

따라서 인식된 실현 가능성과 바람직함(긍정적 태도)이 기업가정신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Autio et al., 2001; Kolvereid, 1996b; Krueger et al., 2000; Liñán & Chen, 2009; Liñán et al., 2010; Tkachev & Kolvereid, 1999),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 기업가정신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Liñán et al., 2011).

한편,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관적 규범(가족 및 지인의 신념 등) 측면은 내부적 요인에 해당하는 태도와 자기효능감과는 다르게 외부적 요인에 해당함으로 잠재적인 기업가를 교육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에서는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잠재적 기업가가 기업가정신이 고취되고 다른 잠재적 기업가의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한다. 어떤 한 개인의 기업가적 행동이라는 결정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확산하고, 타인의 믿음을 바꾸게 되며 태도와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가정신 교육은 잠재적인 기업가들이 기업가적 행동의 가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Rauch & Hulsink, 2015).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참여자의 개인 심리가 변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단기적인 개인 목표를 명시하고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인하는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Brown, 1990; Fillion, 1995; Foley & Griffith, 1998; Garavan & O′Cinneide, 1994b). 이와 더불어 OECD가 제시한 기본적인 기업가적 역량 및 기업가적 마인드셋(기업가적 지향성)을 고취하는 교육까지 고려하여, 기존 연구에서 살펴본 태도 및 지각된 통제 등의 관련 변수값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Liñán et al., 2011).

(2) 기업가정신 실천적 교육(Entrepreneurial Practice, EPr)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기업가적 지향성, 자기효능감, 태도 등 심리적 측면의 고취뿐만 아니라 창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팀빌딩, 기업가의 시간 관리, 리더십 등의 실무적 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Garavan & O'Cinneide, 1994a). 더 나아가 창업 이후 운영적 측면에서 필요한 기업 사내 구조 및 기능 설정하는 방법, 자금 조달, 인적 자원 및 리더십 동기부여 등에 대한 교육이 기업가정신 교육으로서 선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 역동적인 행동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Garavan & O'Cinneide, 1994b; Santos & Liñán, 2007).

기업가적 이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살펴보면, 대부분 잠재적 기업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구성하는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제공하는 경우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는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증가시킬 수 있어도 바람직함에 대한 영향은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Carrier, 2005; Honig, 2004). 그러나 바람직함에 대한 요소는 잠재적 기업가의 기반을 확장하려는 경우에 필수(Fillion, 1995)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과 바람직함을 동시에 구현하여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무적인 실천적 교육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계획 작성 이외에 기업가적 이행에 필요한 지식 자본을 배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식 이전 활동(Knowledge Transfer Activities)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Etzkowitz et al., 2000).

무엇보다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이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서의 기업가정신을 더 고취할 수 있고, 기업가적 이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작용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들에 대한 영향도 고려함으로써 더욱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기업가적 이행으로 연결되는 데는 기업가적 지향성 및 역량, 태도 등의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주관적 규범, 사회문화적

인식 등을 통한 외부적 요인의 영향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외부적 요인의 부족이 장애물로서 작용한다면 기업가적 이행이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사업계획서 구축 등의 이론적 교육만으로는 기업가적 행동 이행에 한계가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정신 고취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무 및 경험적인 부분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교육 제공을 통해 기업가적 이행 시 작용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Rauch & Hulsink, 2015). 따라서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기업가적 이행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기업가정신 실천 및 훈련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가정신 교육은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 시작해야 하며(Neck & Greene, 2011), 학생들이 기업가적 과정(Entrepreneurial Process)에서 상상(Imagined), 형성(Shaped) 및 생성(Created)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arasvathy, 2001).

예를 들어, 대학교 내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대학 정책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교의 졸업생이 만든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 개의 일자리와 약 1,640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한 바 있다(Roberts & Eesley, 2011). 이는 대학교 내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적 행동 이행을 위한 실천 및 훈련 프로그램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었고, 이는 국가와 정부의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Rauch & Hulsink, 2015).

인적 자본 이론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은 지식과 기술, 능력과 같은 훈련 결과(Fayolle et al., 2006b)가 창업과 사업 운영에 더 효과적인 기업가를 만든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이론에 기반한 교육을 넘어 지식과 기술, 능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가적 실천 및 훈련(Entrepreneurial Practice, EPR)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auch & Hulsink, 2015). 기업가적 실천 및 훈련은 기업가적 행동으로 수행되기 위해 참여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Lackeus(2014)는 실습 기반의 실천교육을 통해 이루어진 개인의 내부적 요인의 성장, 경험이 개인의 개발과 성장을 이끄는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Butter & Sierminska(2020)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기업가정신 달성을 위해서 완충 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에 필요하고 실용적인 기업가정신 관련 경험을 얻게 된다고 설명한다. 결국 성공적인 기업가적 이행으로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경험은 실무경험(Tacit Knowledge)이기 때문에(Hellmann & Thiele, 2019), 완충기간 동안 경험을 통해 기업가적 행동 이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실용적인 활동에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이론적 지침으로부터 습득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개인 실습을 통해 기업가적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교육의 조합이 강조되는 바이다(Leitch & Harrison, 1999).

또한 앞서 꾸준히 논의된 기업가적 의도와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기업가정신 실천적 교육에서 적용해볼 수 있다. 잠재적 기업가가 기업가적 의도가 없을 때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을 통해 의도를 고취하는 경우와 기업가적 의도가 있는 잠재적 기업가가 기업가적 행동으로 연결되는데 실천교육이 필요한 경우이다.

먼저 전자를 살펴보면, 기업가적 의도가 있는 잠재적 기업가가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이다. Bae et al.(2014)은 기업가적 의도가 있는 개인이 기업가적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역량 등을 배양하고자 기업가정신 교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한다.

궁극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업가적 의도가 있고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다(Liñán, 2007). 기업가적 의도가 있는 잠재적 기업가의 경우 구체적인 기업가적 지식이 부족하고 창업을 위해 당장 어떤 구체적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Honig, 2004).

반면에 후자를 살펴보면, 실천적 교육을 통해 기업가적 의도가 없더라도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기업가적 이행으로의 가치에 대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적 행동을 결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실천적 교육을 하는 정책 수단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잠재적 기업가가 직업 선택 시 기업가적 행동이라는 진로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측면이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외부적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에 대한 정책 및 내부적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창업에 대한 기회 포착과 기업가적 역량을 고려할 수 있는 실천적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업 및 기업가적 행동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은 기업가적 행동에 대한 매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Liñán et al., 2011).

오히려 기업가정신에 관한 사전 경험이 많지 않고 긍정적이지 않은 참가자가 기업가 인식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 측면에서 더 많이 고취된다는 연구도 있다(Peterman & Kennedy, 2003). 초기창업 의도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 보다 교육을 받았을 때 인지된 실행 가능성과 바람직함이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Cooper & Lucas, 2007; Fayolle, 2007). 창업이라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모든 잠재적 기업가에게 실천적 교육을 통해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창업 정책 지원의 목적이 이미 창업 의도와 행동으로의 확신이 있는 잠재적 창업자뿐만 아니라 의도가 없는 잠재적 창업가에게도 실천적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를 시사한다(Liñán et al., 2011).

특히 잠재적 기업가의 성격이나 특성, 지향성에 따라 기업가적 이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천적 교육정책의 일부로서 기업가 활동의 문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포함시킴으로써 환경 변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된다(de Pillis & Reardon, 2007; Miranda et al., 2017). 이를 통해 기업가적 이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는 문화를 육성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이행에 기본임을 증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Marques et al., 201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03)의 경우, 기업가 활동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할 때는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해 인식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넓은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① 기업가정신 실천의 정의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실천 관점(Practice Perspective)'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Gartner et al., 2016). 효과적인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하여 실무 관점에서의 실천에 기반하는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Gross et al., 2014; Neck et al., 2014). Gross et al.,(2014)은 실무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이론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기업가적 실무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실천 이론(Practice Theory)'은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 사이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다. 서로 연결된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루틴화된 유형의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동의 양식은 이를 통해 조직에서의 실제 관행에 대해 고민하고, 조직 내의 행동 양식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가들의 행동을 파악하고자 한다(Gartner et al., 2016).

실천 이론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과거에는 개인과 환경 사이만의 관계

를 연구하는 전통적인 관점으로서 접근함으로써 개인이 암묵적인 조직 내의 규율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의 구조를 배우고 그 구조대로 개인이 행동할 수 있는 관점으로 보았다면(Bourdieu, Giddens, Ortner), 최근의 연구 관점은 개인이 복잡한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고 조직에서 개인이 행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호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Whittington, 2006).

즉, 실천 이론은 개인이 각 개인의 수준과 집단 수준 등 다양한 복합적 상호 관계에서 각 개인의 행동 방법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며,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구조 내에서 행동 노하우 등을 배워나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경험적 학습 또는 체험 학습(Experiental Learning) 이론을 보면, 개념적으로 보편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학습에 대하여 단순한 정보 전달과 획득이 아니라 경험의 변형을 통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을 학습으로 정의한다(Kolb, 1984). 즉 체험 및 실전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험을 학습하는 것이다(Wang et al., 2022).

이러한 실천과 경험에 기반한 이론을 기업가정신에 적용해보면, 실천으로서의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정신을 이해하고, 기업 운영 방법을 알고, 기업이 원하는 방향을 이해하고 운영해나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업가정신 실천은 기업가정신을 가진 개인이 직접 활동하고, 체험하고, 현장을 이해하려는 방식이다.

따라서 EPR(Entrepreneurship Practices, 기업가정신 실천)은 기업가가 직접적으로 기업가정신을 이해하고,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일상화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Gartner et al., 2016), 기업가가 창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참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Huang et al., 2021). 기업가정신 실천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습득하는 완충 기간에 실용적인 창업 관련 경험을 습득하게 되는데, 성공적인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하고 이러한 경험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지식이 된다(Hellmann & Thiele, 2019).

이러한 기업가정신 실천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실습 및 실무 위주의 실천적 교육 형태에 대하여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어 활용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의 '실천적 교육(Entrepreneurship Practice)'(Huang et al., 2021; Piperopoulos & Dimov, 2014), '경험적·체험적 학습(Experiential Learning)'(Fayolle et al., 2019; Grewe & Brahm, 2020; Otache et al., 2020; Seidel et al., 2020; Welsh & Tullar, 2014), '실습 중심 교육(Practice-Oriented Teaching)'(Sirelkhatim & Gangi, 2015), '행동 및 경험 중심 교육(Action-and Experience-Oriented Entrepreneurship Education)'(Nabi et al., 2017; Neck & Corbett, 2018), '실제 경험(Practical Experience)'(Hellmann & Thiele, 2019), '행동 기반 기업가정신 교육(Action-based Entrepreneurial Education)'(Lackéus, 2014) 등으로 활용되어 연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습, 실무, 경험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여 '기업가적 실천(Entrepreneurial Practice)' 용어로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표 8] 기업가정신 실천(Entrepreneurial Practice)의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출처
기업가정신의 실천교육 (Entrepreneurship Practice)	Huang et al.(2021), Piperopoulos&Dimov(2014)
체험적 학습 (Experiential Learning)	Fayolle et al.(2019), Grewe&Brahm(2020), Otache et al.(2020), Seidel et al.(2020), Welsh&Tullar(2014)
실습 중심 교육 (Practice-oriented teaching)	Sirelkhatim&Gangi(2015)
행동 및 경험 중심 교육 (Action-and experience-orient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Nabi et al.(2017), Neck&Corbett(2018)
실제 경험 (Practical Experience)	Hellmann&Thiele(2019)
행동 기반 기업가정신 교육 (action-based entrepreneurial education)	Lackéus(2014)

② 기업가정신 실천의 유형

유럽에서는 국민의 생애 경쟁력을 높이고자 기업가적 역량(Entrepreneurship Competence)을 핵심 역량 중 하나로 보고 평생교육에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고도화하거나, 창업 분야 역량 관련 교육에 관한 연구 및 실무 적용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이나 창업 교육 지원현황은 양적 성장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어 교육정책 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변지유 · 이장희, 2020). 국내 대학에서 제공되는 기업가정신·창업 교육은 대부분 이론 기반의 교양 수준에 머물러 있고(남정민 · 이환수, 2017; 목영두 · 최명길, 2012), 양적 성장에 이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서의 요구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Ploum et al., 2018; 변지유 · 이장희, 2020). 연구 측면에서도 국내 학계에서는 기업가정신과

역량에 관한 연구나 적용사례 등이 희소한 상황이기 때문에(남정민 · 이환수, 2017; 목영두 · 최명길, 2012; 변지유 · 이장희, 2020), 역량 관련 교육체계를 고도화하고 적용 및 확산하는 것과 실천적인 준비 행동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Czyzewska & Mroczek, 2020).

그동안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사업 모델 개발, 타당성 분석 등 기업가적 행동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데 집중해 온 경향이 있다(e.g., Kolvereid & Moen, 1997; Matlay, 2008; Robinson & Sexton, 1994). 또한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과정과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가가 직접 경험하면서 겪는 내용 등이 결국에는 중복되기 때문에 이론적 지식 전달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Edelman et al., 2006). 따라서 최근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기업가적 행동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기업가정신 교육을 행동(Action)과 실험(Experimentation), 실습(Practice)에 중점을 두고, 잠재적 기업가들이 기업가적 이행 이전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으로 구성되어 개발되고 있다(Rauch & Hulsink, 2015). 예를 들면, 대학교 내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하여 경영 관련 이론에 대한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역동적으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도록(Chawinga, 2017) 예비 기업가들이 유사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파트너 및 창업 관련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기업가적 이행을 자극하기 위한 실제 창업가 초청 강연 등을 포함한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것이다(Yang et al., 2021).

이외에도 대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것, 대학교 시절 소규모 회사를 창업해보는 경험을 하는 것, 기업가적 이행과 관련한 시뮬레이션, 디자인 씽킹 등을 통해 실습, 실천교육의 접근법으로 기업가적 실천 및 훈련 교육을 제안한 바 있다(Kuratko, 2005; Mustar, 2009; Neck & Greene, 2011). 특히 디자인 씽킹과 같은 기업가정신 교육의 참여 경험은 기회 포착이나 기업가적 의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김종성, 2019). 또한 개인이 자

신의 회사를 만들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개념에서 실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은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서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데 효과적이며, 기업가적 이행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Grewe & Brahm, 2020).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업가적 실천교육을 구성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기업가적 실천 역시 활동 유형의 다양한 특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는 없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가적 실천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변수 및 기업가적 실천의 구성에 대하여 논의한 연구를 종합해볼 수 있다. 경험적, 체험 학습 측면에서 역할극(Role-play), 프로젝트(Project Methods), 성공한 기업가의 강연(Speeches of Successful Entrepreneurs), 인큐베이터(Incubators), 인턴십(Internships), 비즈니스 시뮬레이션(Business Simulations)(Sirelkhatim & Gangi, 2015)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Fayolle et al., 2019; Grewe & Brahm, 2020; Otache et al., 2020; Seidel et al., 2020; Souitaris et al., 2007; Welsh & Tullar, 2014). 이외에도 기업가정신 코칭(Entrepreneurship Coaching)(Bell & Bell, 2016), 멘토링(Mentoring)(Huang et al., 2021), 실제 창업자와의 네트워킹 및 대면 커뮤니케이션(Networking & Face-to-face Communication with an Entrepreneur)(Cui & Bell, 2022), 교내 소기업 창업(Mini-companies at school)(Grewe & Brahm, 2020) 등이 있다. 또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진대회(Business Plan Competitions, Entrepreneurship Design Competitions, Entrepreneurship Competitions)에 대한 부분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Bergmann et al., 2018; Cui & Bell, 2022; Daub et al., 2020; Der Foo et al., 2005; Lv et al., 2021; McKenzie, 2017; Smith et al., 2017; Souitaris et al., 2007; Tipu, 2019; Yang et al., 2021). 한편, 기업가 실천을 환경적 시스템 측면으로 본 연구도 확인할 수 있다.

Wang & Huang(2020)은 벤처펀드(Entrepreneurial Funds), 기업가적 실천 서비스(EPr Service), 기업가 공간(Entrepreneurship Park) 등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표 9]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을 구성하는 활동 요소

실천교육 구성 요소	출처
멘토링/ 벤처펀드(entrepreneurial funds)/ 기업가적 실천 서비스(EPr service)/ 기업가 공간(entrepreneurship park)	Huang et al.(2021)
네트워킹/ 창업가 강연	Yang et al.(2021)
교과 과정 내 창업 실습/ 교내 소규모 창업 경험/ 시뮬레이션/ 디자인씽킹	Kuratko(2005), Mustar(2009), Neck&Greene(2011)
경험적·체험 학습 측면에서 역할극(role-play)/ 프로젝트(project methods)/ 성공한 기업가의 강연(speeches of successful entrepreneurs)/ 인큐베이터(incubators)/ 인턴십(internships)/ 비즈니스 시뮬레이션(business simulations)	Fayolle et al.(2019), Grewe&Brahm(2020), Otache et al.(2020), Seidel et al.(2020), Souitaris et al.(2007), Welsh&Tullar(2014)
시뮬레이션/ 네트워킹/ 커뮤니티 참여	Gibb(2002)
기업가정신 코칭(entrepreneurship coaching)	Bell&Bell(2016)
실제 창업자와의 네트워킹 및 대면 커뮤니케이션 (Networking&face-to-face communication with an entrepreneur)	Cui&Bell(2022)
교내 소기업 창업(mini-companies at school)	Grewe&Brahm(2020)
경진대회 (business plan competitions, entrepreneurship design competitions, entrepreneurship competitions)	Bergmann et al., 2018; Cui & Bell, 2022; Daub et al., 2020; Der Foo et al., 2005; Lv et al., 2021; McKenzie, 2017; Smith et al., 2017; Souitaris et al., 2007; Tipu, 2019; Yang et al., 2021
체험 교육/ 창업동아리/ 창업캠프/ 창업경진대회	중소벤처기업부(2022)
디자인 씽킹	김종성(2019)

③ 기업가정신 실천의 역할

기업가적 이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기업가정신의 다양한 내부적 요인을 고취시키고 외부적인 장애 요인들을 줄여나가게 하기 위한 교육 방식으로 실습, 실천 및 훈련 교육, 실무경험의 교육 등이 강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학자들도 최근 들어 행동과 경험 중심의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하여 주목하기 시작했다(Lackéus, 2020; Rosado-Cubero et al., 2021).

결국 실천적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 배움으로써,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 중 기업가적 지향성 및 긍정적인 태도 등의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수 있고(Souitaris et al., 2007), 기업가적 행동으로의 실현 가능성과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긍정적인 태도도 형성할 수 있다. 다만 실천적 교육에서 핵심으로 여겨지는 멘토 및 역할 모델의 존재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Autio et al., 2001; Kolvereid, 1996b; Krueger et al., 2000; Liñán & Chen, 2009; Liñán et al., 2010; Tkachev & Kolvereid, 1999).

특히 멘토링 포함한 훈련 프로그램은 기업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가깝고 정확한 지식을 얻는 것뿐 아니라 지역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Gibb, 1998). 또한 지역 기업가 및 사업 관련 커뮤니티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제해결 및 창업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Kent, 1990).

결국 기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업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제 기업가적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Gibb, 2002). 또한 창업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행될 때 필요한 가용 자원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저해 요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적 행동을 자극하게 된다(Rauch & Hulsink, 2015).

마지막으로 기업가적 이행에 있어서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 및 사회문화적 인식이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저해하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앞서 확인한 바 있다. 기업가정신은 지역적, 사회적 맥락에 내재 되는데(Bøllingtoft & Ulhøi, 2005; Jack & Anderson, 2002), 오히려 기업가적 실천 및 훈련과정을 통해 관련 기업가 행위자(Entrepreneurial Actors)들 사이에서 기업가들의 현실을 함께 창조해나가고, 경험을 나누며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해나감으로써, 기업가적 행동을 촉진 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 기업가적 실천교육을 통해 오히려 기업가가 실제 시장에서 기업가적 활동을 할 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도록 기여하게 된다(Sarasvathy & Venkataraman, 2011).

종합적으로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기업가정신 정책을 소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채택한 정책과 지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는 일에 힘을 싣고자 다양한 형태의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O'Connor, 2012), 이에 기업가정신 정책은 교육을 통해 기업가역량을 고취시키고 창업으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서 효과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에 대한 유형, 형태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업가정신 교육 측면에서도 경험과 실습, 실천교육에 기반한 교육 방식의 효과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교육 방식 위주로 강의를 구성했다면, 최근에는 구성주의 교수-학습 관점을 통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고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식의 능동적 활용, 추론, 문제해결, 비판적, 반성적 사고, 창의적, 인지적 유연성 등을 함양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들이 성취되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원리들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원리들을 적용한 효과적인 수업유형 및 교수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기업가적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기업가정신

교육정책들이 있는데, 이에 황보윤과 양영석 외(2012)는 국내 창업 교육의 문제점으로 창업 교육시스템의 미흡을 지적하며 앞으로의 창업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된 창업 교육 콘텐츠와 창업 교육 강사진이라고 강조하였다. 창업 지원 기관 및 정부에서도 창업 교육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창업 교육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양질의 창업 교육 콘텐츠 및 교수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 10]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미치는 요인 변수

분류	영향요인의 관계	출처	관련 이론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	실천교육 → 기업가적 지향성, 태도	Souitaris et al., 2007	
	실천교육 → 지식, 기술	Rauch&Hulsink(2015)	*인적자본 이론
	실천교육 → 지식, 경험	Leitch&Harrison(1999)	
	실천교육 → 경험	Hellmann&Thiele(2019), Lackeus(2014)	
기업가적 이행	실천교육 → 기업가적 이행[21]	Hellmann&Thiele(2019)	
외부적 요인	실천교육 → 외부적 요인	Grewe&Brahm(2020), Rauch&Hulsink(2015),	
	실천교육 → 사회문화적 인식	de Pillis&Reardon(2007), Miranda et al.(2017)	
	실천교육 → 주관적 규범	Sarasvathy&Venkataraman (2011)	
	실천교육 → 네트워크	Gibb(2002), Kent(1990)	
	실천교육 → 재정적 지원	Rauch&Hulsink(2015)	

21) 실천적 교육이 직접적으로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해석하기보다는 성공적인 기업가적 이행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험은 실무경험(Tacit Knowledge)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영향 관계로 표시함.

제 2절 이론적 분석 틀

1.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 간 영향요인 관계

1절의 논의에서 기존 이론을 살펴본 결과, 기업가정신이 내부적 요인 내에서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간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를 제시한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영향요인 간 관계를 통해 각 요인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관계에 대한 영향만을 주로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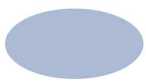
특히, 기업가정신 교육정책 및 실천교육 측면에서는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외부적 요인이라는 변수가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파악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기업가정신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정신 혹은 외부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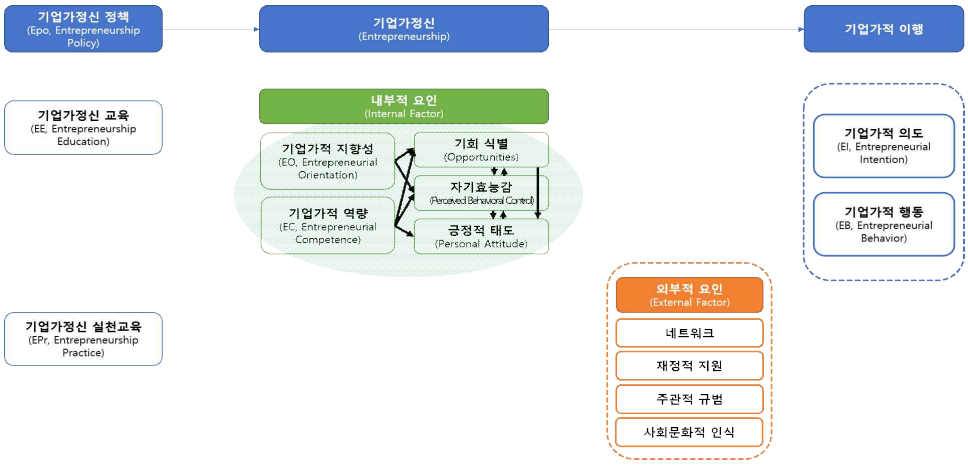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은 매우 복잡한 요인으로 얽혀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간 분절적이고 단편적으로 효과성 위주로 수행된 연구가 아닌 메커니즘 연구에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부적 요인이라는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려하고, 효과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정책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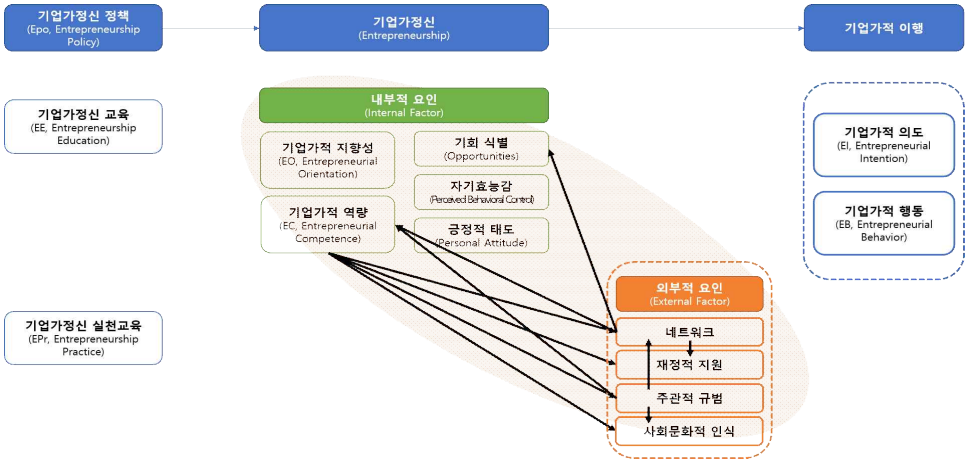
[표 11]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 간 영향요인 관계

해당 분류	영향요인 관계	출처
	내부적 요인 → 내부적 요인	Kao(1995), Kirzner(1973), Kuehn(2008), Kuratko&Hodgetts(2007), Liñán et al.(2011), Mtchell et al.(1999), Schumpeter(1934), Stevenson(1983), Scott&Bruce(1994), Timmons(1999), van Gelderen et al.(2008)
	내부적 요인 → 외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 내부적 요인	Aldrich et al.(1998), Aldrich&Zimmer(1986), Carr&Sequeira(2007), Mosey&Wright(2007), Rauch&Hulsink(2015), Román et al.(2013), Smeltzer et al.(1991), Timmons(1999), van Gelderen et al.(2008),
	기업가정신 → 기업가적 이행	Clarysse et al.(2011), Gnyawali&Fogel(1994), Goethner et al.(2012), Lackéus(2014), Lent et al.(1994), Luthje&Franke(2003), OECD/European Union(2017), Peterman&Kennedy(2003), Remeikiene et al.(2015), Ruiz-Arroyo et al.(2015), Shane(2003), Ucbasaran et al.(2009), Unger et al.(2011)
	기업가정신 교육 → 내부적 요인	Fayolle(2007), Hannon(2006), Heinonen &Poikkijoki(2006), Kolvereid&Moen(1997), Liñán et al.(2011), Lockett et al.(2003), Malach&Kristová(2017), OECD(2023), Oosterbeek et al.(2010), Parry(1996), Potter(2008), Tkachev&Kolvereid(1999), von Graevenitz et al.(2010)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내부적 요인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외부적 요인	Grewe&Brahm(2020), Hellmann&Thiele(2019), Lackeus(2014), Leitch&Harrison(1999), Rauch&Hulsink(2015), Souitaris et al.(2007)
	외부적 요인 → 기업가적 이행	Bourdieu(1983), Coleman(1988,1990), de Pillis&Reardon(2007), Fini et al.(2012), Gibb(2002), Kent(1990), Loury(1987), Miranda et al.(2017), Rauch&Hulsink(2015), Román et al.(2013), Sarasvathy&Venkataraman(2011), van Gelderen et al.(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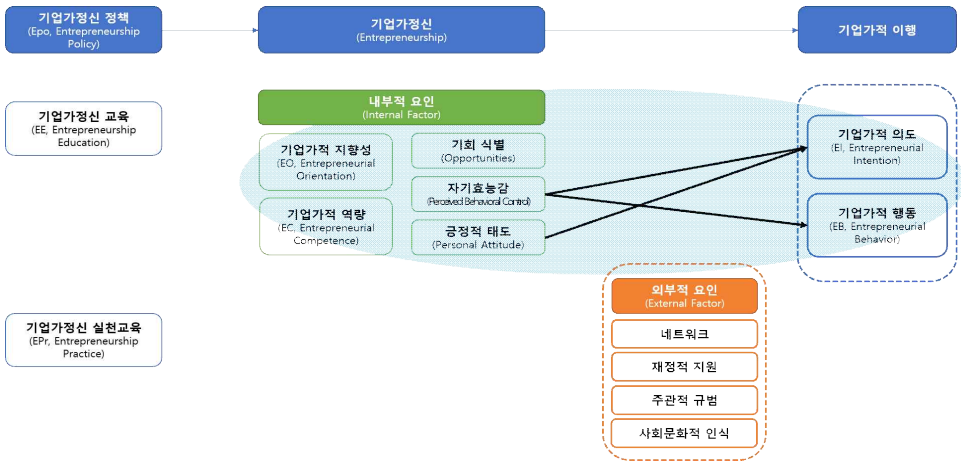
[그림 7]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 내에서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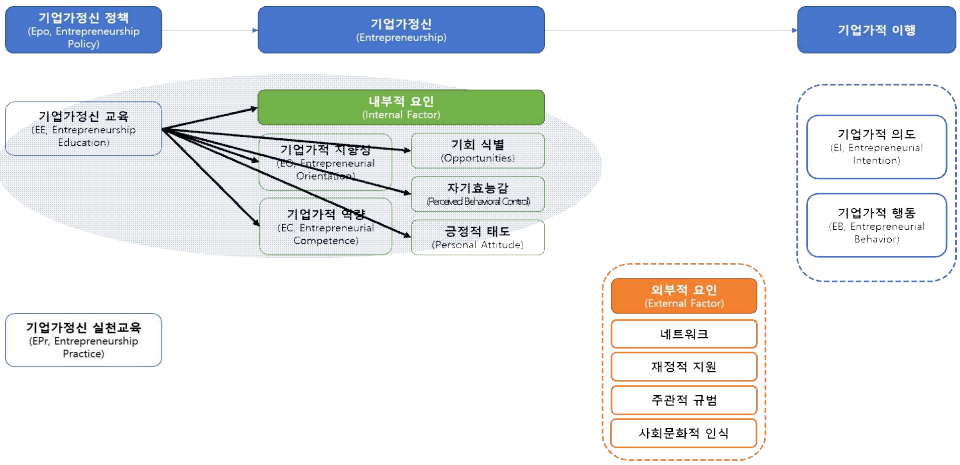
[그림 8]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간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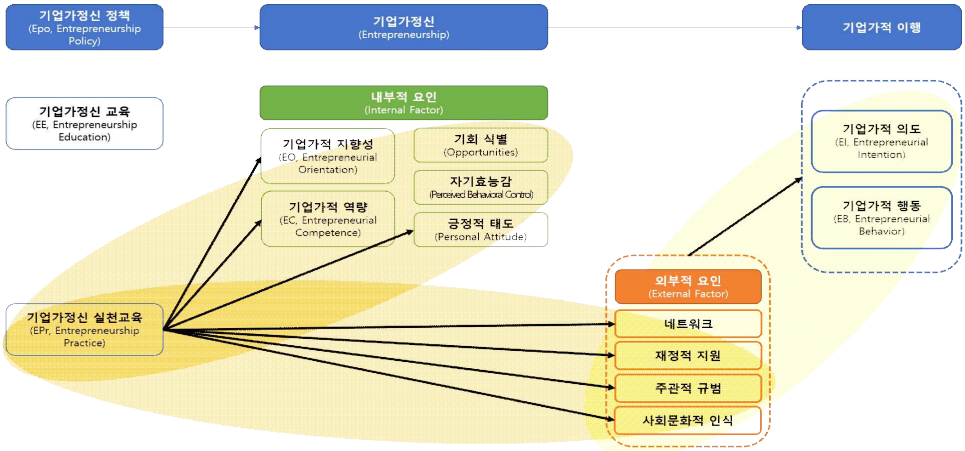
[그림 9]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



[그림 10]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그림 11] 기업가정신 실천교육과 기업가적 이행 간 미치는 영향



2. 연구 전체 분석 틀

지금까지 기존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적 이행,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에 관하여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업가정신의 정의와 기업가정신 정책,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의 개념 등을 정립하였다.

특히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업가정신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관계에서 매우 복잡한 영향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고취되고, 기업가적 이행으로 연결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장애요인에 대한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외부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의 형태와 유형에 따라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적 이행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실천적 형태의 교육정책이 지원될 때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을 극복함으로써 기업가적 이행의 연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할 수 있다.

기존 문헌 연구에 기반하여 본 논문에서는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으로 연결되는 데 복잡하게 얽혀있는 변수 간 관계성과 영향요인 관계를 검증하여, 메커니즘 구조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변화이론(ToC, Theory of Change)'을 차용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투입이 이루어졌을 때 복잡한 구조 가운데서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어떤 정책이 투입되었을 때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지를 분석 틀을 통해 검증하고자 함이다.

ToC는 특정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는가에 대한 메커니

즘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책 자원의 투입(Input)부터 결과(Outcome) 및 영향에 이르는 과정으로 구성된다(Morra-Imas et al., 2009; Weiss, 1995). ToC를 통한 정책 메커니즘 설정은 정책 프로그램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책의 목표와 이에 맞는 결과 도출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설정 및 점검할 수 있고, 각 경로에서 나올 수 있는 가정 및 전제조건들을 검토할 수 있다(홍문숙 외, 2019; Clark, 2012; Rogers, 2008). 특정 정책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정책 개입 이후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단계들에 대한 가정을 분석하는 것이라고도 정의한다(Anderson, 2009; Weiss, 1995).

ToC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연구가 수행되었다. 대표적으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Cassola et al., 2022; Knoll & Sherriff, 2017). 이민자 및 피난민에 대한 정책이 ODA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커니즘을 분석하거나, ODA를 통한 전 세계적인 보건 상황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정한 논문들이다. 또한 의료에 대한 정책의 메커니즘을 연구한 선행연구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De Silva et al., 2014; Seidman, 2017). De Silva et al.(2014)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헬스케어 도입을 위하여 정책 메커니즘을 설정한 바 있고, Seidman(2017)은 국가적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정책 목표 설립이 공공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oC 모델을 사용하여 정책의 메커니즘을 알아보았다. 이후 메커니즘 검토를 통해 공공 보건 시스템이 개선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추가되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ToC는 정책 투입부터 결과 도출까지의 메커니즘을 살펴볼 수 있고, 메커니즘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기업가적 이행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분석 틀이다.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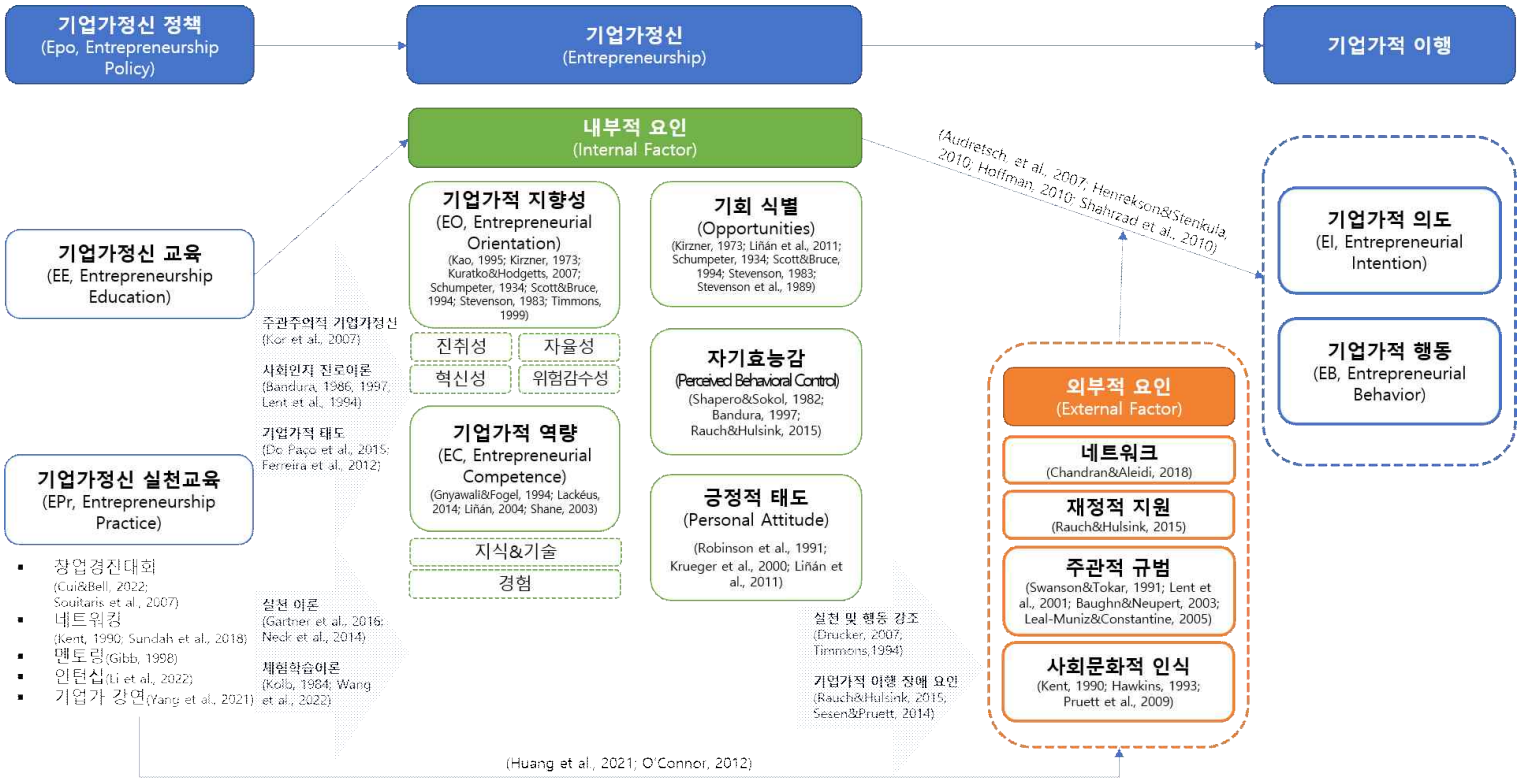
복잡하게 영향요인이 얽혀있어서 기업가적 행동이라는 결과 도출의 성과까지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분야에 적합한 분석 틀로 사료된다. 다만 ToC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정신 교육정책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활용된 기존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ToC는 정책 프로그램이 결과 및 영향에 도달하기까지의 논리적 구조를 구성하는 분석 틀이기 때문에(Clark, 2012) 본 연구에서도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 간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기반한 이론적 틀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ToC를 활용하여 제시한 분석 틀을 통해 기업가정신 정책이 기업가정신 고취와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복잡한 구조 관계이지만 메커니즘 관계를 검증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문헌 검토를 분석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검증한 전체적인 이론적 틀, 메커니즘 구조도를 [그림 12]를 통해 제시하였다.

[그림 12]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체 이론적 분석 틀



제 3장 연구 설계

제 1절 연구 방법

1. 분석방법

ToC를 활용한 분석 틀을 기반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가정신이 고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교육정책 형태의 실천적 측면, 실무 경험적 측면이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기업가적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메커니즘적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앞 장에서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메커니즘 내에 다양한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분석 틀로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정신(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기업가적 이행의 변수에서 나타나는 각 요인 간 연결 고리를 문헌 검토를 통해 검증하였고, ToC 분석 틀을 활용함으로써 영향 관계를 도식화한 분석 결과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로 메커니즘 관계를 파악하였기 때문에, 분석 틀에 기반하여 각 변수 간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인터뷰 내용을 활용한 주제분석, 양적 데이터를 활용한 경로분석 및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실증연구를 하고자 한다.

먼저 주제분석 방법론을 통해 기창업가 및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을 수혜받은 예비창업자를 만나 인터뷰를 함으로써, 실제적인 변수들 간 관계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분석은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냄으로써 인터뷰 데이터 안에서 주제를 설정하여 메커니즘을 맵핑하는 분석이기 때문에, ToC 분석 틀을 바탕으로 기업 및 창업 현장에서 유효하게 작동

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주제분석을 수행한 이후, 양적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 방법을 통해 각 변수의 연결 고리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주제분석에서는 실증하지 못한 변수 간 관계도 수치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양적 데이터 분석을 위해 경로분석과 조절효과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ToC 변수 관계에 기반하여 이행 간 메커니즘 관계의 연결 고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①기존의 문헌 연구를 통해 ToC를 활용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변수의 연결고리를 검증하기 위하여 ②기업 및 창업 관련 인터뷰 대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제 및 메커니즘 맵핑을 작성하는 주제분석을 실증할 수 있을 것이다. ③이후 주제분석뿐만 아니라 양적 분석인 경로분석과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ToC에서 제시된 연결 고리를 검증하는데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헌 연구와 질적 및 양적연구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교육 및 실천교육이 기업가적 이행을 메커니즘으로 분석하여 각 접근법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변수 간 메커니즘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질적연구는 문헌 연구나 인터뷰를 통해 진행된 논의를 연구함으로써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얻는 명확한 설명은 없으나(Sandelowski & Barroso, 2003; Sandelowski, 2010; Thorne, 2000), 연구의 주제 및 근거를 개념화하여 아이디어를 추상화 시킴으로써, 가설 및 연구 문제를 데이터 연구에서 얻는 것보다 더 의미 있게 나타낼 수 있다(Taylor et al., 2012; Watling & Lingard, 2012).

질적연구 방법 중에서 주제분석은 데이터 분석의 장점과 질적연구의 장점을 모두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Braun & Clarke, 2013). 주제분석은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반복되는 패턴을 식별하는 방법이다. 인터뷰 내용을 코드화 시켜 그 안에서 반복된 패턴을 찾는 방법으로 정성적 연구의 기초로 평가받고 있다(Braun & Clarke, 2006). 단순히 정성적 연구 방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데이터를 수치화하고 반복되는 패턴을 코드화하여 정량적 연구 방법의 장점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이에, 주제분석은 명확하게 정해진 방법론이기보다는 연구 방법으로서 다양한 주제에 적용할 수 있다(Taylor et al., 2012; Watling & Lingard, 2012).

주제분석은 데이터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확인하여 주제를 설정 및 분석하고 기술하는 방법으로 귀납적이며 데이터를 범주화 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Braun & Clarke, 2006; Hatch, 2002). 주제분석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은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주제는 질적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데이터를 서술하고 구성하기도 하며 현상을 해석하기도 한다(Boyatzis, 1998). Boyatzis(1998)는 주제는 질적 데이터를 통합하는 아이디어이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제의 속성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우선, 주제는 자료에서 추론되어 추상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패턴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또한, 주제는 귀납적이며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결합 되는 것이다.

김인숙(2015)에 따르면, 주제는 데이터에서의 귀납적 도출뿐만 아니라 연역적으로도 도출된다고 하였다. 근거이론, 현상학적 연구 등의 다른 질적 접근 방법에도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은 중요하며 주제를 찾는 것은 질적연구 자료의 특정한 패턴을 찾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질적연구의 주제분석은 질적연구 데이터의 다양하고 일관성 있는 패턴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자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주제에 대하여 인지 및 해석하는 것이다(김진우, 2012).

(2) 경로분석

주제분석을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으로 미치는 요인 변수들의 메커니즘을 정성적으로 확인했다면, 경로분석을 통해서는 정량적으로 정책의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2019년도 '기업가정신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변수를 설정한 뒤, 각 변수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의 영향요인들을 평가한다. 경로분석은 일반 회귀분석과는 차이가 있다.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여 이론에 대한 검증 및 변수 간 관계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하는 회귀분석과 달리, 변수 간 관계에 대한 즉, 변수 간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으로 적합하다(Olobatuyi, 2006). 회귀분석과는 다르게 변수들의 관계들을 동시에 추정할 수 있고 각 경로를 추정할 수 있고 회귀분석은 한 방향의 선형관계를 추정한다면 경로분석은 다양한 방향 복잡한 구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즉, 복잡하게 얽혀있는 변수들을 분석할 수 있어, 사회과학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Land, 1969; Olobatuyi, 2006; Wright, 1934).

경로분석에서의 변수들의 관계는 모두 이론적 근거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분석에 활용되는 모든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인 모집단에서 추출된다고 가정한다. 오차항의 확률 분포도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σ^2인 정규분포를 가정한다(Olobatuyi, 2006). 잠재 변수를 활용하는 구조방정식 모델과 달리 경로분석에서는 각각의 측정변수들이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로분석에서 중요한 점은 모형설정의 오류를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모형설정이 잘못되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계수들의 측정에 문제가 된다(심준섭, 2013). 이 측면들은 모두 앞장에서 이론으로 그리고 주제분석으로 이미 관계가 입증되었다.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직접 효과만을 알 수 있다면, 경로분석을 통해서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모두 추정하여 총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STATA 17의 pathreg 명령어를 사용하면 베타 계수 값들도 추정이 가능하여 각 경로의 효과 크기 비교가 가능하여 각 변수들의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의 경중도 식별 가능하다(Grapentine, 2000; Olobatuyi, 2006).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경로분석의 모형을 추정하였다. 표본의 공분산 행렬을 통해 경로계수를 추정하고 난 뒤, 입력 공분산행렬을 역추정하며 가장 가까운 경로계수를 추정한다(이학식 · 임지훈, 2013).

(3) 조절효과 분석

조절변수는 종속변수와 설명하려는 변수 간 영향의 크기 또는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정의된다(Baron & Kenny, 1986). 설명변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y_{ij} = \beta_0 + \beta_1 x_{ij} + \beta_2 M_{ij} + \beta_3 (x_{ij} \times M_{ij}) + \epsilon_{ij} \quad (1)$$

위 식에서 조절변수, M은 설명변수, x와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회귀계수 β_4는 설명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이 종속변수, y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나타낸다.

조절 변수, M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 식을 조절변수, M으로 편미분하면,

$$\frac{\partial y_{ij}}{\partial M_{ij}} = \beta_2 + \beta_3 x_{ij} \quad (2)$$

로 나타낼 수 있다. 위 식에서 β_2는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나타내고 $\beta_3 x_{ij}$는 설명변수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는 조절효과로서 설명변수에 의존하여 값이 변경될 수 있다.

제 2절 분석의 타당성 논의

본 논문에서는 ToC를 차용하여 이론적 분석 틀을 제시하였고, 이론들로 구성된 메커니즘의 연결 고리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주제분석, 경로분석, 조절효과 분석 등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① 주제분석을 활용한 메커니즘 검증

먼저 ToC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의 단계별 메커니즘을 분석하며 주제분석을 활용한 논문들(Hanley et al., 2021; Madill et al., 2022; Rezel-Potts et al., 2020)을 살펴보면, 모두 ToC와 주제분석의 유사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질적연구의 유사성으로 인한 두 모델의 장점을 모두 지닌 이 논문들은 ToC를 통해서 정책 프로그램의 단계별 이론과 메커니즘을 검증하였으며, 주제분석을 활용하여 ToC에서 찾은 결과들을 실증한 것이다.

또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구축된 ToC의 한계점을 주제분석을 활용해 실증으로 보완한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Kabongo et al., 2020; Stein & Valters, 2012; Walinga, 2008). Walinga(2008)는 조직의 변화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내는 과정을 ToC로 모델을 설정한 뒤, 조직 구성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주제분석 기법을 활용해 ToC 모델의 메커니즘을 검증하였다. Rezel-Potts et al.(2020)은 온라인 임상 평가와 무료 피임제의 정책 개입에 대한 정책 효과를 ToC를 활용하여 메커니즘을 설정하였다. 그 이후,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의 주제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온라인 피임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ToC를 활용한 메커니즘을 주제분석을 통해 검증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질적연구 방법 중 하나인 주제분석은 이론에 기반한 연구이기보다는 데이터로부터 주제를 찾아내는 귀납적 분석 방법이다

(Braun & Clarke, 2006). 이로써, 어떤 이론의 틀에 메어있지 않고 유연한 분석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이 행해지는 장점이 있다(Maguire & Delahunt, 2017).

Braun & Clarke(2006)이 제안한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다수 논문들이 주제분석을 다양한 주제로 수행되었다. 최근 기술 경영 정책과 식품 정책, 교통 정책, 보안 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주제분석이 수행된 바 있다(Liu et al., 2020; Nikitas et al., 2019; Peebles et al., 2022; Sepasgozar et al., 2018). 이 논문들은 모두 인터뷰 내용 또는 이메일 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제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주제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제분석은 앞 절에서 서술한 것처럼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함께 수행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해 주기도 하는데(Braun & Clarke, 2006), 데이터를 수치화하여 주제를 설정한 다수의 논문들도 확인해볼 수 있다(Fugard & Potts, 2015; Hartman & Conklin, 2012; Lowe et al., 2018; Stehman & Czaplewski, 1998; Talan et al., 2020). 주제를 선정하는 데 단어의 출현 빈도나 데이터의 상관계수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치화하고, 이를 통해 질적연구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양적인 분석을 통하여 보완하는 것이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 빈도수를 확인하고 주제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많이 시도된 바 있다(Sabharwal & Miah, 2021; Soomro et al., 2019; Teodorowski et al., 2022). Soomro et al.(2019)의 경우, ICT 기술에 관련한 문헌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내용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데이터, 컴퓨팅 모델, 개인 보호, 스마트시티 도메인의 주제를 선정하여 미래 ICT 기술 연구 전망을 논의하였다. Teodorowski et al.(2022)은 영국 정부의 의료 데이터 구축 서비스에 대한 트위터 내용을 주제분석으로 분석하였다. 트위터의 내용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크롤링한 뒤,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윤리적 공유, 대중적 참여, 지식 공동생산, 잠재력의 4가지 주제가 선정되어, 의료 데이터 구축 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대중의 참여

와 윤리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야 함을 양적 주제분석을 활용해 밝혔다.

본 연구에서도 ToC를 활용한 이론적 분석 틀을 바탕으로 연결 고리를 실증하고자 주제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제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차용하였다.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을 통하여 가장 빈도수가 많은 그리고 어휘 연관도가 높은 단어를 선정하여 주제를 카테고리화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연관성을 중심으로 주제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주제분석 수행 시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키워드들의 연관성이 높다면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키워드 간 자율성이 전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영우, 2017).

② 경로분석을 활용한 메커니즘 검증

주제분석을 통하여 ToC의 메커니즘을 검증해 본 이후, 양적연구를 통해서도 ToC의 메커니즘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질적연구에서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의 중요도 및 영향의 크기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시한 ToC 모델의 정책 메커니즘을 경로분석을 통하여 적절성을 판단해볼 수 있었다(Wright, 1934). 경로분석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각각 다수 존재하여 이들의 관계성을 분석할 때 자주 사용된다(김수영, 2016; 채구묵, 2014). 경로분석을 통하여 논리 모형의 변수들 간의 관계 및 경로를 검증할 수 있으며(Freedman, 1987; Land, 1969), 전체 논리 모형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다(Funnell & Rogers, 2011; Lleras, 2005; Streiner, 2005).

Bick et al.(2021)은 모잠비크 공동 위생 개입을 통해 공중 보건 개념 인식과 보건 상태가 상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ToC 모델을 설정하였다. 각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경로분석을 사용하였다. 횡단면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 위생 개입 충실도와 참가자 반응도가 보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인별 위

생 품질은 개선되었으나 공중 보건 상태는 크게 좋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O'Campo et al.(2022)은 캐나다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원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였다. 정책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존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ToC 모델을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다양한 이론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ToC 모델의 가설이 경로분석으로 재검증되었고, 이러한 메커니즘의 경험적 증거를 경로분석으로 검증한 논문으로서 캐나다 지역 노숙자를 줄이는데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기여한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도 주제분석에서 검증하였던 ToC 분석틀을 양적 방법론으로 검증하였다. 앞서 주제분석을 통해 ToC 이론적 분석 틀의 연결 고리를 검증했는데, 주제분석을 양적·질적으로 모두 실시하는 과정에서 유효한 카테고리를 도출할 수 있었다면, 경로분석을 통해서는 ToC 이론적 틀의 전체적인 연결 고리를 전반적으로 실증할 수 있었다. 즉 경로분석을 통해 각 연결 고리를 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 및 실천교육정책이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들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 및 메커니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추가적으로 주제분석에서 카테고리화 하여 유효하게 나타났던 연결 고리를 위주로, 경로분석을 통해 해당 연결 고리를 재검증함으로써 분석의 타당성을 완결성 있게 찾고자 하였다.

③ 조절효과 분석을 활용한 메커니즘 검증

마지막으로, ToC 모델에서 설정한 기업가정신 교육 및 실천적 교육정책의 메커니즘을 기업가정신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확인해보았다. 즉, ToC로 설정한 모델에서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기업가정신의 내·외부적 요인을 조절효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ToC를 차용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메커니즘을 검증한 논문을 살펴볼 수 있다. Warner et al.(2019)를 살펴보면, ToC를 차용하여 청년 도시 스포츠 시설 설립에 대한 효과를 설정한 뒤, 조절효과로 각 변수의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경로분석으로는 확인하지 못한 변수들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Rusby et al.(2016)은 미국 오리건주의 어린이 돌봄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발달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하여 ToC 모델을 설정하였다. 그다음, 어린이 31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한 그룹(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도 조절효과를 검증하며 ToC 모델을 수치적으로 검증하였는데, 아동의 행동과 동료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wn et al.(2022)은 우울증 치료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ToC 모델을 설정한 뒤, 조절효과 분석으로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노와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프로그램과 통찰력 변수의 조절효과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에서도, 심리학과 의학에서도 ToC 모델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의 메커니즘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활용하였다.

다수의 논문에서도 ToC를 차용하여 메커니즘을 제시하였고, 메커니즘 관계를 분석하고자 조절효과 분석 방법을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Holtrop & Holcomb, 2018; Rusby et al., 2016; Town et al., 2022).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 활용한 검증 방법처럼, 본 논문에서도 경로분석으로 변수들의 관계성을 검증했음에도, 특정 변수들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ToC 분석 틀에서 제시한 메커니즘을 검증하였다. 외부적 요인이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내부적 요인이 기업가적 이행으로 연결되는데 외부적 요인의 영향력을 함께 파악하고자 조절변수를 활용하여 기업가적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제 4장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 메커니즘 분석

제 1절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개념

주제분석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질적 데이터 안에서 주제를 찾아내어 질서를 이루기 위한 분석으로 1970년대 처음으로 명명되었다(Merton, 1975). 주제분석은 분석을 통하여 이론을 구성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아닌 서술을 목적으로 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다(김인숙, 2015). 즉, 주제분석은 경험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구조,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 및 주제를 개념화하거나 발견하는 것이다(Hammersley, 2008).

주제분석은 유연하게 여러 연구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분석으로 특정 이론적 접근이나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Braun & Clarke, 2006). 주제분석 방법도 다양한 연구에서 다양한 절차가 있다(Alhojailan, 2012; Boyatzis, 1998; Joffe et al., 2004; Miles & Huberman, 1994).

Braun & Clarke(2006)는 주제분석의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 우선 전문가 인터뷰 이후에 데이터와 친숙해지는 목적으로 인터뷰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숙지한다. 연구에 따라 인터뷰 녹음 또는 인터뷰 노트 등을 기록 및 저장하여 데이터와 친숙해지는 단계이다(Nowell et al., 2017; Thorne, 2000).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와 친숙해질 수 있다. 최근에는 네이버 클로바노트를 통해 인터뷰 내용이 바로 전사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전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데이터에 익숙해질 수 있다.

그 다음 Braun & Clarke(2006)이 추천하는 단계로는 인터뷰 내용을

코드화 시키는 것이다. 연구 문제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뷰 내용에서 반복되는 패턴 및 단어를 사용하여 코드화함으로써 인터뷰 내용에서 중요한 아이디어 및 내용을 축약 시킨다(Boyatzis, 1998). 세 번째 단계에서는 코드화된 인터뷰 내용들의 검증을 실행하며 카테고리와 주제를 구성해 나간다. 코드화된 데이터는 인터뷰에 나오는 실제 어휘와 어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데이터를 카테고리화 시킬 때는 문맥에 숨겨진 의미까지 파악하여 카테고리화 시킨다. 그 이후 여러 카테고리를 서로 다른 주제로 묶어보고 해체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한 뒤 몇 개의 주제로 범주화한다. 이때, 주제는 독립적으로 의미 있어야 하며 또한 전체에 대하여 일관적인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Braun & Clarke, 2014). 이렇게 주제 맵핑을 통하여 범주화된 주제를 명명하면 주제분석이 완료된다.

이러한 단계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주제에 접근 가능한 주제분석은 질적 분석 방법을 모호하게 처리하거나 단순화시켜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과는 다르다(Braun & Clarke, 2012; 서유진・이동성, 2013). 이로써, 분석과정 단계를 거치며 투명성이 확보된 주제분석은 기존의 정성적 연구 방법들에 비판적이었던 분석 절차에 대하여 무관하게 되었다(Braun & Clarke, 2006; 2012).

제 2절 주제분석 방법

앞서 설명한 대로 주제분석은 유연하게 여러 연구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특정한 이론적 접근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고 위의 단계적 절차만 있을 뿐이다(Braun & Clarke, 2006). 이에, 주제분석은 다양한 연구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연구되어왔다(Alhojailan, 2012; Boyatzis, 1998; Javadk & Zarea, 2016; Joffe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주제분석 방법론을 응용하여 효과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정량적 분석인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것이다. 인터뷰 내용을 클로바노트를 사용하여 전사한 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인터뷰 데이터의 텍스트들의 연관성을 밝히는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앞서 제시한 질적 분석을 위한 6단계를 활용하여 주제를 설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주제 간의 영향요인 및 메커니즘을 파악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심층 면접 참여자 특성을 다음 표와 같다.

[표 12] 심층 면접 참여자 특성

구분	이름	성별	연령	정책수혜 여부	구분
1	문○○	남	30대	O	VC 창업가
2	추○○	남	40대	O	사회적기업 창업가
3	송○○	여	30대	O	예비 창업가
4	김○○	남	30대	X	창업가
5	신○○	여	30대	O	창업가
6	김○○	남	30대	O	IT 창업가
7	이○○	남	20대	O	예비 창업가
8	성○○	남	20대	X	창업가
9	이○○	남	30대	O	전 창업가
10	이○○	남	30대	O	사회적기업 창업가
11	박○○	남	20대	X	창업가

1.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빅데이터 분석은 기존 분석에 비하여 데이터 규모가 크거나 소셜미디어, 음성, 위치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에 포함하는 방법이다(이석민, 2019). 본 연구에서는 수행한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키워드 추출, 연관어 검색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이는 이후에 이어질 주제분석에도 활용할 것이다.

(1)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은 인터뷰 내용 등의 대용량의 자료로부터 언급이 높은 어휘 및 유용한 패턴을 찾는 방법으로 텍스트 데이터에 알고리즘 방법을 적용한 것을 말한다(김영우, 2017). 즉, 대규모의 데이터 속에서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 데이터를 분석하던 통계적 접근법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패턴이나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노규성 외, 2019).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어(Natural language) 형태로 구성된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하여 패턴을 추출하는 것이다(이석민, 2019). 이 과정을 자연어처리 과정이라 하며 이는 인공지능 분야 중 하나이다.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위해 인터뷰에 사용된 158,437개 단어를 통계 프로그램 R을 활용하여 관사 및 전치사, 조사와 같은 연구 주제와 관계없는 단어인 불용어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단어나 기호를 제거하는 토큰화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정형화 시켰다.

(2) 키워드 추출

연구의 내용을 잘 나타내는 단어인 내용어(Contentword)를 추출하기 위해 문장의 형태소별 품사를 결정해야 한다(이석민, 2019).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단어의 품사 중 명사만을 선택하였다. 명사는 문장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용어로 가장 비중이 높게 문장에 나타난다(윤철호, 2021).

인터뷰 내용에서 명사만을 추출하고 명사이지만 정보를 나타내주지 못하는 그, 저것 등과 같은 불용어들을 제외하는 정제 과정을 거친 뒤, 키워드 추출을 실시하였다. 즉, 비정형화된 인터뷰 데이터를 정제한 뒤 명사 단어만 이루어진 벡터를 생성하였다.

단어의 중요도를 인터뷰 내용 안에 등장 빈도로 측정할 수 있다. 단어 등장 빈도는 인터뷰 내용에서 단어가 각각 몇 번씩 등장한 횟수를 나타낸다. 빈도를 측정하는 값 중 가장 많이 쓰는 것이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로 이는 특정 단어의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이석민, 2019). TF-IDF 값은 특정 데이터에서 단어 등장 빈도가 높고 단어의 등장한 문서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이로써, TF-IDF 값을 활용하여 모든 데이터에 나오는 특정 단어의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값이 높은 단어일수록 데이터에서 핵심적인 단어로 판단할 수 있다(정원준, 2022).

먼저 키워드가 한눈에 보이도록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정제된 단어들 중 TF-IDF 값이 0.1 이상의 값들을 가진 단어들을 표현하였다. 그 결과, 창업과 네트워킹, 멘토링, 정부 정책, 경험, 기업가정신, 인맥, 외부적 허들, 창업경진대회,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인식 등의 단어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인터뷰에 참여했던 기창업가 또는 정책을 수혜받은 예비창업가는 네트워킹과 멘토링 등의 실질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험이나 창업경진대회 등의 실질적인 참여 형태의 기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재정적인 부분(투자나 지원금 등)과 실패, 창업 인식에 대한 부담과 우려도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그림 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키워드 중심도 분석

더 나아가, 키워드 중심도(Centrality)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심도는 키워드와 키워드의 연결 정도를 나타낸 분석으로 네트워크 분석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로서 각각의 개별 키워드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할수록 더 핵심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단어와 연결된 빈도가 높을수록 중심도가 높게 측정된다(김용학, 2011; 이수상, 2012). 아래 그림은 키워드의 중심도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 14]은 키워드 수를 20개로 한정한 후에 분석한 그림이고, [그림 15]는 50개로 한정한 후에 분석한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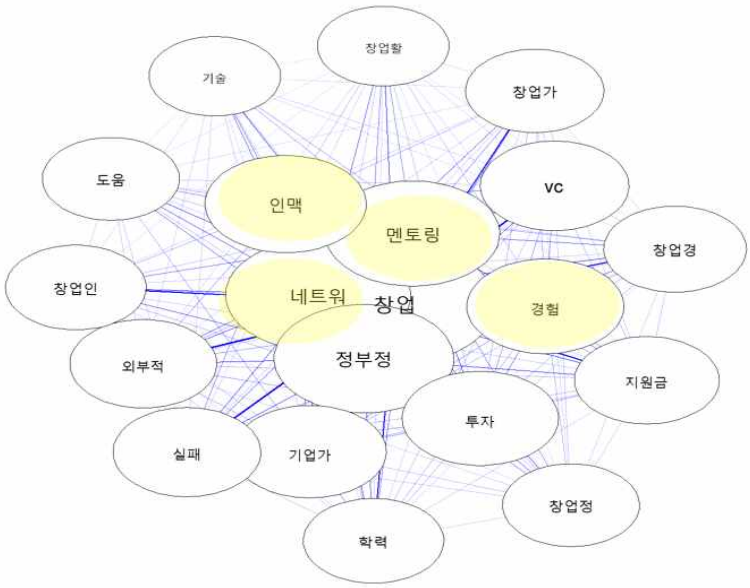
20개 키워드 중심도를 살펴보았을 때, 창업을 중심으로 정부정책, 네트워크, 멘토링, 인맥, 경험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고, 50개 키워드 중심도에서는 투자와 지원금에 해당하는 키워드도 중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문헌 연구와 ToC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네트워킹, 멘토링,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교육정책을 기업가정신 실천적 교육이라고 보았을 때, 키워드 중심도 분석에서도 실천 및 참여가 기반된 실천적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원금과 투자에 대한 키워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요인들도 창업에서 고려 해야 할 요소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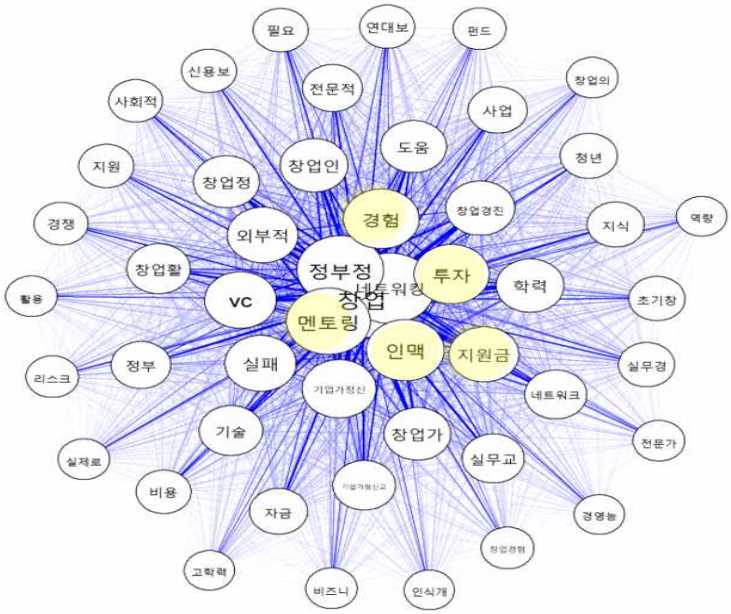
또한 중심 단어들과 연결 빈도가 높게 나타난 키워드로는 VC, 지원금, 창업경진대회, 외부적 허들, 도움, 창업경진대회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가적 이행에 필요한 지원과 정책에 관련한 단어들이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정적 지원 등 외부적 허들이 존재함에 따라 VC나 지원금 등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워드 클라우드 결과

[그림 14] 키워드 중심도 분석 결과(20개 단어)



[그림 15] 키워드 중심도 분석 결과(50개 단어)



2. 주제분석 결과

(1) 분석과정

앞서 설명한 대로 주제분석은 유연하게 여러 연구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특정한 이론적 접근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이 없다(Braun & Clarke, 2006). 따라서 주제분석 방법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Alhojailan, 2012; Boyatzis, 1998; Joffe et al., 2004),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인 Braun & Clarke의 방법으로 주제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인터뷰 데이터에 친숙해지는 과정으로, 우선 인터뷰 데이터를 모두 네이버의 클로바 노트를 사용하여 녹취록을 제작하였고, 이후 인터뷰 전사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뷰 내용을 여러 번 재청취하였다. 두 번째로, 녹취록에 나타나는 연구에 관련된 부분을 코드화 시켰다. 코드화 시키는 방법으로는 우선 인터뷰 참여자들이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요약하는 코드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다음, Sub-theme 코드에서 비슷한 부분을 서로 묶고 Thematic Area를 아래 표와 같이 생성하였다.

주제분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의하여 참고해야 할 것은 인터뷰 참가자들의 경우, 기업가정신 및 실천적 교육에 관한 명확한 정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중복 의미 또는 오용되어 사용하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맥락적인 이해를 통해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선행연구에서 파악한 것처럼, 기업가정신을 개인의 특성(진취성, 혁신성, 자율성, 위험감수성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참여자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과정에서 기업가적 지향성으로 수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가정신 실천적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대로 실무교육,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 다양한 단어로 언급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천적 교육으로 정의하여 활용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인터뷰 참가자가 이러한 논의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보편적으로 각 참가자 개인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대로 인터뷰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무교육, 실무적 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단어를 활용하더라도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에 주제분석 과정에서는 대다수 참가자가 활용한 실무교육, 실무적 교육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결과 및 시사점

주제 영역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를 통해 제시하였다. 인터뷰를 수행하여 Sub-theme 코드에서 유사한 부분으로 분류하고, Thematic Area를 총 46개로 제시하였고, 주제 영역에 따라 총 8개의 주제를 추출하였다. 8개의 주제는 ①실무적 교육(13개 영역), ②역량(4개 영역), ③경험(4개 영역), ④네트워크(6개 영역), ⑤재정적 지원(6개 영역), ⑥주관적 규범(3개 영역), ⑦사회적 인식(6개 영역), ⑧기업가적 지향성(3개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주제분석의 분석 형태가 다양하여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각 주제마다 영역을 차지하는 개수가 다른 점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는 것에 유의미성은 연구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제분석을 수행하였을 때 실무적 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에 언급이 많이 되었고 다양한 주제 영역을 차지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인터뷰 참가자의 대부분이 실무적 교육에 대한 의미성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ToC 분석 틀로 확인하였을 때 두드러지지 않았던 재정적 지원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기업가적 이행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 인터뷰 참가자들은 예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가적 의도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역량과 경험, 네트워크, 사회적 인식의 영역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적 영역의 요소인 네트워크나 재정적 지원,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부분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이에 대한 장애요인을 줄여주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고민을 통해 보다 기업가적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주제분석을 통해 많이 나오는 단어의 빈도수나 영역을 통해 ToC 분석 틀에서 제시한 메커니즘의 연결 고리를 파악하는 것을 검증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었고, 주제 영역을 도출하여 주제를 파악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인터뷰 참가자들이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조적으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분석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 인터뷰를 통하여 심층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시사점은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이론적 교육으로는 창업 이행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실천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데 실천적 교육의 내용과 대상, 방법, 유형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실천적 교육 요소인 멘토링과 네트워킹의 경우 멘토나 강사진들의 역량과 실질적인 교육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을 전문으로 가르치고 논의하는 멘토 및 강사진이 아닌 보다 실제 창업 경험을 가진 전문가 또는 실제 창업가와의 경험 및 사례 공유, 코칭, 멘토링, 네트워킹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질의 실무교육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가적 이행으로 이어지는 창업 단계에 따라 실무교육 유형의 필요성이 상이하다는 부분에 주목해볼 수 있다. 멘토링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계획서 단계의 매우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네트워킹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가적 의도를 넘어 행동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외부적 요인인 재정적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각 단계마다 필요하고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네트워킹

측면에서는 초기에는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이나 실제 창업가와의 교류 및 강연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창업을 함께 고려하는 창업가 간의 동질 그룹의 네트워킹은 아이디어 유출이나 감정공유 시간 낭비 등에 따른 이유 등으로 효과가 떨어져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업가적 역량 고취나 태도 형성, 경험을 갖춤으로써 기업가적 이행에 보다 용이하고 원활하게 연결되기 위하여 조기 교육 및 초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나 기업가적 지향성 고취, 기업가적 이행에 대한 결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실천적 교육으로 구성된 실질적 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적 이행 시 사회문화적 인식에 대한 외부적 요인도 기존 연구의 내용과 동일하게 실질적인 창업가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창업 실패 시 재기할 수 없는 패배자 낙인을 형성하게 하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실천적 교육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향후에도 창업을 독려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적 측면의 캠페인 및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주제분석에 대한 자세한 인터뷰 내용(Contents) 및 주제 영역을 통한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 각 주제마다의 영역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3] 실무적 교육(T1)에 대한 주제 영역 분석 결과

Contents	Sub-theme	Thematic Area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일상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기업가정신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방법들이 필요.....”	이론적 교육이 아닌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이론적 교육으로는 창업 이행에 한계가 존재함
“단순 이론에 그쳤다라는 생각이 좀... 실무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업가정신 교육이 정신적 부분이 큰데.. 이게 책이나 유튜브로 쉽게 접할 수 있긴 한데.. 이건 그냥 관심 불러일으키는 정도의 이야기인거고 실제로 실무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현장 교육이 있으면 좋겠네요”		
“현장 교육이 아닌 온라인 교육으로라도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 창업에서 시행착오 겪었던 그런 사례나 경험 공유 있잖아요...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 말고...”		
“기업가정신에 대해 이론적 정의를 아는 것이라면 그냥 영상이나 유튜브로 보면 돼요. 경영학과 같이 학교에서 하는 학과에서 하는 수업 일부로 이론 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이론 교육으로 창업 백만번 하라고 해도 아무도 안 해요”		
“기업가정신 교육이 물론 중요하죠. 더더군다나 이론적 교육도 창업 행동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실무적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실무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창업 행동으로 가는데 더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무교육은 창업 이행에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실무교육은 창업을 하게끔 하는데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이론적인 교육이 갖는 한계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창업이라는 특성상 이론 만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론적 교육의 한계가 존재함	

“실무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기업가적 능력과 역량이 향상되죠... 실무적인 경험을 접하면 아무래도 내가 혁신이라는 부분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목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실무교육으로 기업가적 지향성 고취 가능	실무교육으로 기업가정신 고취 필요
“이론 교육이 기업가정신을 고취 시킨다고 해도 실무교육만큼의 효과가 있을 수는 없죠... 실무교육으로 내가 창업을 잘할 수 있다라던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데 자신감을 줄 수 있어요”		
“기업가정신 중에서 실무교육에 참여했을 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죠”	실무교육을 통해 위험감수성을 높일 수 있음	
“실무교육은 이론에서 배울 수 없는 인맥을 형성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때문에 창업으로 이행되는데 장애 요인들을 없앨 수 있어요....”	실무교육을 통해 인맥과 인식 등을 개선할 수 있음	실무교육을 통해 창업 이행의 외부적 장애요인 극복 가능
“기업가정신만 높다고 되는게 창업이 아니에요.. 기업가정신을 고취한다는 그런 이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창업이행으로 연결되는 창업 생태계가 형성되려면 이행 과정에서 작용하는 여러 외부적 장애 요인들을 줄여나가는 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킹, 멘토링 같은 실무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트워킹, 멘토링 등 실무교육이 외부적 장애요인이 있을 때 극복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음	
“그냥 창업 초기 생각해보면 창업으로 이행되는데 네트워킹이랑 전문적인 멘토링이 여러 장애요인을 극복하게 하는데 가장 큰 직접적인 도움이었던 것 같고요.. 확실히 여러 장애요인을 줄여야 창업 의지를 개선할 수 있으니 앞으로도 다양한 실무교육을 다양하게 지원해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멘토링을 통해 사업을 만들고, 네트워킹으로 쭉쭉 확장해 나가는 창업 준비과정이 필요해요... 결국은 멘토링이랑 네트워킹 통해서 인맥을 만들어가고, 그 인맥이 또 사업 범위를 넓히는데 결정적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창업 준비과정이나 창업 초기에는 흔들릴 수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주저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싶으니까요.. 리스크를 감수해 나가는 그런 성향이어서 할수있다 라는 생각으로 모든 도전만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 때 네트워킹이랑 멘토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요”		
“우리나라는 창업에 대한 심리적 허들이 높아요. 사회적 심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은거죠. 예전보다 창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실패했을 때 낙인 효과가 크게 남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양한 유형의 실무적인 교육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무교육으로 사회적 심리에 대한 높은 허들, 부정적인 창업 인식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음	
“창업 지속성이 어렵다보니 창업해서 이만큼 이루어냈다는 열정에 대한 시선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요.. 과거 세대 창업을 보면 멘토링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요즘엔 그런 실무적 교육들이 많기 때문에, 실무적 교육을 잘 활용해서 창업을 지속하고 성공하고.... 실패로 인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지지 않게 해나가야죠...”		
“한국에서 창업에 대한 인식 엄청 좋아졌죠. 근데 사실은 실패했을 경우가 훨씬 많은데 실패한 사람들을 다 무능력하게 보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에요. 그러니까 창업에 도전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실무적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생태계여야 하는 거거든요”		
“창업 실패했을 때 낙인 효과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 실무적인 교육을 통해 이러한 장벽을 낮추고, 여러 교육을 수혜 받다 보면 창업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자금에 대한 고민이 창업을 하는데 꽤 있어요.. 실무교육으로 네트워크나 멘토링 등을 받으면서 사업자금을 함께 지원받는 프로그램은 두려움과 걱정을 줄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에 대한 우려를 실무교육을 통해 해결 가능	
“창업 초기.. 그러니까 창업으로 이행하는 그 과정 있잖아요.. 이때 이행을 막는 그런 장애 요소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근데 그때 확 잡아줄 수 있는게 멘토링이랑 네트워킹이에요. 그 실무교육이 진짜 중요해요...”	창업 이행에 필요한 지원은 멘토링과 네트워킹임	
“창업은 경험도 없는 친구들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을 모를 것이고, 기존 창업을 하셨던 멘토분과의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 창업가 멘토와의 멘토링이 실질적 도움이 됨	실무교육에서 멘토링이 창업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창업 행동으로 연결이 되고 창업을 운영해간다고 했을 때 감각을 익혀나가고 스승 같은 분의 역할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창업 이행 과정(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서 감각을 익힐 수 있음	
“전문적 1:1 멘토링이 필요해요.. 아이템 멘토링부터 차근차근 조언을 받고 창업 시장에서의 감각을 살려보고 싶거든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거 교육을 받아보고 싶어요.. 멘토링으로 내 아이디어, 아이템이 적절한가, 경쟁력 있나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싶고, 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전에 대한 사전 교육으로서 창업 준비에 대해 배우고 싶죠”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게 창업 준비 과정에서의 전부 아닌가요.. 이 때 멘토링 반드시 필요하죠.. 방향 제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창업할 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 비즈니스 모델 이슈 때문에 정부지원 사업도 여러 번 떨어져 봤어요.. 근데 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멘토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아쉽거든요.. 근데 멘토링을 받아보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 멘토링이 창업 이행에 너무 필요해요”		

“멘토를 통한 인맥 형성도 중요하다고 봐요. 멘토링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동기부여도, 기업가정신 고취도, 나중에 투자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창업을 원활하게 해나가는데 윤활유가 될 수 있거든요”	동기부여, 기업가정신 고취 등 창업 이행에 영향을 미침	
“진짜 필요한 네트워킹은 창업 이행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투자자 등을 만나는 네트워킹 교육이 필요해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토, 투자자 등의 인맥 형성을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필요	실무교육에서 네트워킹이 창업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창업 과정에서 힘들었던 것이 인맥, 네트워크 만드는 거였어요. 창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누구라도 만나보고 싶고 도움을 얻고 싶고, 뭔가 조금이라도 정보를 더 듣고 싶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실무적인 교육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업에서는 정보력이 중요해요. 근데 그 정보력의 원천은 네트워크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창업이라는게 절박하니까... 정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그래도 네트워킹 교류 장이 많이 만들어져서 참여하고 싶죠.. 저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보도 얻고 창업을 해야겠다고 의지를 다졌거든요”	정보를 얻는데 네트워킹 교류가 중요함	
“다양한 형태의 인맥을 쌓을 수 있고, 고충 나누고, 서로의 수익내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조언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킹 교류가 중요해요.. 기본적 지식도 나눌 수 있잖아요..”		
“물론 사람 성향마다 다른게 있어요.. 누구는 아이디어 뺏긴다... 서로 위로 응원만 하는 교류의 장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주변에서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봐요... 사바사(사람마다 다름) 아닐까 싶어요”		

“창업 초기에 유사 업계 간 교류나 네트워킹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봤자 감정공유 수준이거든요”	창업 초기 유사업계 및 초기 창업자 간 네트워킹은 효과가 없음	네트워킹도 유형과 대상에 따라 효과가 달라짐
“정보 얻으려고 네트워킹 장에 가는데, 결국은 아이디어만 뺐겨요. 서로 절박하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아직 제대로 구현이 안된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그런 뉴스 있잖아요.. 대기업이 오히려 네트워킹 장 와서 순수하게 아이디어로 승부하려는 초기 창업자 사람들 아이디어 듣고 확 빼가는거.. 근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죠...”		
“네트워킹이랍시고 관련 분야의 대기업 종사자들 와서 기술 탈취하고...”		
“유사 업종의 기존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해서 오히려 그 기존 기업이 창업가의 아이디어를 본인들 서비스 확대에 적용하더라고요... 하하”		
“창업 초기에 네트워킹 보다는 자기 사업을 잘 만들고 구축하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그래도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킹 장은 좋다고 봐요... 네트워킹이 어떤 목적이고 어떤 대상이냐가 중요한거죠”	창업 초기에 투자를 위한 네트워킹 장 마련은 필요함	
“모든 창업가가 사내벤처, 팁스, 정부 지원 다 활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효율적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창업가들은 모르니, 현장 창업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경험 공유가 진짜 핵심이에요. 그건 창업 대표나 창업한 선배만이 해줄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창업 이행에 완전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실제 창업가의 경험 공유가 도움됨	실무교육에서 실제 창업가 강연이 창업 이행에 도움이 됨
“실제 창업가 강연이 멘탈적 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스밸리 넘어 성공한 사례,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창업 이행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창업가 강연을 많이 듣고 싶어요”	실제 창업가 강연을 통해 창업 이행에 발생하는 우려를 줄일 수 있음	

“실제 창업으로 성공하신 분의 강의나 특강을 들으면 확실히 자신감이 올라가고 동기부여가 되는데...”	실제 창업가의 강의나 특강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높일 수 있음	실제 창업가와의 네트워킹으로 기업가정신 고취 가능
“창업하셔서 성공하시면 실제로 겪었던 사례나 성공 요인, 극복 방법 등을 말씀해주시는 것들이 경험에 도움이 되죠”	선배의 조언을 통해 경험 사례를 들을 수 있음	
“제가 창업동아리를 대학 내내 했는데요.. 그게 왜 도움이 됐냐.. 어떤 것이 제일 도움이었냐... 하면 기창업자와의 교류 만남이었어요.. ”		
“기창업자도 만나면서 그들의 생생한 경험, 그런 것이 진짜 창업의 시작이라고 봐요.. 실제 창업가와의 만남이 별거 아닌거 같은데 돌이켜보면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창업가의 역량과 기술, 태도 등에 대하여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효과적임	실제 창업가의 경험 및 사례 공유가 필요함
“창업하라고 일방적으로 강연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응원하는 것은 창업을 위한 동기부여인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실무적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실패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량과 기술,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은 창업가의 경험으로부터 듣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큰 도움...”		
“창업경진대회 나간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창업 초기에요.. 근데 막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옆에 친구들, 대표들하는거 보니 내심 내적으로 위로도 되고 스스로 응원도 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더라구요. 아이템이 다르니까 뭐 정보를 얻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데모데이,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창업 관심을 제고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음	데모데이, 창업경진대회는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실무교육임
“데모데이나 경진대회 같은 PT그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냥 참여 하다보면 창업에 재미를 느끼게되고 익숙하게 되고... 영향을 미치는게 분명... 하여간 관심제고하는 효율적인 수단이에요”		

“경쟁력을 따져보고, 창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해서 청년들이 많이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		
“대회... 경쟁... 이런게 직접 보고... 현장에 닥쳐보고... 그러다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이론으로만 창업을 할 순 없잖아요.. 그냥 현장... 이게 현장감에서 오는 자신감이구나... 심적으로 확 성장하는 계기구나 싶더라고요.. (상금도 받아서 좋고요 하하하)”	현장에서 느끼고 성장할 수 있는 실무교육임	
“인맥 만드는 단계도 잘 고려가 되어야 해요. 품질이 제고 되어야 하는데, 창업 단계별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는 네트워킹, 멘토링, 경진대회 등의 역할이 필요한거거든요”	창업 단계별 맞춤형 실무교육이 중요함	창업 단계에 따라 실무교육 유형의 필요성이 상이함
“멘토링으로 사업궤도 올리는 거 하는거고요.. 그 다음에 멘토링 보다는 무조건 네트워킹이라고 봐요... 창업도 인간이 하는거라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사람의 도움이 참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멘토링은 창업하기 이전.. 비즈니스 만들 때 있잖아요... 결국 창업 전에 필요하고요... 네트워킹은 창업 초기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창업 초기에는 사실 실제 창업가 강연만 들어도 동기부여가 되고요... 또 비즈니스 모델 만들 때는 실제 창업가 멘토링을 받고요... 물론 업종과 창업 유형에 따라 다르긴한데 각자 맞는 실무교육을 잘 활용하는게 중요해요”		
“창업 실무교육 정책의 양이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돼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자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창업 실무교육에서는 교육자의 질과 현장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함	창업 이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양질의 실무교육이 필요함
“창업 실무교육이랍시고 투자자를 데려오는데, 투자자가 창업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멘토링을 하는데 현장에 있는 창업가보다 몰라요...”		
“멘토링, 네트워킹 같은 실무교육은 교수나 투자가가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실무 전문가가 해야 해요. 교수 멘토링은 취지와 현장을 모르잖아요.. 과거 사례 나열은 무의미해요....”		

“초기창업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퍼스트 파트인데요. 현장 실무를 해보신, 현장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 실무교육을 해야 되는데....”		
“강사진의 질이 진짜 중요해요.. 창업 기업이라는 아가의 양육 방향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실무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진 수준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돈인 예비 창업가들에게 시간 낭비하게 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죠”		
“엑셀러레이터들보면 경험 없이 글로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창업가 본인에게 맞는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실무적 교육이 필요해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고...”		
“솔직히 이론적으로만 해본 엑셀러레이터들이 어떻게 실무교육을 가르칩니까.. 교수도 마찬가지죠.. 대학에서 과 통합으로 이름만 바꾸고 각 단대마다 창업이랑 유관한 전공 교수들 모아놓고 창업 대학이라면서 정부 자금 받으려고 형식적인 실무교육이라고 이론 가르친다니까요. 창업 경험도 안 해보고요.. 전문화 할 수 있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멘토, 강사가 필요한거에요”		
“창업을 책임감.. 리더십.. 진취성.. 혁신성... 이렇게 기질을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봐요. 현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창업기업 운영에 기질이 영향을 분명히 미치긴 하겠지만... 실무교육을 통해 실질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유형의 기업과 어떤 형태의 기업..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어떤 목표를 갖고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유니콘 기업만 키울 것이 아니라 훨씬 다양한 많은 창업이 조명되어야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나가야....”	실무교육에서 창업자의 특성과 지향성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형의 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필요함	창업자 특성 및 지향성 유형을 나누는 것이 아닌, 어떤 유형의 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선결이 필요
“창업가 기질이라고 하나요... 지향성.. 특성??을 왜 나누는지 잘 모르겠어요.. 직장인도.. 공무원도.. 모든 조직에서처럼 여러 기질이 필요한 거거든요.. 창업가 본인의 적성에 맞냐 안맞냐가 중요한거지... 그런 기질 의미가 없다고 봐요...”		

“창업을 하려는 과정에서 막막한게 세무... 법... 행정... 그런거 있잖아요... 전문적인 지원들이 필요해요... 창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실무교육에서 창업 이행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인력들과의 네트워킹이랑 멘토링이 너무 중요해요.. 주변 창업하신 분께 물어보시면 다 같은 이야기 하실거에요...”	세무, 법률, 행정 등의 실무교육 지원이 필요함	전문적 영역의 멘토링과 네트워킹이 필요함
“이 부분은 독학이 사실어려워요... 진짜 이런 전문적 영역에서의 지원을 쉽고 용이하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무나 행정 부분으로 창업을 하고 사업 초기에 시간과 돈 낭비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분명히...”		
“기본적인 절차에 필요한 교육,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전문 분야 실무교육이 필요해요... ”		

[표 14] 역량(T2)에 대한 주제 영역 분석 결과

Content	Sub-theme	Thematic Area
“업무 협력 방법이나 운영 능력이 창업에서 전부라고 봐요. 창업자 뿐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조기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창업역량에 대한 조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역량 고취를 위한 조기 교육이 필요함
“성공확률은 본인의 역량과 능력이거든요.. 결국 초기부터 본인 역량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이랑 실무교육이 필요해요...”		
“창업 실전에 대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사업계획서 쓰고... 그런건.. 창업 기본 지식이 전무한데 이론 교육만 듣고 딱! 써낼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 지식 등등으로 보고 참고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		

런 기본적인 역량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어도 모호하고 막연해서 못하는거거든요... 기업가정신이 없는게 아니고요....”		
“제가 창업기업을 유지하다가 보면 진짜 중요한게 역량이에요.. 창업준비할 때나 창업 초기에는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싶으면 중요한게 결국은 역량이에요.. 이건 조기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안하더라도 취업에서도.. 창업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기업가로서 필요한 역량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또 사전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취업, 창업, 생활에서 필요한 기업가적 역량을 사전에 고취하는 것이 필요함	
“조기부터 역량을 고취하는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자기 삶의 방향을 탐색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게 본질인데..”		
“역량이 없잖아요? 그냥 창업 망해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지속가능성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시장은 냉혹하거든요”	창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	창업기업 유지와 성공은 경영 능력과 역량에 달려있음
“저도 청년이지만 젊은 세대가 창업할 때 경영 노하우적 기술이 중요해요”		
“돈과 위험감수성 등의 그런 요소들로 창업 의사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책의 역할은 거기까지고요.. 창업의 지속가능성.. 그러니까 유지하는거죠... 그건 무조건 본인의 역량이에요... 그 역량을 고취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창업 성공확률은 본인의 역량과 능력, 그게 다에요”		
“기업가정신(기업가적 지향성)이 부족하고 기업가적 성향이 없어서 망하는게 아니에요.. 다들 그러잖아요...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이 있으면 다 어려움 극복할 수 있다고.. 근데 현장에서 보면 아무리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도 경영 능력이랑 역량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언제 망하나 시간을 연장시킬 뿐이에요... 여기에 대한 창업 준비과정에서 확실한 실무교육이 필요해요”		

“역량을 고취할 수 있는 여러 실무적 교육이 중요해요.. 운영 역량 뿐 아니라 기술... 방법 등이 필요하거든요... 창업을 할 때 창업 유형이 있잖아요.. 예를들어 플랫폼 활용하는 창업이며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이 필수죠... 어느 정도의 기본 이해는 무조건 있어야죠... 마음만 앞서서 내가 관련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데 외주로 하는 등.... 큰 그림만 그릴 순 없잖아요”	창업 관련 지식과 기술 능력을 고취할 수 있는 실무 교육이 필요함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보유가 중요함
“기업가적 역량이라는게, 사업 이해에 대한 속도가 빠른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감각이라고 하죠... 근데 역량이 갖춰져 있다면 아이템이나 트렌드 시장을 읽는 거나... 기회를 식별하는데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적 감각이라고 할까요...”	기업가적 역량은 창업 기회 식별에 유리함	역량이 있으면 기회 포착을 충분히 할 수 있음
“본인이 경험한 기회... 수업... 동아리 활동같은 것들이 창업의 기회가 되는거거든요.. 그냥 창업 아이템이 뚝 떨어지는게 아니에요.. 아이템을 잘 선정해야 사업이 유지가 결국 되는 건데... 아이템이 사업 그 자체에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고민하는 것이 창업의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창업의 기회가 되는거에요”	본인의 경험이 창업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표 15] 경험(T3)에 대한 주제 영역 분석 결과

Content	Sub-theme	Thematic Area
“창업을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눈앞에 닥쳐있는게 급급하니까 알지 못해요... 근데 창업을 하다보면 가장 중요한게 실질적 사업 운영 능력이거든요.. 이걸 사업 운영 중에 깨달으면 이미 늦어요..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기에 교육을 통해 최대한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해요”	실질적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추기 위한 창업 경험을 갖기 위한 실무교육이 중요함	창업 경험을 위한 실무적 교육이 필요함
“이미 사업 운영하고 있는데... 그 때가서 역량이 안되고 능력이 안되서 등대 없이 가는 경우도 많이 봤구요... 그런 경우는 그냥 실패에요.. 창업 준비할 때... 초창기때... 개인 역량이랑 그런 경영 능력 이런거 있잖아요.. 무조건 경험 통해 가르쳐야... 이런게 이론 교육으로 되나요?”	창업 초기부터 개인 역량과 능력을 고취할 수 있는 경험과 실무교육이 필요함	
“공모전을 나간 경험이 있어요. 솔직히 임팩트가 있진 않았습니다.. 제가 만족할 만큼 사업계획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수상을 했거든요.. 근데 수상보다 큰 경험을 얻었다고 자부합니다..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서를 써보는 경험의 가치가 컸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인 창업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돈과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1차적으로 내실을 다지고, 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 교육과 경험 기회가 너무 중요한거죠. 다양한 경험 기회를 가질 때 창업을 원활하게 연결해나가는 루트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경험적 교육의 중요성을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학부 때 스타트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턴십을 했는데, 그 경험이 그냥 좋았어요...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구나... 여기서 경험하고 향후 나도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를 가진 기업 대표가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인턴십 경험으로 창업 이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대학 교육 내 인턴십, 학기 인정 등 경험 제공으로 창업 활성화 필요

“창업이라는 경험이 정말 제 인생을 바꿀 만큼 소중한데요.. 학부때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다보니까 여러 도전이 어렵기도 해요.. 대학 차원에서 학기를 인정해준다던지, 장학금을 준다던지, 바우처 지원 등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경험 제공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대학 내 학기 인정, 장학금 등의 창업 경험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아직은 대학 교육, 제도권 내 창업이 익숙하진 않아요. 경험을 해보는게 선택처럼 느껴지는데, 당연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태계 측면에서의 경험을 고취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창업 경험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체질 개선 필요함	
실패를 해도 창업 경험은 중요해요. 그래야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실패해도 재기하고 재도전하는데 창업 경험이 자산이 될 수 있음	사회적 비용이 있어도 창업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양질의 창업 경험 지원이 중요함
창업 경험은 개인의 취업이나 진로, 일상생활에도 큰 역량과 자산이 되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업 경험은 취창업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사회적 비용이 들어도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창업가들이 창업 전에 다양한 관련 경험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해요. 실무경험이 창업생태계에서는 전부에요 전부... 위기에 닥쳤을 때 그 경험이 반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회적 비용이 있어도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양질의 실무교육이 필요함	
“사회적 비용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창업 교육 프로그램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탄탄한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해요”		
“기업가정신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 너무 필요해요.. 멘탈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근데 이건 조기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장 교육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조	창업 이행을 위한 창업 이행 전 조

“기업가정신 교육은 경험이 중요해요.. 현장에 참여하고 영향 받는 경험들이 조기에 많으면 좋겠어요. 이론으로 억지로 기업가정신 정의하면서 배우는 그런 교육 말고요... 조기 교육을 실시해서 자기 삶의 방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기 교육 경험이 중요함	
“창업 관련 활동을 많이 했어요. 스타트업에서도 일해보고, 창업 동아리도 해보고, 공모전도 나가보고, 경진대회도 나가 보고 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취업하라고 하셔서 금융공기업에서 인턴을 했는데 전 오히려 무조건 창업아니면 안되겠다... 창업이 나를 부른다.... 허허.. 그렇더라고요.. 과거 경험이, 오히려 창업의 길로 탐색 시간을 거친 후 창업 확신이 생겼어요”	창업 관련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업에 대한 확신이 생김	기 경험이 필요함
“일상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창업 관련 경험적 교육이 필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사회 나와서 창업하는 것도 좋지만, 스타트업 취업 경험 등 기존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해보고, 사업 시장에 대한 이해를 겪고, 예비 창업할 수 있는 자격을 높이면 질적 측면이 제고된 창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창업 실패에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깐....”		
“특히 청년 창업은 다들 창업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도 자료나 정보가 엄청 많으니.. 그런 경험 사례 등의 정보를 미리 보는 것을 추천하고요.. 학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회, 동아리, 창업센터 등에서 경험을 배우고 감각을 익히는게 중요해요.. 사전 정보를 얼마나 취득하는지에 창업의 확신이자 감각이거든요”		
“대학 수업 때 캡스톤 디자인 이라는 실무교육을 학점 이수하려고 들었거든요.. 창업에 대해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수업 때문에 딸기 생산하는 스타트업에서 경험을 했다가... 창업만 3번째인데.. 이제 조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표 16] 네트워크(T4)에 대한 주제 영역 분석 결과

Content	Sub-theme	Thematic Area
“창업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인맥이에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거래가 발생하면 그건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 사용자 등이 있다는 건데, 인맥이 넓다는 건 그만큼 창업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고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볼 수 있어요. 0에서 시작하는거 보다 최소 50의 성공 확률은 가지고 간다고 봐요.. 물론 업종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창업에서 중요한 요인은 네트워크임	다양한 네트워크를 확보하면 창업 이행 확률 높음
“인맥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론 만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인맥을 통해 투자를 받기도 하고, 조언을 받기도 하고, 여러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네트워크가 중요해요 확실히.. ”		
“창업 이행에서 외부적허들은 네트워크, 인맥이라고 생각해요. 인맥이 없으면 창업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정도로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	인맥, 네트워크가 창업 이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주변에 창업가가 있을 거 잖아요.. 개인적 인맥으로 있죠.. 근데 이 분들은 본업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인맥으로 시간을 내서 내 창업에 대해 멘토링을 해달라고 하기가 참 그래요... 사업계획서부터 실질적인 멘토링을 좀 받고 싶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인맥,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전문적으로 멘토링 의사가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요...”	멘토링을 받는 것 자체가 인맥, 네트워크의 영향일 수 있음	네트워크로 멘토링 또는 투자받을 수 있는 인맥을 형성할 수 있음
“네트워크가 전부는 아니지만 대학, 창업보육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인맥을 미리 형성해서 효율적인 창업이 되면 좋겠어요...”		

“투자가 곧 인맥일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트워크가 투자로 연결될 수 있음	
“창업가들이 네트워킹하는 이유 중 하나는 네트워크.. 인맥 형성.. 특히 투자자와의 인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		
“학력.. 스펙은 분명한 가산점 요소에요.. 학력이 역량을 채웠다는 지표로 보고요.. 인간적 매력이 실현 가능성 지표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네트워크 확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고학력과 고스펙이 창업가의 역량으로 연결되고 양질의 네트워크 확률이 높아짐	고학력·고스펙 창업가의 경우 양질의 네트워크 확보 확률이 높음
“좋은 학력과 스펙이 있으면 주변 지인... 그런 인맥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자연스럽게 관련 인맥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창업도 참... 스펙.. 학력... 다 중요해요...”		
“창업에서는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 정보력의 원천은 인맥이 바탕이 되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기존 중장년층의 인맥이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연결될 수가 있다고 봐요”	창업에서 중요한 정보력이라는 요소의 원천은 인맥인데 중장년층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음	청년 창업가와 중장년층 매칭 가능한 네트워크 활용이 효과적임
“인맥.. 네트워크가 필요하잖아요.. 창업할 때 중장년매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청년 대표에게는 없는 중장년의 인맥.. 이 부분 무시못하거든요.. 서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연결해주는게....”	창업 시 인맥 형성을 하기 위해 중장년 매칭에 대한 고려 필요	
“창업에서도 세대 융합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		
“부모나 주변 인맥 등의 1차적 도움이 없다면 외부에서 찾아야 하니까 다양한 네트워킹 장에서 교류를 해야하고... 또 그런 부분이 도움은 될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부모나 주변 인맥이 없는거 보단 수월하겠죠”	부모나 주변 인맥 등의 1차적 도움이 창업 이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부모 인맥이 창업 이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창업가 개인의 네트

“부모 인맥이 있으면 기존 부모 세대에서 연결된 고객들과의 신뢰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니 긍정적 영향이 신뢰도 측면에서 있죠.. 근데 내가 더 많이 만들어야 하고요.. 꾸준한 네트워킹 활동으로 네트워크 형성을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부모 인맥이 기존에 보유한 고객 신뢰도 영향으로 이어짐	워크 형성이 중요함
“인맥부터 만들면서 창업이 필요하다는 전과 후가 바뀐 창업은 하면 안돼요. 억지로 인맥 만드는 연습에 몰두하면 안된다는 거에요. 인맥 이외에 준비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인맥에만 의존하면 안된다는거죠”	네트워크 형성이 효과성이 분명히 있지만, 단계별로 필요한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함	창업 특성과 단계별로 필요한 네트워크가 상이함
“내가 하는 창업 단계에서 진짜 필요한 인맥이 중요한 거에요. 핀셋으로 실효성 있는 인맥 형성, 네트워크 교류가 필요한거죠”		

[표 17] 재정적 지원(T5)에 대한 주제 영역 분석 결과

Content	Sub-theme	Thematic Area
“재정적 지원도 있고 해야 복합적인 창업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럴 때 창업 장벽이 좀 누그러져 보여요”	재정적 지원이 있으면 창업 입문이 쉬워짐	재정적 지원 요소가 창업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필수 요소임
“돈과 위험감수성이 있으면 창업 의사를 높일 수 있어요.. 쉬워지죠 당연히”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는 자금이고...”	창업 이행에 중요한 요소는 재정적 지원임	
“실질적인 창업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돈과 재정적 지원이다...”		
“창업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무조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죠”		
“신보(신용보증기금)나 이제 이런 정부 산하 기관에서 자금을 많이 융통 받고 있다는 게... 창업 허들을 줄일 수 있다 라는...”	창업 행동으로 연결되는 장애요인을 줄일 수 있음	
“창업행동에서 외부적 허들이라고 해야할까요.. 창업하는데 장애요인은 돈... 창업행동에 연결되는데는 돈이에요”		
“연대보증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요... 연대보증은 못 갚으면 리스크 낙인 심하고... 또 그렇다고 연대보증 없애면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니까요... 창업 행동으로 이어지는 재정적 지원이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지원하는 방식이 좋냐에 대한 고민이 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재정적 지원 중 연대보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효과적인 재정적 지원 유형에 대한 고려 및 까다로운 심사, 보험성 상품 등이 필요함
“연대 보증이 창업쪽에서도 지원이 되어요.. 근데 도덕적 해이가 생기거든요.. 그래도 도전의 총량이 늘어나고 재기할 수 있게는 해주니...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죠...”		
“재정적 지원 형식을 바우처로 줘서 현금 사용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고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금 지원을 어떤 형태로든 지급했을 때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함께 따라 붙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재정적 지원 형식을 바우처에 대한 고려 및 까다로운 심사 기준 필요함	

“창업지원금 킬러... 요새 엄청많잖아요.. 진짜 창업하지도 않으면서 돈만 타고... 실제 창업으로 안이어지는거요.. 그러니까 진짜 창업할 사람들을 위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던지... 보험성 상품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창업하는데 ‘진짜 창업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돈에 대한 부분부터 창업가들은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저금리 대출 및 보험성 상품이 필요함	
“재정적 지원 형태를 저금리 대출 등으로 해서 악용을 막아야 해요”		
“위험감수성이 필요한 부분이 창업이에요. 그렇지만 리스크를 감수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창업으로 연결되는데 확시늘 갖기 위해서 기초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초기비용은 좀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특히 대표자 같은 경우는 진짜 인건비를 못가져가요.. 최소한 생계유지는 되어야 창업을 꿈꿀 수 있잖아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창업 못해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초기비용 지원이 필요함	창업가 생계유지를 위한 초기자금 지원 보장이 필요함
“배고파야 창업한다고 하는데.. 배고프기만하다고 창업하는데 잘 되는건 아닙니다. 전망도 있고, 최소한 보장이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창업하는 과정에 더 신경 쓰고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vc들과의 만남이 데모데이나 경진대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금 확보를 위해 VC와의 인맥은 데모데이나 경진대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자금 확보를 위해 데모데이, 경진대회, 네트워킹 등 실천적 교육이 중요함
“자금확보 측면에서 투자를 받기 위한 네트워킹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킹을 통해 투자자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투자를 받기 위한 네트워킹이 중요함	
“투자나 재정적 지원 측면, 사업화 자금 받고 그러는 과정을 보면... 비즈니스 모델만 가지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학력이나 스펙... 경험이	비즈니스 모델 뿐 아니라 창업가의 역	고학력·고스펙 창업가에게 재정적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지표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큰 투자회사라 자금력이 있으면 아이디어만으로도 될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량을 확인할 수 있는 학력과 스펙 등의 지표가 필요함	지원 확률이 높음
“창업을 무조건 투자 받는거로.. 그래서 투자 못받으면 창업 망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창업은 투자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사업의 목적성을 만들고 취지를 만들고 대의성을 갖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투자를 생각하기 이전에 지원 자금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게 우선이죠.. 사회적 의무나 양질의 고용... 사회적 대의성... 창업 목적과 취지 등이 명확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가를 위한 목적성 교육이 반드시 동반 되어야해요... 창업가들이 본질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창업은 무조건 투자가 우선인 것이 아니라 지원 자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목적성 교육이 필요함	사업화 자금에 대한 책임감은 필수적임

[표 18] 주관적 규범(T6)에 대한 주제 영역 분석 결과

Content	Sub-theme	Thematic Area
“부모가 창업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그만큼 자녀 세대도 그 창업 과정에 익숙한 거 같아요.. 본인도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영향을 받는거 같아요.. 좀더 쉽게...”	부모 창업 경험이 있으면 본인 창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부모 창업 경험 및 창업 여부가 본인 창업 이행에 영향을 미침
“부모님의 창업 경험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 속도가 빠를 수 밖에 없어요.. 또 창업에 대해지지.. 존중도.. 물론 해주시고요..”		
“제 부모님도 창업을 하셨어요.. 그 땐 사업으로 표현하는게 맞나요.. 그래서 저는 학부 졸업하고 바로 창업에 뛰어 들었어요.. 부모님의 창업하신 그 모습이 존경스러웠거든요”		
“부모.. 가족... 지지가 상당해요.. 창업이 아직까진 사회적 인식이 익숙하진 않기 때문에 바로 주변에 지인.. 가족이 지지해주는게 큰 힘이 되죠.. 저도 가족들이 적극지원해주고 있으니... 하하.. 너무 감사하죠”	부모나 가족의 인식이 긍정적이면 창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부모 또는 가족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창업 이행에 영향을 미침
“주변 지인이나... 이미 창업한 선배들의 성공사례를 듣고.. 또 잘되고 성공하신 분들 모습 보면 자극 받죠.. 영향 엄청 커요... 강연만 들어도... 자극 되는데요...”	주변 지인 또는 선배들의 창업 성공사례가 본인 창업에 도움이 됨	주변 창업 성공사례 및 창업가 유무가 창업 이행에 영향을 미침
“주변에 사회 기여하는 목적으로 창업을 하신 분이 꽤 많이 계세요.. 그 분들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저도 거기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도 어느새 사회 기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창업을 하고 있네요... 하하하”	주변에 창업가가 많다 보니 창업에 익숙해짐	

[표 19] 사회적 인식(T7)에 대한 주제 영역 분석 결과

Content	Sub-theme	Thematic Area
“창업에 대한 인식.. 사회적으로 많이 좋아졌죠.. 사회적 인식이 창업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죠.. 창업이 늘어났잖아요..”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아졌고 창업이 늘어남	사회적 인식이 창업 이행에 영향을 미침
“사회적 시선 측면에서 창업에 대한 접근성도 용이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실패한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인식... 조건부 긍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절반은 리스크.. 절반은 가능성이니깐요. 창업 시작하기로 했을 때 창업 가능성과 리스크를 동시에 보게 되니까.. 전 그래도 최악에 상황에서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해보겠다는 생각이니... 조건부 긍정이라고 표현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하하하”	창업에 대한 인식은 조건부 긍정 수준임	
“한국에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취업 실패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색안경 낀거죠... 한국에선 타인 인생에 관여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창업이 취업 실패의 결과로 봄	
“창업이 특히 지속성이 중요한데... 사실 창업 지속성.. 유지가 어렵잖아요.. 창업을 해서 이만큼 이뤄냈다라는 열정의 시선이 예전보다는 줄었다고 생각해요...”	창업 지속성이 어려워 창업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우리나라는 특히 창업에 대한 리스크가 개인에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익숙하게 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는게 아니라.. 창업 선택했으니 망해도 너 책임... 오롯이 개인의 역량 미달... 무능력자... 그런 인식 있잖아요.. 이런게 창업을 하는데 좀 불편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죠”	창업 리스크가 개인에게 초점이 되어 있어서 부정적일 수 있음	
“창업 분야는 사회 인식 변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죠”	사회 인식 변화가	창업에 대한 사회

“본인이 뭘 하든.. 색안경 끼고 창업을 바라보는거.. 진짜 인식 제고 너무 필요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해야함	적 인식 제고 및 변화가 필요함
“그냥 누구나.. 한번 쯤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창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체계 개선도 필요하고.. 그런 인식까지 확대돼서 인식이 확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진 사례 보면 누구나 창업하는 것을 도전적이고 멋지게 보잖아요”	창업 경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함	
“한번에 창업 인식이 바뀌지 않죠.. 인식 바꾸는게 제일 어렵잖아요.. 시간을 가지고 창업 산업이 하나의 경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사회적 인식으로 변화해 갈 때 창업에 대한 인식도...”	창업 산업이 하나의 중요한 경제 축이라는 사회적 인식 필요	
“우리나라는 그냥.. 공무원.. 대기업 가야 돈 잘벌고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한거죠.. 요새는 공무원도 인기가 다시 수그러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모험심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으로 체질이 바뀌거나 모험 자본이 좀 잘 형성되거나 해야할 것 같아요.. 베트남의 경우 우수 인력들은 취업보다 창업이 더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댓값이 크다보니 자연히 그냥 창업을 하거든요...”	창업을 했을 경우 이득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실패 사례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정부자금 타서 무의미하게 사용하고 시간과 돈을 버릴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쉽지 않은 과정인 것도 알려줘야하고요.. 그렇지만... 창업 성공 사례가 많아져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의식이 고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창업 성공사례가 많아져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의식이 고취되어야 함	
“창업에 대해 교육을 접하게 되면.. 당연히 매력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본인 삶에 필요한 역량을 가르치는 것이 기업가정신 교육이기 때문에.. 좋아요... 분명 필요한 교육이에요... 거기에다가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영향을 미칠	창업 실무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실무교육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필요함
“이론 교육으론 안되고요.. 실무교육해서.. 또 실무교육이라고 브레인 스토밍 등의 형식적 교육 말고.. 성공 실패사례.. 선진 후진 사례를 보면서 전반적 사회 기조에서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나에게 맞는 창업 생태계에서 역할이 무엇인지도 보고.. 그런 실질적 인식 교육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봐요”		
“기업가정신 교육은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창업 경험이 중요해요.. 창업 관련 경험도 중요하고요.. 창업 이행으로 연결되는데 준비과정에서의 실무경험도 너무 중요하고요.. 사회적 캠페인으로 인식을 바꿔야해요..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창업 실무교육을 받고 창업을 독려할 수 있도록요....”	창업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경험을 할 수 있고 창업 이행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캠페인이 필요함	창업을 독려할 수 있는 사회적 캠페인이 중요함
“기술 창업 분야는 인식이 좋아졌어요.. 기술형 창업에 대한 지원도 많아졌고... 수요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기술창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고 수요도 많아짐	기술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임
“폐업하면 낙인 바로 찍히잖아요.. 재개하기 좀 어렵게요.. 사실 재도전 할 힘도 안나는데.. 낙인까지 찍으면 은근 서러워요... 재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보면 페북에 오히려 창업하고 폐업하고 활동하고 그런 기록을 남기면 신용대출 금리도 낮아지게 하고 그런거처럼....”	창업 실패에 대한 패배자 낙인보다는 재기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고민을 해야함	창업 실패시 사회적 인식이 패배자 낙인을 만듦

[표 20] 기업가정신(기업가적 지향성)(T8)에 대한 주제 영역 분석 결과

Content	Sub-theme	Thematic Area
“기업가정신(기업가적 지향성)과 관련한 교육은 주로 이론 교육... 그니까 주입식 교육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져요... 사실 온라인, 오프라인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 같은 온라인 형태의 교육도 물론 좋습니다. 다만... 어떤 매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 창업에서 시행착오 겪은 내용이나 실질적으로 어떤 마인드로 창업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등의 내용이 담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가정신(기업가적 지향성) 교육은 유튜브로 해도 되지만 창업에서 시행착오 겪은 내용에 대한 실질적 내용이 필요함	기업가정신(기업가적 지향성) 교육의 형태보다 실질적 내용이 중요함
“돈.. 창업을 위해 드는 비용... 또 기회비용... 이거 뿐만 아니라 위험감수성.. 그니까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창업할 수 있어야죠”	위험감수성은 창업으로의 이행에 중요한 요소인데, 교육을 통해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위험감수성이 있다면 자기효능감과 창업 이행에 영향을 미침
“창업 기업의 목적이 이윤이라고 했을 때, 만약 창업가 본인이 위험 감수성향이라고 가정하면 이윤이 안나더라도 실패로 바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니까 사전에 미리 교육을 받고... 극복하는 자신감도 얻고 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창업이 훨씬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되죠.. 그런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가정신(기업가적 지향성)이필요한 이유는 창업이 아니어도 사람이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회 안전망 구축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고요.. 창업 이외 취업을 해도 필요한 지향성이에요... 다만 창업에서 정말 중요한 이유는 창업의 기획과 계획 단계부터 실행하고 이어 나가는 창업 전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 기업가적 지향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가적 지향성은 창업 전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고취해야 함	창업 전 과정에서 기업가적 지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이후 인터뷰를 활용한 주제분석 과정을 거쳐 수집 정리된 Sub-theme들과 Thematic area를 바탕으로 주제(Theme)를 만들어간다. Braun & Clarke(2006)는 주제분석을 수행할 때 질적, 양적 방법을 모두 활용한 분석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키워드 빈도수를 파악하고 단어 간의 상관관계 지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네트워킹, 멘토링, 경험,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실무교육 등의 핵심 주제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서 수행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제어 도출 결과를 적용하여 질적인 주제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주제어를 더욱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주제분석을 양적, 질적 방법론을 혼합으로 활용하여 재차 검증하여 주제어를 도출하였다는데 본 논문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양적 측면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빅데이터로 키워드를 파악하고, 질적 측면에서는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에서 Sub-theme과 Thematic Area 도출의 과정으로 범위를 좁혀나가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주제어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기업가정신 교육 및 실천교육을 각각의 주제로 도출하고자 정리된 Sub-theme 문장들과 Thematic Area들을 실무적 교육 Thematic Area 12개, 재정적 지원 Thematic Area 7개, 사회적 인식 Thematic Area 6개, 경험 Thematic Area 4개, 역량 및 능력 Thematic Area 4개, 주관적 규범 Thematic Area 3개 총 36개의 Thematic Area를 도출하였다.

Thematic Area들을 실무적 교육, 재정적 지원,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경험, 역량 및 능력, 주관적 규범 요소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는데 이러한 분류를 살펴보면 기업가적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요인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장에서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ToC 분석틀에서 실천적 교육의 필요성과 외부적 요인의 작용이라는 관점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주제분석을 통해서도 실천적 교육의 중요성과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여러 요인과 관련된 주제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주제분석을 통하여 나온 각각의 Thematic Area를 메커니즘 그림에 모두 표시하였다. 기창업자이거나 기업가정신 교육에 참여한 잠재적 기업

가를 대상의 인터뷰인 만큼,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기업가정신 요인 중 내부적 요인(특히 경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가적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가적 이행에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업가정신 중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이 기업가적 이행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외부적 요인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임을 확인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ToC 분석 틀을 활용하여 주제분석의 내용을 검증하고 요인 간의 연결 고리를 살펴본 결과 기업가정신 교육에 비해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 검토를 통해 제시했던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의 구성 요소인 창업경진대회, 네트워킹, 멘토링, 인턴십, 기업가 강연 등의 요소들이 기업가적 이행에 모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실천교육 및 그 중에서도 네트워킹과 멘토링, 기업가 강연의 경우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경진대회는 창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고취시켜주는데 역할을 하였고 기업가 강연은 기업가적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은 크게는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엇보다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외부적 요인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가적 의도를 고취할 수 있는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업가정신 교육보다 실천교육이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데 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기업가적 이행에 장애요인으로 볼 수 있는 외부적 요인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외부적 요인에 해당하는 재정적 지원과 사회문화적 인식과 관련한 우려에 대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외부적 요인들은 대체적으로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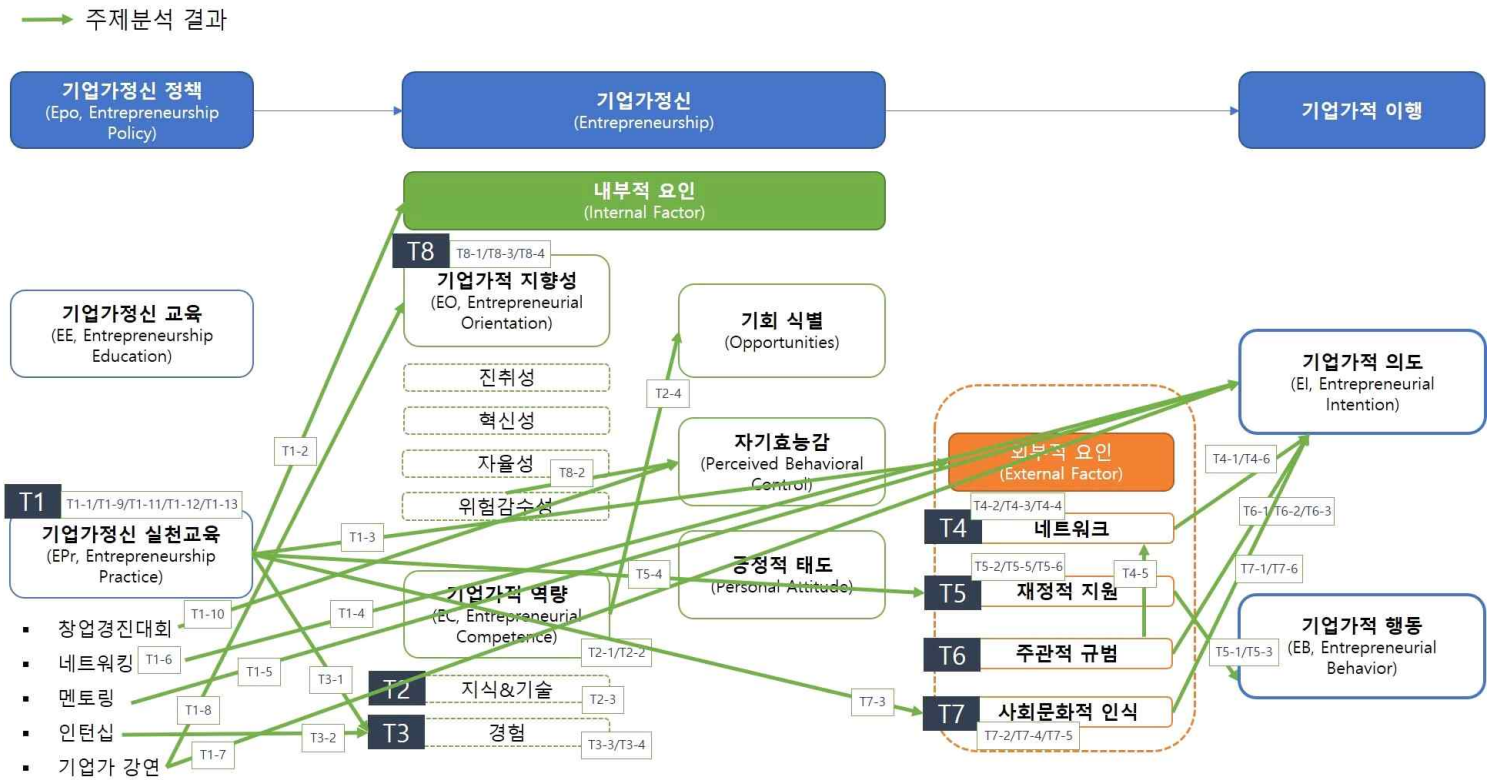
로 나타났는데,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분석 결과와 관련한 내용은 [표 21]과 [그림 16]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표 21]에 주제분석을 활용해 도출된 대표 주제(Theme)를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 16]에서 각 Theme과 Thematic Area에 해당하는 연결 고리 관계를 ToC 분석틀을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즉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 간의 메커니즘 관계를 주제분석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이다. 각 Theme과 Thematic Area를 넘버링하여 영향도 관계를 표시하였다.

[표 21] 주제분석에 따른 대표 주제 설정표

Theme	Thematic Area	Theme	Thematic Area
[T1] 실무적 교육 (13)	이론적 교육으로는 창업 이행에 한계가 존재함	[T4] 네트워크 (6)	다양한 네트워크를 확보하면 창업 이행 확률이 높아짐
	실무교육으로 기업가정신 고취 필요		네트워크로 멘토링 또는 투자 인맥을 형성할 수 있음
	실무교육을 통해 창업 이행의 외부적 장애요인 극복 가능		고학력·고스펙 창업가는 양질의 네트워크 확보 확률이 높음
	실무교육에서 멘토링이 창업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창업가와 중장년층 매칭 가능한 네트워크 활용이 효과적임
	실무교육에서 네트워킹이 창업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부모 인맥이 창업에 영향을 미치나 개인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함
	네트워킹도 유형과 대상에 따라 효과가 달라짐		창업 특성과 단계별로 필요한 네트워크가 상이함
	실무교육에서 실제 창업가 강연이 창업 이행에 도움이 됨	[T5] 재정적 지원 (6)	재정적 지원 요소가 창업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필수요소임
	실제 창업가와의 네트워킹으로 기업가정신 고취 가능		효과적인 재정적 지원 유형에 대한 고려 및 기준이 필요함
	실제 창업가의 경험 및 사례 공유가 필요함		창업가 생계유지를 위한 초기자금 지원 보장이 필요함
	데모데이, 창업경진대회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실무교육임		자금 확보를 위해 실무적 교육이 중요함
	창업 단계에 따라 실무교육 유형의 필요성이 상이함		고학력·고스펙 창업가에게 재정적 지원 확률이 높음
	창업 이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양질 실무교육이 필요함		사업화 자금에 대한 책임감은 필수적임
	전문적 영역의 멘토링과 네트워킹이 필요함	[T6] 주관적 규범(3)	부모 창업 경험이 본인 창업 이행에 영향을 미침
[T2] 역량 (4)	역량 고취를 위한 조기 교육이 필요함		부모 또는 가족의 창업 인식이 창업 이행에 영향을 미침
	창업 기업 유지와 성공은 경영 능력과 역량에 달려있음		주변 창업 성공사례 및 창업가 유무가 창업 이행에 영향을 미침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보유가 중요함	[T7] 사회적 인식 (6)	사회적 인식이 창업 이행에 영향을 미침
	역량이 있으면 기회 포착을 충분히 할 수 있음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변화가 필요함
[T3] 경험 (4)	창업 경험을 위한 실무적 교육이 필요함		실무교육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함
	대학교육 내 인턴십, 학기인정 등 경험 제공으로 창업 활성화 필요		창업을 독려할 수 있는 사회적 캠페인이 중요함
	창업 이행이 가능한 양질의 창업 경험 지원이 중요함		기술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임
	창업 이행을 위한 창업 이행 전 조기 경험이 필요함		창업 실패 시 사회적 인식이 패배자 낙인을 만듦
		[T8] 기업가정신 (4)	기업가정신 교육의 형태보다 실질적 내용이 중요함
			위험감수성이 있다면 자기효능감과 창업 이행에 영향을 미침
			창업 전 과정에서 기업가적 지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창업자 특성 및 지향성 유형 분류는 무의미함

[그림 16] 주제분석 결과에 따른 메커니즘 영향도



제 5장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에 대한 실증분석

제 1절 기초 통계량

1. 데이터와 변수정의

본 논문의 데이터는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실행하는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개인편을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2017년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427001, 2017.2.28.)를 받았으며, 국내 기업가정신 실태를 조사하는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나이와 성별, 지역을 고려하여 만 13세 이상 69세 이하의 국민 약 12,000명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총 4개의 큰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기업가적 지향성 부분에서는 진취성, 혁신성, 자율성, 위험감수성 등을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업가적 역량과 기업가적 태도와 인식도 7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기업가정신 인식 및 정부 정책 이해도에 대하여 기업가정신 교육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 및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창업 정책 수혜 여부, 창업 계획 이유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기업가적 이행인 기업가적 의도와 행동을 더미 변수화하였다. 설명변수로는 먼저 기업가정신 정책을 변수화한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인식개선, 인프라 지원, 규제개선은 수혜 여부에 따라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기업가정신 정책에 대한 변수는 설문조사 문항 중 기업가정신 활성화 및 창업지원 정책을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지원', '창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창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네트워킹, 멘토

링 등 창업지원 서비스', '기업가 및 창업에 대한 인식개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 '법제화/규제개선을 통한 사업 환경 조성' 분류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을 활용하여 이 중 정책을 수혜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하여 설문한 문항을 더미 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기업가정신의 내부적 요인 중 기업가적 지향성의 진취성, 혁신성, 자율성, 위험감수성, 기업가적 역량의 지식과 기술, 경험은 모두 문제에서 구성된 7점 척도 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모두 7점 척도 변수를 사용하였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네트워크, 재정적 지원, 주관적 규범, 사회문화적 인식으로 설정하였으며, 재정적 지원과 주관적 규범은 더미변수로 네트워크와 사회문화적 인식은 7점 척도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는 개인의 특성을 나타낸 성별, 학력, 월 소득, 연령을 사용하였다.

[표 22]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변수 정의

구분			활용된 설문 내용	측정기준
종속변수	기업가적 의도		귀하께서는 창업 계획이 있으십니까?	더미변수
	기업가적 행동		귀하께서는 창업 경험이 있으십니까?	더미변수
설명변수	기업가정신 정책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정신 활성화 및 창업지원 정책 -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지원	더미변수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기업가정신 활성화 및 창업지원 정책 - 네트워킹, 멘토링 등 창업지원 서비스	더미변수
		인식개선	기업가정신 활성화 및 창업지원 정책 - 기업가 및 창업에 대한 인식개선	더미변수
		인프라 지원	기업가정신 활성화 및 창업지원 정책 - 창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더미변수
		규제개선	기업가정신 활성화 및 창업지원 정책 -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 - 법제화/규제개선을 통한 사업 환경 조성	더미변수

	기업가 정신 내부적 요인	기업가적 지향성	진취성	일 해결시 '새로운 방법' 선호	7점척도
			혁신성	평소 변화와 혁신을 중시	7점척도
			자율성	행동과 생각을 스스로 결정하는 데 익숙함	7점척도
			위험 감수성	목적 달성을 위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함	7점척도
		기업가적 역량	지식& 기술	창업을 시작할 기술과 지식 보유	7점척도
			경험	기존에 경험했던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편함	7점척도
		기회 식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데 뛰어난 편임	7점척도
		자기효능감		한번 시작한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미는 편임	7점척도
		긍정적 태도		기창업한 선배를 존경하고 높게 평가함	7점척도
	기업가 정신 외부적 요인	네트워크		주변에 창업 준비 및 시작에 풍부한 자원 보유	7점척도
		재정적 지원		창업자금 및 기업 성장 자금 지원이 중요함	더미변수
		주관적 규범		가족 및 지인 중 창업자 있음	더미변수
		사회문화적 인식		창업도 훌륭한 진로 중 하나라고 생각함	7점척도
통제 변수	성별			남성 = 0, 여성 = 1	더미변수
	연령			출생 연도	연속변수
	월소득			①100만 원 미만 ②100~300만 원 미만 ③300~500만 원 미만 ④500~700만 원 미만 ⑤700만 원 이상	5점척도
	학력			①받지 않았음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교(2, 3년제) ⑥대학교(4년제 이상) ⑦대학원	7점 척도

2. 기초 통계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초 통계는 다음과 같다. 총 변수들의 관측수는 12,004명이다.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의 평균은 0.29로 기업가정신 교육(평균 0.43)에 비해 수혜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사회문화적 인식이 7점 척도 중 평균 4.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4.48점, 자율성 4.00 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소득은 5점 척도로 연간 총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①100만 원 미만 ②100~300만 원 미만 ③300~500만 원 미만 ④500~700만 원 미만 ⑤700만 원 이상으로 이루어졌다. 평균은 2.36으로 나타나 300~500만 원 사이로 월 소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평균이 0.48로 남자가 조금 더 많았으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평균이 41.56세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가 15.3367로 크게 나타났다. 학력은 ①받지 않았음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교(2, 3년제) ⑥대학교(4년제 이상) ⑦대학원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균이 4.67로 나타나 고등학교 및 2, 3년제를 포함한 대학교 졸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생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4년제 이상 대학교 출신이 28.8%, 2~3년제 대학교 출신이 19.5%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조사에 고등학교 졸업의 대학생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표 23] 기초통계량 분석 결과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기업가정신 교육	0.43	0.4953	0	1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0.29	0.4557	0	1
인식개선	0.11	0.3077	0	1
인프라 지원	0.42	0.4936	0	1
규제개선	0.29	0.4557	0	1
진취성	3.83	1.4633	1	7
혁신성	3.77	1.4550	1	7
자율성	4.00	1.4323	1	7
위험감수성	3.71	1.4552	1	7
지식&기술	3.44	1.3933	1	7
경험	3.40	1.3166	1	7
기회 식별	3.71	1.4690	1	7
자기효능감	3.71	1.2239	1	7
긍정적 태도	4.48	1.1378	1	7
네트워크	3.75	1.3193	1	7
주관적 규범	0.46	0.4986	0	1
사회문화적 인식	4.55	1.1661	1	7
재정적 지원	0.35	0.4795	0	1
성별	0.48	0.4991	0	1
연령	41.56	15.3367	13	69
소득	2.36	0.6817	1	5
학력	4.67	1.0542	1	7

제 2절 기업가적 이행으로의 메커니즘 분석

앞서 인터뷰 내용을 통한 주제분석에서 기업가정신 교육 및 실천교육이 기업가적 이행으로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주제분석은 정책을 수혜받은 예비 창업가 또는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성적 연구였으며 메커니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정량적인 연구를 통해 영향의 크기 및 방향에 대한 메커니즘을 재검증하고자 한다. 정량적 분석을 위해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수행하고 국가 승인통계(승인번호: 제427001호)로 인정받은 2019년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개인편을 활용하여, STATA 17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기업가정신 교육 및 실천교육이 기업가적 이행으로 영향이 미칠 때, 기업가적 내부적 요인 및 외부적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경로분석 및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로분석과 조절효과 분석은 기업가정신 교육 및 실천교육에 내부적·외부적 요인 그리고 기업가적 이행인 의도와 행동으로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경로분석을 통해 앞장에서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설정한 기업가정신 교육에 따른 기업가적 이행의 메커니즘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업가정신 정책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인식개선, 인프라 지원, 규제개선에 대한 프로그램도 포함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의 비교를 통계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정신 정책이 내부적 요인인 기업가적 지향성과 기업가적 역량,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변수가 외부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이후에 영향요인이 적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영향들을 제외시키며 모형에 대한 평가와 수정을 통해 최종 모형을 확정하였다.[22)]

22) [부록 2]를 통해 경로분석 최종 모형에 이르는 분석과정을 포함하였음.

아래 표와 같이 모형 적합도 검증을 하면서 모형을 수정하고 최종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적합도 검증으로는 카이제곱 검정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and Lewis Index) 지수들을 사용하였다. RMSEA는 적합 여부 판단 기준은 0.05 이하는 '좋음'으로 판단되고 0.08 이하는 '양호'로 판단되며 0.1 이하는 '보통'으로 판단된다. 이 지수에 의하면, 모델 III이 '좋음'으로 나타났다. SRMR 지수는 0.08 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이 모형 적합도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모델 III만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FI와 TLI 지수값은 0.9 이상이 적합하다. 이 지수는 모델 I, II, III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분석을 통해, 모델 III 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경로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구분	모델		
	I	II	III
X^2	37707.15 (p=0.000)	37706.05 (p=0.000)	36716.23 (p=0.000)
RMSEA	0.062	0.058	0.037
SRMR	0.144	0.120	0.072
CFI	0.901	0.902	0.981
TLI	0.900	0.900	0.975

경로분석에 해당하는 부분은 마지막 모델 III을 활용하여 기업가정신 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절된 형태로 기술하였으며, 전체 분석은 [부록 2]에 포함시켰다. 모델 III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업가정신 교육 및 실천교육이 다른 정책들인 인식개선, 인프라 지원, 규제개선 보다 더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상승시켜 주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음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기업가정신 교육은 거의 모든 기업가정신에서 양의 효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은 모든 변수에서 양의 효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표준화 경로계수 또한 다른 정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식개선과 인프라 지원, 규제개선은 각각 몇 개의 변수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들을 상승시키는데 기업가정신 교육과 인식개선, 인프라 지원, 규제개선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변수들의 구성타당성을 검증하였다[23]. 변수들의 구성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법칙타당성을 검증한다(심준섭, 2015; 우종필, 2014). 우선 집중 타당성을 나타내는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이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기업가정신의 내부적 요인 및 외부적 요인이 모두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타당성의 경우,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모두 0.6 이하이므로 판별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법칙타당성도 나타내는데, 모두 구성개념 간 관계가 양(+)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칙타당성도 확보되었다. 모든 변수들 간 관계가 구성개념 간 관계가 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개념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변수들 간 구성타당도를 모두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3) 구성타당성의 결과는 [부록 3]에 포함하였음.

1. 기업가적 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 EO)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경로분석

기업가적 지향성의 경로분석 결과,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다른 정책인 기업가정신 교육, 인식개선, 인프라 지원, 규제개선 보다 기업가정신 기업가적 지향성이 더 크게 그리고 4개의 모든 부분(진취성, 혁신성, 자율성, 위험감수성)에서 상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표준화 경로계수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미성도 의미 있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업가적 지향성 중 진취성과 위험감수성만이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주고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게 분석되었다. 하지만, 기업가적 의도는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 중 기업가적 지향성보다는 기업가정신 외부적 요인인 네트워크와 주관적 규범, 사회문화적 인식이 높을수록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 행동으로의 이행은 기업가적 의도로의 이행과는 다르게 자율성이 높을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 지향성이 기업가정신 외부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진취성과 혁신성이 네트워크에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주관적 규범에 혁신성이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가적 지향성이 의도나 행동인 기업가적 이행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외부적 요인을 거쳐서 기업가적 이행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기업가적 이행으로의 영향을 더 미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을 통한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을 고취시키고 이와 더불어 외부적 요인인 네트워크와 주관적 규범, 사회적 인식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가정신 정책이 기업가적 지향성을 고취시키고 기업가적 이행으로 미치는 영향도를 그림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다. 모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으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화 경로계수를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표준화 경로계수가 0.20 보다 높은 계수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굵은 색으로 표시하였다. 그림을 보면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다른 정책들보다 기업가적 지향성을 더 고취시켜 주고 기업가정신 외부적 요인이 기업가적 이행을 더 상승시켜 준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나타났다.

참고로 앞의 주제분석 결과와 정량적인 경로분석의 결과를 연결해 비교 검증하기 위하여, 주제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나온 결과를 위주로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 결과표 중 4장에서 분석한 주제분석 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부분을 이탤릭체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표 26]에 적용해보면 주제분석을 통해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기업가적 지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이탤릭체로 변경하였다. 또, 경로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것 중 상대적으로 표준화 경로계수가 높은 부분에 해당하는 칸을 음영 처리하였다.

주제분석에서는 외부적 요인 중 네트워크, 주관적 규범, 사회문화적 인식이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가적 행동에는 재정적 지원이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에서도 질적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며, 이와 더불어 재정적 지원이 기업가적 의도에, 네트워크가 기업가적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입증하였다.

[표 25] 기업가적 지향성 경로분석 결과 (모델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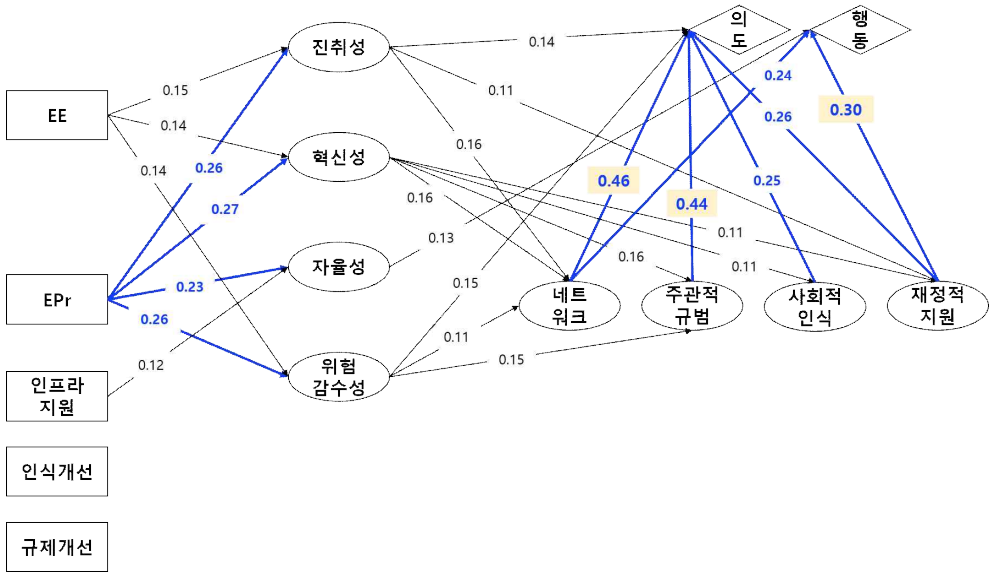
구분	경로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 진취성	0.2212*** (2.14)	0.1542
	기업가정신 교육 → 혁신성	0.1652*** (2.01)	0.1448
	기업가정신 교육 → 위험감수성	0.1670** (1.86)	0.1479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진취성*	*0.3152** (7.36)*	*0.2670*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혁신성	*0.3389*** (8.22)*	*0.2748*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자율성	*0.2109*** (3.82)*	*0.2353*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위험감수성	*0.3166*** (7.45)*	*0.2678*
인프라 지원	인프라 지원 → 자율성	0.1673*** (2.51)	0.1221
기업가적 지향성 & 기업가적 의도	진취성 → 의도	0.1102*** (4.39)	0.1442
	위험감수성 → 의도	0.1552** (1.62)	0.1528
기업가적 지향성 & 기업가적 행동	자율성 → 행동	0.1005*** (2.99)	0.1306
기업가적 지향성 & 외부적 요인	진취성 → 네트워크	0.1577*** (5.48)	0.1640
	혁신성 → 네트워크	0.1548*** (5.09)	0.1601
	혁신성 → 주관적 규범	0.1711*** (3.08)	0.1610
	위험감수성 → 주관적 규범	0.1422*** (3.50)	0.1520
	혁신성 → 사회적 인식	0.1028*** (3.02)	0.1108
외부적 요인 &	*네트워크 → 의도*	*0.2429****	*0.4677*

의도/행동		*(8.86)*	
	주관적 규범 → 의도	*0.3012*** (6.79)*	*0.4493*
	사회문화적 인식 → 의도	*0.2280** (1.58)*	*0.2558*
	재정적 지원 → 의도	0.2319** (1.60)	0.2601
	네트워크 → 행동	0.2110*** (2.79)	0.2482
	재정적 지원 → 행동	*0.2684*** (3.18)*	*0.3001*

note) *p<0.01:***, p<0.05:**, p<0.1:**

※ 주제분석의 주요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탤릭 표시함. 경로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상대적으로 표준화 경로계수가 높은 결과)는 음영 처리함.

[그림 17] 기업가적 지향성의 경로분석 결과



(2) 조절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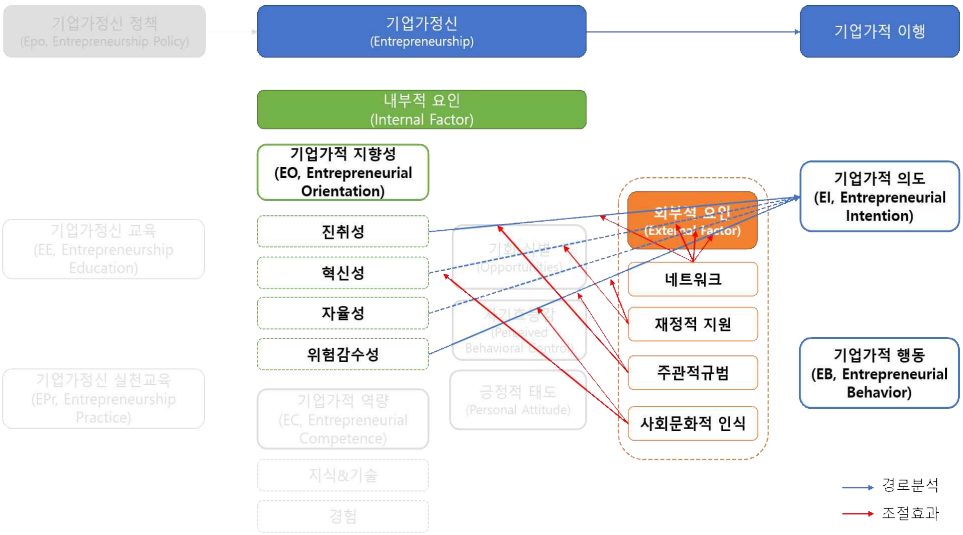
경로분석을 통해 기업가적 지향성이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으나 이는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포함된 효과이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부록 2]의 마지막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이 분석과 더불어 외부적 요인이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과 융합하여 어떻게 기업가적 이행으로 이어지는지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경로분석에서 간과하였던 부분도 함께 고려해보았다. 또한, 외부적 요인의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더 명확히 알아보기 위하여 변수들의 척도를 5점으로 조절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기업가적 지향성이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칠 때, 외부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이 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상대적으로 계수가 큰 결과에 대하여 음영처리 하였다. 먼저, 기업가적 의도로의 이행 분석 결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는 기업가적 지향성 중 진취성에 네트워크와 주관적 규범이 혁신성에 네트워크와 재정적 지원, 사회문화적 인식이 자율성에 네트워크가 위험감수성에 모든 외부적 요인이 조절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들의 관계를 아래 그림에 나타냈으며, 실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를 나타내고 조절효과는 빨간색으로 나타냈다. 위의 경로분석 결과, 기업가적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적 지향성은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으로 분석되어, 이 두 변수에 조절적 효과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재정적 지원, 사회문화적 인식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들 외부적 요인을 상승시켜 주었을 때, 기업가적 의도로의 이행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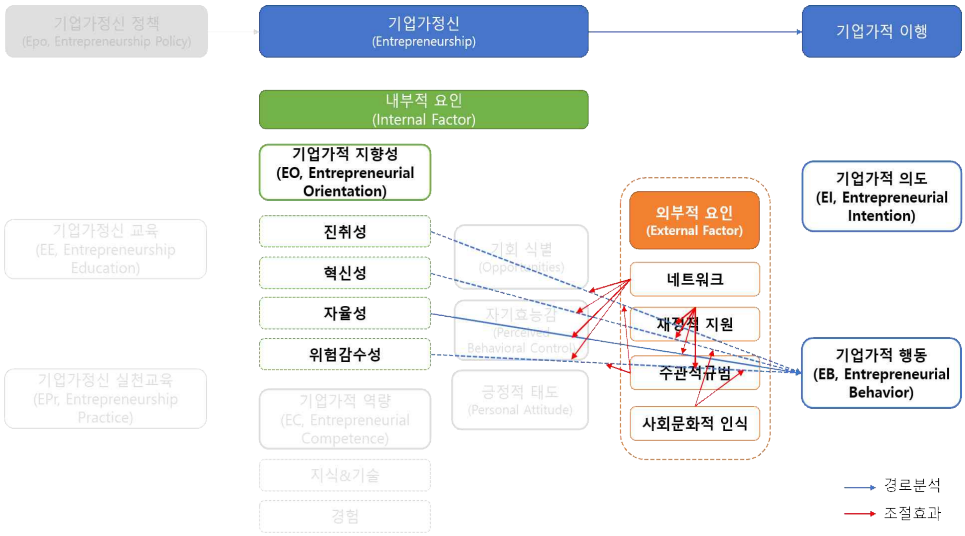
기업가적 행동에 대해서는 우선 외부적 요인 중 네트워크와 재정적 지원이 모든 기업가적 지향성 변수에 조절적 효과가 나타났다. 주관적 규범은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에 사회문화적 인식은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에 조절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로분석에서 기업가적 지향

성 중 자율성이 기업가적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율성에 조절적 효과를 보이는 네트워크와 재정적 지원의 정책 프로그램이 기업가적 행동의 이행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8] 기업가적 지향성이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의 조절효과 메커니즘



[그림 19] 기업가적 지향성이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의 조절효과 메커니즘



[표 26] 기업가적 지향성(EO)이 의도에 미치는 외부요인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변수	의도(네트워크)					의도(주관적 규범)					의도(사회문화적 인식)					의도(재정적 지원)				
	I	II	III	IV	V	I	II	III	IV	V	I	II	III	IV	V	I	II	III	IV	V
진취성	0.1800 *** (8.92)	0.0453 ** (2.01)	0.0492 ** (2.19)	0.0452 ** (1.82)	0.0661 ** (2.16)	0.1616 *** (6.62)	0.0296 (1.33)	0.0310 (1.39)	0.0292 (1.31)	0.0603 * (1.61)	0.1138 *** (3.30)	0.0381 * (1.73)	0.0388 * (1.76)	0.0392 *** (1.78)	0.1783 *** (2.04)	0.1192 ** (2.18)	0.0852 *** (2.88)	0.0998 ** (2.18)	0.0751 ** (2.17)	0.0942 ** (2.20)
혁신성	-0.0273 (-1.09)	0.1438 *** (9.32)	-0.0695 *** (-2.83)	0.0704 *** (2.88)	-0.0179 (-1.39)	0.0579 ** (2.36)	0.1184 *** (7.06)	-0.0605 ** (2.47)	-0.0613 * (2.50)	0.0599 * (1.51)	0.0619 *** (2.56)	0.1101 *** (4.30)	0.0619 ** (2.56)	0.0622 *** (2.57)	-0.1749 * (-1.85)	-0.0278 ** (-1.82)	0.0181 * (1.25)	-0.0852 (0.88)	0.0201 * (0.98)	-0.0562 * (1.14)
자율성	0.0756 *** (3.54)	0.1845 *** (7.10)	0.1488 *** (9.87)	-0.1893 *** (6.39)	0.1338 *** (3.43)	0.1916 *** (7.55)	0.1121 *** (7.58)	0.1176 *** (7.40)	0.1110 *** (7.53)	-0.0255 (-0.77)	0.1123 *** (6.71)	0.1139 *** (6.79)	0.1144 *** (6.64)	0.1110 *** (6.66)	0.1146 (1.48)	0.1155 *** (2.84)	0.1244 *** (3.11)	0.1133 *** (2.77)	0.1182 *** (2.82)	0.1022 *** (2.23)
위험감수성	0.0258* (1.19)	-0.1430 *** (6.89)	0.1483 *** (7.13)	0.1924 *** (7.62)	0.1834 * (0.53)	0.1310 *** (6.31)	0.1026 *** (6.39)	0.1008 *** (6.30)	0.1068 *** (8.45)	0.1896 * (1.56)	0.1361 *** (4.65)	0.1053 *** (4.61)	0.1053 *** (6.62)	0.1078 *** (5.01)	0.1145 ** (2.07)	0.1242 *** (2.41)	0.1122 *** (2.28)	0.1241 ** (2.22)	0.1233 *** (2.25)	0.1282 ** (2.07)
진취성 *네트워크	0.2816 *** (26.47)				0.1182 ** (1.79)															
혁신성 *네트워크		0.2048 *** (19.14)			0.1916 *** (2.52)															
자율성 *네트워크			0.2041 *** (19.55)		0.1556 *** (3.57)															
위험감수성 *네트워크				0.2156 *** (18.68)	0.1091 ** (2.68)															
진취성 *주관적 규범						0.2230 *** (15.63)				0.1745 *** (2.61)										
혁신성 *주관적 규범							0.1216 *** (15.15)			0.1027 * (1.21)										
자율성 *주관적 규범								0.1178 *** (15.47)		0.1309 * (1.45)										
위험 감수 *주관적 규범									0.1315 *** (15.38)	0.1363 ** (2.00)										

진취성 *사회문화적 인식											0.1653 *** (3.83)				-0.0109 (-0.58)					
혁신성 *사회문화적 인식												0.2213 *** (4.59)			0.2462 *** (4.28)					
자율성 *사회문화적 인식													0.2115 *** (4.02)		0.1432 * (2.48)					
위험감수성 *사회문화적 인식														0.1157 *** (3.54)	0.1008 *** (3.82)					
진취성 *재정적 지원																0.1611 *** (16.42)				0.1118 ** (1.88)
혁신성 *재정적 지원																	0.1282 *** (15.42)			0.1418 *** (1.47)
자율성 *재정적 지원																		0.1112 *** (18.12)		0.1198 *** (4.22)
위험감수성 *재정적 지원																			0.1712 *** (15.55)	0.2118 *** (3.27)

note) *p<0.01:***, p<0.05:**, p<0.1:**

※ 주제분석의 주요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탤릭 표시함. 경로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상대적으로 표준화 경로계수가 높은 결과)는 음영 처리함.

[표 27] 기업가적 지향성(EO)이 행동에 미치는 외부요인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변수	행동(네트워크)					행동(주관적 규범)					행동(사회문화적 인식)					행동(재정적 지원)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Ⅴ
진취성	0.0425 * (1.01)	0.0422 (1.00)	0.0481 ** (1.12)	0.0422 ** (1.13)	0.0522 ** (1.16)	0.0525 * (2.25)	0.0488 (0.33)	0.0442 (0.48)	0.0389 (0.31)	0.0328 * (1.20)	0.0655 *** (3.44)	0.0641 * (1.82)	0.0688 * (1.55)	0.0655 * (0.78)	0.0611 * (0.99)	0.0822 *** (3.00)	0.0817 *** (3.17)	0.0844 *** (2.99)	0.0842 *** (3.02)	0.0827 *** (3.11)
혁신성	-0.0252 (-0.88)	0.0155 * (1.01)	0.0211 * (1.00)	0.0321 * (0.98)	-0.017 9 (-1.09)	0.0118 * (1.36)	0.0142 * (1.06)	0.0205 * (1.47)	0.0188 * (1.32)	0.0221 * (1.31)	0.0322 *** (2.71)	0.0388 *** (3.31)	0.0325 * (1.56)	0.0344 * (1.57)	0.0322 * (1.58)	0.0421 *** (3.11)	0.0399 *** (3.27)	0.0381 *** (2.89)	0.0381 ** (1.98)	0.0411 *** (3.14)
자율성	0.0455 ** (1.55)	0.0556 *** (3.05)	0.0524 *** (2.88)	0.0552 *** (2.48)	0.0552 *** (2.43)	0.0228 * (0.86)	0.0245 * (0.58)	0.0276 ** (2.40)	0.0300 *** (2.53)	-0.0255 (-0.68)	0.0311 *** (3.14)	0.0329 *** (3.42)	0.0400 *** (3.65)	0.0412 *** (2.88)	0.0399 (2.99)	0.0411 ** (2.17)	0.0400 ** (2.11)	0.0382 * (1.27)	0.0402 ** (1.82)	0.0384 ** (1.43)
위험감수성	0.0142 (0.45)	0.0524 *** (2.25)	0.0611 *** (3.24)	0.0542 *** (3.61)	0.0550 * (1.53)	0.0448 ** (1.31)	0.0522 ** (1.39)	0.0511 *** (3.30)	0.0668 *** (3.01)	0.0610 ** (2.56)	0.0555 *** (3.65)	0.0552 *** (3.17)	0.0498 ** (1.62)	0.0482 *** (3.17)	0.0581 ** (2.05)	0.0555 *** (3.74)	0.0511 *** (3.81)	0.0507 *** (3.75)	0.0521 *** (3.71)	0.0544 *** (3.68)
진취성 *네트워크	0.1211 * (15.22)				0.1552 *** (2.88)															
혁신성 *네트워크		0.1141 *** (12.45)			0.1192 *** (1.72)															
자율성 *네트워크			0.2120 *** (14.41)		0.2100 *** (2.57)															
위험감수성 *네트워크				0.1122 *** (14.42)	0.0882 *** (2.29)															
진취성 *주관적 규범						0.1118 *** (11.08)				0.1234 *** (3.01)										
혁신성 *주관적 규범							0.1111 *** (10.01)			0.0899 * (1.22)										
자율성 *주관적 규범								0.1240 *** (9.22)		0.1001 * (1.32)										
위험감수성 *주관적 규범									0.1544 *** (8.42)	0.1622 *** (2.15)										

진취성 *사회문화적 인식											0.1142 *** (4.12)				0.0201 (0.44)					
혁신성 *사회문화적 인식												0.1011 *** (3.47)			0.1055 *** (3.12)					
자율성 *사회문화적 인식													0.1008 *** (3.40)		0.1002 * (1.48)					
위험감수성 *사회문화적 인식														0.1042 *** (2.88)	0.1022 *** (2.81)					
진취성 *재정적 지원																0.2222 *** (15.55)				0.1652 *** (4.42)
혁신성 *재정적 지원																	0.1755 *** (12.28)			0.1428 *** (4.58)
자율성 *재정적 지원																		0.1228 *** (11.02)		0.0980 *** (5.01)
위험감수성 *재정적 지원																			0.2103 *** (9.58)	0.1772 *** (5.10)

note) *p<0.01:***, p<0.05:**, p<0.1:**

※ 주제분석의 주요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탤릭 표시함. 경로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상대적으로 표준화 경로계수가 높은 결과)는 음영 처리함.

2. 기업가적 역량(Entrepreneurial Competence, EC)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경로분석

경로분석 결과, 다섯 가지 분류의 기업가정신 정책(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인식개선, 인프라 지원, 규제개선) 모두 기업가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으로 표준화 경로계수가 0.25 정도로 나타났다. 주제분석을 통해서도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을 통해 기업가적 역량 중 경험이 증가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더 나아가, 경로분석을 통해 기업가적 역량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지식, 경험 모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가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기업가적 이행을 증진시키는 것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앞 절의 분석내용과 마찬가지로 기업가적 이행에 외부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가적 역량에서도 외부적 요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더 고취시키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식&기술은 재정적 지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경험은 상대적으로 네트워크와 사회문화적 인식, 재정적 지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험을 고취시키는 정책은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인식개선, 인프라 지원, 규제개선으로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으로 정부에서는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을 더 많이 확대하여 기업가적 이행을 상승시켜야 할 것이다.

[표 28] 기업가적 역량 경로분석 결과 (모델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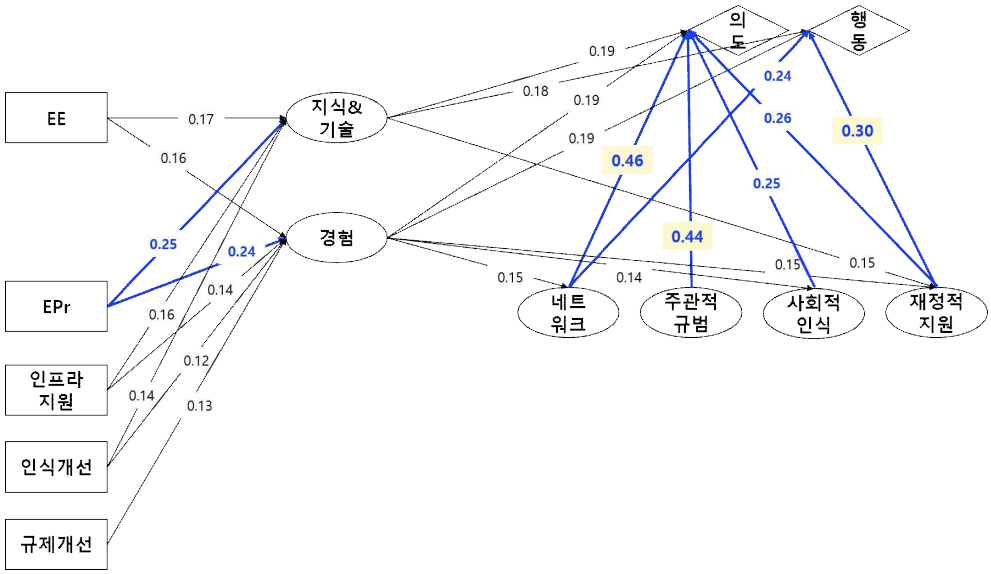
구분	경로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 지식&기술	0.2067*** (7.86)	0.1734
	기업가정신 교육 → 경험	0.1430*** (1.67)	0.1618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지식&기술	0.2770*** (6.21)	0.2578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경험	*0.2385*** (4.98)*	*0.2479*
인식개선	인식개선 → 지식&기술	0.2248*** (5.37)	0.1496
	인식개선 → 경험	0.1208*** (3.03)	0.1282
인프라 지원	인프라 지원 → 지식&기술	0.2796*** (6.77)	0.1636
	인프라 지원 → 경험	0.2315*** (4.98)	0.1493
규제개선	규제개선 → 경험	0.1893*** (3.12)	0.1309
기업가적 역량 & 기업가적 의도	지식&기술 → 의도	0.1236*** (10.45)	0.1973
	경험 → 의도	0.1125*** (2.45)	0.1982
기업가적 역량 & 기업가적 행동	지식&기술 → 행동	0.1169*** (9.19)	0.1854
	경험 → 행동	0.1221** (1.42)	0.1923
기업가적 역량 & 외부적 요인	지식&기술 → 재정적 지원	0.1288*** (3.52)	0.1524
	경험 → 네트워크	0.1320*** (3.82)	0.1522
	경험 → 사회문화적 인식	0.1225** (1.90)	0.1488
	경험 → 재정적 지원	0.1318** (1.92)	0.1548

외부적 요인 & 의도/행동	*네트워크 → 의도*	*0.2429*** (8.86)*	*0.4677*
	주관적 규범 → 의도	*0.3012*** (6.79)*	*0.4493*
	사회문화적 인식 → 의도	*0.2280** (1.58)*	*0.2558*
	재정적 지원 → 의도	0.2319** (1.60)	0.2601
	네트워크 → 행동	0.2110*** (2.79)	0.2482
	재정적 지원 → 행동	*0.2684*** (3.18)*	*0.3001*

note) *p<0.01:***, p<0.05:**, p<0.1:**

※ 주제분석의 주요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탤릭 표시함. 경로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상대적으로 표준화 경로계수가 높은 결과)는 음영 처리함.

[그림 20] 기업가적 역량 경로분석 결과



(2) 조절효과 분석

기업가적 역량과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네트워크와 주관적 규범, 사회문화적 인식, 재정적 지원의 조절효과가 모두 기업가적 이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계수 값을 살펴보면, 사회문화적 인식의 계수 값은 상대적으로 다른 정책의 조절변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와 재정적 지원의 조절효과는 다른 변수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 역량이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외부요인의 조절효과 또한 전반적으로 양(+)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그 중에, 재정적 지원의 조절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 의도와 행동에 미치는 외부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식&기술, 경험에 대해서는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정부에서도 내부적요인 중 지식&기술, 경험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이 필

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둘의 기업가적 역량을 가장 크게 높여주는 것은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으로 앞의 경로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도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다른 정책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표 29] 기업가적 역량(EC)이 의도에 미치는 외부요인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변수	의도(네트워크)			의도(주관적 규범)			의도(사회문화적 인식)			의도(재정적 지원)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Ⅲ
지식&기술	0.1595 *** (17.48)	0.1354 *** (14.19)	0.0380 *** (2.49)	0.1544 *** (13.90)	0.1074 *** (7.06)	0.1356 *** (20.64)	0.0199 *** (3.45)	0.1081 *** (7.85)	0.1095 *** (4.60)	0.1001 *** (1.98)	0.1228 *** (6.79)	0.1248 *** (4.22)
경험	0.0819 *** (16.18)	0.1160 *** (27.08)	0.1079 *** (1.83)	0.1446 *** (20.23)	0.1058 *** (24.87)	0.1466 *** (16.08)	0.1638 *** (21.65)	0.1131 *** (9.19)	0.1009 *** (3.05)	0.1022 *** (15.50)	0.1288 *** (6.51)	0.1222 *** (2.88)
지식&기술 *네트워크	0.2048 *** (16.24)		0.2219 *** (16.51)									
경험 *네트워크		0.1361 *** (20.87)	0.1554 *** (12.47)									
지식&기술 *주관적 규범				0.1507 *** (16.29)		0.1675 *** (18.71)						
경험 *주관적 규범					0.1764 *** (16.36)	0.1928 *** (26.15)						
지식&기술 *사회문화적 인식							-0.0121 (0.01)		0.0821 ** (1.68)			
경험 *사회문화적 인식								-0.0114 (1.69)	0.0999 ** (1.19)			
지식&기술 *재정적 지원										0.1811 ** (2.18)		0.2112 *** (3.22)
경험 *재정적 지원											0.1581 ** (2.42)	0.1219 *** (6.71)

note) *p<0.01:***, p<0.05:**, p<0.1:**

※ 주제분석의 주요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탤릭 표시함. 경로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상대적으로 표준화 경로계수가 높은 결과)는 음영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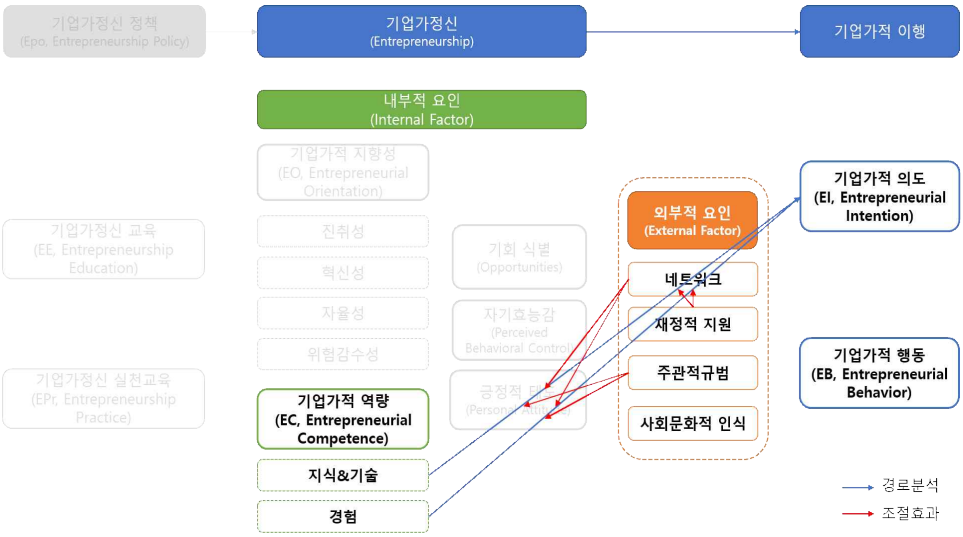
[표 30] 기업가적 역량(EC)이 행동에 미치는 외부요인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변수	행동(네트워크)			행동(주관적 규범)			행동(사회문화적 인식)			행동(재정적 지원)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Ⅲ
지식&기술	0.1082 *** (4.15)	0.1055 *** (3.82)	0.0820 *** (3.25)	0.1025 ** (2.12)	0.1025 ** (2.11)	0.1225 ** (1.77)	0.0982 *** (2.99)	0.0999 *** (2.75)	0.0889 *** (2.95)	0.1050 *** (2.48)	0.1099 *** (2.92)	0.1028 *** (3.19)
경험	0.1022 * (1.22)	0.1002 * (1.12)	0.0925 * (0.93)	0.1002 *** (3.22)	0.1015 *** (3.63)	0.1214 *** (2.84)	0.0867 *** (2.88)	0.0882 *** (2.72)	0.0922 *** (3.12)	0.1222 *** (4.22)	0.1282 *** (3.99)	0.1111 *** (4.11)
지식&기술 *네트워크	0.1544 ** (1.31)		0.1332 * (1.01)									
경험 *네트워크		0.1122 ** (2.25)	0.1155 ** (2.22)									
지식&기술 *주관적 규범				0.1225 *** (3.41)		0.1152 *** (4.15)						
경험 *주관적 규범					0.1128 *** (4.17)	0.1002 *** (4.02)						
지식&기술 *사회문화적 인식							0.0252 ** (2.02)		0.0311 ** (1.81)			
경험 *사회문화적 인식								0.0288 (1.99)	0.0299 ** (1.74)			
지식&기술 *재정적 지원										0.1422 *** (5.18)		0.1524 *** (5.19)
경험 *재정적 지원											0.1555 *** (5.42)	0.1512 *** (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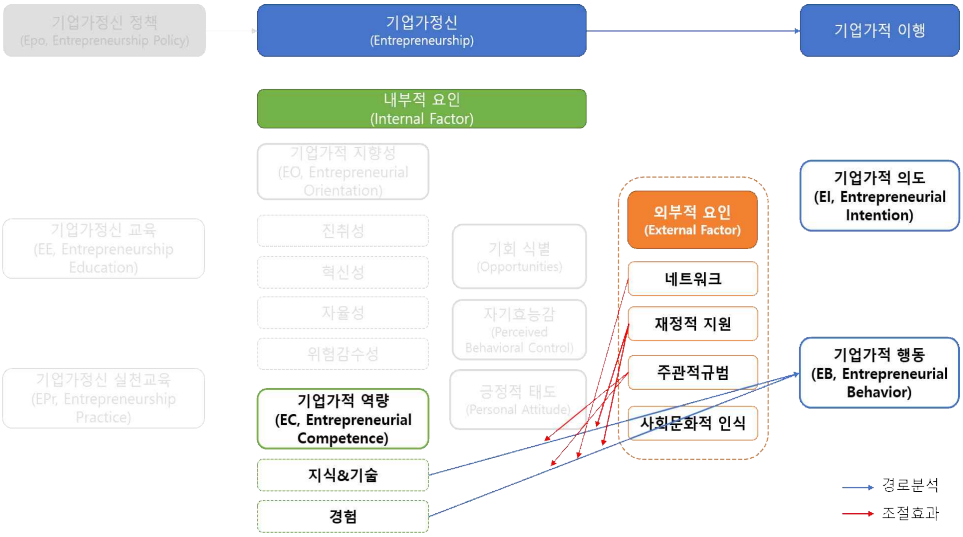
note) *p<0.01:***, p<0.05:**, p<0.1:**

※ 주제분석의 주요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탤릭 표시함. 경로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상대적으로 표준화 경로계수가 높은 결과)는 음영 처리함.

[그림 21] 기업가적 역량이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의 조절효과 메커니즘



[그림 22] 기업가적 역량이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의 조절효과 메커니즘



3. 기회 식별(Opportunities), 자기효능감(Perceived Behavioral Control), 긍정적 태도(Personal Attitude)가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경로분석

기회 식별과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도 앞의 다른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가정신 교육도 영향을 미쳤지만,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의 영향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 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기회 식별로 나타났으며 기업가적 행동에는 긍정적 태도가 다른 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 외부적 요인을 고취시켜주는 것은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가 모두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규범에는 기회 식별과 자기효능감이 사회문화적 인식에는 긍정적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트워크에는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적 요인 중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적 지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경로분석 결과 (모델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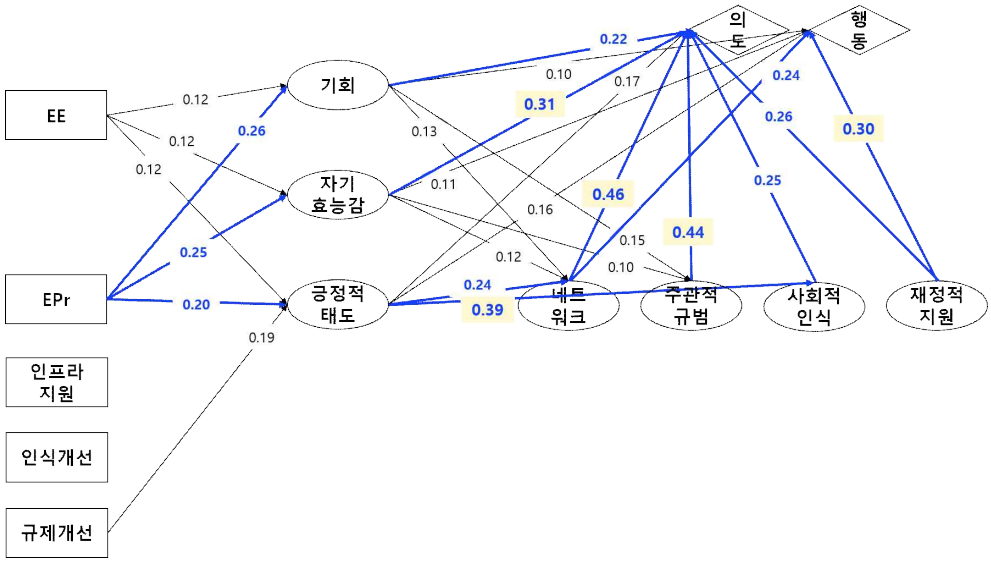
구분	경로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 기회 식별	0.1819*** (3.02)	0.1276
	기업가정신 교육 → 자기효능감	0.1623*** (2.76)	0.1252
	기업가정신 교육 → 긍정적 태도	0.1633*** (2.93)	0.1275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기회 식별	0.3114*** (7.18)	0.2655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자기효능감	*0.3413*** (5.75)*	*0.2526*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긍정적 태도	0.2410** (1.80)	0.2008
규제개선	규제개선 → 긍정적 태도	0.2472*** (10.02)	0.1990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기업가적 의도	기회 식별 → 의도	0.2046*** (3.00)	0.2201
	자기효능감 → 의도	0.2122** (1.55)	0.3119
	긍정적 태도 → 의도	0.2216*** (8.05)	0.1727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기업가적 행동	기회 식별 → 행동	0.1001** (1.54)	0.1005
	자기효능감 → 행동	0.1002** (1.21)	0.1124
	긍정적 태도 → 행동	0.1160*** (7.26)	0.1660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외부요인	기회 식별 → 네트워크	0.1321*** (3.35)	0.1358
	자기효능감 → 네트워크	0.1249*** (2.24)	0.1231
	긍정적 태도 → 네트워크	0.2734*** (6.66)	0.2495
	기회 식별 → 주관적 규범	0.1194*** (5.69)	0.1571

	자기효능감 → 주관적 규범	0.1033** (1.83)	0.1008
	긍정적 태도 → 사회문화적 인식	0.2994*** (10.47)	0.3921
외부적 요인& 의도/행동	*네트워크 → 의도*	*0.2429*** *(8.86)*	*0.4677*
	주관적 규범 → 의도	*0.3012*** *(6.79)*	*0.4493*
	사회문화적 인식 → 의도	*0.2280*** *(1.58)*	*0.2558*
	재정적 지원 → 의도	0.2319** (1.60)	0.2601
	네트워크 → 행동	0.2110*** (2.79)	0.2482
	재정적 지원 → 행동	*0.2684*** *(3.18)*	*0.3001*

note) *p<0.01:***, p<0.05:**, p<0.1:**

※ 주제분석의 주요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탤릭 표시함. 경로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상대적으로 표준화 경로계수가 높은 결과)는 음영 처리함.

[그림 23]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경로분석 결과



(2) 조절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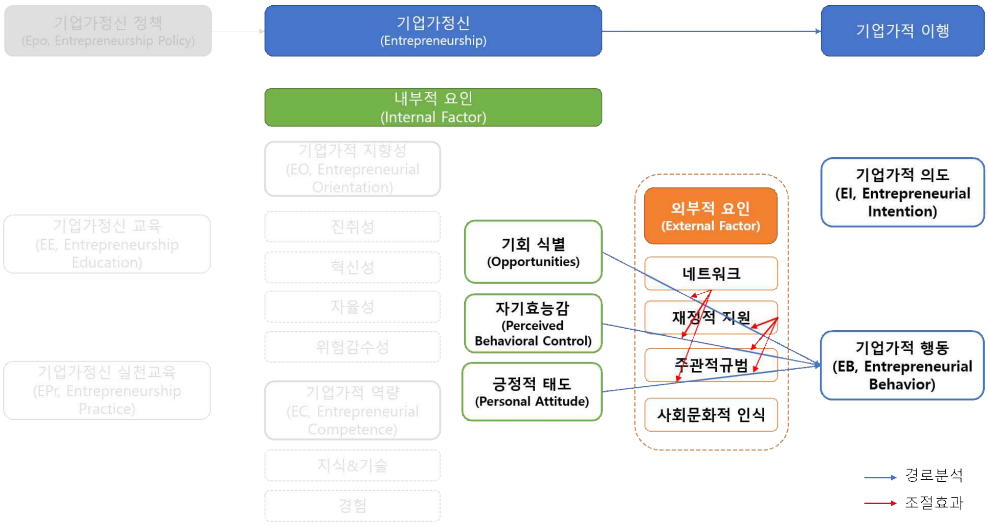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와 외부적 요인의 조절효과 또한 모두 양(+)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조절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네트워크와 재정적 지원에 대한 조절효과가 크게 나타나 이 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인식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계수 값이 낮게 측정되었으며, 주관적 규범은 긍정적 태도와의 조절효과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기업가적 행동으로의 이행은 재정적 지원의 조절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앞의 의도로의 이행 결과와 마찬가지로 외부적 요인의 조절효과 모두 양(+)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네트워크와 재정적 지원 두 가지 변수뿐이었다. 특히, 재정적 지원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종합해 볼 때, 외부적 요인의 기업가적 이행에 대한 조절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 이행에서도 의도로의 이행과 행동으로의 이행에 대한 정부 정책은 각자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의도로의 이행은 네트워크와 재정적 지원 중 전자에 더 중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행동으로의 이행은 후자를 더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림 24]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가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의 조절효과 메커니즘

[그림 25]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가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의 조절효과 메커니즘



[표 32]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가 의도에 미치는 외부요인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변수	의도(네트워크)				의도(주관적 규범)				의도(사회문화적 인식)				의도(재정적 지원)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기회 식별	0.1318*** (13.38)	0.0051 (0.26)	0.0010 (0.05)	0.1005* (1.08)	0.0993*** (4.61)	0.1079** (1.93)	0.1381** (1.94)	0.1190** (2.61)	0.1382** (2.13)	0.1090* (1.47)	0.1147** (1.76)	0.1112*** (3.63)	0.1048** (1.54)	0.1128* (1.51)	0.1005** (2.82)	0.1242*** (2.61)
자기효능감	0.1204*** (9.74)	0.1786*** (20.24)	0.1256*** (9.96)	0.1243*** (3.14)	0.1373*** (5.62)	0.1857*** (5.69)	0.1364*** (5.57)	0.1576*** (3.27)	0.1510*** (3.34)	0.1896*** (4.41)	0.1609*** (5.74)	0.1287*** (5.77)	0.1145*** (2.98)	0.1142*** (3.52)	0.1041*** (3.18)	0.1240*** (3.42)
긍정적 태도	0.1461*** (14.82)	0.1465*** (14.92)	0.1616*** (23.54)	0.1667*** (5.06)	0.1341*** (5.52)	0.1342*** (4.54)	0.1344*** (7.44)	0.1319*** (3.02)	0.1294*** (4.43)	0.1284*** (6.39)	0.1499*** (3.08)	0.1411*** (5.31)	0.1021*** (3.51)	0.1152*** (5.12)	0.0827*** (4.20)	0.0982*** (3.02)
기회 식별 *네트워크	0.2035*** (18.82)			0.2015*** (6.11)												
자기효능감 *네트워크		0.2091*** (19.15)		0.2003*** (6.02)												
긍정적 태도 *네트워크			0.1999*** (20.97)	0.1414*** (6.81)												
기회 식별 *주관적 규범					0.1286*** (8.11)			0.1332 (0.83)								
자기효능감 *주관적 규범						0.1449*** (8.21)		01362 (0.80)								
긍정적 태도 *주관적 규범							0.1463*** (8.92)	0.1616*** (5.05)								
기회 식별 *사회문화적 인식									0.1103** (1.78)			0.1222*** (4.94)				
자기효능감 *사회문화적 인식										0.1008* (1.35)		0.1105*** (3.84)				
긍정적 태도 *사회문화적 인식											0.1155*** (3.04)	0.1306*** (7.39)				
기회 식별 *재정적 지원													0.1212*** (17.82)			0.1516*** (3.33)
자기효능감 *재정적 지원														0.1421** (2.51)		0.1512*** (5.89)
긍정적 태도 *재정적 지원															0.1182*** (19.05)	0.1458*** (5.15)

note) *p<0.01:***, p<0.05:**, p<0.1:**

※ 주제분석의 주요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탤릭 표시함. 경로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상대적으로 표준화 경로계수가 높은 결과)는 음영 처리함.

[표 33]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가 행동에 미치는 외부요인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변수	행동(네트워크)				행동(주관적 규범)				행동(사회문화적 인식)				행동(재정적 지원)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기회 식별	0.1041** (1.27)	0.1022 (0.42)	0.1092** (1.85)	0.0252 (0.82)	0.0992* (1.10)	0.0899* (1.00)	0.0915** (1.49)	0.1102** (1.64)	0.0242* (1.20)	0.0210* (1.02)	0.0199* (1.00)	0.0198** (1.22)	0.1100** (2.17)	0.1282* (1.28)	0.1229** (1.98)	0.1228*** (2.78)
자기효능감	0.1855* (0.98)	0.1955** (2.02)	0.1881** (2.23)	0.0910* (1.20)	0.0755** (1.99)	0.0682** (1.70)	0.0711* (1.62)	0.0982* (1.12)	0.1182** (1.40)	0.1210* (1.20)	0.1199* (1.26)	0.0312 (0.82)	0.1770*** (3.12)	0.1668*** (2.99)	0.1548*** (3.42)	0.1782*** (3.88)
긍정적 태도	0.1112** (2.02)	0.1288*** (3.45)	0.1028*** (3.44)	0.0911*** (3.26)	0.0888** (1.99)	0.0910* (1.42)	0.0892* (1.18)	0.1200*** (3.33)	0.0342** (2.22)	0.0411** (1.47)	0.0402** (1.32)	0.0528* (2.02)	0.1457** (2.46)	0.1338* (1.62)	0.1280** (2.20)	0.1188* (1.62)
기회 식별 *네트워크	0.1202*** (4.12)			0.1102** (2.28)												
자기효능감 *네트워크		0.1822*** (4.02)		0.1999*** (3.81)												
긍정적 태도 *네트워크			0.1010** (2.22)	0.1322** (2.20)												
기회 식별 *주관적 규범					0.1125*** (4.10)			0.1180 (0.77)								
자기효능감 *주관적 규범						0.1508*** (4.02)		0.1465 (0.78)								
긍정적 태도 *주관적 규범							0.1281** (2.47)	0.1008* (1.08)								
기회 식별 *사회문화적 인식									0.0520* (1.06)			0.0621* (1.10)				
자기효능감 *사회문화적 인식										0.1351 (0.70)		0.1600* (1.21)				
긍정적 태도 *사회문화적 인식											0.0256* (1.00)	0.0381* (1.08)				
기회 식별 *재정적 지원													0.1520*** (6.60)			0.1667*** (5.02)
자기효능감 *재정적 지원														0.1400** (2.08)		0.1520*** (3.88)
긍정적 태도 *재정적 지원															0.1222*** (8.00)	0.1227*** (5.61)

note) *p<0.01:***, p<0.05:**, p<0.1:**

※ 주제분석의 주요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탤릭 표시함. 경로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상대적으로 표준화 경로계수가 높은 결과)는 음영 처리함.

제 3절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주요 영향요인 분석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주제분석과 경로분석, 조절효과를 활용하여 이론적 분석틀을 검증하였다. 즉 ToC를 통해 설정한 모델을 질적과 양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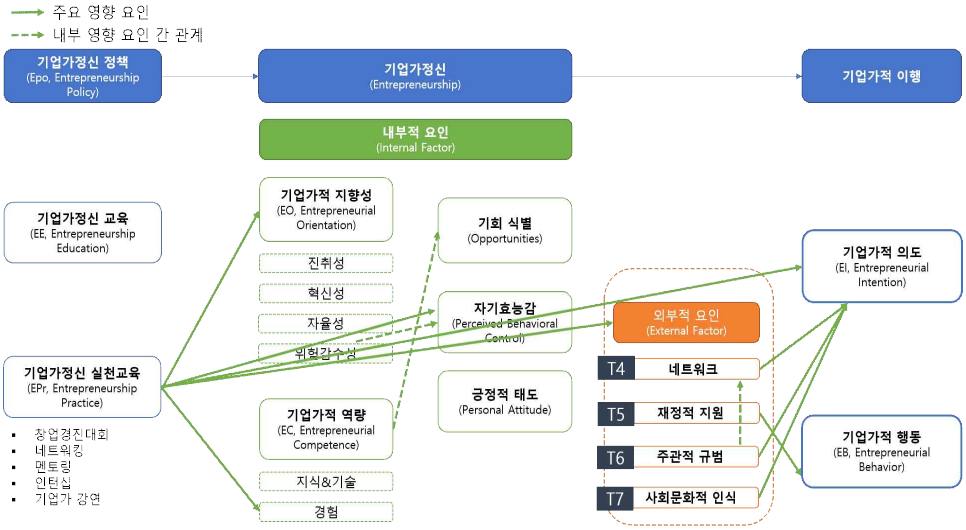
먼저, 이론적 분석틀을 토대로 주제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연결고리를 살펴본 결과,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실무적 교육)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었다. 실천교육이 기업가적 역량과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기업가적 지향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체적으로 주제분석을 통해서 실천교육의 다양한 지원정책 중 창업경진대회 형식의 지원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인턴십의 기회가 기업가로서의 경험을 쌓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킹과 멘토링, 기업가 강연 등의 지원정책 역시 기업가적 이행으로 연결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가적 이행 시 네트워크의 부족, 주관적 규범, 사회적 인식은 기업가적 의도에 외부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은 기업가적 행동으로 연결될 때 외부적 요인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도 주제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결고리 검증 이외에도 체계적인 교육 내용과 양질의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분석 검증을 통해 정리된 주요 영향요인을 [그림 26]을 통해 제시하였다.

[그림 26] 주제분석으로 도출한 주요 영향요인 관계



주제분석을 통해 ToC 분석틀에서 확인한 유의미한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정량적 분석인 경로분석을 활용하여 연결고리를 재검증하였고, 주제분석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관계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주제분석으로 도출한 요인을 중심으로 경로분석한 결과,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을 통해 혁신성, 위험감수성 등 기업가적 지향성, 경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적요인 중 네트워크와 주관적 규범 요인을 극복할 경우 기업가적 의도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 요인은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주제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로분석에서 입증된 관계는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을 통해 지식&기술, 기회 식별, 긍정적 태도가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서는 외부적 장애요인을 극복할 때 기업가적 이

행으로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결고리 검증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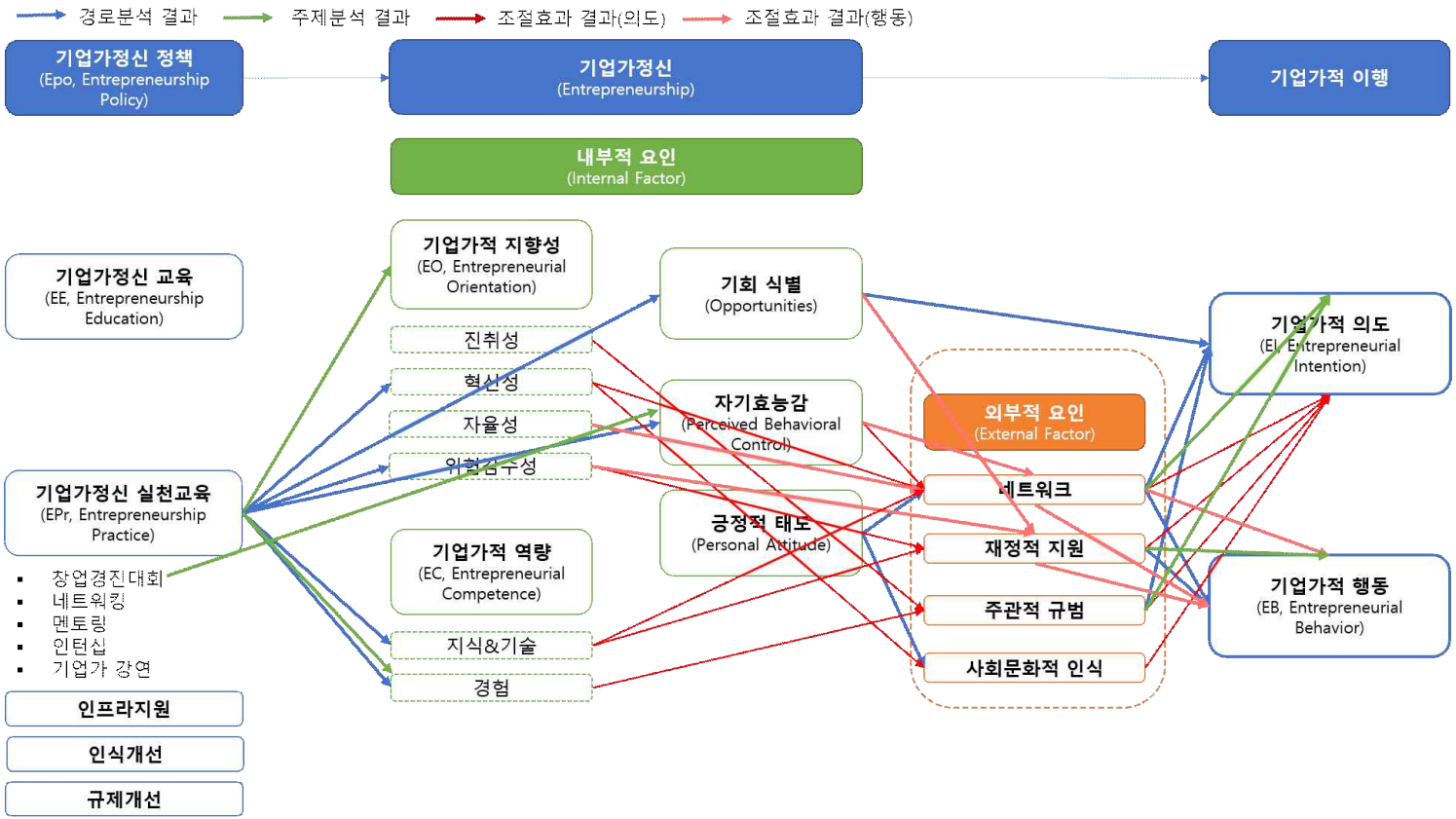
먼저 혁신성과 자율성, 지식&기술,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의 경우 네트워크와 조절효과가 나타나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가적 의도를 갖는데 외부적 요인인 네트워크의 유무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혁신성은 사회문화적인식과 조절효과가 나타나 기업가적 의도를 높일 수 있고, 경험은 주관적 규범과의 조절효과가, 위험감수성은 재정적 지원과 조절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기업가적 의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창업 실패와 같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재정적 측면 등의 우려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제분석의 내용과 일치한 결과이다.

기업가적 행동의 경우에는 자율성과 자기효능감이 네트워크와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행동으로 연결될 때에도 네트워크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행동에서도 위험감수성이 재정적 지원과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기업가적 행동에는 네트워크와 재정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조절효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과의 조절효과 측면도 고려함으로써, 장애요인을 극복하여 보다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주제분석을 통해서는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기업가적 이행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제분석뿐만 아니라 정량적 분석 결과에서도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기업가정신 교육보다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과 조절효과 분석을 통하여 ToC 분석틀의 연결 고리를 재검증함으로써, 주제분석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양적으로도 입증한 것이다.

주요 영향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7] 주요 영향요인 분석 결과



2. 전체 영향요인 종합 분석

이번 절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 및 실천교육, 인식개선, 인프라 지원, 규제개선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의 모든 분석의 종합된 결과를 나타내고자 한다. 우선, [그림 27]의 경로분석 전체 결과,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은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인 기업가적 지향성과 지식&기술, 경험,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를 상승시켜 준다. 외부적 요인 중 네트워크 주관적 규범, 사회문화적 인식, 재정적 지원은 기업가적 의도를 상승시켜 주고 네트워크와 재정적 지원은 기업가적 행동을 상승시킨다고 분석되었다.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굵은 색으로 표현하였다. 그림을 통해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을 상승시켜주는 것은 기업가정신 교육정책보다는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림 28]에서는 조절효과와 경로분석 효과를 함께 나타내어, 경로분석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외부적 요인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그림에서는 네트워크와 주관적 규범, 재정적 지원이 기업가적 지향성,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지식&기술과 함께 영향을 미칠 때 기업가적 의도로 더 많이 이행하는 것을 표현하였다. 기업가적 행동으로의 이행도 마찬가지로 기업가적 지향성, 기업가적 역량,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에 외부적 요인이 조절효과로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을 고취시킬수 있는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을 더 중점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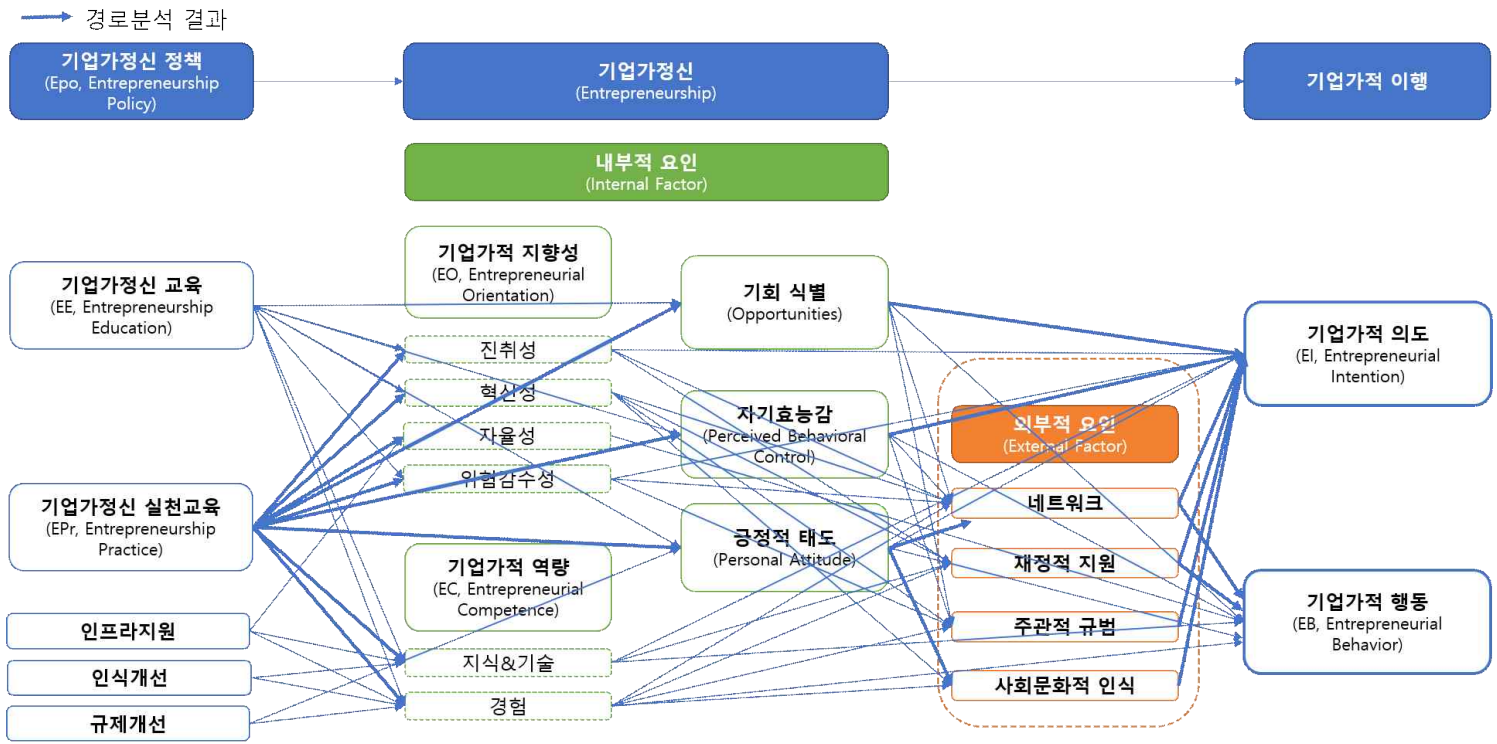
주제분석과 경로분석을 함께 나타낸 [그림 29]을 보면, 통계 데이터 분석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인 기업가정신 실천교육과 기업가적 의도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기업가정신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안에서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주제분석의 결과와 경로분석의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양적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을 질적연구에서 서로 입증해주고 서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적연구에서도 기업가적 이행으로는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기업가정신 교육보다 효과가 좋다고 나타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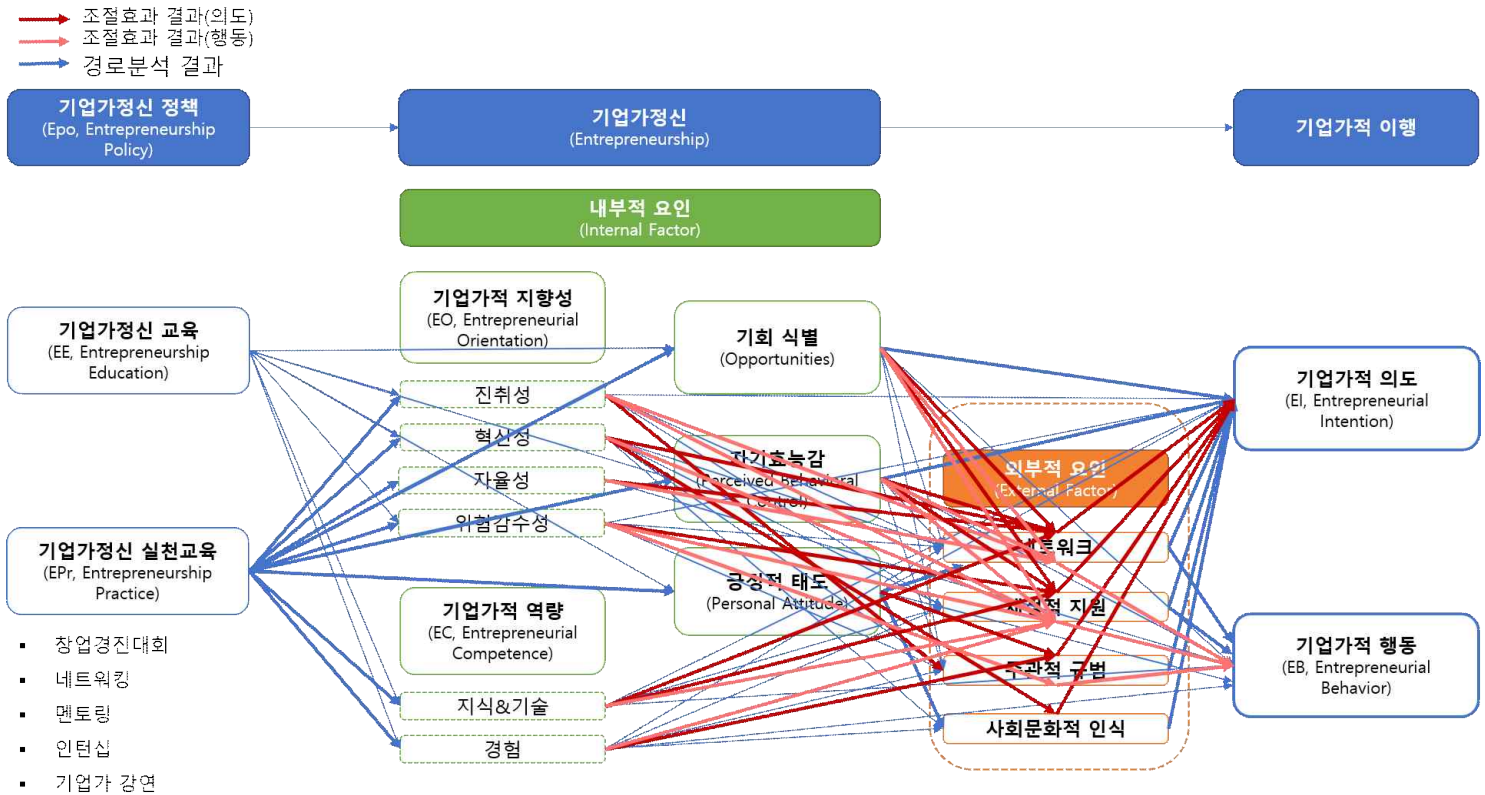
마지막 전체 메커니즘인 [그림 30]에서도 주제분석, 경로분석, 조절효과 분석이 각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한 결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표시함으로써, 각 분석 방법에서 찾아내지 못하였던 메커니즘적 관계를 세 가지 분석을 통해 입증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 및 실천교육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부적 요인의 효과가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부적 요인을 더 고취시켜 기업가적 이행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기업가정신 교육보다 더 필요할 것이다. 주제분석, 경로분석,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기업가정신 교육 및 다른 정책보다 외부적 요인을 더 높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림 28] 기업가정신 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전체 결과



[그림 29]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에 대한 경로분석 및 조절효과 분석 전체 결과



[그림 30]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에 대한 주제분석 및 경로분석 전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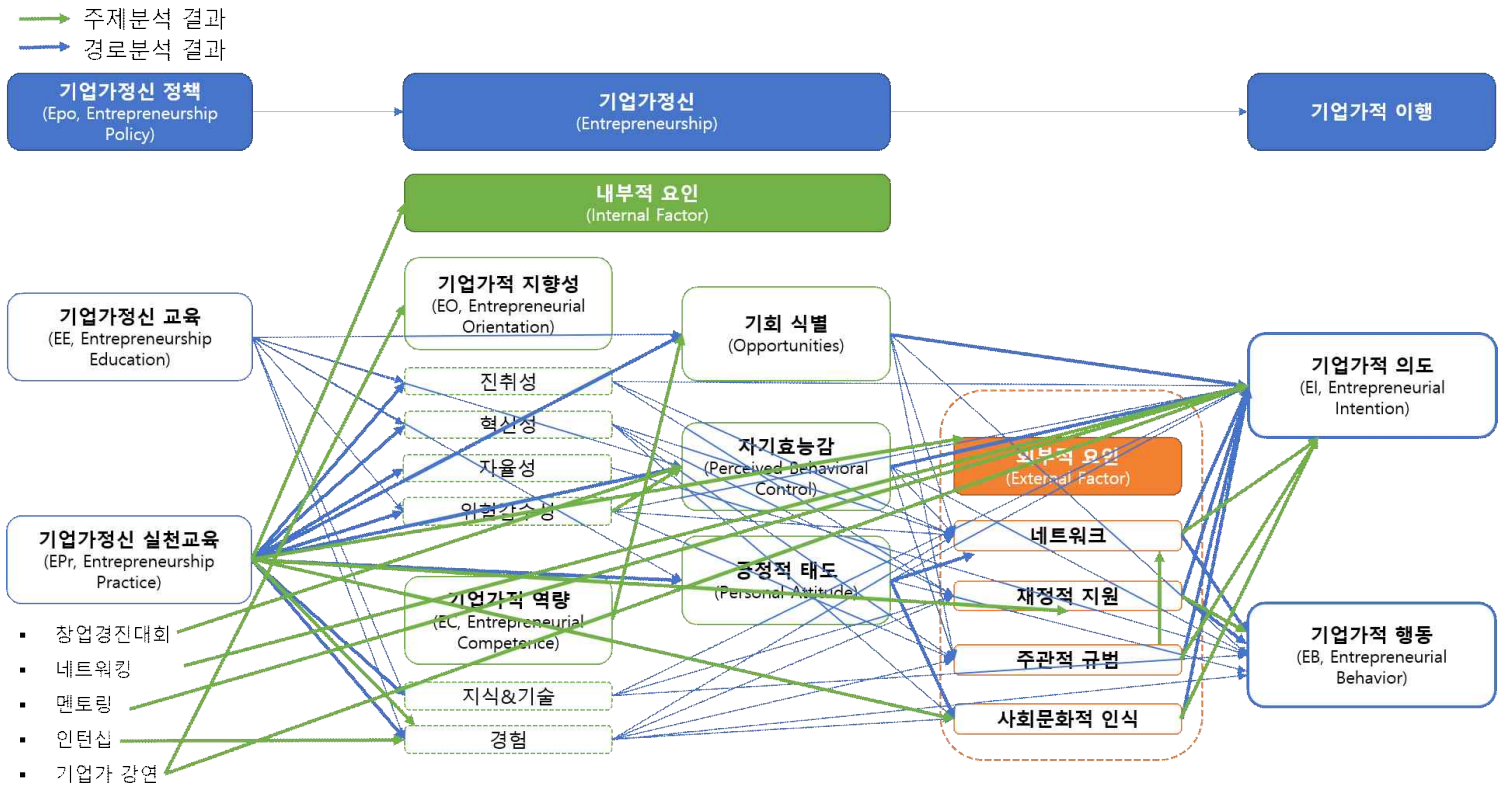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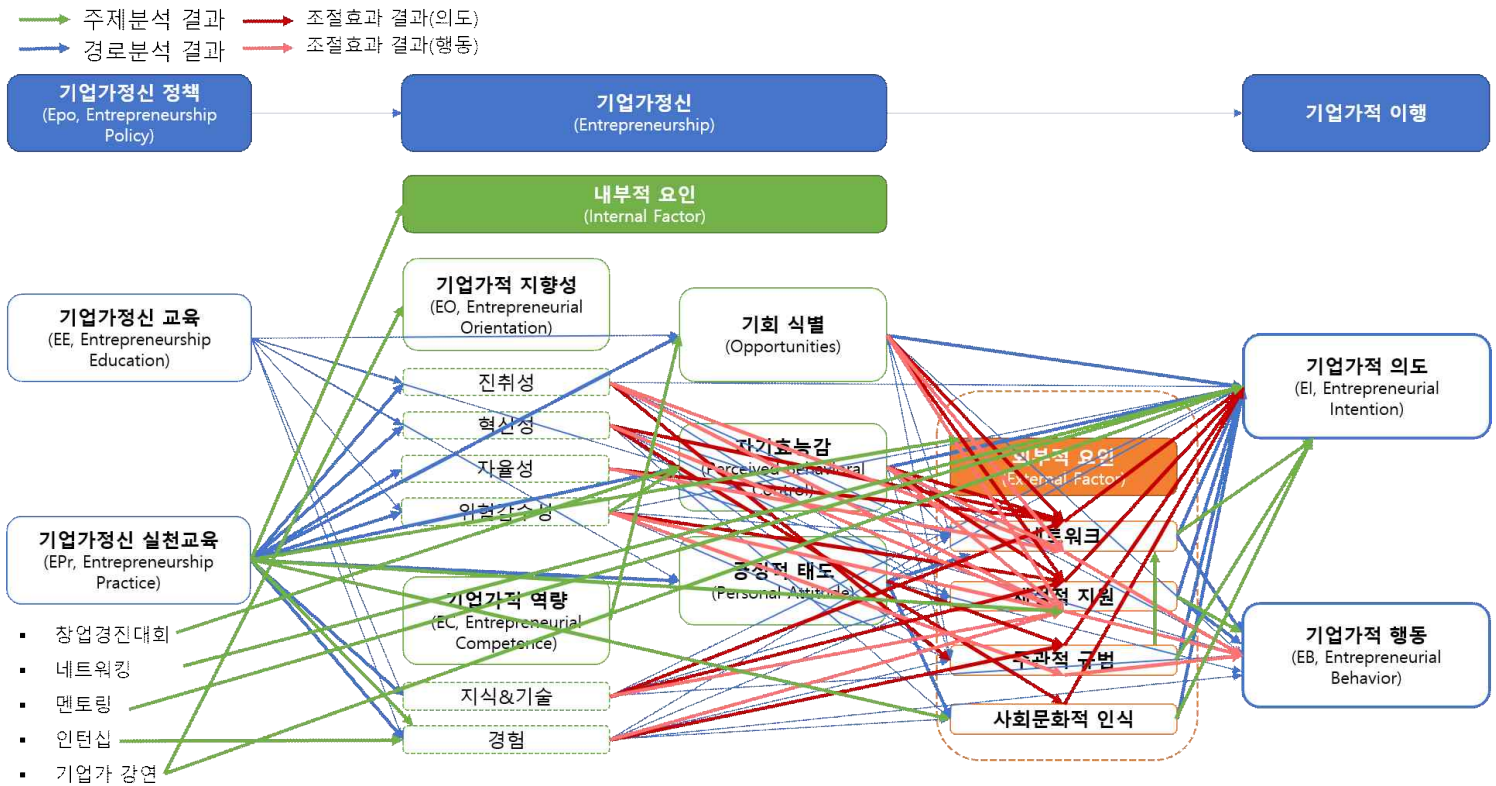


그림 31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 간 전체 메커니즘



제 6장 결론

제 1절 종합 결론

1. 결론 및 요약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고취되고, 기업가적 이행으로 연결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장애요인에 대한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을 검증하였다. 특히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의 구조와 형태에 대해서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적 이행이 상이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외부적 장애요인의 영향을 감안 했을 경우 기업가적 이행의 연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우선, ToC를 활용한 분석 틀을 기반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로 이루어진 ToC를 통해 기업가정신의 내부적 요인의 정책 메커니즘을 파악하였다. 더 나아가, 기업가정신이 고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가적 이행을 방해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을 파악하였다. 기업가정신 교육정책 형태의 실천적 측면, 실무 경험적 측면이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서 기업가적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메커니즘적 효과를 파악하였다.

주제분석 방법론을 통해서는 기창업가 및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을 수혜받은 예비창업자를 만나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실제적인 변수들 간 관계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냄으로써 인터뷰 데이터 안에서 주제를 설정하여 메커니즘을 맵핑하였다. ToC 분석 틀을 바탕으로 마련된 변수들 간 관계성의 이론이 기업 및 창업 현장에서 유

효하게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주제분석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질적연구를 통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텍스트 마이닝을 통하여 주제를 선정하는데 틀을 마련하였다. 워드 클라우드와 단어 간 관계성 분석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설정해볼 수 있었다. 인터뷰 내용의 데이터를 텍스트화 시킨 후, 이 데이터의 단어 빈도수와 단어 간 상관도를 분석하여 단순한 질적연구 기반의 분석이 아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양적연구 기반의 국내 최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ToC를 통해 변수들 간 모델을 구축하였지만, 통계적 기법으로 실증하지 못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양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재검증하고자 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경로분석과 조절효과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ToC 분석틀에 기반하여 이행 간 메커니즘 관계의 연결 고리를 살펴보았다.

먼저 ToC를 차용하여 구축한 이론적 분석 틀을 토대로, 주제분석을 통해 각 연결고리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주제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Sub-theme 도출, Thematic Area 도출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Thematic Area를 실무적 교육, 재정적 지원,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경험, 역량 및 능력, 주관적 규범 요소로 구분하여 정리한 후 실무적 교육 Thematic Area 12개, 재정적 지원 Thematic Area 7개, 사회적 인식 Thematic Area 6개, 경험 Thematic Area 4개, 역량 및 능력 Thematic Area 4개, 주관적 규범 Thematic Area 3개 총 36개의 Thematic Area를 선정하였다.

주제분석을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으로 미치는 요인 변수들의 메커니즘을 정성적으로 확인하여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로분석을 통해서도 정량적으로 메커니즘을 재검증하였다. 국가승인통계인 2019년도 기업가정신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변수를 설정한 뒤, 각 변수들에 대한 기업가정신 정책의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경로분석은 일반 회귀분석과는 차이가 있다.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여 이론에 대한

검증 및 변수 간 관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는 회귀분석과 달리, 변수 간 관계에 대한 즉, 변수 간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으로 적합하다 (Olobatuyi, 2006).

기업가정신 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경로분석을 분절로 살펴보면, 먼저 기업가적 지향성의 경로분석 결과, 기업가정신 교육보다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을 통한 기업가적 지향성이 더 크게 상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을 통하여 진취성, 혁신성, 자율성, 위험감수성이 모두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 의도로의 이행은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이 상승할 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행동으로의 이행은 자율성이 상승할 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 지향성이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칠 때, 외부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로는 네트워크, 주관적 규범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쳤다면, 기업가적 행동에는 외부적 요인 중 네트워크, 재정적 지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기업가적 역량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인식개선, 인프라지원, 규제개선 정책을 통해 지식&기술, 경험은 모두 증가하였다. 하지만,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을 했을 때 지식&기술과 경험이 더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 역량에서 지식&기술 보다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경험이 있을 때 기업가적 의도나 행동으로의 이행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외부적 요인의 분석 계수 대부분이 양의 효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기업가적 역량 중 지식과 기술과의 조절효과 보다는 경험과의 조절효과가 더 크게 분석되었다.

기회 식별과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에 대한 경로분석도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기업가정신 교육 및 다른 정책들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회 식별과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는 의도로의 이행이

행동으로의 이행보다 확률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회 식별과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재정적 지원의 외부적 요인의 조절효과 또한 모두 양(+)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조절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업가적 의도로 이행 시, 기회 식별과의 조절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업가적 행동으로의 이행시에는, 재정적 지원과의 조절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외부적 요인의 기업가적 의도에 대한 조절효과는 기업가적 행동으로의 이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경로분석 전체 결과,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은 기업가적 지향성과 경험,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를 상승시켜 준다. 그리고 외부적 요인 중 네트워크 주관적 규범, 사회문화적 인식은 기업가적 의도를 상승시켜 주고 재정적 지원은 기업가적 행동을 상승시켜 준다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데이터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인 기업가적 역량에 대한 효과가 주제분석에서는 잘 나타나 있어 위에 데이터 분석만을 한 경로분석과 조절효과 분석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었다. 즉, 주제분석, 경로분석, 조절효과 분석이 각 분석의 한계점을 서로 잘 보완해줄 수 있었다. 이로써 각 분석 방법에서 찾아내지 못하였던 메커니즘적 관계를 입증하여 ToC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기업가적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부적 장애요인을 극복함으로써 더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고, 외부적 장애요인을 극복하는데는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제분석, 경로분석,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이론적 교육보다 외부적 요인을 더 높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는 향후에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실천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에서 현장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인터뷰 대상자들의 대표성 문제로 외적 타당성 측면의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양적연구에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가 변수를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고려해볼 수 있다. 주관적 규범의 경우에는 '가족 및 지인 중 창업자가 있음'이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 구성타당성 측면의 한계를 가질 수 있다.

2. 분석 방법에 따른 종합 결론

(1) ToC 활용한 문헌검토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가정신 정책이 기업가정신(기업가적 지향성, 역량,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을 고취시키고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하였다. 특히 메커니즘 가운데 기업가정신이 고취되어 기업가적 이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외부적 요인(네트워크, 재정적 지원, 주관적 규범, 사회문화적 인식)이 기업가적 이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Ledyaevaet al., 2008; Sesen&Pruett, 2014; Rauch&Hulsink, 2015), 이러한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관주의적 기업가정신(Kor et al., 2007), 사회인지 진로이론(Bandura, 1986, 1997; Lent et al., 1994), 기업가적 태도(Ferreira et al., 2012; DoPaço et al., 2015) 등을 연구한 기존 이론 등에 기반하여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데 기업가정신 정책 중 기업가정신 교육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국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다만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더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실천 이론(Gartner et al., 2016; Neck et al., 2014)과 체험학습이론(Kolb, 1984; Wang et al, 2022)에 따르면 기업가정신 교육정책 중 실천과 체험이 중시된 교육정책이 지원되었을 때 기업가정신이 더 많이 고취될 수 있고 기업가적 이행에서의 장애요인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을 위해서 외부적 요인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실천과 행동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연구도 확인할 수 있다(Timmons, 1994; Drucker, 2007)

즉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에 대한 효과성이 강조된 것인데 이러한 교육형태는 네트워킹(Kent, 1990; Sundah et al., 2018)과 멘토링(Gibb, 1998),

인턴십(Li et al., 2022), 기업가 강연(Yang et al., 2021), 창업경진대회(Souitaris et al., 2007; Cui & Bell, 2022) 등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형태의 교육정책에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최근 많이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기존 연구에 따르면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에서 대부분 분절적으로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면 성과 변수를 기업가정신 고취 유무로 보았을 때는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볼 수 있었고, 창업률이 성과 변수로 측정되었을 때는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업가정신 고취가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 등이다. 이러한 연구는 메커니즘 내에서 각 영향요인마다의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효과성 검증, 분석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적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가정신 정책이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을 위해 어떤 형태의 교육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등을 파악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ToC를 활용한 분석 틀을 제시한 이후, 분석 틀을 기반으로 실제 현장에서 기업가정신 정책을 수혜받은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대상 인터뷰를 통해 주제분석과 양적 분석을 수행하여 분석 틀에서 제시된 영향요인의 연결 고리를 검증하였다.

먼저 선행 연구를 통해 요인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에서 기업가적 역량이 기회 식별과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모두 미치고, 기회 식별 능력은 기업가적 실현가능성과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태도는 실현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자세와 태도, 지식 및 기술, 역량들은 다시 기업가적 기회 식별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내부적 요인에서 서로 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기업가정신의 요인을 더 확장해 보았을 때, 외부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기업가적 역량(지식 및 기술, 경험)은 외부적 요인(네트워크, 재정적 지원, 주관적 규범, 사회문화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외부적 요인인 네트워크 요인은 거꾸로 기회 식별 능력과 기업가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에 기업가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있는 경우 기업가적 행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경험, 기회 식별 능력 등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기업가적 역량과 능력을 갖추는데 네트워크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내부적 요인인 기업가적 자기효능감과 긍정적 태도가 기업가적 이행을 도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내부적, 외부적 요인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면, 더욱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을 위하여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외부적 요인의 작용을 저해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정책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수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대체로 기업가정신의 전반적인 내부적 요인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앞서 살펴본 실천 및 경험을 강조하는 최근 실천교육의 이론에 따르면, 실천교육을 통해 기업가적 지향성과 기업가적 역량, 긍정적 태도를 더욱 고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헌 검토 수준에서는 실천교육이 내부적 요인의 자세한 요인에 대한 영향력까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이론에 그치는 기업가정신 교육에 비해 실천교육의 효과성이 높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기업가적 이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하는 부분에 실천교육이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가적 이행을 더욱 도모할 수 있게 한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ToC를 통해 분석 틀을 구성하고 영향요인 관계를 검증한 이후, 주제분석 절차를 거쳐 ToC에서 제시한 영향요인 관계를 하나씩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주제분석

먼저 주제분석을 양적으로 수행한 결과,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창업과 네트워킹, 멘토링, 정부 정책, 경험, 기업가정신, 인맥, 외부적 허들, 창업경진대회,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 인식 등의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높게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기업가정신 교육정책 중 네트워킹과 멘토링이라는 키워드가 높은 빈도수를 보였고, 인맥과 경험, 투자, 지원금 등의 워딩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창업 분야에서 기창업가 혹은 정책을 수혜받은 잠재적 창업가가 느끼기에 네트워킹이나 멘토링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투자나 지원금 부분에 대해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경험, 창업경진대회, 실무교육 등의 창업을 위한 경험 및 실무에 대하여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가적 이행으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네트워킹, 멘토링, 창업경진대회 등 경험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정적 지원(투자 및 지원금)이나 실패, 창업 인식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워드 클라우드 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키워드 중심도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창업, 네트워크, 멘토링, 정부 정책, 인맥, 경험의 단어들이 중심에 위치하고 이들 단어와 연결 빈도가 높은 단어들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석해보았을 때, 기업가적 이행에 필요한 네트워크 및 멘토링, 경험 즉 실천적 교육에 해당하는 실무적, 참여형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유추되며, 지원금과 투자에 대한 키워드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해석 가능하다.

중심 단어들과 연결 빈도가 높게 나타난 단어들로는 VC, 지원금, 외부적 허들, 도움, 지원금, 창업경진대회 등 기업가적 이행에 필요한 지원 및 정책에 관련한 단어들의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질적 방법론을 활용한 주제분석 결과 Thematic Area에서 실무적 교육, 재정적 지원,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경험, 역량 및 능력, 주관적 규범 요소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는데, 이러한 분류를 살펴보면 기업가적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요인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장에서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ToC 분석 틀에서 강조하였던 실천적 교육의 필요성과 외부적 요인의 작용이라는 관점과 일맥상통한 결과임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주제분석을 통해서도 문헌 연구와 동일하게 실천적 교육의 중요성과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과 관련된 주제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 검증과 다르게, 주제분석을 통해서는 실제 기창업자 또는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을 수혜받은 예비창업자 대상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현장의 구체적인 목소리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기업가적 이행 현장에 적용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 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가능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가정신 교육 뿐 아니라 현장에서는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기업가적 이행, 특히 기업가적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실천교육이 기업가적 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기업가적 이행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을 줄여주는데 영향을 많이 미침으로써 보다 더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외부적 요인 중 ToC 분석틀로 확인하였을 때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재정적 지원 부분이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질 때 예상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업가적 의도로 이어질 때는 역량과 경험, 네트워크, 사회적 인식 영역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때 문헌 검토에서 검증한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보였다. 특히 외부적 요인인 네트워크, 재정적 지원,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부분의 영향력이 현장에서 예상보다 크게 고려되는 요인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러한 요인이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oC에서 실천적 교육의 효과성이 강조되었던 것처럼 주제분석을 통해서도 장애요인을 줄여줄 수 있는 실천적, 실무적 경험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경로분석 및 조절효과 분석

ToC를 바탕으로 주제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관계 안에서의 메커니즘을 검증하였다면 양적 데이터를 활용한 경로분석과 조절효과 분석을 더하여 재검증을 통해 연결 고리의 작동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업가적 지향성의 경로분석 결과, 기업가정신 교육보다 기업가적 실천교육에 대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진취성, 혁신성, 자율성, 위험감수성 모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헌 연구 및 주제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재확인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제분석에서는 인터뷰 데이터라는 특성상 세부적인 영향요인의 관계까지 모두 살펴볼 수 없었으나, 통계 분석에서는 다양한 변수로 다양한 영향요인 관계를 파악하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기업가적 지향성이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칠 때 외부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로는 네트워크가 기업가적 지향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상대적으로 혁신성과 자율성에 상대적으로 큰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 경로분석에서 혁신성과 자율성은 기업가적 의도로의 이행에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들의 상관관계는 양이라는 것을 확인(부록 2)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절효과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 요인은 혁신성과 자율성에 크게 미치기 때문에 조절효과 측면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

할 수 있음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 주관적 규범, 사회문화적 인식 요인에 비해 재정적 지원 요인이 기업가적 의도로 이행되는데 위험감수성에 대한 조절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행동으로의 이행에서는 네트워크 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 요인이 기업가적 지향성의 모든 측면에서 큰 조절효과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oC와 주제분석을 통해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질 때 예상보다 큰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서도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기업가적 지향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가적 역량에 대한 경로분석을 보면, 지식과 기술, 경험 모두 기업가적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험의 경우에는 외부적 요인인 네트워크, 주관적 규범, 사회적 인식, 재정적 지원에 대한 모든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에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식과 기술, 경험 모두 재정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가정신 교육보다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지식과 기술, 경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절 효과를 보면, 네트워크, 재정적 지원, 주관적 규범의 조절효과가 기업가적 역량이 기업가적 의도에 미치는데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특히 지식과 기술에서는 네트워크와 재정적 지원이, 경험에는 주관적 규범이 상대적으로 큰 조절효과를 보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행동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특히 재정적 지원에 대한 조절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업가적 역량 영역에서는 네트워크, 재정적 지원, 주관적 규범의 외부적 요인이 기업가적 의도와 행동에 모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나, 행동 측면에서 특히 재정적 지원에 대한 조절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선행연구 분석과 주제분석에서도 기업가적 역량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된 결과로 나타났는데, 양적 분석에서도 역시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데 역량적 부분이 대체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외부적 요인 측면에서도 기업가적 역량이 명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결과이다.

기회 식별과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측면을 경로분석 한 결과, 이 부분에서도 기업가정신 교육에 비해 실천교육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회 식별과 자기효능감, 긍정적태도 모두 기업가적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기회 식별과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적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긍정적 태도가 기업가적 이행에 있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이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다만 재정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네트워크와 재정적 지원, 사회문화적 인식은 모두 기업가적 의도에 조절적 효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가적 행동에서는 네트워크와 재정적 지원이 행동에 큰 조절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외부적 요인 변수의 조절적 영향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외부적 요인에 대한 별도의 해석에서도 네트워크와 주관적 규범은 기업가적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인식과 재정적 지원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네트워크와 재정적 지원 요인인데 그 중에서도 재정적 지원이 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양적 분석에서는 기업가적 역량과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에 대한 부분에서 기업가적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특히 네트워크와 재정적 지원에 대한 외부적 요인이 기업가적 의도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 이행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의도에서보다 행동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메커니즘에 대하여 요인별로 정리한 내용을 [표 34]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X(독립변수)에 해당하는 변수는 열에, Y(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변수는 행으로 제시하였다. 변화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한 영향요인은 'C', 주제분석을 통해 밝힌 영향요인은 'T', 경로분석 결과는 'P'로 표시하였다. 조절효과는 의도 'M-I'와 행동 'M-B'으로 나누어 각 변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한 결과이다.

특히, 주요 영향요인은 적색으로 표시하였고, 주제분석과 경로분석의 영향요인이 교집합으로 검증된 부분은 초록색 음영 처리로 강조하였다.

[표 34] 기업가정신 교육정책과 기업가적 이행 간 영향요인 분석 결과표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기업가적 이행		
		지향성					역량			기회 식별	자기 효능	태도		네트워크	재정 지원	주관 규범	사회 인식		의도	행동
			진취	혁신	자율	위험 감수		지식 기술	경험											
기업가정신 교육	C	C	P	P		P	C	P	P	C/P	C/P	C/P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T	C	P	P	P	P	C	P	T/P	P	P	C/P	T	C	C/T	C	C/T	C		
창업경진대회											T									
네트워킹																			T	
멘토링																			T	
인턴십									T											
기업가 강연		T																	T	
기업가적 지향성										C	C									
진취성														P	P				P	
혁신성														P	P	P	P			
자율성																				P
위험감수성														P		P			P	
기업가적 역량										C	C	C		C	C	C	C			
지식&기술															P				P	P
경험														P	P		P		P	P
기회,효능감,태도																				
기회 식별											C	C		P		P			P	P
자기효능감										C		C		P		P			C/P	C/P
긍정적 태도											C			P			P		C/P	P
외부적 요인																		C		
네트워크			M-I/ M-B	M-I/ M-B	M-I/ M-B	M-I/ M-B		M-I	M-I/ M-B	C/M-I/ M-B	M-I/ M-B	M-I/ M-B			C				T/P	P
재정적 지원			M-B	M-I/ M-B	M-B	M-I/ M-B		M-I/ M-B	M-I/ M-B	M-I/ M-B	M-I/ M-B	M-I/ M-B							P	T/P
주관적 규범			M-I/ M-B			M-I/ M-B	C	M-I/ M-B	M-I/ M-B			M-I		C			C		T/P	
사회문화인식				M-I/ M-B		M-I/ M-B				M-I	M-I	M-I							T/P	

※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 C /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 T / 경로분석(Path Analysis) = P
조절효과(Moderation Effect Analysis)-의도(Intention) = M-I / 조절효과(Moderattion Effect Analysis)-행동(Behavior) = M-B

제 2절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을 통하여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이론적 검토를 통해 ToC를 활용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고, ToC의 각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제분석과 경로분석, 조절효과 분석을 활용하였다. 즉 과학적 증거와 경험적 증거를 모두 활용하고자 이론적 분석과 실증적 분석을 혼합하였고, 분석 틀에서 제시된 각 연결 고리를 검증하고자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변수 간 메커니즘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천적 교육의 중요성'**이다.

주제분석 및 경로분석을 통해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다른 지원정책보다 실증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을 검증할 수 있었다. 즉, 기업가적 이행으로의 효과 측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기업가정신 정책의 유형(이론적 교육, 인식개선 교육, 인프라 지원, 규제개선 등)보다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의 효과가 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을 더 함양하고, 더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이 되도록 기업가정신 실천 교육 개발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네트워크, 멘토링, 경험 등 기업가 이행을 경험할 수 있는 실천적 교육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ToC, 주제분석, 경로분석, 조절효과 분석 모두에서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업가적 의도 이행에서는 표준화 경로계수가 큰 변수는 자기효능감, 기회 식별, 경험, 지식 및 기술로 나타났으며, 기업가적 행동 이행에서는 자율성, 긍정적 태도, 경험, 지식 및 기술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을 위해 경험 및 역량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천적 교육이 강조된다. 따라서 네트워킹이나 멘토링, 인턴십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업가적 경험

을 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정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기업가적 이행에 도움이 되는 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을 고려하고, 궁극적으로 효과성 높은 정책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가적 이행으로의 실효성 있는 정책인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기업가적 실천교육을 통해 기업가적 이행뿐 아니라 기업 운영 및 유지 등 기업가 이행 이후 단계까지 고려함으로써 정책수혜자에게 지속가능한 정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창업 단계별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가적 이행 이전이라도 기업가를 준비하는 단계에 따라서도 실무교육 유형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초기 단계별 정책 수혜 대상 파악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업가적 이행으로 이어지는 창업 단계에 따라 실무교육 유형의 필요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멘토링의 경우,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계획서 단계 중 매우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oC와 주제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이나 실제 창업가와의 교류 및 강연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 의도를 명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실제 전문가 및 기창업가의 만남으로 기업가적 지향성과 기업가적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해줌으로써 기업가적 이행의 원동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이후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네트워킹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제분석, 경로분석). 특히 창업 준비단계에서는 예비창업가 간의 네트워킹이나 동종 업계의 네트워킹은 다소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창업가 간의 동질 그룹의 네트워킹은 오히려 아이디어 유출이나 감정공유 등에 그

침으로써 시간 낭비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가적 이행단계에서 기업가적 의도를 갖고 이후 실질적인 창업을 위해 기업가적 행동으로 연결될 때는 외부적 요인 중 재정적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로분석과 조절효과 분석에서 역시 기업가적 의도보다 기업가적 행동으로 연결될 때는 상대적으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제분석, 조절효과 분석)

예비 창업 단계에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두려움이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운영이 아닌 계획 준비 단계이므로 재정지원 측면보다는 기업가역량 및 기업가정신을 갖출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멘토링 및 네트워킹)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창업 준비단계에서도 동일한 정책의 범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단계마다 필요하고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로 '**무분별한 정책 지원 지양**'이다.

앞서 단계별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대로, 재정적 지원은 의도보다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살펴보면, 예비 창업 단계에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비재정측면(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의 실질적인 선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참여형 멘토링이나 네트워킹 등을 통해서도 기업가적 이행에 대한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가적 이행만을 늘리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기업가적 이행을 위해 기업가로서의 충분한 고민과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선제적인 기업가적 실천적 교육정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

물론, 이미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 고취가 이루어졌고, 이미 기업가적 의도가 있어서 행동에 옮기는 부분을 고민하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적 지원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정책자금 지원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은 무분별한 정책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직접적 사업화 자금 형태보다는 멘토링이나 컨설팅 등 사업 지원으로 사업계획 윤곽이 명확하고 사업 준비가 철저하게 완료된 기업에게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적 지원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 지원, 벤처투자자에게 간접지원,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자금 지원 등으로 기업가적 이행 시 효과적으로 정책지원금이 활용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실천적 교육 중 적합한 정책유형 및 체계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원정책의 질과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

주제분석과 문헌검토를 통해서 실천교육의 중요성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정책이 지원되는지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론적 교육으로 기업가적 이행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실천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실천적 교육의 내용과 대상, 방법, 유형 등이 매우 중요하다. 실천적 교육에서 강조하는 멘토링과 네트워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질의 전문가와 기창업자와의 강연, 교류가 중요하다(주제분석).

이에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경우, 멘토나 강사진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제 창업 경험을 가진 전문가나 관련 종사자를 통해 실제 창업가의 경험과 사례 공유를 할 수 있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코칭과 멘토링,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식적인 실천적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정책 수혜자가 기업가적 이행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 보육 센터나 대학 내에 있는 창업 지원단, 산학협력단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다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기업가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질의 보장된 네트워크를 강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무경험이 없는 일반 전문가와의 일회성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 개개인의 혁신성, 자율성을 키워주고 기회 식별과 자기효능감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기업가정신 실천 교육의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단기간에 그치는 네트워킹, 멘토링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책사업이 끝나도 지속성, 연속성을 가질 수 있고, 무엇보다 창업기업의 각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킹 장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헌 검토를 비롯하여 양적, 질적 분석 방법에서 각 단계에 적절한 네트워킹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메이커 스페이스와 같이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창업 투자자들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보다 각 예비 창업기업이 아이템을 발굴하고 역량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적, 네트워킹적 측면이 모두 활발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역량 중심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제시한 양질의 정책 지원과 유사한 맥락이나, 멘토링과 네트워킹이 중요한 만큼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성과 질 확보 측면에서 '역량'이라는 키워드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정책은 멘토링과 네트워킹 장 마련 유무, 정책 프로그램 시행 횟수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제공되고 있지만, 유형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형성되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가적 이행에서 지식과 기술, 경험을 포함하는 기업가적 역량, 기회 포착 능력,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고취 등에 요인이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으로 볼 때 내실 있는 역량 중심의 실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및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내실을 갖춘 역량 중심 정책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양질의 지원이 되어야 하며, 지식과 기술, 경험, 자기효능감 등과 같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내부적 요인들을 균형 있게 갖출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는 '**기업가정신 조기 및 초기 교육**'이다.

기업가적 역량 고취나 태도 형성, 경험을 갖춤으로써 기업가적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태도를 갖기 위하여 조기 교육 및 대학 내 초기 교육 제공이 중요하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문헌연구와 주제분석에서 살펴본 대로 완충 기간이 오래 필요하다. 기업가적 지향성이 고취되고 기업가적 이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 기업가적 이행을 결정하는 데까지는 여러 복합요인이 작용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창업생태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실천적 교육으로 기업가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내 초기 기업가정신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직접 창업생태계를 경험함으로써, 진로 선택에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경로분석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기업가적 이행에 긍정적 태도를 보일 경우, 외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측면에 상대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기 및 초기 교육을 통해 기업가적 이행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고취하는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업가 행동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조기 교육이 다양한 인식개선의 정책 중 효과적인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주관적 규범을 고려한 정책지원**'이다.

기업가적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관적 규범 요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주관적 규범은 가까운 주변인의 의견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진로 선택에도 쉽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업가적 이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가적 지향성 중 진취성과 위험감수성, 지식 및 기술, 경험, 긍정적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기업가적 실천교육 프로그램 설계 시 주관적 규범을 고려한 정책 지원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관적 규범을 고려한 정책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업가적 역할 모델 정보 공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제공, 업무 경험 공유, 네트워크 구축 정보 제공 등을 실천적 교육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사회문화적 인식'의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과의 조절효과는 대체적으로 기업가적 이행에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통계적 유의미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계수값들이 상대적으로 낮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분석에서도 사회문화적 인식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주제분석, 조절효과 분석). 즉, 기업가적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주제분석).

현재 우리나라 창업정책의 대부분은 단기 성과만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책 성과를 결국 높은 창업률로 여기고 있지만, 향후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창업 유지나 성장까지 고려하여 활발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 특성상 창업 실패 시, 실패 낙인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이다. 또한 기업가적 이행을 취업의 대안으로서 인식하거나 불안정한 진

로로 인식하는 등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의 단기적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창업가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고취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가적 이행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업가정신 실천적 교육을 통해 기업가로의 이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에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을 초·중·고 학습 프로그램에 추가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업가정신 교육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과목을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부터 가르치고 있다. 기업가정신 정책이 이루어졌을 때 기업가정신이 고취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적 이행으로의 전환이 많아짐으로써 일자리 시장,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실천적 교육을 통해 장기적 관점으로 기업가적 이행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지속적인 창업 독려 캠페인과 인식개선 활동도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원활한 기업가적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2).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제1권 2022년 혁신창업생태계 대시보드. 2022-11-01.

관계부처합동. (2023).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도자료].

권명국. (2021). *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 [Film].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협회(GERA). (2022). *2021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조사*.

기홍석. (2020). *기업가정신 및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김규판, 강구상, 김종혁, 오태현, 이현진, & 손원주. (2019).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15-1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mplus 예제와 함께*. 서울: 학지사.

김영수, & 성상기. (2015). 기업가정신교육의 교과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HAKS 모형에 기반한 모듈식 교육방안. *상업교육연구*, 29(5), 1-30.

김영우. (2017). *Do it!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 이지스퍼블리싱.

김용태. (2017). 창업교육,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가 대학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2), 13-20.

김인숙. (2015). *병원 근무환경이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김종성. (2019). 청소년기업가정신교육 효과성 검증에 관한 탐색적 연구: 디자인씽킹 (Design Thinking) 을 활용한 청소년기업가정신교육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3), 129-140.

김진우. (2012). *질적연구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종단조사 Ⅲ* (제 1 차 콜로키움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남정민, & 이환수. (2017). 주요 국가의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 및 효과 연구: 2016 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의 비교. *벤처창업연구*, 12(6), 111-122.

노규성, 김진화, 박성택, & 김병성. (2019). *R활용 빅데이터 분석*. 서울: Wowpass.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file].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973

목영두, & 최명길. (2012). 대학의 창업교육 체계화를 위한 창업학교육과정 개발 모형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5(2), 833-857.

박남규, 김명숙, & 고종욱. (2015).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6), 89-98.

박상원. (2012). 중소기업지원 정책목표와 정책도구 간의 정합성 분석: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 간 비교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7(2), 111-143.

박일주, & 최종민. (2019). 정부의 창업자금지원이 창업가의 사업확장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규모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5(1), 245-274.

박재환, 김봉문, & 김용태. (2018). 기업가정신 생태계 활성화 요인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GETR (글로벌기업가정신트렌드리포트) 자료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3(1), 23-30.

배미아, & 김종성. (2022).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긍정심리자본이 기업가적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6(3), 1-31.

변지유, & 이장희. (2020). 기업가정신역량기반 교육 연구: 대학 창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EntreComp (Entrepreneurship Competence) Frame 도출. *벤처창업연구*, 15(6), 189-207.

서성열, 윤종록, & 임아름. (2019). 창업지원시스템에 대한 청년의 인식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창업의지의 매개효과와 창의적 역량의 조절효과 검증. *기업경영리뷰*, 10(1), 49-68.

성창수. (2009). *기업가지향성, 시장지향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성태경. (2015). 기업가정신 정책의 이론적 측면에 관한 소고. *벤처창업연구*, 10(3), 15-26.

심준섭. (2015). 행정학 및 정책학 연구에서 확증적 요인분석의 경향과 쟁점: 탐색적 요인분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2), 247-278.

소경희. (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교육과정연구*, 25(3), 1-21.

송주현. (2014).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설계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양영석, 최종인, & 황보윤. (2012). '질 좋은' 창업의 개념정립과 창업교육 중심의 '질 좋은' 창업 육성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벤처창업연구*, 7(2), 141-150.

양준환. (2016). 한, 중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조절효과분석: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의도 관계에서.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9(1), 17-35.

윤지수, & 현병환. (2017).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Paper presentation].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687-711.

윤철호. (2021). *빅데이터 분석과 R 활용*. 파주: 생능.

이민화. (2018). *기업가정신 2.0(지속가능한 혁신의 리더십)*. 서울:

KCERN.

이석민. (2019). *인문사회과학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방법론*. 서울: 윤성사.

이원준. (2016). *대학생의 창업 실행성과 창업 의지에 관한 연구* [Paper presentation].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978-982.

이윤재. (2009). 기업가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증분석. *중소기업연구*, 31(2), 63-84.

이채원, & 강경균. (2016). 국민의식과 사회문제 해결 대안으로서의 기업가정신 탐색. *Korea Business Review*, 20(4), 277-295.

이학식, & 임지훈. (2013).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20.0*. 서울: 집현재.

장영화. (2014).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적정기술과 기업가정신의 임팩트한 결합. *적정기술*, 6(2), 61-74.

장현철, & 김종성. (2021).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6(6), 43-55.

전인오. (2012). 창업보육기업의 기술사업화에 따른 기술역량이 지원과 경영성과단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9), 325-339.

전혜선. (2022). 변화이론의 관점에서 볼리비아 현금이전 프로그램 평가-교육· 보건· 노인 빈곤 분야를 중심으로.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35(1), 33-68.

정원준. (2022). *NetMiner를 활용한 소셜미디어 분석기법과 활용*. 서울: 학지사.

중소벤처기업부. (2020). *창업지원금 세부 예산 항목*. [Data]

중소벤처기업부. (2022). *창업지원금 예산*. [Data]

창업진흥원. (2023). *정부창업지원 규모(예산/사업수).* [access date: 2023.06.01.]

https://www.kised.or.kr/innoStuEco/actIndex.es?mid=a10110020000&seq=1

채구묵. (2014). *Spss와 Amos를 이용한 고급통계학.* 파주: 양서원

최진숙, & 황금주. (2018). 예비 창업가의 긍정심리자본과 커리어 야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식경영연구*, 19(3), 135-171.

통계청. (2023a). *경제활동인구조사* [data].

통계청. (2023b).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data].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7). *2017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심층연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9).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GEM) 2019 한국보고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케이에스센세이션.

홍문숙. (2022). 변화이론의 개념과 개발협력 적용에 대한 비판적 소고. *국제개발협력연구*, 14(3), 1-16.

홍문숙, 이태주, 남종민, 박준영, & 정다정. (2019).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참여적 성과모형 구축연구: 유네스코 브릿지 프로그램의 변화이론 적용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28(1), 79-108.

Abdesselam, R., Bonnet, J., Renou-Maissant, P., Aubry, M. (2017). *Entrepreneurship, economic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No. 2017-03). Center for Research in Economics and Management (CREM), University of Rennes 1, University of Caen and CN.

Acs, Z. J. (2006), How is entrepreneurship good for economic growth? *Innovation : Technology, Governance, Globalization*, 1(1), 97-107.

Acs, Z. J. (2008). Foundations of high impact entrepreneurship. *Foundations and Trends in Entrepreneurship*, 4(6), 535-620.

Acs, Z., & Armington, C. (2004). Employment growth and entrepreneurial activity in cities. *Regional Studies*, 38(8), 911-927.

Andersson, M., & Noseleit, F. (2011). Start-ups and employment dynamics within and across sectors. *Small Business Economics*, 36(4), 461-483.

Ajzen, I. (1987). Attitudes, traits, and actions: dispositional prediction of behavior i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0, 1-63.

Ajzen, I. (1988).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Chicago, IL: The Dorsey Press.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Ajzen, I. (2001). The nature and operation of attitud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27 - 58.

Aldrich, H. E. (1992). *Methods in our madness? Trends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In D. L. Sexton & J. D. Kasarda (Eds.) The state of the art Amsden, Alice H.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Aldrich, H., Renzulli, L., & Langton, N., (1998). In: Leicht, K. (Ed.), *Passing on privilege: resources provided by self-employed parents to their self-employed children.* :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16. JAI Press, Greenwich, CT, pp. 291 - 317.

Aldrich, H., & Zimmer, C., (1986). *Entrepreneurship through social networks.* In: Aldrich, H. (Ed.), Population Perspectives on

Organizations. Acta Universitatis Upsaliensis, Uppsala, pp. 13 - 28.

Alhojailan, M. I. (2012). *Thematic analysis: a critical review ofits process and evaluation.* In WEI international European academic conference proceedings, Zagreb, Croatia.

Amit, R., Glosten, L., & Muller, E. (1993). Challenges to theory development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30(5), 815-834.

Anderson, A. (2009). *The Community Builder's Approach to Theory of Change: A Practical Guide to Theory Development.* New York: Aspen Institute Roundtable on Community Change.

Andersson, P., & Wadensjö, E., (2007). Do the unemployed become successful entrepreneur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28(7), 604 - 626.

Arthur, M. B., Hall, D. T., & Lawrence, B. S. (Eds.). (1989). *Handbook of career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Athayde, R. (2009). Measuring enterprise potential in young peo┐pl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2), 481 - 500.

Aubry, M., Bonnet, J., & Renou-Maissant, P. (2015). Entrepreneurship and the business cycle: the "Schumpeter" effect versus the "refugee" effect—a French appraisal based on regional data.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54(1), 23-55.

Audretsch, D. B. (2002). *Entrepreneurship: Determinants and policy in a European-US comparison.* Boston: Kluwer Academic.

Audretsch, D. B., & Acs, Z. J., (1994). New firm start-ups, technology and macroeconomics fluctuations. *Small Business Economics,* 6, 439 - 449.

Audretsch, D. B., Grilo, I., & Thurik, A. R. (2007). *Explaining*

entrepreneurship and the role of policy: a framework. The handbook of research on entrepreneurship policy, 1-17.

Audretsch, D. B., Grilo, I., & Thurik, A. R. (2011). *Globalization, entrepreneurship, and the region*. In M. Fritsch (Ed.), Handbook of research on entrepreneurship: 11 - 32. Cheltenham: Edward Elgar.

Autio, E., Keeley, R. H., Klofsten, M., Parker, G. G. C., & Hay, M. (2001).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students in Scandinavia and in the USA. *Enterprise and Innovation Management Studies*, 2(2), 145 - 160.

Bae, T. J., Qian, S., Miao, C., & Fiet, J. O.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meta-analytic review.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8(2), 217 - 254.

Bai, L. (1998). Monetary reward versus the national ideological agenda: career choice among Chines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Moral Education*, 27(4), 525-540.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359-373.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Macmillan.

Barlevy, G., (2007). On the cyclicalit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97(4), 1131 - 1164.

Barnir, A., Watson, W. E., & Hutchins, H. M. (2011).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among role models,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and gende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1(2), 270-297.

Baron, J.N., & Kreps, D.M., (1999). *Strategic Human Resources:*

Frameworks for General Managers. John Wiley & Sons, New York

Baron, R. & Shane, S. (2005). *Entrepreneurship : A process perspective.* Southwestern, Thomson, Cincinati, OH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Barringer, E., & Ireland, R. D. (2010). *Successfully Launching New Ventures*. Pearson Education India.

Baughn, C. C., & Neupert, K. E. (2003). Culture and national conditions facilitating entrepreneurial start-ups. *Journal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1, 313-330.

Baumgartner, H.J., Caliendo, M., (2008). Turning unemployment into self-employment: effectiveness of two start-up programme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0(3), 347 - 373.

Baumol, W., (1990). Entrepreneurship: productive, unproductive and destruc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893 - 921 Reprinted i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1), 1996, 3-22.

Bechard, J.-P., & Gregoire, D. (2005). Entrepreneurship education research revisited: The case of higher education.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4(1), 22 - 43.

Beeka, B. H., & Rimmington, M. (2011). Entrepreneurship as a career option for African youths.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16(1), 145-164.

Bell, R., & Bell, H. (2016). Replicating the networking, mentoring and venture creation benefits of entrepreneurship centres on a shoestring: A student-centred approach to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venture creation.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30(5), 334-343.

Bénabou, R., & Tirole, J. (2002). Self-confidence and personal motiv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3), 871 - 915.

Bergmann, H., Geissler, M., Hundt, C., & Grave, B. (2018). The climate for entrepreneurship a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Research Policy*, 47(4), 700-716.

Bick, S., Buxton, H., Chase, R. P., Ross, I., Adriano, Z., Capone, D., Knee, J., Brown, J., Nala, R., Cumming, O., & Dreibelbis, R. (2021). Using path analysis to test theory of change: a quantitative process evaluation of the MapSan trial. *BMC public health*, 21(1), 1-16.

Bird, B. (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Bird, B., Schjoedt, L., & Baum, J. R. (2012). Editor's introduction. Entrepreneurs' behavior: Elucidation and measurement.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6(5): 889 - 913.

Birdthistle, N., Hynes, B., & Fleming, P. (2007). Enterprise education programmes in secondary schools in Ireland - a multi-stakeholder perspective. *Education+ Training*, 49(4), 265-276.

Blanchflower, D.G., (2009). Minority self-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impact of affirmative action programs. *Annals of Finance,* 5(3-4), 361 - 396

Blanchflower, D.G., Levine, P., & Zimmerman, D. J. (2003). Discrimination in the small business credit market.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4), 930 - 943.

Blanchflower, D.G., & Meyer, B. (1994). A longitudinal analysis of young entrepreneurs in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Small

Business Economics 6, 1 - 20.

Blanchflower, D.G., & Oswald, A.J. (1998).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1), 26 - 60.

Blanchflower, D. G., Oswald, A., & Stutzer, A. (2001). Latent entrepreneurship across nations. *European Economic Review,* 45(4-6), 670 - 691.

Blau, D. M., (1987). A time series analysis of self-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3), 445 - 467.

Borjas, G. J. (1985). Assimilation, changes in cohort quality, and the earnings of immigrant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4), 463-489.

Borjas, G. J. (1986). The self-employment experience of immigrant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1, 485 - 506.

Bosma, N., Van Praag, M., Thurik, R., & De Wit, G. (2004). The valu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investments for the business performance of startups. *Small Business Economics*, 23, 227 - 236.

Bourdieu, P. (1983).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Greenwood Press, New York.

Boyatzis, R. E. (1998). *Transforming qualitative information: Thematic analysis and code development*. Sage.

Boyd, N. G., & Vozikis, G. S. (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63-77.

Boyles, T. (2012). 21st century knowledge, skills, and abilities and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 model for undergraduate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15: 41 - 55.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Braun, V., & Clarke, V. (2012). *Thematic analysi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raun, V., & Clarke, V. (2014). What can "thematic analysis" offer health and wellbeing researc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on Health and Well-being*, 9(1), 26152.

Brännback, M., Krueger, N. F., Carsrud, A. L., & Kickul, J. (2007). *'Trying' to be an entrepreneur? A 'goal-specific' challenge to the intentions model.* [Paper presentation]. Babson Entrepreneurship Research Conference. Madrid, 2007

Brockhaus Sr, R. H. (1980). Risk taking propensity of entrepreneu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3(3), 509-520.

Brown, R. (1990). Encouraging enterprise: Britain's graduate enterprise program.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8(4), 71 - 77.

Brüderl, J., & Preisendörfer, P. (1998). Network support and the success of newly founded businesses. *Small Business Economics*, 10, 213 - 225.

Buchmann, M., Kriesi, I., & Sacchi, S. (2009). Labour market, job opportunities, and transitions to self-employment: evidence from Switzerland from the mid 1960s to the late 1980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5(5), 569 - 583.

Buttler, D., & Sierminska, E. (2020). Career or flexible work arrangements? Gender differences in self-employment in a young market economy. *Journal of Family and Ecnomic Issues*, 41(1), 70 - 95.

Bøllingtoft, A., & Ulhøi, J. P. (2005). The networked business

incubator—leveraging entrepreneurial agenc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Special Issue on Science Parks and Incubators, 20(2), 265 - 290.

Caliendo, M., & Kritikos, A. S. (2010). Start-ups by the unemployed: characteristics, survival and direct employment effects. *Small Business Economics*, 35, 71 - 92.

Cantillon, R. (1755). *The Circulation and Exchange of Goods and Merchandise*, in M. Casson(ed.)(1990), Entrepreneurship, Vermont: Edward Elgar, 5-10.

Carr, J. C., & Sequeira, J. M. (2007). Prior family business exposure as intergenerational influe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0(10), 1090 - 1098.

Carrasco, R. (1999). Transitions to and from self-employment in Spain: an empirical analysi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1(3), 315 - 341.

Carree, M. A., & Thurik, A. R. (2008). The lag structure of the impact of business ownership on economic performance in OECD countries. *Small Business Economics*, 30, 101-110.

Carree, M., Van Stel, A., Thurik, R., & Wennekers, S.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business ownership revisited.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19(3), 281-291.

Carrier, C. (2005). *Pedagogical challenge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P. Kyrö & C. Carrier (Eds.), The dynamics of learning entrepreneurship in a cross-cultural university context (136 - 158). Hämmeenlinna: University of Tampere.

Carter, N. M., Gartner, W. B., & Reynolds, P. D. (1996). Exploring

start-up event sequen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3), 151 - 166.

Cassola, A., Baral, P., Røttingen, J. A., & Hoffman, S. J. (2022). Evalua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funded granting mechanisms for global health and development research that is initiated in high-income countries. *Health Research Policy and Systems*, 20(1), 1-22.

Casson, M. (1982). *The Entrepreneur: An Economic Theory.* Oxford: Martin Robertson.

Cavalluzzo, K., Cavalluzzo, L., & Wolken, J. (2002). Competition, small business financing and discrimination: evidence from a new survey. *Journal of Business*, 75(4), 641 - 679

Chandran, D., & Aleidi, A. (2018). *Analyzing the influence of gender stereotypes and social norms on female IT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Saudi Arabia*.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on System Sciences.

Chawinga, W. D. (2017). Taking social media to a university classroom: teaching and learning using Twitter and blog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in Higher Education*, 14(1), 1-19.

Chen, C. C., Greene, P. G., & Crick, A. (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Cheung, C. K., & Au, E. (2010). Running a small business by students in a secondary school: its impact on learning about entrepreneurship, *Journa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13, 45-63.

Choi, J. I., & Markham, S. (2019). Creating a corporate entrepreneurial ecosystem: The cas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RTP,

USA. *Journal of Open Innovation: Technology, Market, and Complexity*, 5(3), 62.

Clark, H. (2012). Interview with Vogel. I. in Review of the use of 'Theory of Chang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Review Report*. London: The UK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larke, V., & Braun, V. (2013). Successfu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guide for beginners. *Successful Qualitative Research*, 1-400.

Clarysse, B., Tartari, V., & Salter, A. (2011).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capacity, experience and organizational support on academic entrepreneurship. *Research Policy*, 40(8), 1084 - 1093.

Cole, A. H. (1965). An approach to the study of entrepreneurship: A tribute to Edwin F. Gay. In *Explorations in enterprise* (pp. 30-44). Harvard University Press.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 S95 - S120.

Coleman, J.,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Belknap Press, Cambridge.

Collins, J. (2003). Cultural diversity and entrepreneurship: policy responses to immigrant entrepreneurs in Australia.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15(2), 11 - 12.

Colombier, N., & Masclet, D. (2008). Intergenerational correlation in self-employment: some further evidence from French ECHP data. *Small Business Economics*, 30, 423 - 437.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6).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Implementing the Community Lisbon Programme: Fostering Entrepreneurial Mindsets Through Education and Learning, COM , Brussels, 13 February.

Constant, A., & Zimmermann, K. F. (2004). *Self-employment dynamics across the business cycle: migrants versus natives.* IZA Discussion Paper No. 1386.

Cooper, S. Y., & Lucas, W. A. (2007). *Developing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intentions: Lessons from two programmes.* [Paper presentation]. Proceedings of the 52nd ICSB World Conference.

Cooper, S. Y., & Park, J. S. (2008). The impact of 'incubator' organizations on opportunity recognition and technology innovation in new, entrepreneurial high-technology ventures.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26(1), 27 - 56.

Corbin, C. B. (1993). The field of physical education—Common goals, not common roles.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64(1), 79-87.

Cueto, B., & Mato, J. (2006). An analysis of self-employment subsidies with duration models. *Applied Economics*, 38(1), 23 - 32.

Cui, J., & Bell, R. (2022). Behavioural entrepreneurial mindset: How entrepreneurial education activity impacts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behaviou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20(2), 100639.

Czyzewska, M., & Mroczek, T. (2020). Data mining in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diagnosis. *Education Sciences*, 10(8), 196.

Das, S. R., & Joshi, M. P. (2007). Process innovativeness in technology services organizations: Roles of differentiation strategy, operational autonomy and risk-taking propensity.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25(3), 643-660.

Daub, A. (2020). *What tech calls thinking: An inquiry into the intellectual bedrock of Silicon Valley*. FSG Originals.

Davidsson, P. (1995).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Paper presentation]. RENT IX Conference, Workshop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Piacenza, Italy, November 23 - 24

Davidsson, P. & Honig, B., (2003). The role of social and human capital among nascent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3), 301 - 331.

Davidsson, P., Hunter, E., & Klofsten, M. (2006). Institutional forces. The invisible hand that shapes venture ideas?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24(2), 115 - 131.

Dawson, C., Henley, A., & Latreille, P. (2009). *Why do individuals choose self-employment?* IZA Discussion Paper No. 3974.

Del Monte, A., & Scalera, D. (2001). The life duration of small firms born within a start-up programme. Evidence from Italy. *Regional Studies,* 35(1), 11 - 21.

De Pillis, E., & Reardon, K. K. (2007).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and persuaㄱsive message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 cross-cultural comparison.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2(4), 382 - 396.

Der Foo, M., Wong, P. K., & Ong, A. (2005). Do others think you have a viable business idea? Team diversity and judges' evaluation of ideas in a business plan competi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3), 385-402.

De Silva, M. J., Breuer, E., Lee, L., Asher, L., Chowdhary, N., Lund, C., & Patel, V. (2014). Theory of change: a theory-driven approach to enhance the Medical Research Council's framework for complex interventions. *Trials*, 15(1), 1-13.

DeTienne, D. R., & Chandler, G. N. (2004). Opportunity identification and its role in the entrepreneurial classroom: a pedagogical approach and empirical test.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and Education*, 3(3), 242 - 257.

De Wit, G., Van Winden, F. A., (1989). An empirical analysis of self-employment in the Netherlands. *Small Business Economics,* 1, 263 - 272.

Din, B. H., Anuar, A. R., & Usman, M. (2016). The effectiveness of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in upgrading entrepreneurial skills among public university student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24, 117-123.

Djankov, S., Qian, Y., Roland, G., & Zhuravskaya, E., (2006). Entrepreneurship in China and Russia compared.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4(2-3), 352 - 365.

Dollinger, M. J. (1995). *Entrepreneurship. Strategies and Resources*, Irwin, Boston MA.

Do Paço, A., Ferreira, J. M., Raposo, M., Rodrigues, R. G., & Dinis, A. (2015). Entrepreneurial intentions: is education enough?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1, 57-75.

Drucker, P. (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tice and Principles*. NY: Hrper & Row.

Drucker, P. F. (2007),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ctice and Principles*, Elsevier, Amsterdam.

Dubois, C., & Schmitz, S. (2013). The Pathway to Agritourism Development: From Constraints to Opportunities. *The Sustainability of Rural Systems*, 235.

Dunn, T., & Holtz-Eakin, D. (2000). Financial capital, human capital

and the transition to self-employment: evidence from intergenerational link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8(2), 282 - 305

Earle, J.S., & Sakova, Z., (2000). Business start-ups or disguised unemployment? Evidence on the character of self-employment from transition economies. *Labour Economics*, 7(5), 575 - 601.

Edelman, L., Manolova, T. S., & Brush, C. G. (2006).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rrespondence between practices of nascent entrepreneurs and textbook prescriptions for success.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7(1): 57 - 70.

Eggertsson, T. (1990). *Economic Behavior and Institutions: Principles of Neoinstitutional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Ejrnæs, M., & Hochguertel, S. (2008). *Entrepreneurial moral hazard in income insurance: empirical evidence from a large administrative sample.* Tin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 TI 2008-065/3.

Epstein, R. (1996). *Cognition, creativity and behaviour.* Westport: Praeger

Ettl, K., & Welter, F. (2010). Gender, context and entrepreneurial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Gender and Entrepreneurship*, 2(2), 108 - 129.

Etzkowitz, H., Webster, A., Gebhardt, C., & Terra, B. R. C. (2000). The future of the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the future: Evolution of ivory tower to entrepreneurial paradigm. *Research policy*, 29(2), 313 - 330.

European Commission. (2003). *Green paper—entrepreneurship in Europe.* Brussels: DG Enterprise.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2006). *The key competences for lifelong learning - A European Reference Framework*. European Commission.

Eurydice. (2002). *Initial training and transition to working life.* Volume 1, The teaching profession in Europe: Profile, trends and concerns. General lower secondary education. Brussels: Eurydice.

Evans, D. S., & Jovanovic, B. (1989).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 under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4), 774 - 806.

Evans, D. S., & Leighton, L. S. (1989). Some empirical aspects of entrepreneurship. *American Economic Review,* 79, 519 - 535

Evans, D. S., & Leighton, L. S. (1990). Small business formation by unemployed and employed workers. *Small Business Economics*, 2, 319 - 330.

Fairlie, R.W., & Robb, A.M. (2007). Families, human capital, and small business: evidence from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owners survey. *Industrial & Labor Relations Review*, 60(2), 225 - 245.

Fatoki, O. (2014).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South Africa: The influence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previous work experience.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5(7), 294.

Fayolle, A., & Degeorge, J. M. (2006). Attitudes, intentions, and behaviour: New approaches to evaluat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sues and newness*, 74-89.

Fayolle, A. (Ed.). (2007). *Handbook of research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general perspective* (Vol. 1). Edward Elgar Publishing.

Fayolle, A., & Gailly, B. (2015).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attitudes and intention: Hysteresis and persisten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3(1), 75 - 93.

Fayolle, A., Gailly, B., & Lassas Clerc, N. (2006a). Assessing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mes: a new methodology.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30(9), 701-720.

Fayolle, A., Gailly, B. & Lassas-Clerc, N. (2006b). Effect and counter-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social context on student's intentions, *Estudios de Economı´a Aplicada*, 24(2), 509-523.

Fayolle, A., Gailly, B., & Lassas-Clerc, N. (2007). Towards a new methodology to assess the entrepreneurship teaching programmes. In A. Fayolle (Ed.), *Handbook of research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Vol. 1, pp. 187 - 197). Cheltenham: Edward Elgar.

Fayolle, A., Kariv, D., & Matlay, H. (Eds.). (2019). The role and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dward Elgar Publishing.

Ferreira, J. J., Raposo, M. L., Rodrigues, R. G., Dinis, A., & Do Paco, A. (2012). A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 application of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approache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9(3), 424 - 440.

Fillion, L. J. (1995).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Differing but complementary processes*. Cahier de Recherche, CETAI, HEC Montreal., 95-01.

Fini, R., Grimaldi, R., Marzocchi, G. L., & Sobrero, M. (2012). The determinants of corporate entrepreneurial intention within small and newly established firm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6(2), 387 - 414.

Fini, R., Lacetera, N., & Shane, S. (2010). Inside or outside the IP

system? Business creation in academia. *Research Policy*, 39(8), 1060 - 1069.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Foley, A., & Griffith, B. (1998). E*ducation, training and the promotion of high quality entrepreneurs in the Republic of Ireland*. In M. G. Scott, P. Rosa, & H. Klandt (Eds.), Educating entrepreneurs for wealth creation. Aldershot: Ashgate.

Foo, M. D., Knockaert, M., Chan, E. T., & Erikson, T. (2016). The individual environment nexus: Impact of promotion focus and the environment on academic scientis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63(2), 213 - 222.

Freedman, D. A. (1987). As others see us: A case study in path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Statistics*, 12(2), 101-128.

Fugard, A. J., & Potts, H. W. (2015). Supporting thinking on sample sizes for thematic analyses: a quantitative tool.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18(6), 669-684.

Funnell, S. C., & Rogers, P. J. (2011). *Purposeful program theory: Effective use of theories of change and logic models*. John Wiley & Sons.

Galloway, L. & Brown, W. (2002).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university: a driver in the creation of high growth firms? *Education and Training*. 44(8/9), 398-405.

Garavan, T. N., & O'Cinneide, B. (1994a).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a review and evaluation－Part II.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18(11), 13 - 21.

Garavan, T. N., & O'Cinneide, B. (1994b).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a review and evaluation.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18(8), 3 - 12.

Gartner, W. B. (1985).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scribing the phenomenon of new venture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4), 494 - 706.

Gartner, W. B. (1988). "Who is an entrepreneur?" is the wrong question.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2(4), 11-32.

Gartner, W. B. (1990). What are we talking about when we talk about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1), 15-28.

Gartner, W. B. (2007). *Psychology, Entrepreneurship, and the "Critical Mess"*. In J. R. Baum, M. Frese, & R. A. Baron (Eds.), The psychology of entrepreneurship (pp. 325 - 334). Mahwah, NJ: Erlbaum.

Gartner, W. B., & Carter, N. M. (2003).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firm organizing processes*. In Z. Acs, & D. B. Audretsch, (Eds.), Handbook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95 - 221. Boston, MA: Kluwer.

Gartner, W. B., Stam, E., Thompson, N., & Verduyn, K. (2016). Entrepreneurship as practice: Grounding contemporary practice theory into entrepreneurship studies.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 (202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22/2023 Global Report: Adapting to a" New Normal".

Ghasemi, B., & Rowshan, A. (2016). The factors contributing to entrepreneurial alertness. *Journal of Economy and Entrepreneurship*, 10(3-2), 158-164.

Gibb, A. A. (1987). Designing effective programmes for encouraging

the business start-up process: lessons from UK experience.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11(4), 24 - 32.

Gibb, A. A. (1998). *Entrepreneurial core capacities, competitiveness and management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Paper presented at the IntEnt Conference, Oestrich-Winkel.

Gibb, A. A. (2002). In pursuit of a new entrepreneurship paradigm for learning: Creative destruction, new values, new ways of doing things and new combinations of knowl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4(3): 233 - 269.

Gibb, A. A. (2008). Entrepreneurship and enterprise education in schools and colleges: Insights from UK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6(2): 101 - 144.

Gimmon, E., Farja, Y., & Greenberg, Z. (2021). Vocational education of owners and SME employment growth: evidence from Israel. *International Journal of Training Research*, 19(1), 21-46.

Gimmon, E., Yitshaki, R., & Hantman, S. (2019). How to foster older adults entrepreneurial motivation: The Israeli case. *Handbook of Research on Elderly Entrepreneurship*, 211-226.

Glaub, M. E., Frese, M., Fischer, S., & Hoppe, M. (2014). Increasing personal initiative in small business managers or owners leads to entrepreneurial success: A theory-based controlled randomized field intervention for evidence-based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13(3), 354 - 379.

Gnyawali, D. R., & Fogel, D. S. (1994).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43-62.

Goel, R. K., Goktepe-Hulten, D., & Ram, R. (2015). Academics' entrepreneurship propensities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40(1), 161 - 177.

Goethner, M., Obschonka, M., Silbereisen, R. K., & Cantner, U. (2012). Scientists' transition to academic entrepreneurship: Economic and psychological determinant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3(3), 628 - 641.

Gollwitzer, G. M. (1999). Implementation intentions: Strong effects of simple plans. *The American Psychologist*, 54(7): 493 - 503.

Gouws, E. (2002). Entrepreneurship education: implications for teacher training. *South Afric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16(2), 41-48.

Grant, D., (1996). The political economy of new business formation across the American states, 1970 - 1985. *Social Science Quarterly,* 77, 28 - 42

Grapentine, T. (2000), Path analysis V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arketing Research*, 12(3), 13-20

Grewe, U., & Brahm, T. (2020).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es in mini-companies at schools. *Education+ Training*, 62(7/8), 917-931.

Grilo, I., & Irigoyen, J. M. (2006). Entrepreneurship in the EU: To wish and not to be. *Small Business Economics*, 26: 305 - 318.

Gross, N., Carson, D., & Jones, R. (2014). Beyond rhetoric: Re-thinking entrepreneurial marketing from a practice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and Entrepreneurship*, 16(2), 105-127.

Gurel, E., Altinay, L., & Daniele, R. (2010). Tourism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7(3), 646-669.

Haftendorn, K., & Salzano, C. (2003). *Facilitating Youth*

Entrepreneurship, Part I: An Analysis of Awareness and Promotion Programmes in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Hall, P. A., & Taylor, R. C., (1996).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Political Studies,* 44(5), 936 - 957.

Hameed, I., & Irfan, Z. (2019).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review of challenges, characteristics and opportunities. *Entrepreneurship Education*, 2, 135-148.

Hammersley, M. (2008). *Assessing validity in social research.* The SAGE handbook of social research methods, 42-53.

Hanley, T., Sefi, A., Grauberg, J., Prescott, J., & Etchebarne, A. (2021). A theory of change for web-based therapy and support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collaborative qualitative exploration. *JMIR Pediatrics and Parenting*, 4(1), e23193.

Hannon, P. (2006). Teaching pigeons to dance: sense and meaning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48(5), 296-308.

Hartman, N. S., & Conklin, T. (2012). A thematic analysis of a leadership speaker series.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31(8), 826-844.

Hartshorn, C., & Parvin, W. (1999). *Teaching entrepreneurship: creating and implementing a naturalistic model.* [Paper presentatio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EuroPME, Rennes.

Hawkins, R. H. (1993). Asymptotic determination of runoff curve numbers from data. *Journal of Irrigation and Drainage Engineering*, 119(2), 334-345.

Hatch, J. A. (2002). *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s*. Suny Press.

Hayek, F. A. (1937). Economics and Knowledge. *Economica*, 4(13), 33-54.

Heilbrunn, S., & Almor, T. (2014). Is entrepreneurship education reproducing social inequalities among adolescents? Some empirical evidence from Israel.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12(3), 445-455.

Heinonen, J., & Poikkijoki, S. A. (2006). An entrepreneurial directed approach to entrepreneurship education: mission impossible?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25(1), 80-94.

Hellmann, T., and Thiele, V. (2019). Fostering entrepreneurship: promoting founding or funding? Management Science. 65(6), 2502 - 2521.

Henley, A. (2007). Entrepreneurial aspiration and transition into self-employment: evidence from British longitudinal data.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19(3), 253 - 280

Henrekson, M., & Stenkula, M. (2010). *Entrepreneurship and public policy* (pp. 595-637). Springer New York.

Henry, C., Hill, F., & Leitch, C. (2017).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the issue of effectiveness*. Routledge.

Hisrich, R. D., & Brush, C. (1986). Characteristics of the minority entrepreneur.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4, 1-20.

Hoffman, A. J. (2010). *Reconciling professional and personal value systems: The spiritually motivated manager as organizational entrepreneur.* In Handbook of workplace spiritual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pp. 171-186). Routledge.

Holtrop, K., & Holcomb, J. E. (2018). Adapting and pilot testing a parenting intervention for homeless families in transitional housing.

Family Process, 57(4), 884-900.

Holtz-Eakin, D. (2000). Public policy toward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15, 283-291.

Hong, L. (2018).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on the shortcomings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Chinese Colleges and Universities. *Continuing Education*. 4, 35 - 41.

Honig, B. (1998). What determines success? Examining the human, financial, and social capital of Jamaican micro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5), 371-394.

Honig, B. (2004). Entrepreneurship education: toward a model of contingency-based business planning.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and Education*, 3(3), 258 - 273.

Hout, M., Rosen, H.S., (2000). Self-employment, family background and rac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5, 670 - 692.

Huang, Y., An, L., Wang, J., Chen, Y., Wang, S., & Wang, P. (2021).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policy in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intermediary role of entrepreneurial practice and entrepreneurial spirit. *Frontiers in Psychology*, 12, 585698.

Hurst, E., & Lusardi, A., (2004). Liquidity constraints, household wealth an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2(2), 319 - 347.

Ibarra, H., (1997). Paving an alternative route: gender differences in managerial network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0, 91 - 102.

Indrawati, N. K., Salim, U. Djumahir, & Djawahir, A. H. (2015). Moderation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in 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Dimensions and Entrepreneurial Alertness

and the Effect on Entrepreneurial Commitment.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69, 13-22.

Izquierdo, E., & Buelens, M. (2008).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attitudes.* IntEnt2008 Conference, Oxford, OH, 17-20 July.

Jack, S., & Anderson, A. R. (2002). The effects of embeddedness on the entrepreneurial pro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7(5), 467 - 487.

Jamieson, I. (1984). *Education for enterprise*. In A.G. Watts, & P. Moran (Eds.), CRAC: 19 - 27. Cambridge, MA: Ballinger

Joffe, H., Yardley, L., & Marks, D. (2004). Research methods for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Content and Thematic Analysis*, 56-68.

Jovanovic, B. (1994). Firm formation with heterogeneous management and labor skills. *Small Business Economics*, 6, 185-191.

Johannisson, B. (1991). University training for entrepreneurship: Swedish approaches.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3(1), 67 - 82

Johansson, E., (2000). Self-employment and liquidity constraints: evidence from Finland.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02(1), 123 - 134.

Johnson, B. R. (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Achievement Motivation the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39-54.

Jovanovic, B., (1994). Firm formation with heterogeneous management and labor skills. *Small Business Economics,* 6, 185 - 191.

Kabongo, E., Mukumbang, F. C., Delobelle, P., & Nicol, E. (2020). Combining the theory of change and realist evaluation approaches to elicit an initial program theory of the MomConnect program in South Africa.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20(1), 1-11.

Kantis, H., Ishida, M., & Komori, M. (2002). *Entrepreneurship in Emerging Economies :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New Firms in Latin America and East Asia*,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Washington.

Kao, G. (1995). Asian Americans as model minorities? A look at their academic performance.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03(2), 121-159.

Katz, J. A. (1990). Longitudinal analysis of self-employment follow through.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2(1), 15 - 26.

Kaufmann, P. J., & Dant, R. P. (1999). Franchising and the domain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4(1), 5-16.

Kautonen, T., van Gelderen, M., & Tornikoski, E. T. (2013). Predicting entrepreneurial behavior: A test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pplied Economics*, 45(6): 697 - 707.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7). *청년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 KDI Focus. 2017-88

Kelley, D., Singer, S., & Herrington, M. (2011). *2011 Global Report*,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London.

Kent, C. A. (1990). *Entrepreneurship education: Current developments, future directions.* New York: Quorum Books.

Kirzner, I. M. (1973).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houry, G., Elmuti, D., & Omran, O. (2012). Does entrepreneurship education have a role in developing entrepreneurial skills and ventures' effectiveness?.

Knoll, A., & Sherriff, A. (2017). *Making Waves: Implications of the irregular migration and refugee situation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pending and practices in Europe.* Maastricht: ECDPM.

Kolb, B. (1984). Functions of the frontal cortex of the rat: a comparative review. *Brain Research Reviews*, 8(1), 65-98.

Kolvereid, L. (1996a). Organizational employment versus self-employment: Reasons for career choice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20(3), 23 - 31.

Kolvereid, L. (1996b). Prediction of employment status choice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1(1), 47 - 57.

Kolvereid, L. (2016). Preference for self-employment prediction of new business start-up intentions and effor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17(2), 100 - 109.

Kolvereid, L., & Moen. (1997). Entrepreneurship among busi┐ness graduates: Does a major in entrepreneurship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21(4): 154 - 160.

Kor, Y. Y., Mahoney, J. T., & Michael, S. C. (2007). Resources, capabilities and entrepreneurial perception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4(7), 1187 - 1212.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22). Start-up Rate and Economic Growth Rate. [Data]

Kourilsky, M.(1995). *Entrepreneur Education: Opportunity in Search of Curriculum, Business Education Forum*, Kansas: The Ewing Marion Kauffman Foundation.

Kreiser, P. M., & Davis, J. (2010).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firm performance: The unique impact of innovativeness, proactiveness, and risk-taking. *Journal of Small Business & Entrepreneurship*, 23(1), 39-51.

Krieshok, T. S., Black, M. D., & McKay, R. A. (2009). Career decision making: The limits of rationality and the abundance of non-conscious proces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3), 275-290.

Kristiansen, S., & Indarti, N. (2004).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Indonesian and Norwegian students. *Journal of Enterprising Culture*, 12(01), 55-78.

Krueger, N. (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1), 5-21.

Krueger, N. J., & Brazeal, D. (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Krueger, N. J., & Carsrud, A. (1993), Entrepreneurial intentions: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5(3), 315-30.

Krueger, N. F., Reilly, M. D., & Carsrud, A. L. (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 - 6), 411 - 432.

Krumboltz, J. D. (2009). The happenstance learning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2), 135-154.

Kuehn, K. W. (2008). Entrepreneurial intentions research: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11, 87 - 98.

Kuhn, P. (2000). Editor's note. *Labour Economics*, 7, 463 - 469.

Kuratko, D. F. (2005). The emerge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Development, trends, and challenges.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29(5), 577 - 597.

Kuratko, D. F., & Hodgetts, R. M.(2007). *Entrepreneurship : Theory, Process, Practice*, 7th edition, Canada : Thomson South-Western.

Lackeus, M. (2014). An Emotion Based Approach to Assessing Entrepreneurial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12(3), 374-396.

Lackéus, M. (2020). Comparing the impact of three different experiential approaches to entrepreneurship in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26(5), 937-971.

Land, K. C. (1969). Principles of Path Analysis. *Sociological Methodology*, 1, 3-37.

Landstrom, H. (2007). *Pioneers in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research* (Vol. 8).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Lans, T., Hulsink, W. I. M., Baert, H., & Mulder, M. (2008).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in a small business context: Insights from the competence-based approach. *Journal of Enterprising Culture*, 16(4), 363-383.

Leal-Muniz, V., & Constantine, M. G. (2005). Predictors of the career commitment process in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2), 204-215.

Ledyaeva, S., Gustafsson-Pesonen, A., Mochnikova, E., & Vasilenko, D. (2008). *Russian students' perceptions of entrepreneurship*. results of a survey in three St. Petersburg universities.

Lee, L., & Wong, P. K. (2006). Entrepreneurship education－A compendium of related issues. In *The life cycle of entrepreneurial ventures* (pp. 79-105). Boston, MA: Springer US.

Leitch, C. M., & Harrison, R. T. (1999). A process model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5(3), 83 - 109.

Lent, R. W., Brown, S. D., Brenner, B., Chopra, S. B., Davis, T., Talleyrand, R., & Suthakaran, V. (2001). The role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in the choice of math/science educational options: A test of social cognitive hypothe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474.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Levesque, M., & Minniti, M. (2006). The effect of aging on entrepreneurial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2), 177 - 194.

Li, G., Long, Z., Jiang, Y., Huang, Y., Wang, P., & Huang, Z. (2022).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policy and entrepreneurial competenc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competition in China. *Education+ Training*.

Li, J., Zhang, Y., & Matlay, H. (2003).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China. *Education+ Training*, 45(8/9), 495-505.

Liguori, E., Corbin, R., Lackeus, M., & Solomon, S. J. (2019). Under-researched domains in entrepreneurship and enterprise education: primary school, community colleges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26(2), 182-189.

Lin, S., & Xu, Z. (2017).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based on the case of China. *Management Decision*, 55(7), 1351-1370.

Liñán, F. (2004). Intention-based model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Small Business*, 3(1), 11 - 35.

Liñán, F. (2007).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entrepreneurial process. In A. Fayolle (Ed.), *Handbook of research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Vol. 1, pp. 230 - 247). Cheltenham: Edward Elgar.

Liñán, F. (2008). Skill and value perceptions: how do they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4(3), 257 - 272.

Liñán, F., & Chen, Y. W. (2006). Test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model on a two-country sample.

Liñán, F., & Chen, Y. W. (2009). Development and cross - 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593-617.

Liñán, F., Rodríguez-Cohard, J. C., & Rueda-Cantuche, J. M. (2011).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levels: a role for educa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7(2), 195-218.

Liñán, F., Urbano, D., & Guerrero, M. (2010). Regional variations in entrepreneurial cognitions: Start-up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 Spain.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23(3-4), 187-215.

Liu, N., Nikitas, A., & Parkinson, S. (2020). Exploring expert perceptions about the cyber security and privacy of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 A thematic analysis approach.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Traffic Psychology and Behaviour, 75, 66-86.

Lleras, C. (2005). Path analysis. *Encyclopedia of Social Measurement*, 3(1), 25-30.

Lockett, A., Wright, M., & Franklin, S. J. (2003). Technology transfer and universities' spin-out strategies. *Small Business Economics*, 20(2), 185 - 200.

Loury, G., (1987). Why should we care about group inequality?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5(1), 249 - 271.

Low, M. B., & MacMillan, I. C. (1988). Entrepreneurship: Past research and future challenges. *Journal of Management*, 14(2), 139-161.

Lowe, A., Norris, A. C., Farris, A. J., & Babbage, D. R. (2018). Quantifying thematic saturation in qualitative data analysis. *Field Methods*, 30(3), 191-207.

Lumpkin, G. T., & Dess, G. G. (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ship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Lundström, A., & Stevenson, L. (2002), On the Road to Entrepreneurship Policy, Swedish Foundation for Small Business Research, *Scandinavian Journal of Management*, 17(2), 225-248.

Luthje, C., & Franke, N. (2003). The 'making' of an entrepreneur: testing a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engineering students at MIT. R & D Management, 33(2), 135 - 147.

Lv, Y., Chen, Y., Sha, Y., Wang, J., An, L., Chen, T., Huang, X., Huang, Y., & Huang, L. (2021). How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universities influences entrepreneurial intention: Mediating effect based on entrepreneurial competence. *Frontiers in Psychology*, 12,

655868.

Madill, A., Bhola, P., Colucci, E., Croucher, K., Evans, A., & Graber, R. (2022). How can we mainstream mental health in research engaging the ran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theory of change. *PLOS Global Public Health*, 2(8), e0000837.

Maguire, M., & Delahunt, B. (2017), Doing a thematic analysis: A practical, step-by-step guide for learning and teaching scholars, *The All Ireland Journal of Teaching an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9(3), 3352.

Malach, J., & Kristová, K. (2017), The impact of school education and family environment on pupils' entrepreneurial spirit and attitude to entrepreneurship, *The New Educational Review*, 49(3), 101-114.

March, J. G., & Olsen, J. P. (1989). *Rediscovering Institutions: The Organizational Basis of Politics*. Free Press, New York.

Markman, G. D., Balkin, D. B., & Baron, R. A. (2002). Inventors and new venture formation: The effects of general self-efficacy and regretful thinking.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7(2), 149 - 165.

Markman, G. D., Baron, R. A., & Balkin, D. B. (2005). Are perseverance and self-efficacy costless? Assessing entrepreneurs' regretful think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1), 1 - 19.

Marques, C. S., Ferreira, J. J., Gomes, D. N., & Rodrigues, R. G. (2012). Entrepreneurship education: How psychological, demographic and behavioural factors predict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Education+ Training*. 54(8/9), 657-672.

Martin, B. C., McNally, J. J., & Kay, M. J. (2013). Examining the formation of human capital in entrepreneurship: A meta analysi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utcom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8(2): 211 - 224.

Matlay, H. (2008).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outcome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5(2): 382 - 396.

Matthews, C., & Moser, S., (1995). Family background and gender: implications for interest in small firm ownership.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7(4), 365 - 377.

Matthews, C. H., & Moser, S. B. (1996).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family background and gender on interest in small firm owner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2), 29 - 43.

Mazzarol, T., Volery, T., Doss, N., & Thein, V. (1999). Factors influencing small business start-ups. A comparison with previous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 Research*, 5(2), 48 - 63.

McClelland, D. C. (1965). Need achievement and entrepreneurship: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389-392.

McKenzie, D. (2017). Identifying and spurring high-growth entrepreneurship: Experimental evidence from a business plan competi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07(8), 2278-2307.

Meager, N., (1992). Does unemployment lead to self-employment? *Small Business Economics,* 4, 87 - 103.

Meager, M., Bates, P., & Cowling, M., (2003). An evaluation of business start-up support for young people.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186, 59 - 72

Mei, W., & Symaco, L. (2022). University-wid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China'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ssues and challenge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47(1), 177-193.

Merton, R. K. (1975). Thematic analysis in science: Notes on Holton's concept. *Science*, 188(4186), 335-338.

Michelini, L., Grieco, C., Ciulli, F., & Di Leo, A. (2020). Uncovering the impact of food sharing platform business models: a theory of change approach. *British Food Journal,* 122(5), 1437-1462.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Sage.

Miller, D. (2011), Miller, D.(1983) Revisited : A Reflection on EO Research and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35(5), 873-894.

Millman, C., Matlay, H., & Liu, F. (2008).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China: a case study approach.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5(4), 802-815.

Minniti, M., (2008). The role of government policy on entrepreneurial activity: productive, unproductive, or destructiv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2(5), 779 - 790.

Minniti, M., & Nardone, C. (2007). Being in someone else's shoes: the role of gender in nascent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28(2 - 3), 223 - 238.

Miranda, F. J., Chamorro, A., & Rubio, S. (2017). Determinants of the intention to create a spin-off in Spanish univers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Management*, 21(4-5), 299-317.

Mitchell, K. E., Al Levin, S., & Krumboltz, J. D. (1999). Planned happenstance: Constructing unexpected career opportuniti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7(2), 115-124.

Mitra, J. (2008). *Toward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policy development.* In J. Potter (Ed.), Entrepreneurship and higher education. Paris: OECD－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Mitra, J., & Matlay, H. (2004), Entrepreneuri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lessons from eastern and central Europe.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18(1), 53-69.

Moog, P., Werner, A., Houweling, S., & Backes-Gellner, U. (2015). The impact of skills, working time allocation and peer effects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scientists. *The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40(3), 493 - 511.

Morra-Imas, L. G. Morra, L. G., & Rist, R. C. (2009), *The road to results, Designing and conducting effective development evaluations*, Washington: World Bank.

Morris, M. H. (1998). *Entrepreneurial Intensity*. Westport: Quorum Books.

Morris, M. H., Kuratko, D. F., & Covin, J. G. (2008).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Thomson south-Western, 2nd Edition, West Eagan, MN.

Morris, M. H., & Lewis, P. S. (1995).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activity: Implications for marketing.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9(7), 31-48.

Mosey, S., & Wright, M. (2007). From human capital to social capital: A longitudinal study oftechnology-basedacademic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6), 909 - 935.

Mueller, P., (2006). Entrepreneurship in the region: breeding ground

for nascent entrepreneurs? *Small Business Economics,* 27, 41 - 58.

Mustar, P. (2009). Technology management educatio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at MINES ParisTech, a leading French engineering school.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8(3), 418 - 425.

Mwasalwiba, E. S. (2010).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review of its objectives, teaching methods, and impact indicators. *Education+ Training*, 52(1): 20 - 47.

Nabi, G., Liñán, F., Fayolle, A., Krueger, N., & Walmsley, A. (2017).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research agenda.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16(2), 277-299.

Neck, H. M., & Corbett, A. C. (2018). The 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Pedagogy*, 1(1), 8-41.

Neck, H. M., Greene, O. G., & Brush, C. G. (2014). Practice-bas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using actionable theory. *Annal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Pedagogy,* 2014(1), 3-20.

Neck, H. M., & Greene, P. G. (2011). Entrepreneurship education: Known worlds and new frontie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9(1), 55 - 70.

Nikitas, A., Wang, J. Y., & Knamiller, C. (2019). Exploring parental perceptions about school travel and walking school buses: A thematic analysis approach.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124, 468-487.

Niittykangas, H., & Tervo, H. (2005). Spatial variations i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elf employment. *Regional Studies*, 39(3), 319-332.

North, D.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O'Campo, P., Stergiopoulos, V., Davis, O., Lachaud, J., Nisenbaum, R., Dunn, J. R., Ahmed, N., & Tsemberis, S. (2022). Health and social outcomes in the Housing First model: Testing the theory of change. *EClinicalMedicine*, 47, 101387.

O'Connor, A. (2012). A conceptual framework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policy: meeting government and economic purpos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8(4), 546 - 563.

O'Connor, J., Fenton, M., & Barry, A. (2012). Entrepreneurship education: Ireland's solution to economic regeneration?.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26(3), 241-249.

OECD. (2022). National Entrpreneurship Indicators. [Data]

OECD/European Union. (2017). *The Missing Entrepreneurs 2017 - Policies for Inclusive Entrepreneurship*. OECD Publishing. Paris.

Olobatuyi, Moses E. (2006). *A User's Guide to Path Analysis*. University Press of America.

Oosterbeek, H., van Praag, M., & Ijsselstein, A. (2010).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skills and motiv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54(3), 442 - 454.

Ostrom, E. (2007). *Institutional rational choice: an assessment of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In: Sabatier, P. (Ed.),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Boulder, CO, pp. 21 - 64.

Otache, I., Oluwade, D. O., & Idoko, E. O. J. (2020).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undergraduate students' self-employment intentions: do paid employment intentions matter?. *Education+ Training*,

62(7/8), 741-757.

Oxenfeldt, A. R. (1943). *New Firms and Free Enterprise: Pre-War and Post-War Aspects*. American Council on Public Affairs, Washington.

Ozgen, E., & Baron, R. (2007). Social sources of information in opportunity recognition: effects of mentors, industry networks, and professional foru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2, 174 - 192.

Paco, A., Ferreira, J., Raposo, M., Rodrigues, R. and Dinis, A. (2011a), "Behaviou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empirical findings about secondary stud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Vol. 9 No. 1, pp. 20-38.

Paco, A., Ferreira, J., Raposo, M., Rodrigues, R., & Dinis, A. (2011b),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secondary students: findings from Portugal.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13(1), 92-106.

Parker, S. C., (2009). *The Economics of Entrepreneurship*.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Parry, S. B. (1996). The quest for competencies. *Training*, 33(7), 48.

Peebles, I., Brown, B., Juster, E., & Duffy, F. (2022). Thematic analysis of mechanisms underpinning email peer support for young people with eating disorders. *The Journal of Mental Health Training, Education and Practice*, 17(1), 36-47.

Peltonen, K. (2015). How can teachers' entrepreneurial competences be developed? A collaborative learning perspective. *Education+ Training*, 57(5), 492-511.

Peterman, N. E., & Kennedy, J. (2003). Enterprise education: influencing students' perceptions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8(2), 129 - 144.

Pfeiffer, F., & Reize, F. (2000). Business start-ups by the unemployed -an econometric analysis based on firm data. *Labour Economics,* 7, 629 - 663.

Piperopoulos, P., & Dimov, D. (2015). Burst bubbles or build steam?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self 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3(4), 970-985.

Pitchbook. (2019). How to find women entrepreneurs with PitchBook. https://pitchbook.com/blog/how-to-find-women-entrepreneurs-with-pitchbook

Pittaway, L., & Cope, J. (2007).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of the evidence.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25(5), 479 - 510.

Ploum, L., Blok, V., Lans, T., & Omta, O. (2018). Toward a validated competence framework for sustainable entrepreneurship. *Organization & Environment*, 31(2), 113-132.

Potter, J. (2008). *Entrepreneurship and higher education*. Paris: OECD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Prodan, I., & Drnovsek, M. (2010). Conceptualizing academic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 empirical test. *Technovation*, 30(5-6), 332-347.

Pruett, M., Shinnar, R., Toney, B., Llopis, F., & Fox, J. (2009). Explain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a cross cultur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5(6), 571-594.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New York.

Rampini, A. A., (2004). Entrepreneurial activity, risk and the business cycl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1, 555 - 573.

Rasmussen, E. A., & Sørheim, R. (2006). Action-bas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Technovation*, 26(2): 185 - 194.

Rauch, A., & Frese, M. (2007). Let's put the person back into entrepreneurship research: A meta-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owners' personality traits, business creation, and success.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6(4), 353 - 385.

Rauch, A., & Hulsink, W. (2015). Putt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where the intention to actlies:An investigation into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behavior.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14(2), 187 - 204.

Rauch, A., Wiklund, J., Lumpkin, G. T., & Frese, M. (2009).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An assessment of past research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761-787.

Remeikiene, R., Startiene, G., & Dumciuviene, D. (2015). Assesment of the industry competitiveness of the Baltic States in the EU during the period of economic recession. *Technolog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Economy*, 21(1), 79-95.

Reynolds, P. D., Carter, N. M., Gartner, W. B., & Greene, P. G. (2004). The prevalence of nascent entrepreneurs in the United States: Evidence from the panel study of entrepreneurial dynamics. *Small Business Economics*, 23, 263-284.

Reynolds, P., Bosma, N., Autio, E., Hunt, S., De Bono, N., Servais, I., Lopez-Garcia, P., & Chin, N. (2005).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Data collection, design, and implementation 1998-2003. *Small Business Economics*, 24: 205 - 231

Reynolds, P. D., Storey, D. J., & Westhead, P. (1994). Cross-national comparison of the variation in new firm rates. Regional Studies, 28, 443 - 456.

Raynolds, P. D., Camp, M. S., Bygrave, W. D., Autio, E., & Hay, M. (2002).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02 executive report*. Babson College, Ewing Marion Kauffman Foundation, and London Business School.

Rezel-Potts, E., Free, C., Syred, J., & Baraitser, P. (2020). Expanding choice through online contraception: a theory of change to inform service development and evaluation. *BMJ Sexual & Reproductive Health*, 46(2), 108-115.

Rissman, E.R., (2003). *Self-employment as an alternative to unemployment*.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Working Paper No. 2003-34.

Roberts, E. B., & Eesley, C. E. (2011). Entrepreneurial Impact: The Role of MIT. *Foundations and Trends in Entrepreneurship*, 7(1/2), 1 - 149.

Robinson, P. B., & Sexton, E. A. (1994). The effect of education and experience on self-employment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2), 141-156.

Robinson, P. B., Stimpson, D. V., Huefner, J., & Hunt, H. K. (1991). An attitude approach to the prediction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5(4), 13 - 31.

Rodrigues, R.G., Dinis, A., Do Paco, A., Ferreira, J., & Raposo, M. (2012). The effect of an entrepreneurial training programme on entrepreneurial traits and intention of secondary students.

Entrpreneurship-Born, made and educated, 77-92.

Rogers, P. J. (2008). Using Programme Theory for Complicated and Complex Programmes. *Evaluation,* 14(1), 29-48.

Román, C., Congregado, E., & Millán, J.M., (2011). Dependent self-employment as a way to evade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Small Business Economics,* 37, 363 - 392.

Román, C., Congregado, E., & Millán, J. M. (2013). Start-up incentives: Entrepreneurship policy or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8(1), 151-175.

Ronstadt, R.(1985), The Educated Entrepreneurs :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scn Journal of Small Business*, 10(1), 7-23.

Rosado-Cubero, A., Freire-Rubio, T., & Hernández, A. (2021). Understanding triggering skills for entrepreneurs: The case of ESIC.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62, 120380.

Rowe, C. (1995). Clarifying the use of competence and competency models inrecruitment, assessment and staff development. *Industrial and Commercial training*, 27(11), 12-17.

Ruiz-Arroyo, M., Sanz-Espinosa, I., & Fuentes-Fuentes, M. M. (2015). Alerta emprendedora y conocimiento previo para la identificación de oportunidades emprendedoras: el papel moderador de las redes sociales. *Investigaciones Europeas de Dirección y Economía de la Empresa*, 21(1), 47 - 54.

Rusby, J. C., Jones, L. B., Crowley, R., & Smolkowski, K. (2016). An efficacy trial of Carescapes: Home based child care practices and children's social outcomes. *Child Development*, 87(4), 1291-1310.

Rutherford, M., (1995). The old and the new institutionalism: can

bridges be built? *Journal of Economic Issues,* 29, 443 - 451.

Sabharwal, R., & Miah, S. J. (2021). A new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big data analytics capabilities in organizations: a thematic analysis. *Journal of Big Data*, 8(1), 1-17.

Saeed, S., Yousafzai, S. Y., Yani de Soriano, M., & Muffatto, M. (2015). The role of perceived university support in the formation of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3(4), 1127 - 1145.

Sandberg, J. (2000). Understanding human competence at work: an interpretative approac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1), 9-25.

Sandelowski, M. (2010). What's in a name? Qualitative description revisited. *Research in Nursing & Health*, 33(1), 77-84.

Sandelowski, M., & Barroso, J. (2003). Creating metasummaries of qualitative findings. *Nursing Research*, 52(4), 226-233.

Santarelli, E., & Vivarelli, M. (2007). Entrepreneurship and the process of firm's entry, survival and growth.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6, 455 - 488.

Santos, F. J., & Liñán, F. (2007). Measuring entrepreneurial quality in southern Europe.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3(1), 87 - 107.

Santoso, R. T. P. B., Junaedi, W. R., Priyanto, S. H. and Santoso, D. S. S.(2021), Creating a startup at a University by using Shane's theory and the entrepreneurial learning model: a narrative method. *Journal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10(1), 1-25.

Sarasvathy, S. D. (2001). Causation and effectuation: Toward a theoretical shift from economic inevitability to entrepreneurial

contingenc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2), 243 - 263.

Sarasvathy, S. D., & Venkataraman, S. (2011). Entrepreneurship as method: Open questions for an entrepreneurial fut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5(1): 113 - 135.

Schumpeter, J. A.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MA: Harvard Univ. Press.

Schwartz, D., & Malach-Pines, A. (2009).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students: How should universities prepare for the challenge of teaching entrepreneurship?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23(3), 221-231.

Schwarz, E. J., Wdowiak, M. A., Almer-Jarz, D. A., & Breitenecker, R. J. (2009). The effects of attitudes and perceived environment conditions on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 An Austrian perspective. *Education+ Training*, 51(4), 272-291

Scott, S. G., & Bruce, R. A. (1994). Determinants of innovative behavior: A path model of individual innovation in the workpla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3), 580-607.

Seidel, V. P., Marion, T. J., & Fixson, S. K. (2020). Innovating how to learn design thinking, making, and innovation: Incorporating multiple modes in teaching the innovation process. *INFORMS Transactions on Education*, 20(2), 73-84.

Seidman, G. (2017). Does SDG 3 have an adequate theory of change for improving health systems performance? *Journal of global health*, 7(1).

Sepasgozar, S. M., Davis, S. R., Li, H., & Luo, X. (2018). Model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for new construction technologies: Thematic analysis based on Australian and US practices. *Journal of Management in Engineering*, 34(3), 05018005.

Şeşen, H., & Pruett, M. (2014). The impact of education, economy and culture on entrepreneurial motives, barriers and intentions: A comparative study of the United States and Turkey. *The Journal of Entrepreneurship*, 23(2), 231-261.

Shahrzad, B., Kiyomars, Z., Moisan, D., Lorgani, S. H., & Maryam, S. (2010).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Creativity Behavior of Payame Noor-Kermanshah University Studen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Quarterly *Journal of Research and Programming in Higher Education*, 57, 105-185.

Shane, S., (2003). *A General Theory of Entrepreneurship: the Individual-Opportunity Nexus*. Edward Elgar, Cheltenham, UK.

Shane, S., Locke, E. A., & Collins, C. J.(2003). Entrepreneurial motiv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2), 257-279.

Shane, S. A., & Venkataraman, S. (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Shani, S., & Yemini, M. (2022). Is educational entrepreneurship context-dependent? Insights from directors of Israeli local education authorities. *Leadership and Policy in Schools*, 1-16.

Shapero, A. (1975). The displaced, uncomfortable entrepreneur. *Psychology Today*, 9(6), 83-88.

Shapero, A. (1982).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 A. Kent, C. A. Kent, et al. (Eds.), The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Shapero, A., & Sokol, L. (1982).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 A. Kent, D. L. Sexton, & K. H. Vesper (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pp. 72 - 90).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Siegel, D. S., & Phan, P. (2005).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Advances in the Study of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16, 1 - 38.

Sirelkhatim, F., & Gangi, Y. (2015).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curricula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Cogent Business & Management*, 2(1), 1052034.

Skorikov, V. (2007). Continuity in adolescent career preparation and its effects on adjus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1), 8-24.

Smeltzer, L. R., Van Hook, B. L., & Hutt, R. W. (1991). Analysis and use of advisors as information sources in venture startup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9, 10-20.

Smith, C., Smith, J. B., & Shaw, E. (2017). Embracing digital networks: Entrepreneurs' social capital onlin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2(1), 18-34.

Solomon, G. (2007). An examina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4(2), 168-182.

Soomro, K., Bhutta, M. N. M., Khan, Z., & Tahir, M. A. (2019). Smart city big data analytics: An advanced review.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Data Mining and Knowledge Discovery*, 9(5), e1319.

Souitaris, V., Zerbinati, S., & Al-Laham, A. (2007). Do entrepreneurship programmes rais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The effect of learning, inspiration and resour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2(4): 566 - 591.

Speas, C. E. (1963),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Spencer, L. M., & Spencer, P. S. M. (2008).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John Wiley & Sons.

Stehman, S. V., & Czaplewski, R. L. (1998). Design and analysis for thematic map accuracy assessment: fundamental principles.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64(3), 331-344.

Stein, D., & Valters, C. (2012). Understanding theory of chang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Stel, A. V., Carree, M., & Thurik, R. (2005).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activity on national economic growth. *Small Business Economics*, 24, 311-321.

Stevenson, H. H. (1983). *A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9-384-131, Boston.

Stevenson, H. H., & Jarillo, J. C. (1986). Preserving entrepreneurship as companies grow. *The Journal of Business Strategy*, 6, 10-21.

Stevenson, H. H., Roberts, M. J., & Grousbeck, H. I. (1989). New business ventures and the entrepreneur.

Stevenson, R. L., Schmitz, B. E., & Delp, E. J. (1994). Discontinuity preserving regularization of inverse visual problems. *IEEE Transactions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24(3), 455-469.

Storey, D. J. (1994). *Understanding the small business sector*. London: Routledge

Streiner, D. L. (2005). Finding our way: an introduction to path analysis.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0(2), 115-122.

Sugheir, J. S., Baughn, C. C., & Neupert, K. E. (2013). Unemployment and new firm formation during the great recession: the impact of

prior levels of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s Perspectives*, 8(2).

Sundah, D. I. E., Langi, C., & Maramis, D. R. S. (2018). Developing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for successful business model canvas. *In Journal of Physics: Conference Series* (Vol. 953, No. 1, p. 012040). IOP Publishing.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an introduction to vocational development.

Swanson, J. L., & Tokar, D. M. (1991).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1), 92-106.

Talan, T., Doğan, Y., & Batdı, V. (2020). Efficiency of digital and non-digital educational games: A comparative meta-analysis and a meta-thematic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on Technology in Education*, 52(4), 474-514.

Taylor, J., Sims, J., & Haines, T. P. (2012). The influence of protection, palliation and costs on mobility optimization of residents in nursing homes: A thematic analysis of discours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9(11), 1364-1374.

Taylor, M. P. (1996). Earnings, independence or unemployment: why become self-employed?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8, 253 - 266.

Teodorowski, P., Rodgers, S. E., Fleming, K., & Frith, L. (2022). Use of the Hashtag# DataSavesLives on Twitter: Exploratory and Thematic Analysis.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24(11), e38232.

Thelen, K. (1999).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 369 - 404.

Thompson, E. R. (2009). Individual entrepreneurial intent: construct clarification and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ly reliable metric.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669 - 694.

Thorne, S. (2000). Data analysis in qualitative research. *Evidence-based Nursing*, 3(3), 68-70.

Thurik, R., Audretsch, D., Carree, M., & Van Stel, A. (2008). Does self-employment reduce unemploy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673 - 686

Timmons, J. (1994), *New Venture Creation :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4th Edition, Mc-Graw Hill, New York.

Timmons, J. A. (1999).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Boston, MA: Irwin McGraw-Hill.

Tipu, S. A. A. (2019). Business plan competitions in developed and emerging economies: What do we still need to know?. *Journal of Entrepreneurship in Emerging Economies*, 11(1), 81-97.

Tkachev, A., & Kolvereid, L. (1999). Self-employment intentions among Russian students.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11(3), 269 - 280

Town, J. M., Falkenström, F., Abbass, A., & Stride, C. (2022). The anger-depression mechanism in dynamic therapy: Experiencing previously avoided anger positively predicts reduction in depression via working alliance and insigh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9(3), 326.

Ucbasaran, D., Westhead, P., & Wright, M. (2009). The extent and nature of opportuㄱnity identification by experienced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4(2), 99 - 115.

Unger, J. M., Rauch, A., Frese, M., & Rosenbusch, N. (2011). Human

capital and entrepreneurial success: A meta-analytical review.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6(3), 341 - 358.

Valerio, A., Parton, B., & Robb, A. (2014).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round the world: dimensions for success.

Van Gelderen, M., Brand, M., Van Praag, M., Bodewes, W., Poutsma, E., & Van Gils, A. (2008), Explain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by mean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3(6), 538-559.

Van Stel, A., & Suddle, K. (2008). The impact of new firm form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in the Netherlands. *Small Business Economics*, 30(1), 31-47.

Veciana, J. M., Aponte, M., & Urbano, D. (2005).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a two countries comparis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2), 165 - 182.

Veciana, J. M., & Urbano, D., (2008). The institutional approach to entrepreneurship research: An introduc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4, 365 - 379.

Venkataraman, S. (1997). The Distinctive Domain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An Editor's Perspective. In *Advances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e, and Growth*. 3. eds. J. Katz & R. Brockhaus. Greenwich, CT: JAI Press. pp. 119-138.

Verduyn, K., & Jansen, P. (2005). Entrepreneurial myths. Using biographies and (ante)narrative research method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3(3), 229 - 244.

Von Graevenitz, G., Harhoff, D., & Weber, R. (2010),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76, 90-112.

Wadhwani, R. D., & Viebig, C. (2021). Social imaginarie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1800 - 2020.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20(3), 342-360.

Wagner, J., & Sternberg, R. (2004). Start-up activiti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e regional milieu: lessons for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ies from German micro data. *Annals of Regional Science*, 38(2), 219 - 240.

Walinga, J. (2008). Toward a theory of change readiness: The roles of appraisal, focus, and perceived control.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44(3), 315-347.

Wang, C. L. (2008). Entrepreneurial Orientation, Learning Orientation and Firm Performance.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32(4), 635-657.

Wang, P., & Huang, Y. (2020). Give me what I want: identifying the support needs of college student entrepreneurs. *Frontiers in Psychology*, 11, 1428.

Wang, Y., Derakhshan, A., & Pan, Z. (2022). Positioning an agenda on a loving pedagogy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onceptualization, practice, and research. *Frontiers in Psychology*, 13, 894190.

Warner, M., White, G., Robinson, J., Cairney, J., & Fraser-Thomas, J. (2019). Study proToCol for a 2-year longitudinal study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at an urban sport for development facility. *BMC Public Health*, 19, 1-14.

Watling, C. J., & Lingard, L. (2012). Grounded theory in medical education research. AMEE Guide No. 70. *Medical Teacher*, 34(10),

850-861.

Wei, X., Liu, X., & Sha, J. (2019). How does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fluence the students' innovation? Testing on the multiple mediation model. *Frontiers in psychology*, 10, 1557.

Weiming, L., Chunyan, L., & Xiaohua, D. (2016). Ten year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Chinese universities: Evolution, problems, and system building. *Chinese Education & Society*, 49(3), 198-216.

Weiss, C. H. (1995). *Nothing as Practical as Good Theory: Exploring Theory-Based Evaluation for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for Children and Families*. Washington D.C.: The Aspen Institute

Welsh, D. H., & Tullar, W. L. (2014). A model of cross campus entrepreneurship and assessment. *Entrepreneurship Research Journal*, 4(1), 95-115.

Wennekers, S., Van Wennekers, A., Thurik, R., & Reynolds, P. (2005). Nascent entrepreneurship and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293-309.

Whittington, R. (2006). Learning more from failure: Practice and process. *Organization Studies*, 27(12), 1903-1906.

Wiklund, J. (1999). The sustainability of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performance relation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4(1), 37-48.

Williams, D. R. (2004). Effects of childcare activities on the duration of self-employment in Europ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8, 467 - 485

Wilson, F., Kickul, J., & Marlino, D. (2007).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87 - 406.

Winer, J. L. (1992). The early history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4), 369-375.

Wong, P. K., Ho, Y. P. & Autio, E. (2005),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 evidence from GEM data. *Small Business Economics*, 24(30), 335-350.

Wright. (1934.) The Method of Path Coefficients. *The Annals of Mathmatical Statistics*. 5(3): 161-215.

Wu, W. Y., Chang, M. L., & Chen, C. W. (2008). Promoting innovation through the accumulation of intellectual capital, social capital,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R&d Management*, 38(3), 265-277.

Yang, Q., Chen, J., Yang, L., & Liu, Z. (2021). How to develop entrepreneurial talent more effectively? A comparison of different entrepreneurship educational methods. *Frontiers in Psychology*, 12, 644113.

Yu, C. W. (2018). Understanding the ecosystems of Chinese and Americ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21(2), 1-18.

Zemke, R., & Kramlinger, T. (1982). Figuring things out: A trainer's guide to needs and task analysis.

Zhao, D., & Li, J. (2011). A review of research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policy and entrepreneurial activities. *Foreign Economic Management*, 33, 19 - 26.

Zhao, H. S., Seibert, S. E., & Hills, G. E. (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1265 - 1272.

Zhou, M., & Xu, H. (2012). A review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in China. *Administrative Sciences*, 2(1), 82-98.

Zhu, H. B., Zhang, K., & Ogbodo, U. S. (2017). Review o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Chinese universities during 2010-2015. *Eurasia Journal of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13(8), 5939-5948.

[부록1]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이 기업가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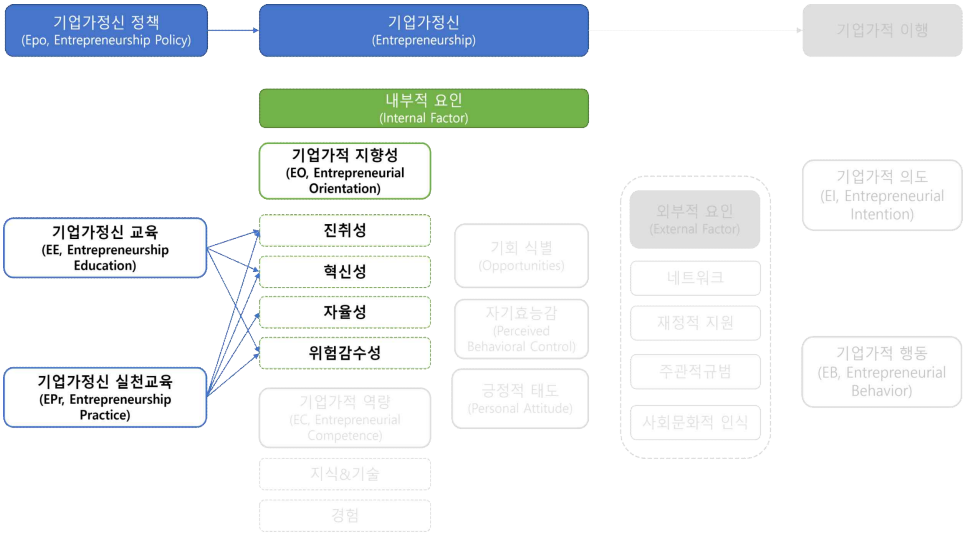
기업가정신 정책이 기업가적 지향성(EO)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가정신 실천교육(EPr)을 받으면 진취성과 혁신성, 자율성, 위험감수성이 증가한다. 진취성은 기업가정신 교육(EE)과 기업가정신 실천교육(EPr)을 받으면 증가하게 되는데, EPr의 계수값이 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혁신성과 위험감수성도 마찬가지로 기업가정신 교육의 계수보다는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의 계수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더 높았다. 위험감수성의 증가요인으로는 인식개선 정책도 포함되었지만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의 수혜가 가장 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성은 기업가정신 교육을 수혜받으면 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었다. 자율성도 다른 기업가적 지향성처럼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을 수혜받은 경우 양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35] 기업가정신 정책이 기업가적 지향성(EO)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변수	진취성	혁신성	자율성	위험감수성
기업가정신 교육	0.0667**	0.0611**	-0.026	0.0726**
	(2.02)	(1.84)	(-0.80)	(2.19)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0.2608***	0.3002***	0.1270***	0.2738***
	(7.26)	(8.33)	(3.56)	(7.57)
인식개선	-0.0684	0.0670	0.0719	0.1307***
	(-1.27)	(1.25)	(1.33)	(2.44)
성별	0.1672***	0.2932***	0.0398	0.2086***
	(4.77)	(8.34)	(1.14)	(5.92)
월소득	0.0332**	0.0379***	0.0877***	0.0429***
	(2.30)	(2.62)	(6.08)	(2.97)

note) *p<0.01:***, p<0.05:**, p<0.1:**

[그림 32] 기업가정신 정책과 기업가적 지향성 간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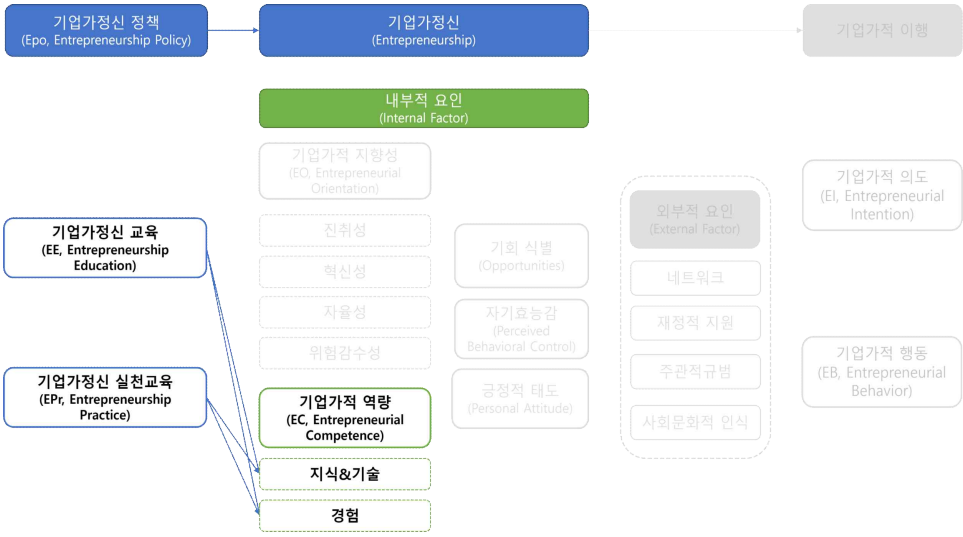
기업가정신 정책이 기업가적 역량(EC)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의 계수값이 비슷하게 분석되었으며, 통계적 유의미성도 1% 미만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36] 기업가정신 정책이 기업가적 역량(EC)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변수	지식&기술	경험
기업가정신 교육	0.2345*** (7.08)	0.1176*** (3.53)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01890*** (5.25)	0.2321*** (6.40)
인식개선	0.2324*** (4.36)	-0.1094** (-2.05)
성별	-0.0592* (-1.69)	0.1616*** (4.58)
월소득	0.0524*** (3.61)	0.0184 (1.27)

note) *p<0.01:***, p<0.05:**, p<0.1:**

[그림 33] 기업가정신 정책과 기업가적 역량 간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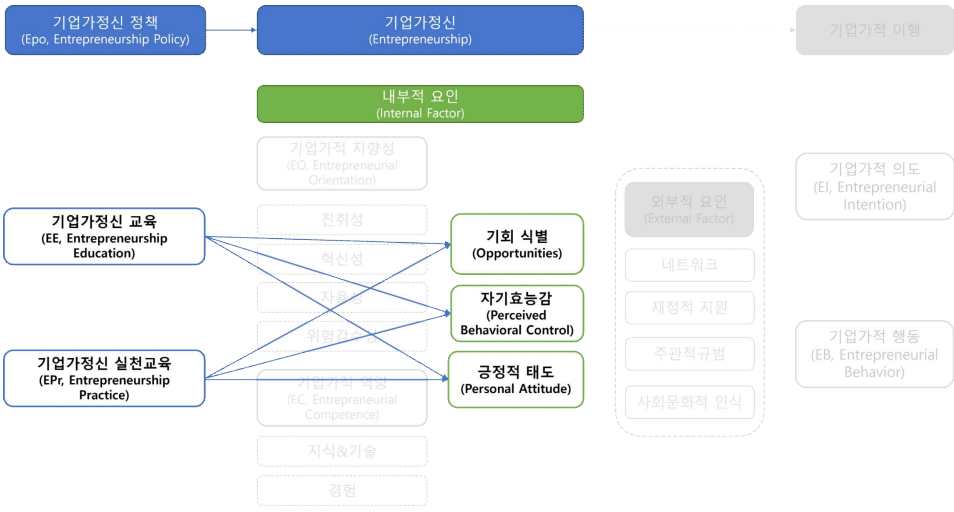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기회 식별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는 다른 기업가정신 정책보다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태도로는 인식개선 정책과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의 계수가 더 높았으나 EPr도 양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7] 기업가정신 정책이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변수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기업가정신 교육	0.1044*** (3.16)	0.1030*** (3.15)	0.5191*** (5.70)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0.2533*** (7.05)	0.2199*** (6.22)	0.4674*** (3.78)
인식개선	0.0048 (0.09)	0.0463 (0.89)	0.6932*** (3.32)
성별	0.1638*** (4.68)	0.1575*** (4.55)	-0.0049 (-0.14)
월소득	0.0215 (1.49)	0.0673*** (4.74)	0.0687*** (4.72)

note) *p<0.01:***, p<0.05:**, p<0.1:**

[그림 34] 기업가정신 정책과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간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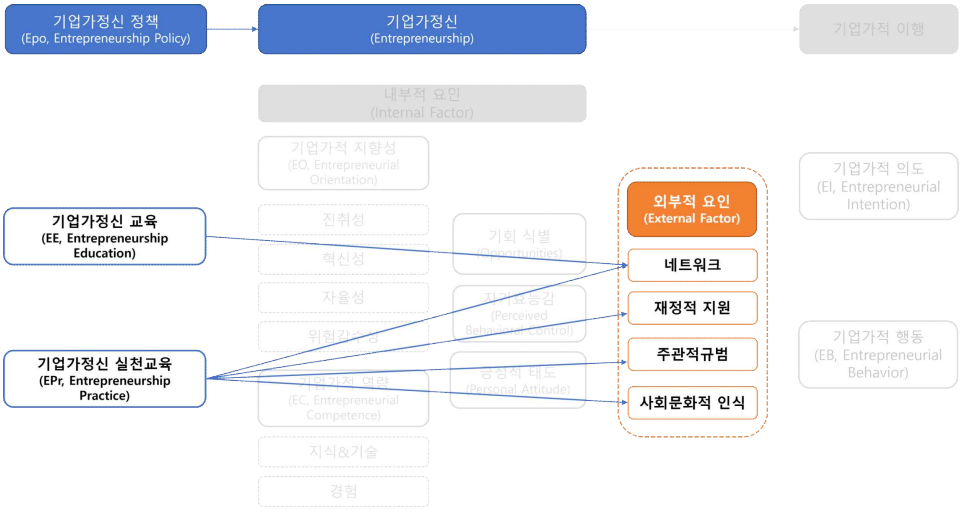
네트워크, 주관적 규범, 사회문화적 인식도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을 수혜받으면 양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모두 각각의 식에서 계수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즉, 네트워크를 넓히고 주관적 규범과 사회문화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필수적일 것이다. 다른 정책으로는 인식개선 정책도 효과적이었으나 계수값이 낮았다.

[표 38] 기업가정신 정책이 외부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변수	네트워크	주관적 규범	사회문화적 인식
기업가정신 교육	0.0749** (2.29)	-0.0378 (-1.00)	-0.6274*** (-6.50)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0.6252*** (5.33)	1.6308*** (9.49)	0.4029*** (3.22)
인식개선	0.2656*** (3.88)	1.1572*** (4.84)	0.2375*** (3.14)
성별	-0.1292*** (-3.68)	-0.0792** (-1.96)	-0.0257 (-0.73)
월소득	0.0333*** (2.29)	0.2914*** (17.21)	-0.0195 (-1.35)

note) *p<0.01:***, p<0.05:**, p<0.1:**

[그림 35] 기업가정신 정책과 외부적 요인 간 메커니즘



기업가정신이 기업가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이 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가정신 교육은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도에는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네트워크와 주관적 규범이 의도에 양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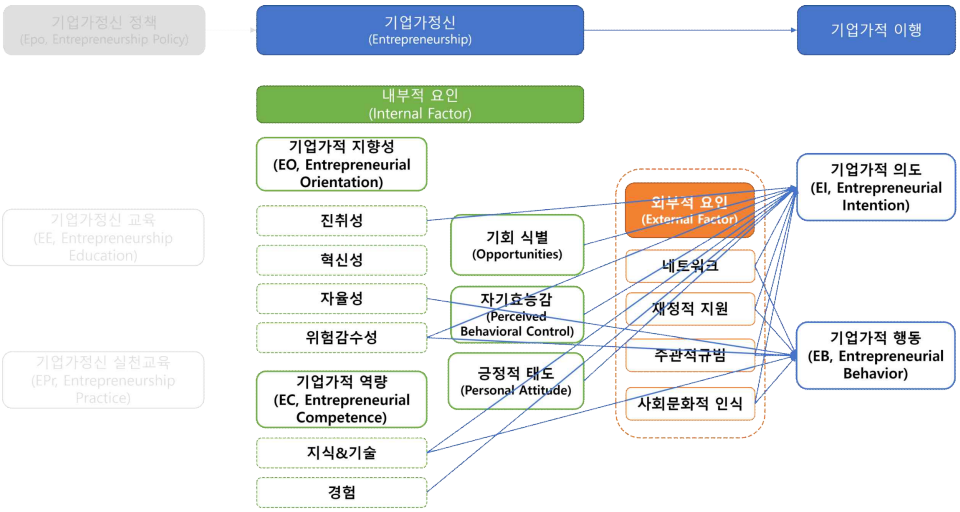
기업가정신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도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하다. 외부적 요인인 네트워크, 주관적 규범, 사회문화적 인식이 양의 효과가 크게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가정신 실천교육과 인식개선이 행동에 양의 효과를 미쳤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39] 기업가정신이 기업가적 의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변수	기업가적 의도	기업가적 행동
기업가정신 교육	0.0704 (1.23)	0.0710 (0.98)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1.2348*** (8.71)	1.3737*** (9.25)
인식개선	0.9889*** (4.15)	1.1321*** (4.51)
진취성	0.1258*** (4.91)	0.0552* (1.69)
혁신성	-0.0111 (-0.41)	-0.0185 (-0.54)
자율성	0.0402* (1.65)	0.0981*** (3.18)
위험감수성	-0.0071 (-0.29)	0.0141 (0.46)
지식&기술	0.1109*** (4.63)	0.1599*** (5.26)
경험	0.0492** (2.10)	0.0256 (0.86)
기회 식별	0.0722*** (2.92)	0.0164 (0.51)
자기효능감	0.0550** (1.97)	-0.0134 (-0.38)
긍정적 태도	0.1558*** (5.64)	0.0649* (1.90)
네트워크	0.9102*** (12.39)	1.1598*** (8.05)
주관적 규범	0.8578*** (14.28)	2.1886*** (21.28)
사회문화적 인식	0.2437*** (9.28)	0.8692*** (5.05)
재정적 지원	0.8224*** (10.22)	1.0048*** (9.44)
성별	-0.1500** (-2.43)	-0.2015** (-2.53)
소득	-0.1602*** (-5.91)	0.5520*** (13.92)

note) *p<0.01:***, p<0.05:**, p<0.1:**

[그림 36]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적 이행 간 메커니즘



이렇게,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정신 정책 중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에 의해서 더 강화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가적 의도와 행동은 기업가정신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이 중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들 외부적 요인의 상승은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을 수혜 받을수록 더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외부적 요인과 기업가정신 내부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기업가적 지향성과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기업가적 의도에 외부적 요인 중 네트워크의 조절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의 네트워크와의 조절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부적 요인 중 주관적 규범 또한 기업가적 지향성의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의 조절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인식의 조절효과는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에서 크게 분석되었다.

[부록2] 경로분석 결과

[표 40] 모델 I 경로분석 결과

구분	경로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 진취성	0.2548** (1.91)	0.1856
	기업가정신 교육 → 혁신성	0.1563** (1.98)	0.1918
	기업가정신 교육 → 자율성	-0.1327 (-0.47)	-0.0459
	기업가정신 교육 → 위험감수성	0.1670** (2.36)	0.2283
	기업가정신 교육 → 지식&기술	0.2065*** (7.59)	0.1734
	기업가정신 교육 → 경험	0.1430*** (1.67)	0.1618
	기업가정신 교육 → 기회 식별	0.1901*** (3.13)	0.1303
	기업가정신 교육 → 자기효능감	0.1674*** (2.81)	0.1273
	기업가정신 교육 → 긍정적 태도	0.1588*** (2.65)	0.1256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진취성	0.3263*** (7.31)	0.2704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혁신성	0.2483*** (8.07)	0.2777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자율성	0.2185*** (3.91)	0.2377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위험감수성	0.3393*** (7.78)	0.2749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지식&기술	0.2768*** (6.01)	0.2578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경험	0.2385*** (4.98)	0.2496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기회 식별	0.3203*** (7.09)	0.2683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자기효능감	0.3451*** (5.60)	0.2540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긍정적 태도	0.2444** (1.85)	0.2178
인식개선	인식개선 → 진취성	-0.1433 (-0.98)	-0.1091

	인식개선 → 혁신성	0.1584 (1.32)	0.1236
	인식개선 → 자율성	0.1609 (1.40)	0.1131
	인식개선 → 위험감수성	0.1073** (2.43)	0.1227
	인식개선 → 지식&기술	0.2246*** (5.33)	0.1496
	인식개선 → 경험	0.1208*** (3.03)	0.1282
	인식개선 → 기회 식별	0.1169 (0.38)	0.1003
	인식개선 → 자기효능감	0.1250 (0.67)	0.1006
	인식개선 → 긍정적 태도	-0.1225 (-0.65)	-0.1006
인프라 지원	인프라 지원 → 진취성	0.1517* (1.76)	0.1174
	인프라 지원 → 혁신성	0.1053 (0.18)	0.1001
	인프라 지원 → 자율성	0.1747*** (2.59)	0.1257
	인프라 지원 → 위험감수성	-0.1002 (-0.10)	-0.1000
	인프라 지원 → 지식&기술	0.2794*** (6.42)	0.1635
	인프라 지원 → 경험	0.2315*** (4.98)	0.1493
	인프라 지원 → 기회 식별	0.1397 (1.35)	0.1133
	인프라 지원 → 자기효능감	-0.1427* (-1.74)	-0.1172
	인프라 지원 → 긍정적 태도	0.1464** (2.04)	0.1201
규제개선	규제개선 → 진취성	-0.1004 (-0.13)	0.1001
	규제개선 → 혁신성	0.1008 (0.03)	0.1000
	규제개선 → 자율성	0.1262 (0.84)	0.1008
	규제개선 → 위험감수성	0.1714** (2.26)	0.1223
	규제개선 → 지식&기술	-0.1000 (-0.02)	0.1000
	규제개선 → 경험	0.1893*** (3.12)	0.1309

	규제개선 → 기회 식별	0.1001 (0.05)	0.1000
	규제개선 → 자기효능감	0.1606** (2.28)	0.1225
	규제개선 → 긍정적 태도	0.2472*** (10.02)	0.1990
기업가적 지향성 & 기업가적 의도	진취성 → 의도	0.1189*** (4.41)	0.1514
	혁신성 → 의도	0.1008 (0.31)	0.0379
	자율성 → 의도	0.1049** (2.00)	0.1210
	위험감수성 → 의도	0.1496* (1.58)	0.1644
기업가적 역량 & 기업가적 의도	지식&기술 → 의도	0.1273*** (12.38)	0.1112
	경험 → 의도	0.1033** (2.45)	0.2131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 기업가적 의도	기회 식별 → 의도	0.2310*** (5.67)	0.3569
	자기효능감 → 의도	0.2213* (1.44)	0.3439
	긍정적 태도 → 의도	0.2281*** (8.43)	0.3767
기업가적 지향성 & 기업가적 행동	진취성 → 행동	0.1002* (2.14)	0.1314
	혁신성 → 행동	0.1001 (0.58)	0.0693
	자율성 → 행동	0.1007*** (3.62)	0.1378
	위험감수성 → 행동	0.1001* (1.59)	0.1006
기업가적 역량 & 기업가적 행동	지식&기술 → 행동	0.1187*** (10.35)	0.1944
	경험 → 행동	0.1001 (1.02)	0.2009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 기업가적 행동	기회 식별 → 행동	0.1568*** (3.00)	0.1301
	자기효능감 → 행동	0.1060*** (2.68)	0.1268
	긍정적 태도 → 행동	0.1172*** (7.78)	0.1709
기업가적 지향성 & 외부적 요인	진취성 → 네트워크	0.1432*** (3.32)	0.1522
	혁신성 → 네트워크	0.1388*** (2.99)	0.1511

	자율성 → 네트워크	0.1242* (1.84)	0.1125
	위험감수성 → 네트워크	0.1122** (2.42)	0.1328
	진취성 → 주관적 규범	0.1124* (1.74)	0.1215
	혁신성 → 주관적 규범	0.1655*** (2.99)	0.1508
	자율성 → 주관적 규범	0.1322 (0.89)	0.1335
	위험감수성 → 주관적 규범	0.1201*** (3.42)	0.1356
	진취성 → 사회적인식	0.0895** (2.78)	0.0776
	혁신성 → 사회적인식	0.0887*** (2.98)	0.0801
	자율성 → 사회적인식	0.0799** (2.42)	0.0782
	위험감수성 → 사회적인식	0.0811* (1.45)	0.0688
	진취성 → 재정적 지원	0.0899* (1.81)	0.0901
	혁신성 → 재정적 지원	0.1008** (2.31)	0.1188
	자율성 → 재정적 지원	0.0848* (1.42)	0.0799
	위험감수성 → 재정적 지원	0.0778 (1.02)	0.0668
기업가적 역량 & 외부적 요인	지식&기술 → 네트워크	0.0998* (1.01)	0.1021
	지식&기술 → 주관적 규범	0.0887 (0.89)	0.0958
	지식&기술 → 사회문화적 인식	0.0552 (0.85)	0.0448
	지식&기술 → 재정적 지원	0.1288*** (3.52)	0.1524
	경험 → 네트워크	0.1322*** (4.03)	0.1500
	경험 → 주관적 규범	0.1120** (2.21)	0.1328
	경험 → 사회문화적 인식	0.1230** (2.18)	0.1532
	경험 → 재정적 지원	0.1425* (1.87)	0.1647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기회 식별 → 네트워크	0.1432*** (4.43)	0.1508

긍정적 태도 & 외부적 요인	자기효능감 → 네트워크	0.1328*** (3.88)	0.1596
	긍정적 태도 → 네트워크	0.1522*** (5.22)	0.1702
	기회 식별 → 주관적 규범	0.1100*** (4.48)	0.1348
	자기효능감 → 주관적 규범	0.1022*** (3.17)	0.1201
	긍정적 태도 → 주관적 규범	0.1242* (1.46)	0.1421
	기회 식별 → 사회문화적 인식	0.1542 (0.84)	0.1652
	자기효능감 → 사회문화적 인식	0.1245 (0.79)	0.1388
	긍정적 태도 → 사회문화적 인식	0.1728*** (4.02)	0.2047
	기회 식별 → 재정적 지원	0.1022** (2.28)	0.1344
	자기효능감 → 재정적 지원	0.0884 (0.45)	0.0915
	긍정적 태도 → 재정적 지원	0.0859 (0.85)	0.0927
외부적 요인 & 의도/행동	네트워크 → 의도	0.2881*** (3.82)	0.4282
	주관적 규범 → 의도	0.3212*** (3.51)	0.3922
	사회적인식 → 의도	0.2558* (1.20)	0.2445
	재정적 지원 → 의도	0.2448* (1.12)	0.2512
	네트워크 → 행동	0.2118** (1.82)	0.2185
	주관적 규범 → 행동	0.1645 (0.99)	0.1422
	사회적인식 → 행동	0.1822 (1.02)	0.1652
	재정적 지원 → 행동	0.2744** (2.70)	0.2988

note) *p<0.01:***, p<0.05:**, p<0.1:**

[표 41] 모델 II 경로분석 결과

구분	경로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 진취성	0.1502** (1.86)	0.1170
	기업가정신 교육 → 혁신성	0.1507** (1.89)	0.1172
	기업가정신 교육 → 지식&기술	0.1740*** (6.72)	0.1618
	기업가정신 교육 → 경험	0.1430*** (1.67)	0.1618
	기업가정신 교육 → 기회 식별	0.1819*** (3.02)	0.1276
	기업가정신 교육 → 자기효능감	0.1623*** (2.76)	0.1252
	기업가정신 교육 → 긍정적 태도	0.1588*** (2.65)	0.1256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진취성	0.3197*** (7.49)	0.2170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혁신성	0.2435*** (8.35)	0.2762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자율성	0.2109*** (3.82)	0.2353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위험감수성	0.3308*** (7.81)	0.2723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지식&기술	0.2740*** (6.72)	0.2618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경험	0.2385*** (4.98)	0.2479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기회 식별	0.3114*** (7.18)	0.2655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자기효능감	0.3413*** (5.75)	0.2526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긍정적 태도	0.2444** (1.85)	0.2178
인식개선	인식개선 → 위험감수성	0.1929** (2.15)	0.1196
	인식개선 → 지식&기술	0.2930*** (4.63)	0.1459
	인식개선 → 경험	0.1208*** (3.03)	0.1282

인프라 지원	인프라 지원 → 자율성	0.1673*** (2.51)	0.1232
	인프라 지원 → 지식&기술	0.1794*** (6.20)	0.1711
	인프라 지원 → 경험	0.2315*** (4.98)	0.1493
	인프라 지원 → 긍정적 태도	0.1464** (2.04)	0.1201
규제개선	규제개선 → 위험감수성	0.1579** (1.97)	0.1181
	규제개선 → 경험	0.1893*** (3.12)	0.1309
	규제개선 → 자기효능감	0.1455** (2.15)	0.1188
	규제개선 → 긍정적 태도	0.2472*** (10.02)	0.1990
기업가적 지향성 & 기업가적 의도	진취성 → 의도	0.1164*** (7.18)	0.1709
	자율성 → 의도	0.1002 (0.86)	0.1008
기업가적 역량 & 기업가적 의도	지식&기술 → 의도	0.1273* (1.28)	0.1112
	경험 → 의도	0.1033*** (1.45)	0.1181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 기업가적 의도	기회 식별 → 의도	0.2135*** (6.47)	0.2588
	긍정적 태도 → 의도	0.2227*** (8.42)	0.2765
기업가적 지향성 & 기업가적 행동	자율성 → 행동	0.1005*** (2.99)	0.1306
기업가적 역량 & 기업가적 행동	지식&기술 → 행동	0.1169*** (9.19)	0.1854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 기업가적 행동	기회 식별 → 행동	0.1001* (1.54)	0.1005
	자기효능감 → 행동	0.1002* (1.21)	0.1124
	긍정적 태도 → 행동	0.1160*** (7.26)	0.1660
기업가적 지향성 & 외부적 요인	진취성 → 네트워크	0.1636*** (6.07)	0.1706
	혁신성 → 네트워크	0.1430*** (3.91)	0.1474
	위험감수성 → 네트워크	0.1755*** (7.50)	0.1833

	혁신성 → 주관적 규범	0.1005* (1.54)	0.1169
	위험감수성 → 주관적 규범	0.1007** (1.96)	0.1222
	진취성 → 사회적인식	0.1352*** (4.02)	0.1442
	혁신성 → 사회적인식	0.1642*** (7.22)	0.1802
	자율성 → 사회적인식	0.1333** (7.21)	0.1637
	혁신성 → 재정적 지원	0.1112*** (3.29)	0.1348
기업가적 역량 & 외부적 요인	지식&기술 → 재정적 지원	0.1002 (0.91)	0.1008
	경험 → 네트워크	0.1936*** (9.44)	0.1934
	경험 → 주관적 규범	0.1007** (2.06)	0.1207
	경험 → 사회문화적 인식	0.1397*** (4.98)	0.1448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 외부적 요인	기회 식별 → 네트워크	0.1251*** (2.49)	0.1279
	자기효능감 → 네트워크	0.1328*** (3.88)	0.1596
	긍정적인식 → 네트워크	0.1522*** (5.22)	0.1702
	기회 식별 → 주관적 규범	0.1100*** (4.48)	0.1348
	자기효능감 → 주관적 규범	0.1003 (0.68)	0.1007
	긍정적 태도 → 사회문화적 인식	0.2850*** (9.58)	0.2780
	기회 식별 → 재정적 지원	0.1109*** (3.24)	0.1334
외부적 요인 & 의도/행동	네트워크 → 의도	0.3429*** (18.86)	0.4677
	주관적 규범 → 의도	0.4012*** (16.79)	0.4493
	네트워크 → 행동	0.2190*** (9.97)	0.1905
	재정적 지원 → 행동	0.2244*** (4.28)	0.2388

note) *p<0.01:***, p<0.05:**, p<0.1:**

[표 42] 모델 III 경로분석 결과

구분	경로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 진취성	0.2212*** (2.14)	0.1542
	기업가정신 교육 → 혁신성	0.1652*** (2.01)	0.1448
	기업가정신 교육 → 위험감수성	0.1670** (1.86)	0.1479
	기업가정신 교육 → 지식&기술	0.2067*** (7.86)	0.1734
	기업가정신 교육 → 경험	0.1430*** (1.67)	0.1618
	기업가정신 교육 → 기회 식별	0.1819*** (3.02)	0.1276
	기업가정신 교육 → 자기효능감	0.1623*** (2.76)	0.1252
	기업가정신 교육 → 긍정적 태도	0.1633*** (2.93)	0.1275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진취성	0.3152** (7.36)	0.2670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혁신성	0.3389*** (8.22)	0.2748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자율성	0.2109*** (3.82)	0.2353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위험감수성	0.3166*** (7.45)	0.2678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지식&기술	0.2770*** (6.21)	0.2578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경험	0.2385*** (4.98)	0.2479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기회 식별	0.3114*** (7.18)	0.2655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자기효능감	0.3413*** (5.75)	0.2526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긍정적 태도	0.2410** (1.80)	0.2008
인식개선	인식개선 → 지식&기술	0.2248*** (5.37)	0.1496
	인식개선 → 경험	0.1208*** (3.03)	0.1282
인프라 지원	인프라 지원 → 자율성	0.1673*** (2.51)	0.1221
	인프라 지원 → 지식&기술	0.2796*** (6.77)	0.1636

	인프라 지원 → 경험	0.2315*** (4.98)	0.1493
규제개선	규제개선 → 경험	0.1893*** (3.12)	0.1309
	규제개선 → 긍정적 태도	0.2472*** (10.02)	0.1990
기업가적 지향성 & 기업가적 의도	진취성 → 의도	0.1102*** (4.39)	0.1442
	위험감수성 → 의도	0.1552** (1.62)	0.1528
기업가적 역량 & 기업가적 의도	지식&기술 → 의도	0.1236*** (10.45)	0.1973
	경험 → 의도	0.1125*** (2.45)	0.1982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 기업가적 의도	기회 식별 → 의도	0.2046*** (3.00)	0.2201
	자기효능감 → 의도	0.2122** (1.55)	0.3119
	긍정적 태도 → 의도	0.2216*** (8.05)	0.1727
기업가적 지향성 & 기업가적 행동	자율성 → 행동	0.1005*** (2.99)	0.1306
기업가적 역량 & 기업가적 행동	지식&기술 → 행동	0.1169*** (9.19)	0.1854
	경험 → 행동	0.1221** (1.42)	0.1923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 기업가적 행동	기회 식별 → 행동	0.1001** (1.54)	0.1005
	자기효능감 → 행동	0.1002** (1.21)	0.1124
	긍정적 태도 → 행동	0.1160*** (7.26)	0.1660
기업가적 지향성 & 외부적 요인	진취성 → 네트워크	0.1577*** (5.48)	0.1640
	혁신성 → 네트워크	0.1548*** (5.09)	0.1601
	혁신성 → 주관적 규범	0.1711*** (3.08)	0.1610
	위험감수성 → 주관적 규범	0.1422*** (3.50)	0.1520
	혁신성 → 사회적인식	0.1028*** (3.02)	0.1108
기업가적 역량 & 외부적 요인	지식&기술 → 재정적 지원	0.1288*** (3.52)	0.1524
	경험 → 네트워크	0.1320*** (3.82)	0.1522

	경험 → 사회문화적 인식	0.1225** (1.90)	0.1488
	경험 → 재정적 지원	0.1318** (1.92)	0.1548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 외부적 요인	기회 식별 → 네트워크	0.1321*** (3.35)	0.1358
	자기효능감 → 네트워크	0.1249*** (2.24)	0.1231
	긍정적 태도 → 네트워크	0.2734*** (6.66)	0.2495
	기회 식별 → 주관적 규범	0.1194*** (5.69)	0.1571
	자기효능감 → 주관적 규범	0.1033** (1.83)	0.1008
	긍정적 태도 → 사회문화적 인식	0.2994*** (10.47)	0.3921
외부적 요인 & 의도/행동	네트워크 → 의도	0.2429*** (8.86)	0.4677
	주관적 규범 → 의도	0.3012*** (6.79)	0.4493
	사회문화적 인식 → 의도	0.2280** (1.58)	0.2558
	재정적 지원 → 의도	0.2319** (1.60)	0.2601
	네트워크 → 행동	0.2110*** (2.79)	0.2482
	재정적 지원 → 행동	0.2684*** (3.18)	0.3001

note) *p<0.01:***, p<0.05:**, p<0.1:**

[표 43] 모델 III 분석 결과 분해

구분	경로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 진취성	0.2212*** (2.14)	0.2202	0.0010
	기업가정신 교육 → 혁신성	0.1652*** (2.01)	0.1642	0.0010
	기업가정신 교육 → 위험감수성	0.1670** (1.86)	0.1662	0.0008
	기업가정신 교육 → 지식&기술	0.2067*** (7.86)	0.2062	0.0005
	기업가정신 교육 → 경험	0.1430*** (1.67)	0.1421	0.0009
	기업가정신 교육 → 기회 식별	0.1819*** (3.02)	0.1810	0.0009
	기업가정신 교육 → 자기효능감	0.1623*** (2.76)	0.1621	0.0002
	기업가정신 교육 → 긍정적 태도	0.1633*** (2.93)	0.1631	0.0002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진취성	0.3152** (7.36)	0.3142	0.0010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혁신성	0.3389*** (8.22)	0.3378	0.0011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자율성	0.2109*** (3.82)	0.2101	0.0008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위험감수성	0.3166*** (7.45)	0.3160	0.0006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지식&기술	0.2770*** (6.21)	0.2762	0.0008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경험	0.2385*** (4.98)	0.2381	0.0004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기회 식별	0.3114*** (7.18)	0.3111	0.0003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자기효능감	0.3413*** (5.75)	0.3411	0.0002
	기업가정신 실천교육 → 긍정적 태도	0.2410** (1.80)	0.2401	0.0009
인식개선	인식개선 → 지식&기술	0.2248*** (5.37)	0.2245	0.0003
	인식개선 → 경험	0.1208*** (3.03)	0.1205	0.0003
인프라 지원	인프라 지원 → 자율성	0.1673*** (2.51)	0.1671	0.0002
	인프라 지원 → 지식&기술	0.2796*** (6.77)	0.2794	0.0002

	인프라 지원 → 경험	0.2315*** (4.98)	0.2314	0.0001
규제개선	규제개선 → 경험	0.1893*** (3.12)	0.1890	0.0003
	규제개선 → 긍정적 태도	0.2472*** (10.02)	0.2470	0.0002
기업가적 지향성 & 기업가적 의도	진취성 → 의도	0.1102*** (4.39)	0.0875	0.0227
	위험감수성 → 의도	0.1552** (1.62)	0.1320	0.0232
기업가적 역량 & 기업가적 의도	지식&기술 → 의도	0.1236*** (10.45)	0.1020	0.0216
	경험 → 의도	0.1125*** (2.45)	0.0945	0.0180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 기업가적 의도	기회 식별 → 의도	0.2046*** (3.00)	0.1752	0.0294
	자기효능감 → 의도	0.2122** (1.55)	0.1782	0.0340
	긍정적 태도 → 의도	0.2216*** (8.05)	0.1820	0.0396
기업가적 지향성 & 기업가적 행동	자율성 → 행동	0.1005*** (2.99)	0.0772	0.0233
기업가적 역량 & 기업가적 행동	지식&기술 → 행동	0.1169*** (9.19)	0.0902	0.0267
	경험 → 행동	0.1221** (1.42)	0.0885	0.0336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 기업가적 행동	기회 식별 → 행동	0.1001** (1.54)	0.0822	0.0179
	자기효능감 → 행동	0.1002** (1.21)	0.0887	0.0115
	긍정적 태도 → 행동	0.1160*** (7.26)	0.0877	0.0283
기업가적 지향성 & 외부적 요인	진취성 → 네트워크	0.1577*** (5.48)	0.1455	0.0122
	혁신성 → 네트워크	0.1548*** (5.09)	0.1411	0.0137
	혁신성 → 주관적 규범	0.1711*** (3.08)	0.1588	0.0123
	위험감수성 → 주관적 규범	0.1422*** (3.50)	0.1308	0.0114
	혁신성 → 사회적인식	0.1028*** (3.02)	0.0888	0.0140
기업가적 역량 & 외부적 요인	지식&기술 → 재정적 지원	0.1288*** (3.52)	0.1122	0.0166

	경험 → 네트워크	0.1320*** (3.82)	0.1210	0.0110
	경험 → 사회문화적 인식	0.1225** (1.90)	0.1099	0.0126
	경험 → 재정적 지원	0.1318** (1.92)	0.1198	0.0120
기회 식별,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 외부요인	기회 식별 → 네트워크	0.1321*** (3.35)	0.1192	0.0129
	자기효능감 → 네트워크	0.1249*** (2.24)	0.1101	0.0148
	긍정적 태도 → 네트워크	0.2734*** (6.66)	0.2588	0.0146
	기회 식별 → 주관적 규범	0.1194*** (5.69)	0.1008	0.0186
	자기효능감 → 주관적 규범	0.1033** (1.83)	0.0912	0.0121
	긍정적 태도 → 사회문화적 인식	0.2994*** (10.47)	0.2820	0.0174
외부적 요인 & 의도/행동	네트워크 → 의도	0.2429*** (8.86)	0.2166	0.0263
	주관적 규범 → 의도	0.3012*** (6.79)	0.2760	0.0252
	사회문화적 인식 → 의도	0.2280** (1.58)	0.1999	0.0281
	재정적 지원 → 의도	0.2319** (1.60)	0.2045	0.0274
	네트워크 → 행동	0.2110*** (2.79)	0.1827	0.0283
	재정적 지원 → 행동	0.2684*** (3.18)	0.2428	0.0256

note) *p<0.01:***, p<0.05:**, p<0.1:**

[부록3] 구성타당성 분석 결과

[표 44]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구분	변수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
기업가적 지향성	진취성	0.9123
	혁신성	0.8573
	자율성	0.8112
	위험감수성	0.8814
기업가적 역량	지식&기술	0.9112
	경험	0.8882
외부적 요인	네트워크	0.9221
	재정적 지원	0.8772
	주관적 규범	0.8644
	사회문화적 인식	0.8210

평균분산추출 값이 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아래 식의 평균분산 추출 값을 넘지 않을 때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text{평균분산추출} = \frac{(\Sigma \text{표준화추정치}^2)}{(\Sigma \text{표준화추정치}^2) + \Sigma \text{측정오차}}$$

[표 45]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1요인		2요인	상관계수	상관계수의 제곱값(Φ^2)	Φ^2 < 평균분산추출 값
진취성	↔	지식&기술	0.3342	0.1117	<
진취성	↔	경험	0.2284	0.0522	<
진취성	↔	기회 식별	0.3282	0.1077	<
진취성	↔	자기효능감	0.1185	0.0140	<
진취성	↔	긍정적 태도	0.1225	0.0150	<
진취성	↔	네트워크	0.3422	0.1171	<
진취성	↔	재정적 지원	0.2355	0.0555	<
진취성	↔	주관적 규범	0.3442	0.1185	<
진취성	↔	사회문화적 인식	0.3118	0.0972	<
혁신성	↔	지식&기술	0.3228	0.1042	<
혁신성	↔	경험	0.3182	0.1013	<
혁신성	↔	기회 식별	0.3189	0.1017	<
혁신성	↔	자기효능감	0.2841	0.0807	<

혁신성	↔	긍정적 태도	0.2899	0.0840	<
혁신성	↔	네트워크	0.2887	0.0833	<
혁신성	↔	재정적 지원	0.2445	0.0598	<
혁신성	↔	주관적 규범	0.3482	0.1212	<
혁신성	↔	사회문화적 인식	0.3333	0.1111	<
자율성	↔	지식&기술	0.3182	0.1013	<
자율성	↔	경험	0.3721	0.1385	<
자율성	↔	기회 식별	0.3422	0.1171	<
자율성	↔	자기효능감	0.3228	0.1042	<
자율성	↔	긍정적 태도	0.3912	0.1530	<
자율성	↔	네트워크	0.3725	0.1388	<
자율성	↔	재정적 지원	0.3018	0.0911	<
자율성	↔	주관적 규범	0.3022	0.0913	<
자율성	↔	사회문화적 인식	0.3822	0.1461	<
위험감수성	↔	지식&기술	0.3100	0.0961	<
위험감수성	↔	경험	0.3201	0.1025	<
위험감수성	↔	기회 식별	0.2899	0.0840	<
위험감수성	↔	자기효능감	0.2915	0.0850	<
위험감수성	↔	긍정적 태도	0.2877	0.0828	<
위험감수성	↔	네트워크	0.2999	0.0899	<
위험감수성	↔	재정적 지원	0.3158	0.0997	<
위험감수성	↔	주관적 규범	0.3332	0.1110	<
위험감수성	↔	사회문화적 인식	0.3252	0.1058	<
지식&기술	↔	기회 식별	0.4482	0.2009	<
지식&기술	↔	자기효능감	0.4228	0.1788	<
지식&기술	↔	긍정적 태도	0.4229	0.1788	<
지식&기술	↔	네트워크	0.4882	0.2383	<
지식&기술	↔	재정적 지원	0.4298	0.1847	<
지식&기술	↔	주관적 규범	0.4682	0.2192	<
지식&기술	↔	사회문화적 인식	0.4822	0.2325	<
경험	↔	기회 식별	0.4925	0.2426	<
경험	↔	자기효능감	0.5021	0.2521	<
경험	↔	긍정적 태도	0.5210	0.2714	<
경험	↔	네트워크	0.5200	0.2704	<
경험	↔	재정적 지원	0.5202	0.2706	<
경험	↔	주관적 규범	0.5300	0.2809	<
경험	↔	사회문화적 인식	0.5152	0.2654	<
기회 식별	↔	자기효능감	0.4822	0.2325	<
기회 식별	↔	긍정적 태도	0.5242	0.2748	<
기회 식별	↔	네트워크	0.4992	0.2492	<
기회 식별	↔	재정적 지원	0.4982	0.2482	<
기회 식별	↔	주관적 규범	0.4822	0.2325	<
기회 식별	↔	사회문화적 인식	0.5284	0.2792	<
자기효능감	↔	긍정적 태도	0.3824	0.1462	<
자기효능감	↔	네트워크	0.3228	0.1042	<
자기효능감	↔	재정적 지원	0.3102	0.0962	<
자기효능감	↔	주관적 규범	0.3082	0.0950	<
자기효능감	↔	사회문화적 인식	0.3115	0.0970	<

Abstract

A Study on the Mechanism between Entrepreneurship Education Policies and Entrepreneurial Activities

You, Jae Eu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of 2023,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n South Korea stands at an average of about 6%, which is still higher than the overall unemployment rate of 2.6%. In addition, as the number of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among young people is at an all-time high, the outlook for the youth employment market is still dark(KOSIS, 2023a). To address this issue,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aimed at reducing youth unemployment and facilitating access to high-quality jobs. However, despite the increase in budget for entrepreneurship-related policies, significant

change has not been seen in the growth rate of start-up companies, and the job creation effect has been minimal. Many critics have pointed out that most of the start-up support policies are one-sided and repetitive, with overlapping support from multiple government agencies leading to indiscriminate duplication of various elements of the programs. Moreover, start-up funding is often confined to short-term performance-oriented policies, resulting in less effective outcom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it is crucial to move away from simplistic and repetitive start-up policies and focus on promot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 a prerequisite for effective start-up support. Entrepreneurship encompasses various aspects and is intricately intertwined throughout different fields, making it subject to diverse and complex definitions and implementations. Thus, to resolve these issues, implementation of policies aimed at fostering a culture of entrepreneurship with prior education and providing effective support to genuine entrepreneurs should be a key approach.

In this study, entrepreneurship is defined a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goes beyond simply explaining entrepreneurship spirit based solely o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t considers the process of opportunity-seeking, outcomes of creating something new, opportunity identification, and entrepreneurial capabilities in the context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start-ups). Namely,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s viewed as a concept encompassing initiatives, innovation, autonomy, and risk-taking, which are all considered internal factors. Beside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ther internal factors such as entrepreneurial competence (knowledge, skills, experience, etc.), opportunities, self-efficacy, and positive attitudes are

also examined as they contribute to the connection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behaviors, leading in turn to entrepreneurial activities. Ultimately, the goal is to examine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entrepreneurial education policy can enhance internal factors in entrepreneurship and eliminate external impediments, thereby facilitating the smooth realization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behaviors.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entrepreneurial education policies influence internal factors of entrepreneurship, amplify them, and mitigate external obstacles, thereby facilitating entrepreneurial activities. It particularly explores the challenges faced in connecting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o entrepreneurial behavior even after entrepreneurship education has enhanced entrepreneurship. If various external obstacles such as requirements of networking and financial support, subjective norms, and socio-cultural perceptions come into play, these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smooth progress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Considering the potential negative effects of such external barriers, there arises a need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to eliminate these obstacles and explore the practical effects of entrepreneurial practice on the progress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 this study, we aim to define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olicies and examine the changes in internal factors in entrepreneurship resulting from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olicies. Furthermore, it is intended to highlight the fact that, despite the enhancemen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orientation, there are still difficulties experienced in progressing towards entrepreneurial activities due to external factors.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insights for improving entrepreneurship-related policies by recognizing and considering external factors in the implementa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olicies, thus facilitating the realization of effective policies by means of mechanism analysis.

To achieve this goal, this work establishes a Theory of Change (ToC) model(framework)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studies, demonstrating the process through which entrepreneurship education policies lead to the enhancement of entrepreneurship and ultimately connect to entrepreneurial behaviors and start-ups. Next, this thesis studies the external obstacles that may hinder the smooth flow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and explore practical engagement-oriented education activities (such as networking, mentoring, internships, and speeches by successful entrepreneurs) that can facilitate the transition from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to actions. By analyzing the structural mechanics of these processes, the aim is to confirm how entrepreneurship practice education can effectively support the smooth progression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Therefore, this research examines the complex and intertwined factors and relationships that affect entrepreneurship education policies and their impact on the enhancement of entrepreneurship, as well as how external support leads to successful entrepreneurial activities. To accomplish this, Chapter 2 provides a theoretical framework by adopting the Theory of Change (ToC), which enable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subsequent entrepreneurial behaviors.

Next, in Chapter 3, there is a discussion of applicable analysis

methods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mechanism's connections based on the presented framework using the Theory of Change (ToC). Subsequently, Chapters 4 and 5 demonstrate how entrepreneurship education policies impact entrepreneurial activities through the mechanism identified. The study goes on to explore the effects of external factors that can further enhance entrepreneurial activities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uch as 'Thematic analysis',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including 'Path analysis' and 'Moderation effect analysis'. Through use of these analytical tools, this thesis aims to validate the mechanism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entrepreneurship practice that can enhance entrepreneurial activities.

Based on such thematic qualitat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olicies on entrepreneurial activities and quantitative analyses such as path analysis and moderation effect analysis, this thesis confirms that entrepreneurship practice is more effective than other entrepreneurship-oriented policies. Furthermore, it establishes that external factors play a significant role in influencing entrepreneurial activities. Therefore, it is crucial for government policies and strategies to support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xternal factors to facilitate successful entrepreneurial activities.

keywords : entrepreneurship education policies, entrepreneurial practice educati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orientation, entrepreneurial competence, external obstacles, entrepreneurial activities, mechanism.

Student Number : 2018-30742